

2017 그리스도인의 영화이야기

기독교복음사역원

메시지사역장 손 영

2017 그리스도인의 영화이야기

1. "눈의 여왕3:눈과 불의 마법대결"(The Snow Queen 3: Fire and Ice)
2. "더 킹"The King
3. "공조"Confidential Assignment
4. "모아나"MOANA
5. "조작된 도시"Fabricated City
6. "재심"
7. "루시드 드림"Lucid Dream
8. "눈길"Snowy Road
9. "해빙"Bluebeard
10. "23 아이덴티티"Split
11. "콩:스컬 아일랜드"Kong: Skull Island
12. "프리즌"THE PRISON
13. "보통사람"Ordinary Person
14. "원라인"ONE-LINE
15. "패트리엇 데이"Patriots Day
16. "특별시민"The Mayor
17. "임금님의 사건수첩"The King's Case Note
18. "보안관"The Sheriff In Town
19. "에이리언:커버넌트"Alien: Covenant
20.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21. "겟 아웃"Get Out
22. "대립군"WARRIORS OF THE DAWN
23. "악녀"The Villainess
24. "하루"A Day
25. "다크 하우스"Abattoir
26. "박열"Anarchist from Colony
27. "리얼"REAL
28. "스파이더맨:홈커밍"Spider-Man: Homecoming
29. "덩케르크"Dunkirk
30. "군함도"The Battleship Island
31. "택시운전사"A Taxi Driver
32. "예수는 역사다"The Case for Christ
33. "청년경찰"Midnight Runners
34. "장산범"The Mimic
35. "브이아이피"VIP

36. "살인자의 기억법"MEMOIR OF A MURDERER
37. "아이 캔 스피크"I Can Speak
38. "남한산성"The Fortress
39. "범죄도시"
40. "미옥"A Special Lady
41. "7호실"Room No.7
42. "꾼"The Swindlers
43. "기억의 밤"Forgotten
44. "강철비"STEEL RAIN
45. "신과함께-죄와벌"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46. "1987": When the Day Comes

1. "눈의 여왕3:눈과 불의 마법대결"(The Snow Queen 3: Fire and Ice)

러시아영화, 장르:애니메이션,어드벤처,판타지 개봉:2017.01.04.

감독:알렉세이 트시칠린(Alexey Tsitsilin),

각본: 안드레이 코렌코프(Andrey Korenkov),로버트 렌스(Robert Lence),블라디미르 니콜라예프(Vladimir Nikolaev),알렉세이 트시칠린(Alexey Tsitsilin),알렉세이 자미슬로프(Aleksey Zamyslov)

제작:유리 모스크빈(Yuriy Moskvina),

블라디미르 니콜라예프(Vladimir Nikolaev)

주연:겔다(박지윤성우역),올름(엄상현성우역),로렌(남도형성우역),눈의여왕3(박상훈성우역),카이(이재범성우역)

관객:367,463명(2017.02.09.현재)

눈의 여왕은 세계적인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명작동화 "눈의 여왕"을 모티브로 제작된 것이다. 아주 먼 옛날, 사람들은 세상의 끝에 일년 365일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는 얼음궁전이 있다고 믿고 있다. 그 궁전에는 아름답고 우아하며 한없이 냉정한 마음을 가진 눈의 여왕이 살고 있었다. 눈의 여왕의 마법에 걸린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며 얼음 동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마법에 걸린 눈의 여왕으로 부터 해방시키는 한가지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 한 방울"이었다. 눈의 여왕 시리즈는 매회 새로운 캐릭터와 함께 어드벤처와 챌린저로 이어지는 액션 애니메이션으로 전 세계 크리스마스 박스 오피스를 장악하고 있다.

1. "눈의 여왕1"(2013.02.07.)

감독:블라드 바르베,막심 스베시니코프

눈의 여왕은 선하지 않은 눈의 여왕이 내린 저주로 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나선 "겔다"의 환상적인 모험과 도전을 그려낸 것이다. 눈의 여왕의 저주로 인하여 세상이 온통 얼어 버렸다. 눈의 여왕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마법거울을 가진 소녀 "겔다"를 두려워한 눈의 여왕은 그녀의 동생 "카이"를 얼음 궁전에 가두어 버린다. 하나밖에 없는 동생 "카이"를 구출해 내기 위해 "트롤"과 함께 "아이스 원정대"를 조직하고 환상적인 모험을 시작한다. 트롤의 개그잔치와 함께 펼쳐지는 눈썰매는 눈의 여왕을 찾아 나서는 모험의 위기같은 상황이 연출된다. 긴 코와 밑으로 쳐져 내린 두 귀를 가진 트롤은 눈의 여왕의 부하로 아이스 원정대 대원이 되었지만 겔다의 온정과 정의에 반하여 눈의 여왕과 맞서는 선한 재탄생을 맞이 한다. 아이스 원정대가 맞이하는 눈의 왕국에는 얼음만이 존재할까? 그렇지 않다. 4계절의 정원에는 꽃들이 만발하다. 허당짓을 하며 겔다를 위험에 빠뜨리는 허당나라 왕은 용감하고 온정어린 겔다의 도움으로 불타는 허당왕국을 구해 낸다. 허당왕국을 변

화시키며 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겔다와 원정대가 눈의 여왕이 있는 나라로 진격해 들어가는 순간 해적선을 만난다. 가까스로 빠져나온 아이스 원정대는 비밀을 간직한 요술할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곳을 넘어서며 기상천외한 스토리로 전개되는 겔다의 아이스 원정대는 결국 눈의 여왕과 정면으로 격돌하게 된다.

눈의 여왕은 어떤 존재일까?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악녀였을까? 눈의 여왕은 원래 “이르마”라는 이름의 작은 소녀였다. 그녀에겐 보통의 아이와는 다른 재주가 있었는데 손끝만 스쳐도 잡초에서 꽃이 피어나는 마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보통사람보다 똑똑하고 천재 마법사라는 단지 그 하나의 이유로 왕따를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기적이고 악한 인간들에 의해 상처를 받은 이르마는 결국 심장이 얼음처럼 냉담해져서 모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온 세상을 얼려 버리는 사악한 마녀 “눈의 여왕”으로 재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사랑을 가진 소녀 겔다에게 악함은 결코 무기력하다. 겔다는 우정과 사랑의 힘이 어떤 것인지를 눈의 여왕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 눈의 여왕은 결코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채 패배의 길에 선다. 동생 카이를 무사히 구출한 겔다와 카이는 여전히 부모를 찾지 못했지만 두사람의 혈육의 정은 더욱 더 깊어 간다.

2. “눈의 여왕2:트롤의 마법거울”(The Snow Queen2, 2014)(2014.12.24.)

감독:알렉세이 트시칠린

눈의 여왕을 제거한 “겔다”를 뒤로하고 자유를 찾은 트롤왕국, “올름”은 자신이 직접 눈의 여왕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올름의 거짓말에 속은 트롤왕국의 왕은 자신의 딸이자 공주인 “매리벨”을 올름과 혼인하도록 주선한다. 그러나 거짓말은 새로운 거짓말을 확대 재생산하며 이 과정에서 악당 “스노우 킹”의 부활을 가져온다. 북풍을 통하여 매리벨을 납치하는데 성공한 스노우 킹은 트롤왕국을 장악하려 한다. 거짓 과장으로 위기에 내몰린 올름은 기사 “애로그”와 함께 신비한 모험을 떠난다. 올름과 “트롤기사단”이 찾아 나선 여정에는 눈보라치는 바다와 검은 얼음 협곡, 그리고 보석광산 등 환타지가 등장한다. 보석광산에서 마차에 실은 보석더미로 인해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올름의 롤러코스트는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사실과 다르게 흥물처럼 비춰주는 마법의 거울은 얼음성에 사는 눈의 여왕을 자극한다. 겔다와 카이의 우정속에서 카이는 언제나 위기에 처하고 카이를 구하기 위한 겔다의 모험은 신비 그 자체이다. 거짓말로 현혹한 왕코 올름으로 인하여 트롤왕국에 위기가 찾아 오지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의 축배를 드는 것 또한 올름의 몫이다. 겔다와 올름의 관계는 복잡미묘하게 이어지지만 이들의 우정은 용서와 화해라는 새로운 모험의 길로 향하며 막을 내린다.

3. “눈의 여왕3:눈과 불의 마법대결”(The Snow Queen 3: Fire and Ice)

눈의 여왕을 제거한 겔다와 카이 남매는 전설로 전해져 오는 “소원의 돌”을 찾으려 하지만 카이는 겔다와 의견다툼으로 길을 떠난다. 우연하게 알게된 천방지축 말괄량이 “로렌”을 만난 겔다는 그와 함께 금지된 동굴을 찾아 나선다. 트롤의 마을에는 길을 알려줄 도서관이 있고 카이가 배를 타고 나가버린 후 겔다는 로렌과 함께 도서관을 찾아 길을 알게 된다. 금지된 동굴에 도착한 겔다와 로렌이 소원의 돌앞에서 소원을 빌고 있을 때 영원히 잠들어 있어야 할 눈의 여왕과 새롭게 등장하는 불의 마왕까지 부활시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다. 문제는 알 수 없는 돌의 저주로 인하여 눈의 여왕과 불의 마왕의 영혼이 겔다와 로렌의 몸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서 두사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눈”과 “불”, 서로 상극인 겔다와 로렌의 사랑과 우정은 영원히 변함이 없을까? 이들 사이에는 “눈꽃요정”과 “석탄요정”이 등장하며 모험을 더욱 더 생동감있게 펼쳐 나간다. 카이는 “루타”와 함께 새로운 항해를 준비중이고 올름은 명실상부한 존재감으로 겔다의 승리에 일조하는 역할을 한다.

언제나 처럼 “겔다”는 지혜와 용맹을 지닌 순발력이 뛰어난 주인공이다. 부모님을 찾기 위해 나선 금지구역의 돌이 눈의 여왕과 불의 마왕까지 부활시킬 것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 그러나 언제나 침착하게 지혜를 구하는 겔다의 생각속에는 희망이 있다. 불을 이기는 것은 “물”, 거대한 불의 마왕을 호수에 빠뜨리는 재치로 위험한 모험은 순식간에 끝이 난다.

“로렌”, 트롤왕국을 공포로 몰아넣는 해적앞에서도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어린 소년 로렌은 어린 시절 엄마를 잃어버린 가슴 아픈 상처가 있다. 동일한 상처를 지닌 겔다와 친구가 되면서 함께 소원의 돌을 찾게 되지만 뜻하지 않게 불의 마왕으로 재탄생 한다. 어느 순간 뜻하지 않은 힘을 가진 로렌은 욕심이 조금씩 상승하고 끝내 불의 마왕으로 업그레이드 되며 트롤왕국을 위험에 빠뜨리지만 결국 겔다에 의해 불의 마왕은 호수에 빠지며 끝을 맺는다.

“카이”, 겔다의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카이는 누나와 다툼을 일으키는 철없는 아이지만 혈육의 정은 누구보다도 강하다. 겔다에게 새로운 남자 친구가 생겨났지만 카이는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채 독립의 길을 떠난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겔다가 불의 마왕의 부활로 위기에 봉착하자 누나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곡예를 시작한다. 불의 마왕으로 인하여 불화산이 폭발하고 화산에서 흐르는 화마가 도시를 삼키려 하며 겔다가 위험에 직면했을 때 카이는 화염속에 갇혀있는 누나를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올름”, 눈의 여왕 2탄에서 주인공으로 재탄생한 올름은 이제 트롤왕국의 위대한 기사로 등장한다. 겔다와 카이가 만난 또 하나의 가족인 동시에 절친이다. 소원의 돌의 저주를 풀기 위해 금지된 동굴로 직접 들어가 한없는 우정을 과시한다. 올름은 겔다의 영원한 드림팀으로 언제나 이들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든든한 친구이다.

“루타”와 “아기트롤”, 그리고 “눈꽃요정”과 “석탄요정”, 불의 마왕의 공격에 정면으로 충돌하며 맞서는 용사같은 귀요미 루타는 역시 카이의 절친이다. 작지만 강한 힘을 보여주는 아기트롤, 영화속 귀여운 요정들의 우정과 매력은 눈의 여왕 3탄이 해피엔딩으로 종식될 것이라는 희망을 준다.

눈과 불, 서로 상극하며 충돌할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무한한 사랑이 있다. 사랑은 교만함과 불의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재탄생하게 하는 선함이 존재한다. 1탄에서 눈의 여왕의 부하였던 올름이 2탄에서는 주인공으로 재탄생한다. 천방지축 날뛰며 불의 마왕을 뒤집어 쓴 로렌 또한 한때 불의 마왕으로 끝없는 욕망에 불타 올랐지만 겔다의 사랑으로 선함으로 재탄생하는 기회를 갖는다.

그리스도인은 눈의 여왕에서 무엇을 보고 있어야 할까? 한낱 소녀에 지나지 않지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소유한 “겔다”, 그녀를 통하여 선하게 변해가는 사람들은 다시 악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누군가는 사랑을 뿌린다. 그 사랑의 씨앗은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악을 이기며 선의 나라를 세운다. 그리스도인은 겔다와 같은 선한 영향력을 가져야 한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가 가는곳에서는 선함이 승리하여야 하고 사랑으로 자비와 은혜를 드러내어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진정한 의미의 삶인 것이다.

2. “더 킹”The King

한국영화, 장르:범죄,액션 개봉:2017.01.18.

감독,각본:한재림, 제작:우주필름

주연:조인성,정우성,배성우,류준열, 관객:5,316,016명(2017.03.23.현재)

더 킹은 박태수의 인생 이야기다. 바닥 인생에서 성공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1부로, 성공의 라인에서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기까지의 과정을 2부로, 그리고 그 바닥의 끝에서 다시 성공의 길에 서기까지를 3부로 그려낸 다큐멘터리 형식의 액션 영화다. 박태수의 눈으로 바라보는 권력가와 바닥의 맨얼굴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것이 이 영화가 갖는 매력이기도 하다.

전라남도 목포, 끝동네 양아치 “박명훈”(정성모역)의 아들로 태어난 “박태수”(조인성역)는 학창시절 학교 통으로서 공부와는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 자신의 미래와 관련한 한가지 생각에 사로잡혀 공부에 골몰해 보지만 뜻대로 이루어 지지 않는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만의 독특한 공부방식이 있었고 그것은 그대로 적중하였다. 한날 건달의 아들로서 양아치의 인생을 살 수도 있었던 태수는 서울대학교 법대에 입학하고 사법고시에도 당당히 합격하는 승승장구의 인생을 걸어가고 있다.

하루에도 30건의 사건사고를 처리해야 하는 검사실은 그야말로 상상외의 업무가 폭주한다. 허울좋은 3D직업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시간에 쫓기는 생활이 거듭된다. 미모의 재벌가 딸과의 혼인은 드라마틱하다. 주차장같은 도로에서 일어난 우연한 접촉사고에서 태수와 “임상희”(김아중역)는 그렇게 스치듯 만난다. 길을 막고 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교통사고의 처리 과정에서 상희는 그들에게 길을 비켜라고 당당하게 맞서고 여자라고 깔보는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통쾌한 장면에서 태수의 눈길을 끌었다. 이것이 인연이 되어 둘은 맞선을 보는 자리에서 결혼까지 초스피드로 이어간다.

“지민”(신류진역)의 성폭행 사건 배후에는 재벌가의 아들이며 교사인 “최민석”(최귀화역)이 있다. 우연히 알게 된 이 사건의 처리과정에 의구심을 가진 태수는 사건의 배후를 쫓아 사건을 재조사 한다. 그리고 그에게 징벌성 댓가를 지불하기 위한 계획이 진행되는 순간, 그를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다. “양동철”(배성우역) 검사다. 그의 윗선에는 “한강식”(정우성역) 중앙지검 전략부장이 있다. 바로 “킹”(KING)이다. 양동석 선배검사는 태수에게 지민 사건을 덮어 줄 것을 요구한다. 가장 강력한 고수들의 집합체인 전략부와 전략부의 판도라 상자를 보여주며 킹의 라인에 서라고 유혹하였다. 당대 최고의 배우 “차미련”(이주연역)과 양동석 검사의 성관계 비디오

테이프를 바라보는 태수는 전략부의 강한 유혹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500만원으로 합의를 했던 지민이의 어머니(소희정역)의 손에는 5천만원짜리 수표 하나가 쥐여지고 이 사건은 그대로 묻혀 버린다.

전략부 검사로 입성한 태수는 양동석과 함께 시내 중심가의 호텔 펜트하우스로 올라간다. 화려한 검사 세계 가운데 더 킹의 자리는 상류층 귀족들의 로마욕탕과 같이 베일에 가려져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미녀군단을 거느리고 있는 더 킹은 누구인가?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 검사이자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전략부장인 한강식이다. 알려진 검사의 정직성과 동떨어진 세상에 어울리지 않았던 태수는 한강식 앞에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것은 지민이 사건의 핵심 범죄자인 최민석이 이 그룹의 일원이라는 것에 분개를 한 것이다. 그러나 한강식검사는 태수를 자리에 앉히고 그를 자신의 충견으로 키워 나간다.

태수와 최민석이 길에 서 있다. 범죄자와 한 길에 서게 된 태수의 착잡한 심경을 몰랐던 최민석이 그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다. 태수는 최민석을 폭행하는 순간 어디선가 한 사람이 나타나 그를 대신하여 최민석을 고자로 만들어 버린다. 고교시절 친구인 "최두일"(류준열역)이다. 목포파 "김응수"(김의성역)의 행동대장으로 서울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들의 백 그라운드엔 한강식 전략부장이 있지만 태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목포파는 배신자에 대한 댓가가 처절하다. 개가 좋아하는 물질을 배신자의 몸에 뿌리고 굶주린 사냥개들을 풀어준다. 사냥개들은 미친듯이 살점을 뜯어내며 뺏조각까지 먹어 치운다.

한강식은 강력한 검사장 후보군이다. 그는 "검사장"(정인기역)의 자리를 노리며 그를 지검장으로 올려 놓기 위해 고군분투중이다. 최고의 지성답지 않은 아이러니는 이들도 미래를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점집을 찾아 차기 대권은 누가 차지할 것인지를 알고자 한다. 수많은 복비를 낸 댓가는 적중했다. 정치검사들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그 위상이 달라진다. 밀린 쪽은 그대로 웃을 벗거나 지방한 직으로 물러나야 한다.

재벌가의 딸이며 엘리트 미녀인 임상희의 남편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태수에게 "전희성"(황승언역)이라는 내연녀가 있다. 이들과의 관계를 알게 된 임상희는 태수의 짐을 끌고 검찰청에 나타나 이혼을 요구한다. 임상희는 태수의 능력으로 새벽 6시 뉴스에서 저녁 6시 뉴스 메인 앵커로 부활했지만 여자 관계만은 용서할수 없는 한계점이었다. 태수의 아버지 박명훈은 부동산 투기에 골몰해 있다. 태수의 여동생 "박시연"(정은채역)도 마찬가지로 태수를 등에 업고 온갖 투기와 범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한강식은 김응수와 연결되어 있고, 태수는 김응수의 부하 두일과 손잡으며 아슬한 곡예를 하고 있다. 한강식은 태수에게 두일을 충견 이상의 관계로 키

우지 마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태수는 정에 이끌려 주저한다. 두일은 태수의 아킬레스건이었던 지민의 가해자에게 응당한 복수를 해 주었다. 그 댓가로 징역을 살았고, 두사람의 관계는 복잡미묘하게 얽혀 간다.

두일은 태수를 등에 업고 서울의 밤을 장악하고 있다. 목포파 김응수는 이러한 두일의 브레이크 없는 독주를 막지 않았고, 그가 내려 보내는 빈 가방에도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인내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킹의 라인에서 직접 킹이 되고 싶었을까? 태수의 마음에는 어느덧 과욕이 있었다. 모든 결과는 과욕에서 일어난다. 그 과욕의 시작점에는 언제나 그들을 쫓는 감사팀이 있다. “안희연”(김소진역) 검사, 그녀는 검찰청 내 비리 조사팀원으로 한강식의 라인을 조사하며 이들의 배후에 목포파가 있음을 확인한다.

시간은 흐르고 또 다시 대선이 다가왔다. 이번 대선에서 라인을 잘 잡는다면 한강식은 검사장의 위치에 오르고 검찰청장까지 순탄대로를 달려갈수 있었다. 점집을 찾은 한강식과 그 일원은 비싼 댓가를 지불하며 다시한번 승부수를 띄웠지만 이번에는 팔쥐의 동아줄을 잡은 꼴이 되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

송충이는 술요을 먹고 살아야 하는 법, 결국 태수는 아버지의 범법행위로 말미암아 지방 한직으로 좌천되고 노숙자처럼 살아가고 있다. 꼬리 자르기에 태수가 발목이 잡힌 것이다. 정치적으로 매우 순진했던 태수는 잠시 지방에 머물다가 다시 입성하게 될 줄 알았지만 모든 것은 물거품에 불과했다. 그는 이제 검사직을 그만 두어야만 했다. 그 댓가로 아버지는 석방되었다. 태수의 아버지는 태수에게 언제나 걸림돌 같은 존재였다. 목포의 뒷골목에서 뱀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조강지처를 버리고 외도를 이어갔고 그의 삶은 내내 범법자의 길이었다.

두일이 감옥에서 출옥하였을 때 태수는 두일을 찾지 않았다. 심지어 태수는 두일의 마지막 남은 비자금마저 목포파 김응수에게 되갚다 주었다. 두일의 목숨값이었다. 태수가 갚다준 돈으로 말미암아 두일은 감옥에서 안전한 생활을 보낼수 있었다. 태수가 아니었다면 두일은 감옥에서 의문사로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두일이 감옥에서 나왔을때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단지 두일은 자신의 돈을 태수가 먹어 버린 것이라는 생각에 증오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친구는 친구다 두일은 한강식이 목포파 김응수와 함께 태수를 죽이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것을 제지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태수가 지방 한 직에서 머무는 동안 한번도 찾지 않았던 선배 양동철 검사를 찾아 서울로 올라갔다. 양동철 검사는 매우 당황한 기색으로 태수를 질책했고 옷을 벗고 변호사로 나가라는 폭언을 서슴치 않는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게 되던

비오는 날 밤, 한강식과 양동철이 태수의 집을 찾았다. 술 한잔 하자며 그를 차에 태우며 어디론가 향했다. 안동 하회탈이 웃는 이유를 나누며 야간 도로를 질주할 때 어디선가 나타난 차량 한 대가 이들의 차를 덮쳤다. 한강식과 양동철과 태수는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실려 갔지만 한강식과 양동철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 버렸다. 두일의 행동이었다. 두일은 왜 그랬을까? 친구로서 자신을 배신한 태수지만 그래도 친구에 대한 의리는 지키고 싶었던 것이다. 동병상련, 우리는 태수와 두일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된다.

두일은 태수의 목숨을 구하고 슈트를 산다. 그리고 김응수를 찾는다. 두일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가장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며 삶의 종지부를 찍는다. 두일의 이러한 죽음은 먼 훗날이 되어서야 태수에게 전해진다. 이미 태수가 검사직을 그만둔 후 였다.

진짜 킹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검사직을 그만 두고 변호사직을 개업한 태수는 한직으로 밀려난 안희연 검사를 찾는다. 때늦은 후회가 남지만 가장 늦었을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다. 이미 검찰직에서 쫓겨난 안희연 검사는 태수의 제안에 촉을 세우고 게임에 뛰어 든다. 두일의 부하들이 검찰청에 불러나와 태수에게 하는 말은 충격적이다. 한강식과 양동철이 태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미리 눈치 챈 두일이 태수를 살리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스스로는 죽음을 맞이했다는 증언에 증오심을 불태운다.

태수와 안희연 검사팀은 목포파 김응수와 한강식의 밀착관계를 포착하고 유리술잔처럼 아슬하게 쌓여있는 킹의 중심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화려한 권력지대에는 언제나 부패한 돈과 여자가 공존해 있다. 하나씩 검찰청에 불러 다니고 양동철은 지방 한직으로 밀린뒤 음란사진 촬영범으로 체포되어 치졸한 삶의 끝자락을 보여 주었다. 전남지역 최대 폭력조직으로 권력가와 손을 잡았던 김응수도 감옥으로 가고 더 킹으로 군림하며 제왕을 꿈꾸던 한강식도 목숨을 구걸하는 비굴한 민낯을 드러내어야 했다.

한때 상희와의 이혼위기에 내몰렸던 태수는 상희와 다시한번의 기회를 맞는다. 밀바닥에서 킹의 라인까지 올라갔다가 급락한 태수는 이제 권력의 라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킹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그는 당의 강력한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고 있다.

영화는 끝이 났다. 태수의 눈으로 바라본 자신의 인생이다. 밀바닥에서 상류층까지 경험한 그의 인생은 스크린처럼 이어져 간다. 태수에게는 두 번의 시작이 있었다. 첫 번째는 태수의 "담임선생님"(성동일역)이다. 그의 훈시속에서 바라본 두명

의 학구파가 스스로를 깨웠다. 그리고 그는 서울대학교 법학에 입학하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였다. 두 번째는 지민이다. 성폭행을 당한 여고생의 가해자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태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물론 그때도 여전히 한직으로 밀려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이처럼 부패한 일상은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가짜 킹을 만난 후 그는 진짜 킹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바라 보았을까? 물질과 권력의 매혹적인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진정한 왕(KING, JESUS)을 섬긴다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며 돈의 라인(Money-Line)을 타고 있다면 언젠가 박태수의 길을 만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왕을 섬긴다는 것, 세상을 등지고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영원의 개념에서 보았을때에 이보다 쉬운일도 없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남겨 주었다. 지뢰밭으로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 가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기도 하다. 삶은 늘 두 갈래길로 나뉜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어느 하나를 선택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다른 길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다.

3. “공조”Confidential Assignment

한국영화, 장르:액션 개봉:2017.01.18.

감독:김성훈, 각본:윤현호,황조운,윤제균,박수진,강대규, 제작:JK필름

주연:현빈,유해진,김주혁, 관객:7,817,469명(2017.03.23.현재)

북한 인민보안부 평양12지구 수사대 특수과 소좌인 “림철령”(현빈역)은 정예 특수부대 출신으로 극비리에 제작 보관중인 위조지폐 동판을 탈취하려는 내부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잠복 근무중이다. 작전 수행중 자신의 아내 “화령”(신현빈역)이 주먹밥을 만들어 찾아 왔고, 때마침 위폐동판 탈취음모가 진행됨을 알리는 신호가 들렸다. 인민보안부의 대기지시를 어기고 작전수행을 위해 들어간 림철령은 내부의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하지만 이미 늦었다. 북한내부 범죄조직의 리더 “차기성”(김주혁역)이 밖에서 대기중인 림철령의 아내를 인질로 잡고 들어와 림철령과 그의 수하들의 무장해제를 지시한다. 자신의 아내가 인질로 잡히게 되자 림철령은 체념한 듯 무장해제를 지시한다. 위폐동판을 입수한 차기성은 그 자리에서 림철령의 아내를 사살하고 자신의 수하인 “성강”(공정환역)에게 지시하며 수류탄을 날린다. 자신의 눈앞에서 아내와 동료들을 잃은 림철령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지지만 인민보안부에 끌려가 온갖 고문을 겪어야 했다.

인민보안부 “원형술”(전국환역)대장은 1주일 후에 개최되는 “남북장관급회담”에 림철령을 동행하여 남북공조수사를 통해 북한 범죄조직 수괴인 차기성을 체포하기로 한다. 북한 당국자의 목표지점은 위폐동판 확보였고, 림철령의 목표는 차기성의 목숨이라는 두 개의 양날을 가지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 강력반 형사 “강진태”(유해진역)는 위장수사 전문으로 눈앞의 용의자 검거 실패등 각종 수사의 난항으로 3개월 정직 처분중에 있었다. 행동보다는 말이 앞서고 범인 체포에 앞서서 설득을 하려는 보통사람과 같은 이미지를 가진 강진태 형사는 아내에게 잡혀 사는 애처가이다. 강진태는 여왕같은 아내 “박소연”(장영남역)과 백수 처제 “박민영”(임윤아역),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매일매일 조르는 딸 “강연아”(박민하역)와 함께 사는 대한민국의 가장 보편적인 아버지다.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다. 매사에 허술해 보이고 허점이 많아 보이지만 후배의 실수로 인하여 자신의 정직처분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 줄줄 알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의리를 지키는 강진태 형사는 “표반장”(이해영역)과 “국정원 간부”(박형수역)의 지시에 따라 3일동안 북한 형사 림철령을 밀착감시하는 공조 수사관으로 발탁된다.

철저하게 훈련된 기술과 스피드한 능력, 강한 집중력과 폭발적인 파워력을 가진 북한 수사관 림철령, 세월속에 지친 몸과 마음, 입담과 어슬픈 제스처, 느긋한 관전자적 자세로 뭉친 강진태 형사, 두사람의 만남은 남북대결의 양상처럼 두뇌싸움으로 시작된다. 위폐 동판과 차기성,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는 림철령과 두가지 모든 것을 공조하는 척 하지만 다 막으려는 강진태 형사의 두 갈래 길은 어긋나기 마련이다.

차기성의 수하이자 연락책 “박명호”(이동휘역)를 잡기 위해 서울 한복판으로 뛰어든 림철령과 강진태는 밀리는 도로위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다혈질의 림철령이 차에서 내려 고가도로 아래로 뛰어 내리며 어디론가 사라지고 강진태는 그의 뒤를 경찰들에게 알리며 위치 추적에 나선다. 서울의 지리에 밝은 강진태가 림철령보다 앞서서 도착하지만 박명호를 발견한건 한발늦은 림철령이다. 박명호의 뒤를 쫓아 택시를 잡은 림철령이 그를 쫓아 가고 강진태는 언제나 뒷걸음질치며 경찰의 지원속에 어김없이 찾아간다.

박명호를 추적하던 중 조직폭력배들의 은신처와 같은 곳에서 림철령과 강진태는 그들과 충돌하게 된다. 강진태가 그들의 수상한 움직임에 분노하며 총을 빼내는 순간 조폭에게 총을 빼앗기고 어슬픈 동작속에 오히려 조폭에게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이 장면을 지켜 보던 림철령이 순식간에 이들을 제압하며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한다. 이것으로 두사람의 관계는 친밀해 지고 강진태는 림철령을 집으로 초대한다. 강진태의 아내는 낯선 사람의 등장을 못내 못마땅해 하고 범상한 포즈와 매력에 빠진 백수처제 박민영은 림철령에게 첫 눈에 반해 버린다. 어딘가 낯설어 보이는 가족의 행복한 일상에서 림철령은 자신의 아내를 생각해 본다. 림철령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강진태는 그의 옷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칩을 인식하지만 림철령은 나와서 다시 칩을 변경해 버린다. 어딘가 아마추어같은 느낌을 주는 강진태와 한점의 실수도 발견할 수 없는 림철령의 모습은 이것이 통제속의 북한과 자유속의 남한이 가지는 특수성임을 말해주는 듯 하다.

박명호의 동선을 다시 추적한 림철령은 박명호와의 쫓고 쫓기는 액션을 보여준다. 스카이라인을 그리며 차 천정위로 떨어지는 장면은 그야말로 강력한 액션이다. 차량질주를 하며 쫓는자와 쫓기는 자의 추격전은 그야말로 스피드의 대결이다. 박명호가 탈취한 차량에 매달린 상황속에서도 진돗개처럼 먹이감을 놓지 않는 림철령의 지독한 차량쫓은 손에 땀을 쥐게 한다. 그러나 서울지리에 익숙한 박명호와 서울지리에 익숙하지 못한 림철령의 추격전은 일단 박명호의 승리로 끝났다. 박명호는 차기성을 찾아가 림철령이 남북공조사건으로 서울에 내려와 차기성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다.

강진태가 그의 은신처를 찾았을 때 그곳에는 성강도 함께 있었다. 림철령과 강진태가 2층에서 그들의 조직원들과 충돌할때에 박명호는 성강과 함께 있었다. 이를 지켜보던 림철령이 1층으로 내려간 사이 조폭들은 강진태를 공격하며 육탄전을 벌이고 있다. 자로 켜 듯이 날렵하게 상대방을 일시에 제압하던 림철령과는 달리 어딘가 어슬프고 우스꽝스러운 장면들이지만 각종 소품들을 이용하며 상대방을 제압해 가는 강진태의 활약 또한 대한민국 경찰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같은 시간, 림철령이 1층으로 뛰어 내려 갔으나 그때 이미 성강이 박명호를 사살한 다음이었다. 박명호는 양아치처럼 살아가지만 자유주의의 물을 마셔버린 상태로 이제 차기성으로부터 독립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조직의 배신자로 여긴 차기성은 성강을 시켜 일시에 제거해 버린 것이다. 박명호의 죽음을 목격한 림철령과 성강의 혈투는 그야말로 일촉즉발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들의 1차전은 성강의 판정승으로 끝이 났다. 경찰차가 와서 이들의 싸움을 말린 꼴이 된 것이다.

불신과 신의가 교차하는 시간속에서 두사람의 정은 깊어만 간다. 림철령을 사랑하는 박민영과 강진태 형사의 가족애를 바라보며 림철령은 대한민국 보통사람들의 향수를 느낀다. 그러나 그는 어디까지나 공화국의 충성스러운 군인이다. 그는 지금 자신의 아내를 죽인 차기성에게 복수하기 위해 서울이라는 적국의 나라에 들어와 있음을 확인한다.

차기성은 자신이 북에서 가져온 위폐동판을 놓고 "윤회장"(엄효섭역)과 담판을 짓고 있다. 갑질은 언제나 룰 안에서만 통하는 법이다. 룰이 없는 다른 세상에서의 갑질은 자칫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 윤회장의 갑질에 분노한 차기성은 결국 윤회장과 그의 수하들을 제압하고 그들이 가진 재물까지 취하려 한다. 차기성의 코앞까지 추적에 성공한 림철령과 강진태는 차기성의 수하들을 제압하며 그를 향해가지만 차기성은 위폐동판을 들고 도주를 한다. 1층 로비에서 길을 막으려 했던 신참 경찰 "이형사"(이이경역)는 차기성이 쏜 총을 맞고 중경상을 입었다. 이것을 목격한 강진태는 이형사를 안심시키며 119를 부르고 그의 안전을 기원하며 차기성을 추적한다.

도심과 해안대교를 이어가는 차량 추격전은 그야말로 리얼액션이다. 몇 대의 차량들이 뒤집히며 폭발음을 낸다. 차에서 벌이는 총격전은 끝없이 펼쳐지고 림철령이 겨냥해 날린 총알 한방에 차기성의 차는 나뒹굴며 떨어져 나간다. 추격에 성공한 림철령이 위폐동판을 찾고 차기성에게 일격을 가하려던 순간 차기성은 대교아래 바다로 몸을 날려 버린다. 위폐동판을 놓고 남북이 대결하였지만 차기성을 잃은 림철령에게 위폐동판을 건넨 강진태는 림철령에게 북으로 안전하게 돌아갈 것을 강권한다.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난 것일까? 차기성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불길함은 결국 위험을 초래한다. 부상을 입은 몸으로 바다에서 어떻게 살아 남았는지 알수 없다. 차기성은 강진태 형사의 아내와 딸을 인질로 삼고 위폐 동판을 가져올 것을 급박한다. 다급해진 강진태는 림철령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내와 딸을 구해 달라고 애원하고 전화를 받은 림철령은 원형술 북측장관에게 부탁을 하고 위폐동판을 들고 차기성을 찾는다.

강진태가 아내와 딸이 인질로 있는 타워위에서 목놓아 울부짖고 있을 때 림철령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자신의 전화를 받고 달려온 림철령에게 고마움을 느낀 강진태는 가족앞에서 경황이 없다. 그리고 시한폭탄의 시계는 9분을 남겨놓고 멈춘다. 아내와 딸을 구해낸 강진태가 가족을 태우고 안전지대로 나갔을 때 그는 홀로 남겨둔 림철령을 구하러 다시금 돌아간다.

총격전과 추격전은 또다시 시작되고 차기성은 위폐동판을 다시 손아귀에 넣는다. 성강과 림철령의 2차전은 어떻게 되었을까? 물론 림철령의 승리다. 두사람의 물고 물리는 혈투전은 그야말로 K1이다. 모든 것을 버리고 도주하는 차기성 또한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림철령과 차기성의 혈투는 그야말로 1승1패다. 림철령이 물매를 맞고 마지막 일격을 맞을 때 강진태의 권총이 차기성을 겨냥하고 세발의 총성이 울려 퍼진다. 불사신처럼 되살아나던 차기성의 목숨은 여기까지다. 자신들을 끊임없는 위험으로 몰아가며 분쟁의 씨앗이 되었던 위폐동판을 바다에 날려버린 두 사람은 이제야 해피엔딩이다. 영화의 후기는 북한으로 도주한 남한 범죄자에 대한 북남공조수사다. 북측으로 파견된 강진태와 북측에서 공조를 맡은 림철령이 평양에서 또다시 만나게 된다.

영화는 끝이났다. 신나게 날아 오르고 부수고 스피드로 피로감을 날려 버린다. 유해진 배우의 독특한 캐릭터 연기는 관객을 웃음바다로 만들기에 충분하고 현빈의 감각과 눈빛은 여자들의 마음을 사로 잡기에 100점 만점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았을까? "신뢰감"이다. 북한과 남한 만큼 상호 불신이 깊은 관계가 있을까? 믿을 수 없는 상호 불신, 어느 것 하나도 신뢰할 수 없는 조건속에서 서로에 대하여 신뢰를 말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는 것, "신뢰"란 상호적인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신뢰를 보낼 때 그 신뢰가 상대방의 마음에 까지 온전히 전달되면 그들의 신뢰관계는 깨어지기 어려운 일치관계가 조성된다는 것이다. 그것을 아낌없이 실현한 분이 그리스도 예수다. 우리는 이 영화에서 100%의 불신관계가 어떻게 신뢰관계로 이어 가는가에 대하여 그 궁금증의 비밀을 보았다. 그것은 서로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희생이었다. 신뢰는 희생이라는 것이다. 상대방을 위해서 죽을수도 있는데 그 길을 주저없이 간다는 것이다. 강진태도

자신의 가족의 안전이 보장되었고 자신도 안전한 지대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동료?를 위해 죽음의 위험지대로 되돌아 갔다는 것이다. 어쩌면 아무런 도움이 안될 수도 있고 오히려 어슬프게 도와주다가 다시 인질이 될수도 있는 아마추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가진 위치와 능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 그리스도인도 말이 아니다. 신뢰란 희생이 동반되는 것이다. 그 희생이 무모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런데도 그 희생을 통해 신뢰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다. 신앙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한편의 명 설교가 아니다. 멋지고 화려한 문장력이 아니다. 어딘가 어슬프고 앞뒤 논리도 정연하지 않지만 진실된 마음이 있는 그대로 표현될 때 그속에서 신앙이 나타나고 그 신앙이 증거가 되는 것이다. "공조"란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4. “모아나”MOANA

미국영화, 월트 디즈니사

장르: 애니메이션, 액션, 어드벤처 개봉: 2017.01.12.

감독: 론 클레멘츠(Ron Clements), 존 머스커(John Musker),

각본: 자레드 부시(Jared Bush), 론 클레멘츠(Ron Clements)

제작: 오스넷 셔러(Osnat Shurer)

기획: 존 라세터(John Lasseter)

주연: 모아나(아우이 크라발호, Auli'i Cravalho),

마우이(드웨인 존슨, Dwayne Johnson)

관객: 2,310,029명(2017.03.23. 현재)

“모투누이”, 태평양 한가운데 펼쳐 놓은 듯한 섬에 사는 “모아나”는 어린 나이에 바다로부터 신비스러운 경험을 한다. 어느날 해변가에 모아나가 섰을 때 물이 물러가고 하늘만한 파도의 기운이 일어나 모아나를 선택한 것이다. 모투누이 부족은 섬과 근해에서 자라나고 생산되는 코코넛과 해산물을 주식으로 살아가는 원시부족이다. 이곳 마을 사람들은 오직 섬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 그러나 모아나의 친할머니, “탈라”의 생각은 달랐다. 할머니는 모아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려준다. 모아나의 아버지, “투이” 추장은 모투누이 부족의 원칙에 복종해야 한다고 모아나에게 가르치지만 근심에 쌓인다. 모투누이 부족은 언제나 손쉬운 수확을 하며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던 어느날부터 코코넛의 수확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인근 바다의 물고기량도 줄어들며 황폐해져 갔다. 할머니는 그 까닭이 전설속의 거인 “마우이”의 탓이라고 전하였다. 바다가 선택한 용감한 소녀 모아나가 마우이와 함께 부족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 꿈의 항해를 시작한다.

마우이는 지금으로부터 1,000년전, 섬의 여신(ISLAND)인 “피타카”의 심장을 도둑질하여 도주하던 중 “타마토아”에게 일격을 당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마우이가 사라질 무렵, 타마토아가 소유하고 있었던 피타카의 심장과 무기마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마우이가 소유한 무기는 변신의 능력을 갖고 있어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대처가 가능한 것이었다.

모투누이 부족은 항해에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 높은 파도를 이기며 날아가는 듯한 물살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큼 매혹적이다. 젊은 날 모아나의 부친인 “투이” 청년이 부족장(추장) 모르게 친구들과 낚시 바다를 항해하던 중 절친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후로 부터 항해 금지구역이 설정되고 근해 지역에서의 항해 및 어업활동만 허가 되었다.

피는 속일수 없는 것이었을까? 바다에 관해 많은 궁금증에 사로잡혀 있던 모아나는 할머니에게 심장을 받고 아버지 몰래 마우이를 찾아 무작정 항해에 나섰다. 그러나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모아나의 항해는 위험천만하다. 결국 불행중 다행으로 이름을 알수 없는 미확인 섬에 불시착하게 되고, 그녀가 찾아 나섰던 마우이도 찾게 되는 행운을 맞이한다.

모아나와 마우이의 첫 만남은 모아나가 타고 왔던 배를 하늘로 들었다. 놓는 과정 속에 이루어 졌다. 모아나는 마우이의 무기를 찾아주며 그와 함께 "피카카"의 심장을 원상복구하기 위해 피타카를 찾아 간다 마우이와 함께 모험을 시작하자마자 그들 앞에는 백전백승 '카카모라 해적단'이 기다리고 있다. 마우이에게는 변신무기만 있으면 벌레, 상어, 고래, 독수리, 도마뱀과 같은 각종 생물로 변신이 가능했다. 마우이와 모아나는 여러 갈등관계를 극복하며 신뢰가 쌓여가고 드디어 피타카에 도착한다. 거대한 바다위에서 작은 배 하나에 의존해서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관계가 신뢰와 협력, 그리고 우정을 자라나게 하는 요소가 된 것이다.

그러나 파타카에는 애기치 않은 복병이 존재하고 있다. 거대한 게, "타마토아"가 마우이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거대한 용암으로 채워진 괴물 타마토아는 피타카를 삼킬 듯 마우이를 공격하지만 모아나는 그런 분노의 타마토아에게 진정성을 보여주며 화를 진정시켰다. 타마토아는 심장을 빼앗긴 이유로 분노한 피타카였다. 피타카가 "섬의 여신"으로 불리워진 까닭도 그 섬이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여자의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피타카의 심장이란 사랑이라는 하트처럼 가장 소중한 것이었다. 마우이가 장난처럼 가져간 파타카의 심장은 모든 사람과 신과 자연에게 필요한 관심과 애정인 것이다. 심장을 잃은 파타카는 오랫동안 분노했고 그것은 용암으로 분출하며 세상 밖으로 나와 위험이 되었다. 그것이 "타마토아"다 모아나는 함께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과 신뢰"다. 모아나의 어드벤처는 모두누이 부족에게도 평화를 선물로 주었다. 그들은 다시 항해를 시작하였고 금지구역은 해제되었다.

모아나는 겨울왕국 시리즈 이후 등장한 새로운 월트 디즈니의 걸작이다. 디즈니의 영화는 단지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그곳엔 인간이 있고 휴먼 감동이 있다. 사람들은 영화를 통하여 사랑을 배우고 일상에서 잃어 버렸던 소중한 것들을 되새기게 된다. 디즈니의 영화는 이렇게 찬란한 역사속에 기념비처럼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화에서 어떤 감동을 찾았을까? "모아나"라는 어린 소녀를 통하여 잃었던 소중한 가치와 경험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것은

“사랑”과 “신뢰”다. 이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끊임없이 강조한 가치다.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그의 삶은 어드벤처가 아니었다. 그는 믿을 수 없는 인간을 향하여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그리고 그들 모두를 향하여 죽음을 선택하였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모아나가 모두 누이 부족이 잃어 버렸던 용기와 꿈을 되찾아 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에게 믿음과 신앙을 기억하게 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어드벤처와 같은 복음의 길을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5. “조작된 도시”Fabricated City

한국영화, 장르:범죄,액션 개봉:2017.02.09

감독:박광현, 각본:박광현,오상호, 각색:이상현, 제작:TPS컴퍼니

주연:지창욱,심은경,안재홍, 관객:2,513,294명(2017.03.23.현재)

“3분16초”라는 아주 짧은 순간속에서 진실과 거짓이 뒤바뀔수 있다면 그것은 가상의 세계일까? 아니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우리가 경험하고 바라보는 세상속 현실의 세계에서 행여 조작되거나 허구인 것은 없는 것일까? 마치 사이버 세계처럼 누군가에 의해 프로그램화 되고 연출된 장면은 없는지 우리는 무엇을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 권대장 권유라는 보통의 한 청년이 겪어야 했던 고통의 세월도 바로 이러한 조작된 허구에 묻혀 진실은 왜곡되고 그의 주장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었다.

ID “권대장 권유”(지창욱역)는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출신으로 게임속 세상에서는 민첩하고 날렵한 정통파 리더이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그저 어머니에게 용돈이나 구걸하며 PC방을 전전하는 실업자일 뿐이다. 게임계의 신으로 통하며 탁월한 전략전술을 가진 20대 백수 청년, 권유는 어머니의 근심거리로 살아가는 우리시대 보통의 캐릭터다.

ID “털보 여울”(심은경역)은 게임속에서 어슬픈 움직임과 둔감한 성격에 민폐만 끼치는 캐릭터이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바로 앞에서도 전화로만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대인기피증이 심하고, 인스턴트를 혐오하여 건강식단을 추구하며 한국인의 밥힘을 보여주는 네티즌 수사대의 헤드뱅크다. 해커능력이 탁월하고 두뇌회전이 빨라 권유의 결백을 밝혀내는 가장 핵심적인 추적자인 동시에 브레인이다. 그녀의 아지트는 국정원을 능가하는 모든 정보망이 담겨져 있다. 80년대의 시골밥상을 연상케하는 밥힘은 그녀의 순진함과 소박한 정서를 보여주는 가족의 정을 보여준다. 그들이 함께하는 식탁보를 치우면 그들의 식탁은 세상의 온갖 정보를 읽을 수 있는 모니터로 변신한다.

ID “데몰리션”(안재홍역)은 게임속 프로 스나이프로 백발백중 저격수로 통하지만 현실세계에서는 특수효과 말단 스태프로 실수 투성이일 뿐이다. ID “여백의 미”(김기천역)와 “용도사”(김민교역) 또한 노년과 청년의 조화를 이루며 권대장의 일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권대장 권유는 여느때와 같이 PC방에서 게임을 즐기고 있다. 그의 작전능력은 탁월성을 넘어 게임계의 신으로 통할 만큼 자존감이 높아 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어머니에게 용돈을 구걸해야 할 만큼 처지가 비관적인 청년백수이다. 그러던 어느날 PC방에 두고간 한 여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휴대폰을 갖다주면 30만원의 사례를 하겠다는 매혹적인 거래였다. 권유에겐 지금 돈이 필요하다.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는 권유가 그녀의 집을 찾았을 때 현관문은 열려있고 그녀는 유리벽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었다. 그녀의 폰을 2층 침대위에 올려놓고 수표 30만원을 챙겨 나가려다 범죄를 우려한 나머지 문을 닫고 자리를 떠난다.

그리고 12시간도 되지 않은 시간, 권유는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다. 사회적 초미의 관심사가 된 강도강간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내몰린 권유는 여론의 압박을 받은 재판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되고 무기징역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누군가 알지 못하는 뒷골목을 놓고 그 함정에 빠뜨린다면 그가 누구이든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을까? 권유가 아무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해도 시신에서 발견된 각종 증거들은 어느것 하나 없이 권유를 살인범으로 몰고 갔다. 그의 변호를 맡은 국선변호인 "민천상"(오정세역)은 1%의 예외없는 증거물 앞에서 무기력한 태도를 보여주며 선처를 바랄뿐 그 어떤 적극적인 변호도 하지 않았다. "권유의 어머니"(김호정역)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애원을 하였지만 "사무장"(이하늬역)은 그녀의 귀가를 재촉할뿐 속 시원한 해답은 들을 수 없었다.

일사천리로 진행된 재판의 결과에 따라 권유는 흉악범들만 수용중인 강원도 태백의 1급범죄자 수용소로 향한다. 그곳은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채 인권유린의 극악을 보여주는 아오지였다. 철옹성의 맞추피추를 연상하듯이 사방은 온통 철벽으로 뒤덮여 있고 바깥 세상은 어느곳에서도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 권유의 재판은 교도소 투옥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세상보다 더한 고통의 시간이 주어졌다. 살인마 "마덕수"(김상호역)는 교도관들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교도소내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무법천지의 세상을 노략질하고 있다. 그 어떤 희망조차 찾을 수 없었던 권유는 마덕수에 의해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고 결국 그는 자살을 결심하지만 그 또한 박탈당하는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날 어머니께서 민천상 변호사와 함께 면회를 왔다. 어머니는 새로운 증인을 찾았고 그를 통하여 아들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남겨 주었다. 희망의 실마리를 찾은 어머니로 인하여 권유의 교도소 생활은 예전과 달라졌다. 그는 어떤 경우에도 살아야 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얼마 후 자신을 면회온 민천상 변호사로부터 어머니의 자살 소식을 접하게 된다. 늘 자신에게 희망을 이야기 하였던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자살은 권유에게 믿겨지지 않은 의문을 가지게 하였다. 새로운 증인의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권유는 뒤죽박죽 뒤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내기 위해 교도소에서 탈출이 필요했다. 살인죄로 인하여 무기수가 된 한 "노인"(우현역)의 팁으로

권유는 세상밖으로 탈출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교도소내 제왕 마덕수를 자극하고 그를 이용하여 교도관과 그들의 음모속으로 들어가 조작된 자살 행위를 감행한 것이다. 환급히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그들이 탔던 차량이 전복되며 권유는 탈출을 감행한다. 마덕수와 함께 권유를 자극하였던 "간수장"(최귀화역) 또한 권유를 향하여 겨누었던 총을 내려 놓으며 탈출을 묵인한다.

그 어떤 단서도 갖고 있지 않은 권유는 이제 어디에도 갈 곳이 없다. PC방을 찾은 권유는 자신의 게임방에서 의문의 영상 하나를 발견한다. 바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는 추적물이었다. 민천상 변호사를 찾아간 권유는 어머니의 유품 목걸이 외에 어떤 단서도 얻어낸 것 없이 오히려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전후좌우가 막혀버린 상황속에서 우연하게 만난 "외국인 부부"(아피아, 아게망역)의 재치로 도주로도 확보하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마티즈 중고차도 얻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그에게 메시지가 뜬다. 털보가 그를 찾는 것이다. 게임속 세상속에서만 만났던 털보는 시내인근 다방으로 권유를 오라고 하고 그곳에서 그동안 남자로서만 알고 있었던 털보를 만나게 된다. 가녀린 성품의 20대 초반의 소녀로 보이는 털보는 바로 눈앞에서 조차 휴대폰으로 통화를 해야만 하는 대인기피증 환자였다. 그녀를 따라 찾은 곳은 도시 재개발 확정 구획내에 있는 빈민가 였지만 건물안 세상은 최첨단 정보의 중심이었다. 이곳의 모든 운영체계를 개발하고 만들어낸 게임속 아이디 털보는 "여울"이었다. 게임속에서는 우둔하고 한발 더딘 그녀가 현실속에서는 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며 조작된 도시의 괴물을 추적하는 탐정가인 것이다.

이 엄청난 조작의 뒤편에는 과연 누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러나 인근 CC-TV를 통하여 발견된 중요한 단서들은 누군가 영상조작 기술을 통하여 하나의 진실을 왜곡하고 "파티 플래너"들에 의해 모든 진실은 다른 사람에게로 전이되는 마술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의 배후에는 본 사건의 주범인 "추예리"(배민정역)와 그의 아버지이며 재벌가인 "추상덕회장"(권태원역), 그리고 모든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제공하는 민천상 변호사가 있었다. 그러나 아직은 진실이 왜곡 되었다는 사실 외에 어느것 하나 명확하지 않다.

게임속 세상에서 언제나 드림팀을 구성하며 일치단결하였던 권대장의 조직원이 현실의 세계에서 초청을 받으며 한 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다. 그들을 부른 것은 바로 털보 여울이었다. 인스턴트를 격멸하고 자연밥상을 추구하는 여울은 끼니때마다 남산만한 밥을 제공한다. 사이버 게임에서 누구보다 강력한 조직을 구성하였던 이들의 추적은 과연 성공할 것인가? 하나의 단서는 또 다른 단서를 찾아내는 도화선이 된다. 바로 "목소리"다 폰사례를 하겠다던 똑같은 목소리가 여울의 탐지기에 도청된 것이다. 그녀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었지만 실마리

는 하나씩 모습을 드러낸다. 국선변호사로 자신을 변호하였던 민천상 변호사가 오히려 자신을 주범으로 몰아간 사이코패스라는 사실에 접근한 것이다.

창작 예술가 데몰리션이 드론을 만들고 각종 신무기들을 개발하여 조작극을 일삼는 무리와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약방의 감초같은 여백의 미는 감칠맛 나는 역할로 팀의 조화를 이루어 낸다. 자신을 향하고 있는 권유를 꿰뚫고 있는 민변호사는 감옥에서 마덕수 일당을 가석방하는 능력을 보여주며 조작된 도시의 완전범죄를 시도한다. 마덕수를 활용하여 권유 일당을 궤멸시키고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들이 벌이는 대도시 활주극은 사이버 게임을 연상케 한다. 추적자와 쫓기는 자의 사이에는 언제나 긴장감이 감돈다. 치열한 싸움의 끝에는 폭발음과 같은 도시의 광란이 존재한다.

살인사건에 연루된 추예리의 사건을 조작하며 시작된 추상덕 회장과 민변호사간의 밀약은 다른 사건에도 끊임없는 조작극을 연출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유사사건 뒤에는 언제나 파티플래너들의 연출된 가짜가 숨어 있었다. 청소하고 운반하고 데이터와 언론을 조작하는 치밀한 작전은 매번 성공을 거두며 민변호사의 쾌감을 자극시켰다. 이러한 사이코패스의 증상에 심기를 건드려 놓은 권유와의 한판 승부는 범죄의 절정을 이룬다. 민변호사의 전산망 그 중심에 까지 도달한 권유가 민변호사를 낙다운시키는 장면은 그야말로 통쾌하지만 민변호사의 더러운 미소는 살인보다 더 끔찍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권유가 민변호사의 사무실을 급습할 때 마덕수 일당 또한 권대장의 직원들을 급습하여 인질로 잡고 있었던 것이다. 권유가 데이터 전송망을 가동시킨채 자신의 직원들을 구하기 위해 도로를 질주하지만 민변호사는 이미 그들을 제거하라는 지령을 내린 후 였다. 때로 운명은 그들의 마지막을 연장시켜 주기도 한다. 마덕수의 시계가 더디 움직일 무렵, 권유는 사이버 게임의 시나리오처럼 혜성같이 나타나 그들을 구원하는 지락을 보여준다.

세상은 권력자들의 손에서 움직이고 자라간다. 진실은 또다시 왜곡되고 모든 것은 아수라장이 되지만 마지막 승자가 악이 될수는 없다. 이들의 손에 놀아나는 언론과 여론의 무지함은 언제나 왜곡에 묻혀 버린다. 결국 데이터 전송망을 뚫고 들어간 여울과 방송 드림팀의 활약으로 전국 방송은 이 사건의 모든 실체를 드러내며 왜곡된 진실의 민낯을 보여준다. 인질과 인질의 연속을 보여주며 모든 것은 조작에서 끝나버릴 듯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 웃는 것은 진실의 승리다.

거대한 그래픽체스로 시작되는 영화는 그야말로 액션의 초절정이다. 할리우드 영화를 연상케하는 메머드 스케일은 관객을 압도하며 시작부터 집중포화를 날려댄다. 한순간도 스크린에서 손을 뗄수 없는 장면들은 힘찬 사운드와 함께 신나게 부수고 박살내며 관객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낸다. 썩지않은 나무로 시작되는 하나

의 인생은 어떻게 가꾸고 키워 가는가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 이 영화는 단지 액션물이 아님을 여러 곳에서 증명하려 한다. 인간을 보여주고 조작의 힘에 굴종하지 않으려는 소시민들의 노력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증명한단다.

영화는 끝이 났다. 흥미진진한 스토리 전개에 관객들은 환호성을 지른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화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스피드와 현란하게 전개되는 시나리오에 매혹되어 있었을 뿐일까? 가려진 세상 속 권유는 보통의 사람이다. 어쩌면 그들 모두는 낙오자의 대열에 서 있는 3류시민일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소모품처럼 사용되는 권력가들의 인형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에게도 작은 꿈이 있고 그 꿈은 크든 작든 스스로에게는 소중한 것이다. 우리도 현란한 물질의 풍요로움과 바쁘게 돌아가는 현실의 무게로 인하여 조작된 일상과 쇼윈도와 같은 삶이 반복되는 가운데 진실이 왜곡되거나 도외시 되어버린 것이 있을 것이다. 복음과 신앙이 우선이라고 말하지만 현실에서는 괴리감을 느끼며 전혀 다른 일상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다람쥐 수레바퀴같은 현실의 카테고리속에서 순응하며 그저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은 일은 아니다. 우리 자신의 삶 가운데 방치되거나 조작된 진실과 마음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정상화시켜야 하는 과제와 정면으로 마주쳐야 할 것이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고 복음의 진전인 것이다.

6. “재심”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7.02.15

감독,각본:김태운, 제작:이디오플랜

주연:정우,강하늘,김해숙 관객:2,419,445명(2017.03.23.현재)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경,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일어난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택시기사가 흥기에 12차례 찢려 사망한 사건이다. 주변 검색을 하던 경찰은 지역의 동네 다방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청년이 사건과 연루된 듯한 한 남자가 도주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는 목격자 진술을 받아 내었다. 그러나 사건발생 3일 후에는 목격자인 최 모씨로 알려진 청년 남자가 범인으로 지목 되었다. 이 청년이 택시기사와의 말다툼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그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후 목격자로 위장 진술한 것이라는 것이다. 최씨는 1심에서 범행을 완강하게 부인함으로써 징역 15년이 선고 되었다. 그러나 2심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시인하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형이 확정되었다. 그 가운데 2003년 6월, 진범으로 추정되는 김 모씨가 체포되었다. 김 모씨의 진술은 최 모씨의 진술보다 범행정황이 명확하고 피의자에 매우 근접한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검찰은 김 모씨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를 반대하였다. 2013년 6월15일(898회)과 2015년 7월18일(994회), SBS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다큐멘터리는 2년간의 추적을 통해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증거없는 자백만으로 목격자를 살인자로 몰아갔던 당시의 검경과 법원이 3년후 체포된 유력한 용의자에게는 증거없는 자백이라는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무죄석방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준 사건에 대하여 물음표를 던진 최초의 프로그램이었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16년이 지난 2016년11월17일,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노경필부장판사)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최 되었다.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은 “박준영 변호사”가 맡아서 변론을 하였다. 이날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진범으로 추정되는 김 모씨를 피의자로 체포 구속 기소함으로써 이 사건은 종결되었다.

“이준영”변호사(정우역)는 시골마을 종합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문제아 였다. 그는 소시민이었고 변호사 개업후에도 개점휴업상태인 무능력자일 뿐이었다. 그는 아파트 분양사건을 통하여 대박을 꿈꾸었으나 패소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도 별볼일 없는 허울좋은 변호사였다. 아내 “강효진”(김소진역)과의 불안한 미래가 계속되며 사랑하는 딸 “별이”(김하나역)와도 함께 동거하지 못하는 외톨이였다.

사법고시 동기생인 “모창환”(이동휘역)은 대형로펌의 변호사다. 그에게 붙어 다니며 일자리를 구하는 이준영은 모창환의 천거로 로펌에 수습변호사로 입사하게 된다. 술을 마시고 첫 출근한 이준영을 발견한 로펌 대표 “구필호”(이경영역)변호사는 그

에게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이라는 직함으로 일을 맡긴다. 대형로펌 사무장인 “오미리”(이정은역)와 함께 할 일이 없는 전북 익산 시골마을에서 하루하루를 무위도식하며 지내던 중,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주범이었던 “조현우”(강하늘역)와 그의 어머니 “순임”(김해숙역)을 만나게 된다. 이미 10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조현우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강변하며 이준영 변호사를 불신의 눈빛으로 바라본다. 로펌으로 돌아온 이준영 변호사는 구필호 대표에게 이 사건을 로펌의 이미지 상승 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준영 변호사는 그와 함께 이 사건을 매개로 로펌 진입의 교두보로 삼고자 하였다. 모창환 변호사의 지원사격으로 이 사건을 본격적으로 맡게 된 이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이 누군가에 의해 조직적으로 조작되었다는 것을 밝혀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혈흔 반응과 누군가 고의로 지웠던 택시 타코미터의 기록복원을 통하여 사건의 진실규명에 근접하게 되었다.

전북 익산에서 묻히며 서울 입성만을 기대하였던 “최영재”검사(김영재역)와 “백철기”형사(한재영역)는 당시 미제사건과도 같은 여러건의 동일한 살인사건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성과를 올리며 승진의 기회를 잡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동네 건달이며 다방 배달원인 조현우가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휘말리며 범인으로 몰리게 된 것이다. 동네 양아치와 같은 백철기 형사는 경찰서 취조실이 아닌 동네 인근 폐허가 된 모텔로 조현우를 끌고 가서 온갖 폭력과 인권유린을 휘두르며 범인 자백을 강요하고 있었다. 겁에 질린 조현우가 계속해서 범인이 아니라고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욱 잔인한 폭력 뿐이었다. 결국 범죄를 자백하는 서명을 한 후에야 폭력은 멈출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조현우는 줄지에 살인범이 되었고 징역 15년이라는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조현우는 곧 바로 항소했지만 그에게는 더욱 잔인한 재판만이 기다리고 있었다. 끝내 폭력과 권력앞에 굴복한 조현우는 경찰과 재판정에 사과의 편지를 쓰고 징역 10년이라는 성과를 건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돌아간 고향은 이미 냉담해져 버렸고 그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었다.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국가는 또다시 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며 택시기사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도 4천만원에 이자가 붙어 1억7천을 넘어서는 형국이었다. 그는 또다시 무위도식하며 무료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살인자가 아닌데도 살인자의 표적으로 살아야 하는 아들을 바라보며 살아야만 하는 순임의 마음도 무너지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자포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나타난 무료변론 기부 프로그램은 마지막 남은 한가닥 기대와도 같은 것이었다.

사건의 전모가 파헤쳐 지는 가운데 시골다방에서 일하며 조현우와 연인아닌 연인관계를 이루었던 “수정”(김연서역)이 조현우의 알리바이를 증명해 줄 유일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한다. 수정은 우여곡절 끝에 시골다방까지 팔려 내려온 20대초반의 여성이다. 수정은 동네 남자들과의 잠자리를 두려워 하며 공포에 떨고 있었다. 같은 다방의 배달원으로 이러한 수정의 눈물을 바라본 조현우는 내심 그녀를 사랑하

는 마음이 있지만 끝내 말을 잊지는 못한다. 그런 그녀가 어느날 강제 성관계의 위험에 직면하자 그녀를 구해내고 서울로 돌려 보낸다. 사건은 바로 이날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그녀의 증인출석이 불가피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서울의 한 커피점을 운영중인 보통사람이었다. 자신의 그러한 과거가 밝혀지고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다. 그래서 애써 찾아온 조현우의 발걸음을 돌려 보내야만 했다.

사건의 전모가 하나하나 밝혀지는 가운데 이준영 변호사는 백철기 형사가 조직적으로 사건을 지속적으로 조작해 왔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이준영 변호사는 이들 일당이 사건 조작에 나섰던 모텔을 찾아 이들이 남긴 증거들을 수집한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이 지역 검사였던 최영재 변호사와 백철기형사와의 갑을 관계를 들여다. 보게 되었다. 수많은 이권이 개입된 이 사건은 검사와 형사의 범죄조작 사건이었다. 단지 그들이 승진하고 서울 입성을 기대하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같은 극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당시 최영재 검사는 중앙수사부 검사부장을 역임하며 지역의 대표변호사로 개업을 준비중에 있다.

이준영 변호사를 통하여 이미지 상승효과만 누리려 하였던 구필호 로펌대표는 최영재 변호사와의 인연을 매개로 이 사건을 적당하게 마무리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이준영 변호사는 이를 거절하고 중단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그는 본래 로펌 진입을 꿈꾸며 이 사건을 승승장구의 도구로 활용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는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소시민의 자리로 되돌아 가려 하였다. 이준영 변호사는 최영재 변호사와의 일전을 예고하며 재심청구를 본격적으로 이루어 나갔다. 그러나 한가지 뜻하지 않은 복병이 나타나 이준영과 조현우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였다. 그것은 2심 재판을 앞두고 국선변호사가 찾아와 징역 감면을 댓가로 하는 합의를 종용했기 때문이다. 조현우는 할수없이 검찰과 경찰에 사과의 편지를 보내고 징역15년에서 10년을 채우며 귀가길에 오른 것이다.

진실을 모르면 오해가 얼굴을 붉히며 찾아온다. 감옥에서 경찰에게 보낸 조현우 자필편지 사본은 이준영 변호사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분노한 이준영변호사는 조현우와의 통화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두 사람의 관계는 서먹해지고 사건은 이렇게 종결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진실의 칼은 결코 무뎠지않았다. 아무리 빨라도 4분50초의 시간이 소요되는 당시 살인의 정황적 증거를 어떻게 1분40초안에 종결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출발한 물음표(?)는 결국 이 사건이 전부 조작된 것이라는 확신에 도달하게 된다.

사법 동기생 모창환과 최영재 변호사의 밀약에서 분노한 이준영 변호사는 이제 로

팜을 기웃거리는 대박추종자가 아니라 진실에 입각한 정의를 실현하는 굳은 의지를 다져가며 이 사건의 중심부로 향하였다. 결국 이 사건의 재심은 이루어졌고 드라마틱하게도 조현우의 무죄가 밝혀졌다. 잃어버린 10년의 세월은 이미 너무 많이 무너져 버렸지만 한 변호사의 끈질긴 물음표로 인하여 이 사건의 진범이 체포되고 조현우는 다시 목격자의 신분으로 회복되었다. 다방레지라는 과거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증인도 거부하였던 수정 또한 조현우의 당일 행적을 증명할 증인으로 나섰다. 이렇게 진실은 16년이 지나서야 세상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영화는 재심이 시작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이 영화는 결말이 나와있는 실화를 배경으로 하였기 때문에 결과를 마지막 엔딩으로 처리하였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화에서 욱을 보았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욱이 어느날 하루 아침에 거대 거부의 위치에서 아들이 죽고 기업은 도산해 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된다. 그의 절친들은 욱의 사생활에 의구심을 던지며 “너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는 등 위로보다는 칼질을 해 대었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사탄의 위험한 장난에 욱이 크나큰 신앙의 도전을 받은 것이었다. 욱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욱은 어떠한 처지와 환경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함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신념을 선포하였다. 욱의 신앙과 믿음은 참으로 위대한 것이었다. 이것이 욱이 바라본 “주의 결말”이었다. 욱의 기업은 다시 부흥하였고 자녀들은 왕성한 빛을 드러내며 성장을 거듭하였다. 사도바울도 마찬가지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시기에 그는 죄수의 신분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어느 자리에서도 비굴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와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회와 등을 지며 영원한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오직 신념을 세우고 신앙의 가치를 드러내며 진실의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언젠가 빛을 발할때를 기대하며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인내가 필요한 것이다.

7. “루시드 드림”Lucid Dream

한국영화, 장르:SF,스릴러 개봉:2017.02.22
감독,각본:김준성, 각색:이영종, 제작:로드픽쳐스
주연:고수,설경구 관객:102,170명(2017.03.23.현재)

“루시드 드림”(Lucid Dream), 즉 “자각몽”(自覺夢)은 네덜란드 정신과 의사 “프레드릭 반 에덴”이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로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했다. 자각몽은 “꿈을 꾸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꾸는 꿈”을 말하는 것으로 꿈꾸는 동안 의식이 있는 상태로 꿈의 내용을 어느 정도까지 통제할수 있다고 믿고 있다.

수면은 잠이 든 후 90분 정도가 지나면 나타나는 “렘(REM)수면”과 “비렘(Non-REM)수면”이 있다. 자각몽은 렘수면 상태에서 일어나며 깨어나면 꿈의 내용을 상당수 기억하게 된다. 일종의 “가위눌림”도 렘수면 단계에서 나타난다. 자각몽을 꾸는 방법에는 “딜드”(DILD)와 “와일드”(WILD)가 있다. 딜드는 잠이 든 상태에서 꿈을 꾸고 있다고 자각하는 것으로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행동을 통하여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것이다. 와일드는 깨어 있는 상태에서 자각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자각몽을 꾸는 것이지만 실행자체는 어려운 것이다.

영화 “루시드 드림”은 자각몽과 달리 현실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꿈”을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약간은 SF적인 요소가 강하다. 대기업의 비리를 파헤치며 권력자들을 제어해 온 “최대호”기자(고수역)는 아내와의 이혼후에 “민우”(김강훈역)를 혼자서 키우고 있다. 민우의 고모 “미연”(이시아역)이 민우를 잘 돌보고 있지만 가볍게 다친 상처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대호는 언제나 날카롭게 서 있다.

어느날 대호는 아들 민우를 데리고 놀이공원을 찾았다. 공원에서 음료를 사기위해 대호가 편의점을 간 사이 민우는 혼자서 다른 화목한 가정을 바라보고 있다. 민우를 찾은 대호는 민우가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해결해 줄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 민우가 회전목마를 타던 중 시야에서 사라져 버렸다. 민우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보는 동안 대호마저 독침을 맞고 쓰러져 버린다. 그리고 민우는 누군가에 의해 납치되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다. 이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청 “송방섭”형사(설경구역)는 최대호와 함께 3년간을 추적하고 있지만 아무런 단서조차 찾지 못한채 수사를 종결지으라는 상부의 압박을 받고 있다.

어느날 정신과 의사이며 친구인 “소현”(강혜정역)의 도움으로 “루시드 드림”이라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루시드 드림에 관심이 남달랐던 소현은 영국에서 개발한 “오로라 스마트 헤드밴드”를 바탕으로 루시드 드림머신을 개발했다. 꿈과

현실을 구별하는 리얼리티 체크RC(Reality Check), 시침과 분침은 변하여도 초침은 멈추어 있어야만 한다. 일명 자각몽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은 퍼즐을 맞추어 가듯 하나씩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오른쪽 손목에 새겨진 문신과 남자, 민우와 자신을 허가없이 찍던 이름모를 사진사, 꿈속에서 등장하는 제3의 인물, 복선을 깔 듯 부딪히는 의문의 청년들, 그러나 이 모든 단서들은 분리된 채 하나로 연결되지 못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자신의 기억속에서 사라지거나 지나쳐 버린 순간의 영상들을 루시드 드림을 통하여 하나씩 발견해 간다는 점에서 중요한 현실이 되고 있다.

자각몽에 끊임없이 나타나며 복선을 이루는 한 남자, "디스맨"이다. 디스맨은 2006년부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꿈속에 공통적으로 출현하였다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디스맨 "권용현"(박유천역)은 대호의 꿈을 해킹하여 또다른 목격자가 되고 있다. 그의 사무실은 소현의 연구실에 비해 다소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있지만 능력은 어느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프로패셔널이다. 소현과 권용현, 두사람의 도움으로 대호는 자각몽과 공유몽을 꾸며 사건의 실마리를 해결해 간다. 공유몽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꿈을 함께 꾸는 것으로 루시드 드림을 통해 서로의 꿈을 공유할 수 있다는 다소 황당한 이론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다분히 논리적이다. 모든 사람들은 꿈을 꿀 때 고유의 뇌파를 가진다. 이 주파수를 상대방 주파수와 일치시키면 이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 주며 하나로 일치시켜 주는 기계가 있다. 그것을 통하여 해킹과 같은 공유몽 현상이 가능해 지는 것이다.

"조명철 그룹회장"(천호진역)은 최대호 기자의 비리 고발로 인하여 치명타를 입은 과거가 있다. 그의 아들 "조민영"(김상일역)은 병마에 시달리다 죽음을 맞이하였다. 지금 송방섭 경사의 딸 "수진"(노희수역)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는 수진에게는 최대호의 아들 민우의 피가 절실하다.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조명철 회장과 송방섭 경사가 있다. 그러나 조명철 회장의 아들은 이미 기회가 상실되었다. 단지 최대호 기자와의 개인적인 감정만이 남아 있을뿐이다. 그러나 송방섭 경사는 아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송경사는 최기자의 아들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지만 오히려 아들에 관한 모든 정보는 최기자로부터 듣게 될 뿐 한 발씩 느려지고 있다. 최기자는 퇴물조폭으로 구성된 실버 심부름센터 "강성필"(박인환역)사장을 찾아가 민우와 범죄자를 동시에 추적하고 있다.

다급해진 송경사는 디스맨 권용현의 아지트를 찾아가 최대호기자의 꿈에 동승한다. 이른바 공유몽이다. 이일에 연루되어 사경을 헤매고 있는 "최경환"(전석호역)은 이제 생애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심장박동기를 한번 사용할때마다 무너지는 건물 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송경사와 최기자는 지금 생명마저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된

다. 조회장으로부터 민우를 죽여라는 지시를 받고도 어린아이를 죽일 수 없었던 청부업자들은 민우를 성당 고아원에 맡겨둔 채 이미 죽은 아이로 살아가게 했다. 그래서 최기자는 아들을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다. 최기자는 어느곳에서도 목숨을 건다. 건물폐가에서 조회장의 총복들과 충돌하였을때에도 아들을 위한 하나의 단서를 찾기위해 벼랑끝 전술을 감행했다. 조회장은 최기자의 배포에 놀라 단서 하나를 던져 준다. 공유몽 가운데 건물이 파괴되는 현장에서 수렁으로 뛰어드는 생사의 기로도 마찬가지로. 그 어떤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순간에 암흑속으로 뛰어내려 리모컨을 낚아채며 생으로 귀환한다. 결국 최기자는 민우를 되찾는데 성공한다. 모든 것은 해피엔딩이다. 죽었을것으로 여겼던 아들의 생존 만큼 기쁜 소식은 없다.

루시드 드림의 목적 또한 행복일 것이다. 불행한 세상에서 불행한 일을 겪었다면 루시드 드림을 통하여 한번쯤은 바꿔 보고 싶은 과거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만만치 않다. 영화가 끝났을 때 관객은 일어 서기를 약간 주저하였다. 아직도 꿈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까? 그리스도인은 루시드 드림에 대하여 우려를 갖고 있다. 이런 부류들의 영화가 자칫 영적 감각을 무력화 하거나 사탄의 심리적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꿈과 현실을 구분할 수 있다. 사람들은 꿈을 꾸며 살아간다. 그 꿈은 기대와 같고 소망과 같다. 꿈을 꾸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그 꿈을 가꾸어 가고 성취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일하심을 통하여 일어나는 결과물이다. 그리스도인은 루시드 드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 것이다.

8. "눈길" Snowy Road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7.03.01

감독:이나정, 각본:유보라, 제작:KBS

주연:김영옥,김향기,김새론, 관객:127,063명(2017.03.23.현재)

"눈길"은 2015년 광복70주년 삼일절 기념 드라마로 KBS에서 2월28일과 3월1일 양 일간에 걸쳐 2부작으로 방영되었다. 북한인권문제와 함께 일본 위안부 문제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이해관계와 정서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뒤엉켜 있는데다가 이같은 문제가 국제정세와 맞물려 수면위로 올라와 이슈화 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영화 "눈길"도 "제37회 반프월드 미디어 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 "제24회 중국 금계백화장 최우수 작품상"과 "여우주연상 수상"(김새론), "제67회 이탈리아상에서 대상인 프리 이탈리아상 수상" 등 해외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던 작품이다.

1940년대, 우리나라의 상황은 참혹하다. 일제시대 1910년 강제적인 한일합방이후 조선땅은 그야말로 일본의 노리개감이었다. 세계열강들의 놀이터처럼 꾸며진 한반도는 이데올로기와 함께 그 어떤 구심점도 없이 백성의 삶은 고단하기만 한 것이었다.

남자들은 일본군의 세계전쟁에 총알받이로 나가서 개죽음을 당하거나, 목숨을 건 노동현장에서 기계처럼 일하다 죽는 삶의 반복이었다. 여자들의 삶은 더욱 더 처참하다. 누구하나 보살펴 줄 사람없는 땅에서 낮에는 뼈빠지게 일하고 밤에는 일본군의 성노리개감으로 죽음보다 그 깊은 삶에서 헤어날 수 없는 치욕의 시간들이 계속되었던 것이다.

전혀 다른 두 개의 숙명을 지니고 태어난 "종분"(김향기역)과 "영애"(김새론역)의 삶이 그렇다. 가난한 빈곤의 가정에서 태어나 학교마저 갈 형편이 못되었던 종분과 부자집 막내로 태어나 예쁘고 공부도 잘하는 영애의 삶은 언제나 달라보였다. 종분의 "어머니"(장영남역)는 샅바느질과 이불솜 작업으로 "영애 어머니"(이칸희역)로부터 품삯을 받으며 살아간다. 이것이 종분과 영애의 인생이다. 종분은 마음으로 영애의 오빠 "영주"(서영주역)를 흠모하지만 만날 수 없는 거리가 생의 발자취 만큼이나 멀게만 느껴진다. 종분은 동생 "종길"(장대웅역)에게 감자를 갖다주러 학교에 갔다가 영애의 수업장면을 신기한 듯 바라본다. 동생 종길이는 언제나 탄짓을 하다가 선생님께 야단을 맞지만 누나의 간식에는 웃음꽃을 피우는 아직은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어느날, 영애의 집에 일본 순사들이 들어 닥쳐 영주를 강제징용으로 잡아간다. 아버지가 독립군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부자집 영애의 가정은 쑥대밭이 되어 버린 것이다. 모든 것은 한순간에 일어난 운명이었을까? 영애는 일본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싶으면서 일본행을 선택하지만 그것은 만주군 위안부 모집의 일환으로 꾸며진 속임수일 뿐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종분도 영애처럼 일본에 가고 싶었지만 동생 종길의 보호자로서 갈 수가 없다. 그러나 종분의 운명도 비켜간다. 밤에 들이닥친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게 된 것이다.

어디로 달려가는지 알 수 없는 기차안에는 10대소녀들이 화물칸에 실려 어디론가 떠난다.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가겠다면 영애도 이들과 함께 동승해 있다.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고 항변해 보지만 모든 것은 후회만 남을뿐이다. 한일합방 이후 나라 잃은 조선땅에서 백성들이 일본에 가거나 그들이 존재하는 어느곳에 있게 된다면 그것은 모두 강제에 의한 것이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가릴 것 없이 조선의 백성은 단지 일본군의 소모품에 지나지 않는다. 종분과 영애로 대표되는 모든 여자아이들이 똑같은 운명의 기차에 동승해 있는 것이다.

“엄마가 기다리라 했는데... 말도 못하고... 와서 날 찾을건데...”

만주군 주둔군 위안군 보호소, 종분과 영애는 이곳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채 끌려왔다. 참혹한 시간들의 출발점이다. 하루에도 수많은 남자들을 대상으로 몸을 주어야 하는 치욕의 날들,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비극의 삶이 시작된 것이다. 조선 땅에서 순결이란 목숨보다 중한 것으로 인식되던 시대, 몸을 파는 기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치욕적인 삶이 바로 위안부들의 삶인 것이다. 성병에 걸리면 총살이 된다. 몸이 아파 성기능을 할 수 없어도 총살이다. 생리기간이라고 넘어가지도 않는다. 그저 들짐승처럼 날뛰는 세상, 그 누구도 도와주거나 배려해 주지 않는 세상, 그러다가 죽으면 그렇게 끝나는 세상. 이것이 종분과 영애의 삶이다.

“죽는게 무섭니? 죽지 못해 사는데 더 무섭지?”

“영애야...죽는게 제일 쉽다...살아서 돌아가야지”

이곳에서 벗어나려는 영애의 삶은 위안부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그저 자존심하나로 버텼던 영애는 무너지지 않으려고 자살을 결심하지만 종분에 의해 극적으로 구조된다. 그곳에서 새롭게 알게된 “윤옥”(이승연역)은 천진난만하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사람사는 곳에서 사람의 정을 느끼며 살아가려고 노력한다. 밤 늦은 시간 서로 만나 정을 느끼며 끝까지 살아가려 한다. 윤옥은 그렇게 종분과 영애에게 엔돌핀처럼 살아있다. 그러나 그녀는 성병에 걸리고 종분과 영애가 보는 눈앞에서 총살을 당한다.

얼마가 지났을까? 전세가 기울어진 일본군은 후퇴의 길을 가고 위안부를 모두 제거하라는 지령을 받는다.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을 느낀 영애가 종분과 함께 그곳을 도주하려 하지만 일본군이 쏜 총알에 영애가 맞는다. 총을 맞고도 종분을 위해 멀리까지 빠져나온 영애의 우정과 사랑은 감동을 준다. 안전지대까지 빠져 나왔다고 생각했을까? 영애는 이제 더 이상 종분을 지켜 줄 수 없다. 눈덮인 추운 겨울의 어느 별판에서 영애는 그렇게 싸늘한 시신으로 남게 된 것이다.

영애의 시신을 남겨둔 채, 종분은 그렇게 한달을 걸어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무도 없다. 그렇게 수십년의 시간이 흘러 “종분”(김영옥역)은 혼자 살아가지만 영애를 향한 마음 한켠의 짐을 벗어내지 못한다. 영애는 언제나처럼 종분의 곁에서 위로자가 되고 있다. 그런 종분의 집 주위를 맴돌며 신경쓰이게 하는 십대 불량소녀가 있다. “은수”(조수향역)다. 부모에 의해 버림받고 그저 빈집에서 살아가는 은수는 불량청소년들과 어울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학교보다 거리를 더 많이 배회하는 은수는 그렇게 또다른 망가진 인생을 향하고 있다.

“난 한번도 혼자인 적 없었다...니가 있어 여태 내가 살았지”

종분에게도 남은 과제가 있다. 그녀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에게 가진 곳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살길이 막막해져 버린 것이다. 그녀의 삶을 증명해 줄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아무런 문서하나 없이 그냥 끌려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종군위안부의 현실이다. 미확인된 숫자가 얼마나 많을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종분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대변한다. 종분은 한푼이라도 필요하였다. 그래서 영애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영애라는 이름으로 종분은 정부로부터 얼마간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 돈으로 산골짜기 월세방에서 겨우겨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영애의 아버지가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었을때도 종분은 망설일 수 밖에 없었다. 세월이 이 만큼이나 흐른후에 찾아온 나라의 배려가 고맙지도 않다. 훈장의 댓가가 너무나 참혹했기 때문이다. 동사무소의 도움으로 종분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영주”의 소식을 듣게 된다. 영주가 보낸 위로의 편지 한 통은 종분의 첫사랑처럼 아련한 추억의 뒀안길로 사라져 간다.

불량소녀 은수는 미성년자 성관계로 경찰서에 잡혀왔다. 보호자가 없는 은수가 종분을 보호자로 하여 경찰서는 종분에게 연락을 한다. 경찰서로 달려온 종분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시비가 붙고 훈방조치를 원했던 은수는 종분과 함께 유치장 신세가 된다. 이렇게 두사람의 알 수 없는 인연이 시작된다. 종분에게는 이제 은수가 있다.

영애가 이제 종분곁을 떠날 시간이 온 것이다. 종분은 영애의 자리에서 종분의 자

리로 되돌아 가려한 것이다. 절차에 의해 종분은 영애의 옷을 벗고 종분의 인생을 살아가려 한다. 그녀에게는 사랑스러운 은수가 있다. 언제나 비행청소년의 꼬리표를 달고 사는 은수에게도 안식처가 생겨난 것이다. 두사람은 이제 새로운 희망의 엔돌핀이 되려 한다. 위안부의 삶은 고단하다. 비행청소년의 삶도 고단하다. 둘은 이렇게 고단한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내일을 향해 달려가려 하는 것이다.

위안부의 통계는 진실과 괴리가 있다. 그 누구도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한다. 그러나 정확한 숫자에 포함된 사람들 가운데 그 어떤 위로와 용서를 받은 사람은 없다. 나라를 되찾고 국가가 선진국대열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진행중이다. 그래서 1944년의 눈길은 2017년에도 여전히 눈길로 남아 있는 것이다. 영화는 끝이 났다. 그러나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 정치경제적인 이해관계로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는 권력자들과 그 권력자들이 주는 부스러기로 만족해야 하는 백성들의 아픔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제 생존자도 거의 없다. 남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알아 들을 수 있는 사람도 몇분이 안된다. 기회가 전혀 사라진 것이 아니다. 마지막 한사람이 남아 있을지라도 역사와 진실앞에서 거짓된 자는 용서를 구해야만 마땅한 것이다. 돈으로 진실을 사고 권력으로 거짓을 진실로 바꾸려는 나라와 권력자들이 언젠가는 기필코 망하게 된다는 것을 역사는 증명해야만 한다. 그래야 되물림되지 않는 아픈과거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위안부 문제를 어떻게 바라 보아야 할까? 강대국 권력에 묻혀진 진실을 어디서 찾아야 할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권력이나 이슈가 아니다. 보다 앞서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실의 역사를 가해자의 심정에서 건져와야 할 것이다. 진실은 가해자의 뉘이 되어야 한다. 가해자의 뉘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만이 깊은 상처와 허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에겐 여전히 가해자였다. 우리도 그리스도앞에서 우리의 죄를 진실되게 고백하고 진심어린 마음으로 고백하는 참된 의미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9. "해빙"Bluebeard

한국영화, 장르:스릴러 개봉:2017.03.01

감독,각본:이수연, 제작:위더스필름

주연:조진웅,신구,김대명 관객:1,203,016명(2017.03.23.현재)

"해빙", 얼어붙은 겨울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땅은 햇살을 맞으며 꽃을 피우기 시작한다. 한강은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강은 움직임을 보여준다. 4월의 한강은 더욱 더 잔인하다. 한강 수난구조대가 가장 많은 시체를 건져낸다는 기사는 암울한 시대의 자화상을 대변하고 있다. 올해 봄에도 어김없이 조각난 시체가 한강위로 떠오르며 세상을 공포로 몰아간다. 머리가 잘려 나간 여자 시체 한구가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15년전 미제 연쇄 살인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경기도 북부의 화성 신도시, 한쪽 편에는 빌딩숲을 이루며 불야성을 이루고, 맞은편 쪽에는 논밭이 어우러져 시골풍경을 보여주는 지극히 대조적인 사회, 바로 같은 공간에 일어나는 상하 계층간 갈등 구조의 한 단면이다.

"삼각김밥 두 개만 사다줘"

"변승훈"(조진웅역),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개업한후 부도를 맞은 그는 신도시 선배가 운영하는 병원의 계약직 의사로 전락한다. 한때 중산층 엘리트로서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승훈에게 닥쳐온 현실은 냉혹하다. 승훈이 세들어 살고 있는 "진안정육점" 주인의 아버지인 "정노인"(신구역)은 치매를 앓고 있는 중이다. 어느날 그는 승훈이 근무하고 있는 병원에서 수면내시경을 하고 있다. 가수면 상태에서 정노인의 입에서 나오는 잠꼬대 같은 목소리는 의심의 꼬리를 물고 늘어진다.

"팔다리는 한남대교에, 몸통은 동호대교에, 머리는 아직 냉장고에 있어"

"정노인"(신구역), 진안정육점의 창업주로서 아들 "성근"(김대명역)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치매 환자다. 그는 15년전에 일어난 미제 연쇄살인사건과 연관성을 가지는 듯한 말을 내뱉으며 묘한 복선을 보여준다. "처음이지? 하다보면 익숙해져" 최근까지 일어났던 모든 토막 살인사건과 가장 밀접한 용의선상을 가지면서도 언제나 수사망에서는 제외된 인물이다.

"아버지!! 이제는 막 그러시면 안돼요? 저거 보이시죠? CC-TV!! 이제는 CC-TV가 사방에 널렸어요!"

"정성근"(김대명역), 진안정육점의 주인이다. 그에겐 후처로 들어온 "미숙"(김주령역)과 혼혈계통의 "경수"(이강재역)라는 아들이 있다. 성근은 아버지가 처리한 일탈행위

를 수습하는 사고처리를 맡고 있는 유일한 공범관계다. 아버지의 잔학상을 예방하기 보다는 수수방관함으로서 사태를 끊임없이 악화시켜 나가는 또 하나의 사이코패스다.

“저 집에 갈게요, 아~ 아니예요, 정말 안데려다 주셔도 돼요”

“미연”(이청아역), 병원의 토박이 간호조무사에 어울리지 않는 명품백을 들고 다니며 허세를 부리지만 그녀의 삶은 고단하다. 그녀는 병원내 의약품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해 “프로포폴”을 장물로 팔아넘기는 위험한 범죄에 가담되어 있다. 결국 그녀의 행각은 승훈에게 발각되지만 그녀의 일탈은 끝나지 않는다.

“사람 죽이는 사람 따로 있는거 아니야”

“조경환”과 “남인수”(송영창역), 두사람은 동일인이다. 조경환은 정체불명의 전직형사로서 이 사건을 추적중에 있다. 남인수는 승훈의 선배의사로서 승훈의 신경우울증을 치료하고 있다. 조경환은 어떤 식으로든 연쇄살인사건과 연관성을 지니며 의문을 남기지만 영화내내 복선의 위치에서 함정의 역할을 맡고 있다.

15년전에 일어난 연쇄살인 사건외에 또다시 시작된 동일한 수법의 토막살인 사건의 첫 번째 범행대상은 승훈의 전처, “조수정”(윤세아역)이다. 그녀는 승훈과의 이혼후에 “영훈”(문정현역)을 양육하며 살아가고 있다. 승훈은 환청에 걸린듯한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되지 않는다. 수정은 승훈과의 관계를 호전시켜 보려고 화성까지 내려와 사랑의 불꽃을 피우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채 귀경길에 오르다가 실종되어 버린다. 그녀를 만난 마지막 존재가 되는 승훈이 유력한 용의선상에 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 것이다. 강남경찰서 팀장과 경찰이 승훈의 알리바이를 캐며 뒤를 추적하고 있다.

“추리소설을 좋아합니다. 추리소설은 항상 범인이라는 답이 있거든요.”

승훈은 정노인이 수면내시경에서 남긴 한마디의 말에 정육점 냉장고를 찾는다. 그곳에는 실제로 머리만 남겨진 여인의 시체가 있었고 너무나 당황한 승훈은 그것을 자기집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있다. 301호에 세들어 살고 있는 의사를 감시하는 듯한 성근은 돼지고기를 갖다주며 함께 술을 마시게 된다. 승훈의 집안은 온통 책으로 가득하다. 승훈은 의외로 추리소설을 좋아한다. 무심코 던진 승훈의 말에 성근은 당황한 기색을 하는데 아내의 전화에 놀라 집으로 내려간다.

승훈은 병원에서 잠을 청할때가 많아지고 있다. 어느날 야식을 사서 병원으로 돌아오는데 프로포폴을 빼돌리려 한 미연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된다. 그녀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처리를 미룬 승훈은 미연을 집으로 돌려 보낸다. 그후 승훈의 집을 찾은 미연은 형사들이 승훈을 찾는다면서 약간의 오해가 일어난다. 미연은 승훈이

자신의 범법행위를 고발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실상은 승훈의 전처가 실종된 후 시체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승훈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어 형사가 찾은 것이다. 미연은 승훈과 마찰을 빚은 후 귀가를 하는데 정육점 주인 성근이 그녀의 뒤를 쫓아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뒤쫓아 가다가 미연으로부터 일격을 당하고 그대로 쓰러진다.

잠이 깨어 일어났을때 조경환 경사가 승훈을 구해준 다음이었다. 그러나 승훈은 미연이 때린 각목에 맞아 상처가 깊어 졌다. 조경환 경사는 여전히 복선을 깔며 승훈을 의심한다. 승훈은 주인집 아버지와 아들이 범인이라면서 물증을 말하지만 승훈의 의지대로만 되어가지 않는다.

정육점을 의심하고 있었던 승훈이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려 할 무렵, 승훈의 아들 영훈이 연락도 없이 아빠를 찾아 무작정 내려와 정육점을 향하고 있었다. 휴대전화로 통화중이었던 승훈은 아들에게 정육점을 가지말고 택시를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해서 자기에게로 오라고 환급히 전한다.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영훈이 정육점 주인의 트럭에 타게 된다. 영훈에게 전화를 건 승훈의 귓전에 정육점 주인 성근의 목소리가 들린다. 영훈의 폰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놀란 승훈은 정육점으로 무작정 달려간다. 정육점 문을 부수고 냉장고로 향하여 검은 비닐봉지를 내렸을 무렵 갑자기 들이닥친 정육점 주인과 결투가 벌어지고 이 와중에 경찰이 들이닥쳐 상황은 종료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사건의 향방은 언제나 뒤틀린다. 성근이 체포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승훈이 체포되었다. 냉장고안 비닐안에 있어야 할 머리는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돼지머리다. 승훈의 알리바이는 어느곳에서도 증명할 길이 없다. 유괴되었을것이라고 생각했던 영훈이는 외할머니댁에 있다. 승훈은 꿈쩍없이 이 모든 사건의 범인으로 남게 된다.

사채업자로부터 끊임없는 독촉에 시달려온 승훈의 삶은 고단했다. 그래서 그는 독촉차 찾아온 문신남을 칼로 찔러 부상을 입혔다. 결국 사채업자는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다. 이 사건과 연루된 승훈의 기억은 혼돈 그 자체이다. 그는 지금 신경 우울증과 같은 환각상태의 질병에 걸려 있다. 실제인물과 또 다른 실제의 인물을 혼돈하는 정신적 환각같은 증세다. 그래서 그는 모든 연쇄살인사건과의 연관성은 없을지라도 어떤 특정 사건과의 연루 관계는 피해 가기 어렵다.

그러나 정육점 주인 정노인과 성근의 살인게임은 분명 수사망을 완전히 비켜갔다. 정노인의 살해 행각의 이유는 알수 없다. 승훈의 전처 수정을 살해하고 토막낸 사건의 주범인 것 만은 분명해 보인다. 수정이 승훈과 다툰 후, 헤어지고 차에 승차

하러 할때에 정노인이 둔기로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이를 목격한 아들 성근이 사후 수습을 하였다. 블랙박스에 남겨진 모든 흔적들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완전범죄가 되어 버린 것이다.

영화는 이렇게 종결되어 버렸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엉뚱한 사람이 왜곡된 진실에 묻혀 버리는 경우가 있다. 시간이 지나도 밝혀지지 않은채 사건은 종결되어 버린다. 몰락한 승훈의 삶도 이런 것이다. 영화를 통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아이러니다. 승훈은 과연 한사람의 범죄와도 연루된 바가 없었을까? 정노인이 전혀 연관성없는 사채업자 여인까지 죽였을까? 진실은 여전히 어둠속에 가려져 있다. 영화는 사실 약간 지루함을 드러낸다. 사건을 스피드있게 이끌어 가지 못했다. 요란한 음악과 달리 내용은 다소 진부하거나 지리한 면을 보여 주었다. 전형적인 스릴러물에서 나타나는 긴박감은 거의 찾을수 없었다. 이 영화는 결론도 관객에게 던져 주었다. 그리고 끝을 내 버렸다. 지리한 장마비가 그치자 뜬금없는 눈이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때로 우리는 원하지 않는 길에 서게 된다. 승훈의 삶도 그렇다 강남대로 위에서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그의 삶은 탄탄대로가 아니라 내리막길이었다. 강남부촌 의사가 대장내시경과 대상포진 주사로 시간을 보내는 한심함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아직도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채 그의 짐은 여전히 묶여 있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적인 삶은 무엇이고 밑바닥 인생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 마저 물질을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논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잔인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옳은 것이다. 진리가 거짓으로 인해 묻혀 버릴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시간이 필요하다. 언젠가 진실은 수면위로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수 있다. 문제는 어떤 방식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의 수든 악한 행위와 생각과 거짓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땅의 심판이 무섭다 해도 영원한 형벌의 선고보다 잔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누군가 잔혹한 것을 생각하거나 움직이려 한다면 영원한 선고에 대해 한번쯤은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보기를 기대해 본다.

10. “23 아이덴티티”Split

미국영화, 장르:스릴러 개봉:2017.02.22.

감독,각본,제작:M. 나이트 샤말란(M. Night Shyamalan),

주연:제임스 맥어보이(James McAvoy) 관객:1,674,958명(2017.03.23.현재)

1. “빌리 밀리건”(William Stanley Milligan,1955~2014)사건 실화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William Stanley Milligan,1955년2월14일~2014년12월12일), 또는 “빌리 밀리건”(Billy Milligan)은 미국의 영화감독으로 동일인이다. 1977년 수차례의 강간 및 무장강도 사건으로 체포되었으나 이듬해인 1978년 “해리성 정체장애”(다중인격)로 인정되어 무죄선고를 받고, 1991년 영화감독이 되었다.

오하이오주 서클빌에서 부친인 “딕 조나스”(Dick Jonas)와 모친 “도로시”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그러나 부모는 이혼을 하고 밀리건은 모친과 함께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이주하여 유대인 출신 개그맨 “조니 모리슨”과 재혼하였으나 양아버지는 1959년 일산화탄소를 마시고 자살해 버린다. 충격을 받은 어머니는 다시 오하이오주 서클빌로 이사하였다. 5살이던 이 시기에 밀리건은 최초의 2인격 “크리스틴”(Christine)을 만들어 낸다. 크리스틴은 밀리건을 모르고 밀리건 또한 크리스틴을 모르는 상태였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무명의 소년”과 “숀”(Shawn)이라는 2명의 새로운 인격이 등장하였다. 9세때인 1964년부터 양부인 “찰머 밀리건”(Chalmer Milligan)에 의해 성적 학대를 경험하면서 24개의 인격으로 분산되어 갔다.

1975년, 그의 인격은 점차 범죄화 경향을 나타내며 밀리건은 “강간 및 무장강도죄”로 오하이오 주의 “레바논 교도소”(Lebanon Correctional Institution)에 수감된 후 1977년 초 석방되었으나, 1977년 10월 그의 제10인격 “아달라나”(Adalana)가 그의 정신을 지배하게 되어 그는 당시 오하이오 주립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3명의 여대생을 성폭행하게 된다. 그 후에도 밀리건은 끊임없는 강도강간과 연루되며 3회의 납치사건, 3회의 무장강도사건, 4회의 강간 사건으로 기소된다. 그는 변호 과정에서 심리 검사를 받고, “윌리스 드리스콜” 박사에 의해 “급성 조현증”으로 판정받았다. 이후 그는 오하이오 주 콜럼버스 정신건강센터에서 “도로시 터너”에 의해 “다중인격”으로 재판정 받았다.

가짜연기를 한다고 의심한 수사관과 의사들이 각종 검사와 취조를 병행하였지만 오히려 상상초월의 능력이 발견되어 세계의학계에 화제가 되었다. 밀리건은 고교중퇴학력이 전부이지만 “아서”라는 존재에 의해 아랍어와 아프리카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가 하면, 수학과 물리학, 의학을 전문가 수준으로 보여주고 있다. 밀리건이 “레

이건"(Ragan)일 때는 "크로아티아어"를 현지인처럼 사용하고 "토미"(Tommy)였을 때에는 전자제품의 전문가가 된다. 단순한 연기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능력이다. 1978년, 밀리건은 정신이상 사유로, 기소된 모든 사건에 대해 "무죄선고"를 받는다.

그후, "아테네 주립 정신병원" 등 여러 정신병원에 수용되었고, 밀리건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 하였다. 그 과정에서 처음에 그는 10명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되었으나, 이후 14개의 추가 인격이 더 발견되면서 총 24개로 나타났다. 이 중 13개의 추가 인격은 "범죄자"(Undesirables)로 불리고, 1개는 "선생"(Teacher)로 불린다.

처음 10명의 인격 중에, 22세의 "아서"(Arthur)는 영국인으로 지적이고 합리적이며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다. 18세의 "앨런"은 "협상에 뛰어난 사기꾼"이다. 16세의 "토미"는 "탈출 기질이 있는 예술가"이다. 23세의 "레이건 바다스코비니치"는 "유고슬라비아인으로 공산주의자"다. 19세의 "아달라나"는 여성으로서 동성애자이다.

밀리건은 심리학자 "데이빗 카를"로 부터 치료를 받고, 1988년, 정신병원 입원 10여년 만에 법원으로부터 "해리성 정체감 장애" 완치 판결을 받아 자유의 몸이 된다. 1991년부터 그는 영화 감독이 되어 영화 제작사 "스토미 라이프 프로덕션"을 운영했다. 1996년 그는 캘리포니아에 살았으며, 자신의 경험을 소재로 "대니얼 키스"가 "The Minds of Billy Milligan"이라는 책을 집필했다. 향년 59세, 2014년12월12일, 밀리건은 오하이오주 콜럼버스 요양원에서 사망한다.

① 초기인격

1. 윌리엄 스탠리 밀리건(Billy Milligan) : 26세, 본래의 인격.
2. 아서(Arthur) : 22세, 영국인. 지적, 합리적이며 감정을 숨기는 성격.
3. 레이건 바다스코비니치(Ragan) : 23세, 유고슬라비아인. 증오를 간직한 자.
4. 앨런(Allen) : 18세, 사기꾼. 협상에 능통.
5. 토미(Tommy) : 16세, 탈출 기술이 있는 예술가.
6. 대니(Danny) : 14세, 남성을 무서워하는 겁 많은 성격.
7. 데이빗(David) : 8세, '고통과 공감의 관리자'.
8. 크리스틴(Christine) : 3세, '구석의 아이'. 난독증이 있었으나 아서가 그녀를 가르쳤다.
9. 크리스토퍼(Christopher) : 13세, 크리스틴의 오빠. 하모니카를 연주.
10. 아달라나(Adalana) : 19세의 여성, 동성애자. 수줍고 외로움을 잘 탄다. 밀리건이 체포되는 계기를 제공한 장본인.

② 범죄자의 인격

- 11.필립(Phillip) : 20세, 뉴욕 브루클린 출신. 폭력배.
- 12.케빈(Kevin) : 20세, 소심한 범죄 계획가.
- 13.월터(Walter) : 22세, 오스트레일리아인. 사냥꾼.
- 14.에이프릴(April) : 19세의 여성, 그녀의 양아버지에게 복수할 일념을 소유.
- 15.새뮤얼(Samuel) : 18세, 유대인. 방향.
- 16.마크(Mark) : 16세, 단순 노동 책임자. 별명은 '좀비'.
- 17.스티브(Steve) : 21세, 사기꾼. 한때 헌병.
- 18.리(Lee) : 20세, 개그맨.
- 19.제이슨(Jason) : 13세, 히스테릭한 성격.
- 20.로버트(Robert) : 17세, 몽상가. '바비'(Bobby)라고도 불린다.
- 21.숀(Shawn) : 4세, 귀머거리.
- 22.마틴(Martin) : 19세, 뉴욕 출신.
- 23.티모시(Timothy) : 15세, 자기 세계에 빠져 있다.
- 24.선생(Teacher) : 26세, 위의 23개의 자아를 하나로 융합시킨 인격.

2. 영화 "23 아이덴티티"Split

23개의 인격을 가진 청년 "케빈"(제임스 맥어보이역)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등장할 지 알 수 없는 인격들 사이를 오가고 있지만 정작 스스로는 아무것도 통제할수 없다. 유일하게 자신을 이해하고 있는 "플레처"(베티 버클리역)박사와 상담하며 치료에 다가가 보려 하지만 기존의 인격들은 용납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한번도 자신안에서 등장한 적이 없던 24번째 인격의 지시로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여대생 3명을 납치한다 "케이시"(안야 테일러 조이역)는 어릴 때 삼촌인 "영클 존"(브래드 윌리엄 헨크 역)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끊임없는 학대속에 성장한 전형적인 정신적 장애를 보여 준다. "클레어"(헤일리 루 리차드슨역)는 "아버지"(닐 허프역)와 함께 마켓에 왔다가 "마르샤"(제시카 술라역)와 케이시를 데려다 주려고 한다. 늘 배타적이고 망설였던 케이시는 강하게 불드는 클레어에게 이끌려 승용차에 함께 오른다. 하지만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케빈(비스트,24번인격)에 의해 클레어의 아빠는 죽고 이들은 납치를 당하여 어디론가 끌려가게 된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동물원 기계실에 감금된 케이시와 클레어와 마르샤는 케빈(비스트)으로부터 차례로 강간을 당하지만 그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한다. 뿐만 아니라 3대1의 구도속에서도 아무런 노력을 가하지 않은채, 도주로마저 확보하지 못한다. 자신들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감금되어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세명의 여학생들은 케빈(비스트)의 카리스마에 짓눌려 있다. 시시각각으로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케빈의 모습에 당황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없다.

어느날 케빈(헤드윅,9세소년인격)이 세명을 찾아와 몇가지 단서가 될 만한 이야기를 전해줄 때 케빈과 비슷한 상처를 가진 케이시는 어릴때를 끊임없이 회상하며 케빈의 상처를 추적해 간다. 클레어는 도주로를 찾기 위해 골몰하다가 천정에서 탈출구를 확보하지만 케빈(비스트,24번인격)에게 붙들리고 옷을 벗긴채 별도의 1공간에 감금된다. 마르샤 또한 케빈의 머리를 가격하며 도주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옷을 벗긴채 별도의 2공간에 감금된다. 케이시 또한 도주로를 확보하려고 애썼지만 케빈(비스트)의 혹독한 감시망을 뚫지 못하고 있다.

플레처 박사와의 상담은 매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밤에는 긴박한 메일을 보내고 아침이 되면 아무일 없다는 듯이 반복되는 케빈에게 어떤 다른 누군가의 등장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지만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한다. 그러나 플레처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케빈(비스트)은 이제 완벽한 인간위의 인간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 치료과정이 아니라 범죄과정에 연루되었다고 판단한 플레처 박사는 어느날 케빈의 집을 찾는다. 그곳에서 감금된 여자들을 발견하게 되지만 케빈(비스트)에 의해 살해당하고 만다.

23인의 인격을 정복하고 24인격으로 등장한 비스트는 케빈의 내부를 완전히 장악해 가는 과정에 있다. 이 과정에서 걸리적 거렸던 클레어와 마르샤를 죽이고 그들 속에서 살점을 뜯어내는 잔인한 폭력성을 드러낸다. 이상하게 끌리는 케이시 또한 케빈의 비상한 움직임들에 대하여 다른 인격체가 그 안에 존재함을 느끼지만 지금은 탈출이 우선이다. 케빈의 집에서 사냥총을 찾은 케이시는 자신을 집요하게 뒤쫓는 케빈(비스트)에게 일격을 가하지만 케빈은 불사신처럼 회복되어 간다. 철장속 안전지대에서 구조요청을 기다리며 마지막 운명의 시간에 처해 있을 때 케빈은 케이시의 몸에 난 상처자국을 바라보며 어린시절 자신이 당했던 상처들을 떠올린다. 동일한 상처의 자국을 가진 케이시를 바라보며 케빈(비스트)은 본래의 인격을 가진 케빈으로 되돌아 온다. 그러나 그때 너무나 많은 희생이 뒤따른 뒤였다.

모든 것이 밝혀지고 케빈의 생활내부가 공개 되었을 때 그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수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동물원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과 함께 공원을 찾지만 그와는 달리 존재조차 알수 없는 지하 깊은 어둠속에는 24명의 다중인격과 공존하는 정신적 장애인이 있었다. 케이시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다시 삼촌의 곁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제 케이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어디론가 잠적을 감추었던 케빈은 도시 어느 거리에서 보통사람의 모습으로 살아 있다.

① 케빈 "넌 누구야. 무슨 일 있었어?"

: 본래의 인격. 어렸을 적 학대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

② 배리 "우리의 존재조차 안 믿어줄 텐데..."

: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고 신중하다.

③ 데니스 "난 사명을 받고 너희를 데려온 거야"

: 감정의 기복이 없고 강박증이 있다.

④ 패트리샤 "너희에게 예쁜 꽃을 꽃아줘야겠다"

: 뛰어난 리더십을 가졌지만 미스터리하다.

⑤ 헤드윅 "그 사람 되게 무서워, 혼난단 말이야"

: 천진난만한 9세 소년으로, 겁이 많다.

⑥ 오웰 "우린 '패거리'의 침략에 맞서야 합니다"

: 역사에 해박한 인격으로 플레처 박사를 신뢰한다.

⑦ 제이드 "왜 하필이면 나만 당뇨 환자인 걸까"

: 인격들 중 유일하게 당뇨병을 앓고 있다.

⑧ 비스트 "총으로는 날 죽이지 못해"

: 다른 인격들 사이에서 인간 그 이상의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영화는 끝이 났다. 이것은 심리영화이다. 그러나 케빈안에 존재하는 것은 분명 "귀신"들이었다. 다중인격이 아니다. 케빈은 귀신들린자 24명이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대한 가옥이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근래에 이러한 부류의 영화가 예외없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유행처럼 번져가는 현상들에 대하여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방송과 영화에서 등장하는 유형에서 영적 위기감을 느낀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세상으로 향하는 사탄의 침략전쟁에 무방비로 쓰러지게 될 것이다.

11. “콩:스컬 아일랜드”Kong: Skull Island

미국,중국영화, 장르:어드벤처,판타지,SF 개봉:2017.03.08.

감독:조던 보트 로버츠(Jordan Voigt Roberts),

각본:맥스 보렌스타인(Max Borenstein),데렉 코놀리(Derek Connolly),

존 가틴스(John Gatins),댄 길로이(Dan Gilroy)

주연:톰 히들스톤(Tom Hiddleston), 브리 라슨(Brie Larson),

사무엘 L.잭슨(Samuel L. Jackson), 존 굿맨(John Goodman)

토비 케벨(Toby Kebbell), 존 C. 레일리(John C. Reilly)

관객:1,689,717명(2017.04.25.현재)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무렵,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어떤 한 섬에 표류한 두 명의 군인이 적과 적으로 마주하며 육탄전을 벌이고 있다. 위기의 순간 두 명의 군인앞에 나타난 거대한 생명체가 전율을 느끼게 한다. 전쟁은 과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국가마다 위성을 하늘에 쏘아 올리고 과학의 눈으로 위에서 세상을 내려다 본다.

“그 어떤 거대한 동물이라도 인간이 아니라면 왕이 될 수 없다. 오직 인간만이 이 땅을 지배할 권리를 갖고 있다”

1975년, 베트남전쟁이 끝날 무렵,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미지의 섬 “스컬 아일랜드”에는 두 개의 거대한 생명체가 감지되고 있다. “고릴라”의 변형 유전자를 가진 “콩”이 지배하고 있는 스컬 아일랜드에 새로운 도전자가 꿈틀거리고 있다. 베트남전쟁에서 패배한 미군은 철수준비 중에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발견한 신비의 섬에는 상상할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군인들은 새롭게 펼쳐지는 미지의 역사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다.

지구안에 존재하는 괴생명체를 추적하는 “모나크”팀은 위성을 감시하고 있다. 그들의 시야에 의해 미지의 섬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고 무엇인가 거대한 물체의 움직임이 포착된다. “콘라드”(톰 히들스톤역)탐사팀장을 중심으로 지질학자인 “랜다”(존 굿맨역), 생물학자인 “샌 린”(경청역)이 공동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베트남전 참전군으로 베테랑 수색요원인 “패카드”(사무엘L.잭슨역)중령과 부대원들, 그리고 정글전문 안내원 “콘라드”(톰 히들스톤역)과 사진기자 “위버”(브리 라슨역)가 참여하는 대규모 탐사팀은 스컬 아일랜드로 향한다.

스컬 아일랜드는 거대한 폭풍을 휘감은 채 세상의 접근을 막고 있다. 비밀을 감춘 채 은둔의 세상으로 살아가는 미지의 섬에는 무엇이 있을까? 군용 헬기들은 좌충우돌 위험한 상황속에서도 폭풍의 대기권을 뚫고 들어간다. 폭풍을 벗어난 미지의 땅

은 아마존 그대로 였다. 수천년간 자연 그대로 보존된 듯한 정글은 그야말로 자연의 보고였다. 그러나 땅속 지질을 탐색하기 위해 폭탄을 투하하며 미지의 섬은 몸살을 앓는다. 이때 어디선가 나타난 거대한 고릴라가 헬기를 산산조각 내며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고 있다. 스컬 아일랜드의 왕이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며 왕으로 존재하는 그의 이름은 "콩"이다. 순식간에 일어난 상황에 당황한 모나크팀은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일격을 당한채 정글에 불시착하게 된다.

함께 온 동료들 절반이나 잃은 패카드중령은 복수심에 불타 오르고 고릴라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탐사를 나온 학자들은 스컬 아일랜드에 대한 기초조사에 착수하지만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었다. 수만년전의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스컬 아일랜드는 원시시대 그대로 였다. 거대한 공룡과 새들, 그리고 호수같은 물속에는 거대한 문어가 살고 있다. 시시각각 변하는 정글의 삶속에서 위기와 위기가 되풀이 되고 상황은 좀처럼 풀려 나가지 않는다.

정글에서 길을 잃은 모나크 팀은 우연한 기회에 수십년전에 이곳에 불시착한 군인과 스컬 아일랜드의 원시부족민을 만나게 된다. 이들은 콩을 숭배하는 듯한 벽화를 그려놓고, 얼굴과 몸에 자연색을 입혀 은폐수단으로 삼는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나름대로 그들만의 생존방식으로 거대한 동물집단 속에서 살아가려는 지혜로 비춰진다. 군인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가진채 비행 잔해물을 이용해 배를 만들었고 모나크 팀과 함께 이곳을 떠날 결심을 한다.

한편, 콩을 추적하는 패카드 중령은 헬기에 남은 폭약을 이용해 콩을 죽이려는 마음을 굳히고 모나크팀과 함께 작전을 감행한다. 콩과 마주선 패카드와 모나크 팀이 화염방사기와 기름덩어리로 콩을 제압하고 쓰러진 콩 주변에 폭약을 설치하여 콩을 죽이려 한다. 그때 콩의 반대세력인 괴물이 등장하고 콩은 죽을 위기에 처한다. 복수심에만 골몰하던 패카드가 폭탄을 터뜨리려 할때에 콩이 일어나 패카드를 쓸어버린다.

패카드를 잃은 모나크팀은 콩을 구하기 위해 가던길을 되돌아 왔다. 비행잔해물을 이용한 배를 동원해 기관총을 난사하고 콩을 구하기 위한 노력은 필사적이었다. 이들의 지원에 힘입은 콩이 괴물을 제압하고 스컬 아일랜드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온다. 모나크팀은 무사히 섬을 빠져나가고 이들은 이곳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비밀로 남겨둔다. 오랫동안 가족과 끊어진 채, 스컬 아일랜드에서 일생을 보내야 했던 군인이 가족들과 다시 재회하고 스컬 아일랜드와 세상에는 평화가 공존하기 시작한다.

영화는 끝이 났다. 부수고 때리고 죽이는 액션영화의 교과서 다운 면모를 보여준다. 때로 잔인하게 죽이는 장면들로 인하여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자연은 하나님이 주

신 선물이다. 인간의 욕망으로 마음대로 파괴하고 질서를 깨뜨려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질서와 보편적 가치대로 이용하며 누리면 되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서 가지는 욕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은 끊임없이 훼손되고 있다. 결국 이 모든 피해는 후손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는 자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길줄 알아야 한다. 미지의 세계 또한 마찬가지다. 끊임없는 호기심과 욕구가 그것을 파괴하려 한다. 그러나 욕심을 내려 놓지 않으면 결국 재앙은 우리들의 목숨을 위협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12. “프리즌”THE PRISON

한국영화, 장르:범죄,액션 개봉:2017.03.22

감독:나현, 제작:큐로홀딩스

주연:한석규,김래원 관객:2,930,275명(2017.04.28.현재)

“교도소”는 징역형을 비롯하여 금고형, 노역장 유치와 구류처분을 받은 사람과 재판 중에 있는 피의자를 수용하는 시설로 “감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법을 어기고 법적 제한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과 분리되거나 단절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익호”(한석규역)는 전혀 다른 세상을 꿈꾸며 교도소 안과 밖을 자유롭게 출입한다. 그는 교도소 “보안과장”(전배수역)은 물론 책임자인 “강소장”(정웅인역)과 결탁한 채 세상밖 권력자들을 휘두르고 있다.

범죄자 검거율 100%를 자랑하는 “송유건”(김래원역)경위는 뺑소니, 증거인멸, 경찰 매수등의 온갖 죄목으로 교도소에 입소하게 된다. 동국일보 기자인 친형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게 되지만 미제 사건으로 파묻혀 간다. 우명그룹 비리를 고발한 익명의 제보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하는 등 수많은 미제사건의 배후에 교도소가 연관되어 있다는 제보를 갖고 동생 유건을 찾았던 형이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온 것이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로 직접 들어가야만 한다. 유건은 입소 첫날부터 재소자와 극심한 다툼을 벌이며 8사동 총책 정익호의 시야에 들어온다. 정익호에게 온 큰팔 “홍표”(조재윤역)를 비롯하여 “양씨”(송경철역), “범모”(정석원역), “서기태”(유정호역), “종대”(한주완역) “백정”(차엽역), “학규”(곽민호역) 등 교도소내 두뇌 그룹과 교도소 밖 영업맨 “김박사”(김성균역)가 있다.

교도소에서 만기출소한 김박사는 일감을 물어온다. 김박사가 물어 온 일감은 교도소 연결책인 강소장에게 전달되고 강소장은 다시 정익호에게 전달된다. 정익호는 교도소내 씩크탱크 집단들과 완전범죄를 재구성하고 감옥내 재소자들인 이들은 자유롭게 외부출입을 하며 범죄의 완성도를 높인다. 이 사람들의 실재 소재지는 교도소내에 위치해 있다. 완전범죄의 재구성이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정익호는 이렇게 교도소내 파라다이스를 꿈꾸며 자신만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 2인자도 없다.

어느날 교도소에 갑자기 “배 교정국장”(이경영역)이 급습을 한다. 교도소내 비리를 눈치 챈 배국장이 암행기습을 펼친 것이었다. 여기에서 예전 교도소에서 말썽을 일으키던 정익호를 만나게 되고 두사람의 눈빛은 증오심에 불타 오르고 있었다. 정익호의 권력을 몰랐던 배국장은 정익호의 심기를 건드려 놓게 되고 자존심을 묵

살 시켜 버렸다. 이때 송유건이 다시한번 정익호의 체면을 살려내고 이 일로 송유건은 독방신세가 된다.

양아치 "창길"(신성록역)은 송유건과 사사건건 부딪히며 첫날부터 송유건을 몰아붙이며 그로키 상태로 몰아 넣었다. 이것이 화근이었을까?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창길은 송유건과 일대일 승부를 띄워야만 했다. 아슬아슬한 격투는 송유건의 KO승으로 끝이 났다. 정익호의 눈에 송유건은 끊임없이 조명되며 관심의 대상이 된다.

송유건의 등장에 초조감을 보이는 것은 "홍표"도 마찬가지다. 2인자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음을 직감할 때 창길의 유혹을 받는다. 교도소 외부에서 필로폰을 수거해온 8사동그룹은 김박사에게 물건을 보여준다. 이때 창길이 허를 찌르는 기습작전을 펼치고 위기에 봉착한 정익호가 한명을 제압하며 승기를 잡는다. 창길은 양아치다운 면모를 과시하며 항복술책을 쓰다가 정익호의 배를 칼로 찌른다. 이때 송유건이 나타나 정익호를 구하고 창길 일당을 완전 제압한다. 이 사건에 연루된 홍표는 손목이 잘려 나가고, 송유건은 이제 정익호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추종세력이 되었다.

교도소내 비리사건을 추적중인 송유건은 교도소장실에서 형의 죽음에 관련된 테이프를 발견하고 경찰청 "정과장"(박원상역)에게 지원을 요청한다. 모든 미제 사건의 배후에는 정익호가 있음을 확인한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청 "노국장"(강신일역)은 사건의 확대를 우려하고 행동을 기피하려 한다. 교도소 외부 활동시에 교도소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검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직시하고 정과장과 송유건은 작전을 개시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눈치챈 정익호는 거짓 위치를 송유건에게 알려주고 함정을 판다. 그리고 송유건 앞에서 그가 잡아온 배국장을 폐차장 컨베이어에 올려 놓고 압사시켜 버린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도우려 했던 정과장마저 죽음으로 내몰아 갔다.

일이 점점 더 커져버린 상황을 도외시 할수 없었던 교도소 강소장이 권총을 휘두르며 정익호를 제압하려다가 반대로 자신의 총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고 송유건마저 죽음의 위기에 봉착한다. 모든 상황이 암울해져 갈 무렵 송유건에게 반전의 기회가 찾아온다. 유리온실과 외부차량 차고지에 불을 지른 송유건은 정익호에게 복수의 한방을 날려 버린다. 이 일로 경찰청 차량들이 교도소로 진입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정익호가 꿈꾸던 교도소왕국의 종말이 임박해 왔다. 송유건과의 마지막 혈투 끝에 정익호는 저격수의 총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고 그들의 화려한 왕국은 끝이 났다.

영화는 끝이 났다. 어쩌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또 어쩌면 너무나 황당한 소설같

은 영화다. 우리 사회를 뒤흔드는 반전의 역사는 어느 순간에도 있어 왔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도 실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이 정도의 막장은 아니라고 믿고 싶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화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돈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공권력과 이에 결탁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어쩌면 그것도 좋으니 큰 돈 한번 벌어서 보자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기본적 원칙이 있다. 맞는 것은 맞고 틀린 것은 틀리다는 것이다. 물질만능의 시대에 이끌려 다니며 돈과 물질과 권력의 심부름꾼으로 살아가는 삶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의 일꾼이다. 그 경계가 모호해 질 때 우리도 그와 같은 세상의 한 가운데 서게 될 수도 있다는 위험신호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이다.

13. "보통사람" Ordinary Person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7.03.23

감독,각본,각색:김봉한, 제작:트리니티엔터테인먼트

주연:손현주,장혁 관객:383,336명(2017.04.28.현재)

대한민국에서 보통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985년 2.12총선이후 야당은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비민주적인 행태에 대하여 극렬한 저항을 하고 있었다. 이듬해인 1986년 2월에는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는 민주헌법쟁취투쟁이 본격화하고 "신민주당"을 중심으로 "일천만 개헌운동"을 펼치는 등 전국민적 저항운동은 불붙듯이 확산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87년 봄, 전두환 대통령은 "4.13호헌조치"를 발표하며 국민과 정면으로 충돌을 예고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오히려 국민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국민적 저항의 중심에 더 큰 불을 일으킨 것이 바로 "박종철고문 치사 사건"의 실체였다. 당국의 발표는 모두 거짓이고 허구였다. 진실을 거짓으로 뒤덮는 국가의 이중성은 권력자들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이것만이 거짓일까? 국민들은 분노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고 그 물결은 전국토를 뒤덮었다. 1987년 6월10일,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집회가 전국 거의 모든 도시에서 일어났고 26일에는 10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밤을 지새우며 직선개헌을 부르짖었다. 그 결과적 산물이 "6.29선언"이다.

국가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강력계 형사 "강성진"(손현주역)은 청량리 경찰서의 베테랑 경찰이다. "언어청각 장애인 아내"(라미란역)와 장애인 아들인 "민국"(강현구역)을 가족으로 둔 보통사람의 전형적인 모델이다. 그저 꿈이 있다면 2층 양옥집을 지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여생을 보내는 것이다. 그에겐 둘도 없는 형이 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의 자유일보 "추재진"기자(김상호역)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최고의 우정이다. 모든 일과가 끝난 늦은 밤시간 청량리 시장통 가게에서 마시는 소주 한잔이 그리운 사람들이다. 강성진형사는 "양반장"(박경근역)의 성화에 못이겨 "발바리"(황무영역)를 추적하고 있다. 어느날 아침, 강성진형사는 여느때와 같이 시국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을 체포하는 일들에 투입되어 온몸이 먼지 투성인 채로 경찰서로 들어선다. 경찰서 앞마당에는 개가 꼬리를 치며 반기지만 강성진 형사는 귀찮은 듯 개를 쫓아낸다. 산적한 사건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던 강성진 형사는 발바리를 추적하다가 몇 번이나 놓치게 되자 인원충원을 요청한다. 어느날 "동규"(지승현역)라는 신입경찰이 강성진형사의 단짝이 되고 두사람은 발바리를 추적하게 된다. 첫번째 추적에서 실패한 강성진 형사가 두 번째 추적에서는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며 성공을 거두고 화려하게 입성하지만 양반장이 그 공로를 가로채 간다. 이것이 보통사람의 비애라면 비애일 것이다. 이렇게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강성진 형사에게 어느날

국정원으로부터 수상한 제안을 받게 된다. 연쇄살인범을 추적하다가 레이다망에 걸린 "태성"(조달환역)이 전국적으로 자행한 연쇄살인범의 주범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만나게 되는 매혹적인 타이밍은 소시민에게 달콤한 향기처럼 느껴진다.

국가안전기획부 "최규남"(장혁역)실장은 원칙과 소신을 주장하며 굴절된 애국심으로 가득차 있다. 최규남 실장과 강성진 형사의 만남은 이렇게 처음부터 잘못 끼워진 퍼즐이었다. 음산한 남산기슭에 자리한 안기부 안가에서 두사람은 은밀한 거래를 성사시킨다. 연쇄살인범 레이다망에 걸려던 태성을 연쇄살인범의 주범으로 몰아가는 공작이었다. 안기부 공작은 언제나 정치적 운명과 함께 한다. 정치적 격변기를 돌파하는 모티브로서 연쇄살인범 검거는 국민의 시선을 사로 잡기에 충분한 재료가 된다. 크게 반기는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가족을 두고 살아가는 소시민 강성진에게는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기도 하다. 강성진 형사는 신참 동규와 함께 태성을 길들이기 시작한다. 하나의 사건외에 그 어떤 사건과도 연루되지 않은 태성을 고문하여 억지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은 처절하리만큼 잔인하다. 여기에 동승한 강성진 형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이 사건의 전모를 추적중인 자유일보 추재진 기자의 레이더에도 정확히 포착되었다. 추재진 기자는 강성진 형사에게 이 사건은 안기부 공작이라고 귀뜸해 주며 손을 떼라고 간곡히 말하지만 강성진은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가 버렸다. 다리가 불편해서 늘 친구들에게 놀림과 왕따를 당하는 아들의 수술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아내와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면 누구나 이 선택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예상외로 훨씬더 참혹하다 이것을 암시라도 한것일까? 강성진 형사가 청량리 경찰서 앞마당에 들어섰을 때 경찰서에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바로 자신이 내팽겨쳤던 개를 보신탕으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강성진 형사는 분노했다. 그래서 앞마당에 펼쳐놓은 커다란 대야를 뒤집어 엮어 버린 것이다.

한편, 사건의 전모를 외신기자에게 전달하려 했던 추재진 기자는 안기부요원들에 의해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박선희"(오연아역)기자와 함께 추재진 기자를 찾아 나섰지만 행방이 묘연하다. 그런 그가 다시 모습을 들어낸 건 강성진 형사의 집이었다.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찾아온 추재진 기자를 고발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강성진 형사였다. 둘도 없는 단짝을 고발하는 고뇌에 찬 강성진의 심정은 담배연기처럼 하늘위로 뿜어대지만 그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추재진 기자의 싸늘한 시신이었다. 약속은 파기되었다. 강성진은 추재진기자를 고발할 때 목숨은 물론 육체적 안전까지 보장을 받았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답은 죽음이었다. 강성진은 분노했다. 그러나 권력자의 심판은 잔인하다. 강성진의 뒷배를 봐주던 안기부 "신용수 2차장"(정만식역)이 최규남의 역공을 막고 체포된 것이다. 강성진은 최규남 실장의 차를 막아서서 추기자에 대한 약속파기를 따져 물었지만 개는 그냥 짊어대기만 하라는 수모를 받아야만 했다.

강성진은 역공을 펼쳤다. 자유일보 "편집국장"(박지일역)과 "김의원"(장광역)에게 연쇄살인범 공작사건의 내막을 증언하여 안기부의 실체를 밝혀 내겠다고 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가지는 않았다. 언론사와 정계를 장악하고 있는 안기부의 힘의 한계는 어디까지 일까? 강성진이 던지는 계란은 모두 바위위에 부서지고 바위는 터진 계란으로 모양은 없을지언정 아무런 문제는 없어 보인다. 오히려 자신과 아내와 아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결국 아내는 생명을 구하지 못하였다. 자신의 과오로 인하여 추재진 기자가 죽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태성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살인사건의 주범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강성진이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안기부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벌인 일을 다시 강성진에게 뒤집어 씌우고 강성진을 좌파경찰로 둔갑시키고 아내를 살해한 추악한 범인으로 몰아 세웠다. 그에게는 15년형이 구형되었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 눈앞에 나타났고 아들을 구하기 위해 그는 가짜 조사서류에 직인을 찍었다. 그에게 죽음의 기다리고 있다. 한때 동지였던 "동규"가 안기부소속 직원이었던 것이다. 동규는 총을 꺼내들고 강성진 형사를 향하였다. 그에게도 마지막 남은 정은 있었을까? 담배를 피우겠다면서 강성진 형사의 도주로를 확보해 준 것이다.

반전은 있다. 추재진 기자가 남겨놓은 취재서류를 가지고 폭로전에 나선 것이다. 이 사건은 국민을 분노케하는 도화선이 되었고 모든 진실은 밝혀졌다. 강성진과 최규남의 전쟁은 결국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결말은 무엇을 주는가? 세상의 권력에서 사라졌을 것 같은 최규남은 판사로 다시 부활하고 자신의 진실과 관련된 재판에서 손을 들어주는 아이러니를 남겨 주고 있다. 권력자들은 여전히 권력자의 위치에 서 있고, 보통사람은 여전히 보통사람의 위치에 서 있을 뿐이다. 그러나 보통사람이 겪어야 했던 피해가 너무나 컸다. 사랑하는 형을 잃고 아내를 잃고 진실을 잃어버렸다. 국민의 분노로 민주화를 이루고 직선제 개헌을 했지만 무엇이 달라졌는가 하고 되묻는 질문이 관객에게 던져졌다.

영화는 끝이났다.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저 보통사람들은 영화속에서 자신의 한 단면을 보았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도 영화를 바라본다. 이 세상의 초라한 단면을 스캔하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세상을 갈아엎을수는 없다. 민주와 인권과 투쟁으로 그 어떤 세상을 바꿀수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세상을 온전하게 바꿀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한 보통사람들을 위한 가장 안전한 보호책이다. 누군가는 말장난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진 신념으로 가능한 최선책은 무엇일까? 우리는 단지 사람일 뿐이다.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있고 할수 없는 일이 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은 그저 그 믿음속에서 맡은 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다.

14. “원라인”ONE-LINE

한국영화, 장르:범죄 개봉:2017.03.29

감독:양경모, 제작:미인픽처스,곽픽처스

주연:임시완,진구,박병은. 관객:434,400명(2017.04.28.현재)

명성대학교 휴학생 “민재”(임시완역)는 대표적인 서민층 가족으로 하루살이 인생을 이어가던 중 “장과장”(진구역)이라는 사채업자를 만나게 된다. 그에게는 막가파식 사기꾼 “박실장”(박병은역)을 중심으로 S대 출신의 위조전문가 “송차장”(이동휘역)과 고객정보 전문가 “홍대리”(김선영역)가 있다. 장과장은 은행을 상대로 대출 사기를 벌이는 이른바 “원라인”의 헤드뱅크다. 원라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업, 신용등급, 사회적신분 등 은행대출자격을 조작해 은행을 상대로 대출사기를 벌이는 것으로 “작업대출”이라고도 불리운다. 이들은 각각 본명과 다른 성을 쓰며 그들을 추적하는 수사팀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죽기를 다해 살아도 나아지는 것이 없는 민재는 원라인을 이용해 은행에서 돈을 대출하고 수수료 지불없이 전액을 가로 채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뛰는 놈위에 나는 놈이 있었을까? 동업자이던 “해선”(왕지원역)에게 뒤통수를 맞고 대출금 모두를 사기당한다. 명품 짝통시계로 한몫 잡으려 했던 민재의 꿈은 일순간에 무너지고 원라인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된 것이다.

그러나 절벽에서 떨어져도 살아남는 자는 살아 남는 법, 민재에게 관심을 보이는 장과장에 의해 원라인의 새로운 가족으로 입성한다. 한편, 이들을 쫓는 금융사기단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었다 부패한 다혈질 성격으로 머리보다 행동이 앞선 “원검사”(조우진역)와 기획재정부 “한 서기관”(박형수역), 그리고 양심의 총잡이 “천형사”(안세하역), 이들은 시내 빌딩 한켠에 등지를 털지만 각기 다른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05년, 세상은 서민들의 돈줄을 틀어 막으며 작업대출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였다. 돈이 필요해서 받은 대출은 또다시 다른 대출을 도래하게 하며 악순환의 고리는 끝없이 이어져 간다. 높은 수수료율과 이자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의 손은 원라인을 향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돈이 돈을 먹는 시대. 돈을 구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확신에 차 있는 장과장에게도 룰은 있다. 즉, 3D대출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민의 고름을 짜서 먹는 더러운 사채시장에도 금도라는 게 있다고 믿는 장과장의 원칙은 언제 어디서나 적용된다. 돈을 구하는 사람을 보면 어느 은행 어떤 방식의 대출에 적합한지

정확하게 규정한다. 그렇게 조작된 새로운 인물은 그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대출하게 도와 준다. 단, 고리의 수수료와 이율이 따라 붙는다. 그러나 그의 동업자이며 욕망이 가득한 박실장은 3D든, 4D든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다.

원라인의 새로운 스타 민대리는 친절하고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기법으로 고수익을 창출하며 수많은 돈을 한꺼번에 거둬 들인다. 그는 건달 출신 “기태”(박종환역)와 한 팀을 이루며 작업대출의 새로운 성공신화를 갱신하고 있다. 민대리는 “사이즈”가 좋았다. 그에 반해 그동안 고속질주를 거듭하던 박실장에게는 브레이크가 걸린다. 민대리가 첫 번째 작업에 성공했을 때 박실장은 “어떻게 코 뚫었냐?”고 비결을 물어보지만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비법이 있을 뿐이다. 민대리는 흥대리와 함께 한때 자신의 돈을 갈취해 갔던 해선을 조직의 새로운 동업자로 끌어 들인다. 그들은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부를 누리며 행복에 젖어 있다.

원라인을 추적하는 천형사의 꼬리에 어느날 민대리라는 이름이 걸려 들지만 그가 누구인지 그 실체를 알 수 없다. 성과 이름이 모두 다른데다가 위치가 노출되는 즉시 사무실을 옮겨 버리기 때문이다. 한번 물면 진돗개처럼 물어대는 천형사의 추적에 장과장이 뒹굴려 걸려 들었다. 장과장은 한동안 짐을 싸고 멀리 어디론가 잠적해 버린다. 장과장이 떠난 시장에 박실장이 승승장구하며 저축은행 인수에 혈안이 되어 있다. 박실장은 장과장이 은행인수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요청하지만 거절 당한다. 결국 박실장은 차량대출, 보험대출 등 3D에 손을 대며 거대한 자금조달에 혈안이 되어 있다. 걸리적 거리는 사람에게는 폭력이 가해졌고 그러한 틈바구니속에서 한 남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편, 민대리도 보험대출에 관심을 보이며 더 많은 수익창출에 혈안이 되어 있다. 민대리와 함께했던 그의 드림팀은 민대리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한채 그를 떠나고 있다. 결국 민대리가 부른 과욕은 한사람을 사경으로 몰아가게 되었다. 똑 같은 상황속에서 박실장은 저축은행장이 되려는 욕망에 사로 잡혀 있었다. 그러나 민대리의 마음은 다르다. 장과장을 부르던 날 우연히 민대리를 추적하던 천형사의 길목에서 장과장이 체포되지만 천형사는 다시 장과장을 풀어주며 그의 도주를 용인한다. 장과장과 민대리, 그리고 그의 드림팀은 자신들로 인하여 피해를 보았던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박실장의 아지트를 허물고 돈을 인수해 간다. 분노에 찬 박실장이 조폭들과 함께 민대리의 사무실을 찾지만 허탕을 치고 모든 꿈은 수포로 돌아간다. 온갖 비리로 얼룩지며 반성의 시간을 탕진했던 원검사와 한서기관 또한 박실장과 연루되며 체포되는 수모를 겪는다. 민대리와 장과장은 수백 계단 펼쳐진 서민들의 땀을 되짚어 가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고 있다. 서민의 삶은 이 계단의 숫자 만 큼이나 고단하다. 그 고단함위에 더 큰 고통을 주었던 한때를 반성하듯 그들은 그들의 수익을 되돌려 주고 있다.

영화는 해피엔딩이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도 해피엔딩이었을까? 너무나 높은 은행 문턱앞에서 좌절한 사람들에게 급전을 빌려주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진 댓가는 빌려가는 금액에 비하여 너무나 처절하다. 결국 좌절의 늪에 빠지고 일부는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감행한다. 빈곤이 되물림되는 사회, 민대리 또한 빈곤계층의 모델이었다. 어쩌면 민대리 만큼은 이 일에 소극적이어서 했을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누구보다 적극적이었고 엄청난 부를 경험하였다. 그의 부모는 단칸방으로 이전할 망정 아들이 준 돈으로 큰 집을 구하지는 않았다. 깊은 병중에서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했던 착한 아버지의 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원라인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 돈 때문에 목숨이 오가는 사람들의 앞에 서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수 없을 때 그리스도인이 줄 수 있는 위로는 무엇일까? 그저 기도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일까?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과 슬픔에 귀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그들을 돕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가 가진 것이 없다면 적어도 기도와 격려와 위로 만큼은 더 풍성해져 가야 할 것이다.

15. “패트리엇 데이”Patriots Day

미국영화, 장르:드라마,스릴러 개봉:2017.04.06

감독:피터 버그(Peter Berg),

각본:맷 차먼(Matt Charman),에릭존슨(Eric Johnson),폴타마시(Paul Tamasy)

제작:도로시 오피에로(Dorothy Aufiero) 외 4명

주연:마크 월버그(Mark Wahlberg), 관객:74,800명(2017.04.28.현재)

1.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 사건

“보스턴 마라톤”(Boston Marathon)은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매년 4월 3주 차 월요일 “패트리엇 데이”(Patriots Day)에 개최하는 세계적인 국제 마라톤이다. 그리스 아테네 근대올림픽을 기념하여 개최된 보스턴 마라톤은 1897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런던, 로테르담, 뉴욕 마라톤과 함께 세계 4대 마라톤대회다. 보스턴 마라톤 폭발사건은 2013년 4월15일, 메사추세츠 보스턴에서 개최된 117회 2013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두 개의 사제폭탄이 폭발하여 5명이 사망하고 280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다. 현지시간 오후 2시50분경, 보일스턴가 671번지 코플리 광장 결승선 직전 마라톤 스포츠 체인점에서 1차 폭발하고, 2차 폭발은 170미터 떨어진 서쪽 블록에서 12초후에 발생했다. 폭탄은 압력술 폭탄으로 사제 폭발물이었으며, 많은 인파가 몰려있는 길거리 배낭속에 감춰져 있었다. 3만8천여명이 참여한 보스턴 마라톤 대회의 우승자들과 선두권역의 시상권자들은 이미 2시간전에 통과한 후였다. 그러나 국경일을 기념하는 보스턴 시민들과 미국인들의 완주를 기다리는 가족들과 많은 인파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며 기다리고 있었다. 폭탄테러로 인하여 8세 남자아이인 “마틴 리처드”가 사망하고 “크리스틀 캠벨”(29세여성)과 보스턴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중인 중국인 유학생 “뤼링쯔”가 사망하였다. 3일후인 4월18일 밤 10시48분에는 메사추세츠 경찰관이던 “손 컬리어”가 테러범에 의해 사망함으로써 폭탄테러와 관련해서 4명이 목숨을 잃었다. 280명의 부상자 가운데 183명은 메사추세츠종합병원과 터프츠 뉴잉글랜드의료센터, 브리검여성병원, 보스턴소아병원, 보스턴의료센터 등으로 분산되어 치료를 받았으며 이들에 대한 정신과 진료도 수년간 계속되었다. 폭발이후 폭발하지 않은 여러개의 불발탄이 발견되었고 테러범 가운데 “타메플란 차르나예프”는 현장에서 사살되었으며, 공범이자 동생인 “조하르 차르나예프”는 2015년 5월15일 사형이 선고되었다.

2. 영화 “패트리엇 데이”

1775년 미국 독립전쟁의 첫 번째 전투를 기념하는 “패트리엇 데이”에 일어난 대규모 참사의 진원지는 “117회, 2013 보스턴 마라톤 대회”다. 테러 용의자는 러시아

체첸공화국 이민가정 “타메르란 차르나예프”(티모 멜리키즈역)와 “조하르 차르나예프”(알렉스 울프역) 형제다. 이들은 전통적인 무슬림으로 가정에서 압력솥 폭탄을 직접 제조해 배낭에 담은 후 마라톤대회 결승점에 갖다놓는 치밀함을 보여 주었다. 테러발생 105시간만에 사건은 종결되었고 추가적인 테러위협이나 폭발은 없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긴급성명을 내고 “극악무도하고 비겁한 행위”라고 이 사건을 규정하였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보스턴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선포하고 로건국제공항의 이착륙을 금지시켰다. 연방청 법무부와 FBI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테러범이 체포되기까지 보스턴시 전체에 대한 출입이 봉쇄되었다. 보스턴은 하버드대학교와 MIT, 버클리음대와 보스턴대 등 명문대학과 연구소와 박물관등이 밀집되어 있고, 페미니즘을 비롯한 시민운동의 발원지였다.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시민들은 테러에도 당황하지 않고 무료급식과 학생들의 헌혈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한편 사건발생 4일만에 범인 검거에 성공한 보스턴 테러사건의 성공요인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였다. 네트워크망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수천개의 민간소유 CC-TV정보내역을 실시간으로 체크할수 있도록 600여대를 즉각적으로 지원하는 등 범인검거의 결정적인 역할을 도왔다.

보스턴의 일상은 보통때와 다르지 않았다.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경기장을 찾았다. 마라톤에 참여한 선수들의 가족들은 인도에 장사진을 치며 응원전을 펼치고 있다. 축제와 같은 국경일에 펼쳐진 보스턴 마라톤은 2013년에 117회를 맞는 세계적인 스포츠축제다. “타메르란 차르나예프”와 “조하르 차르나예프” 등 무슬림 형제들은 폭탄을 제조하고 보스턴 스포츠 축제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갔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허둥대야 할 시간, 보스턴 경찰과 시민들은 누구보다 질서를 지키며 사태수습에 전력하였다. “토미 샌더스”(마크 월버그역) 경장은 자신의 안위보다 시민의 안전을 우선하며 테러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 FBI “릭 드로리어스”(케빈 베이컨역)팀장과 함께 테러범을 추적하며 그들의 행로를 밝혀내고 있다.

사건발생 120분, 보스턴 경찰청과 FBI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0TB증거자료 분석과 함께 CC-TV를 하나하나 점검해 들어갔다. CC-TV에 포착된 하나의 그림자는 또 하나의 인물을 그려내고 범인은 두명이라는 단서를 잡게 된다. 뉴욕에서 2차 범행을 노리던 무슬림 형제들의 눈앞에 경찰이 나타나고 그 가운데 형인 타메르란 차르나예프가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 형의 죽음을 뒤로 한 채 도주를 하며 뉴욕으로 향하지만 사건 발생 4일만에 조하르 차르나예프도 체포되고 만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미혼의 경찰 1명이 테러범에 의해 목숨을 잃고 어린 아이 한명과 여성 2명이 테러현장에서 죽음을 맞이 하였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하였고 실화에 충실하려고 노력하였다. 실제 필름을 영화 곳곳에 담아 당시의 사건의 중대성을 알리려고 하였다. 종교적인 이유에서든지 아니면 개인적 일탈행위이든지 테러는 악의적인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다.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고 도시는 온통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다. 수많은 부상자들 가운데는 장애인이 되거나 정신적 피해자가 되어 아직도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평화를 사랑한다. 그래서 예루 "샬렘"이다. 평화는 테러가 아니다. 무고한 목숨을 빼앗는 것도 아니다. 전쟁도 아니며 증오와 미움도 아니다. 그저 사랑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필요하다. 고난주간에 영화는 계속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세워진 시간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삶으로 연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십자가이다.

16. "특별시민" The Mayor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7.04.26

감독:박인제, 제작:팔레트픽처스

주연:최민식,곽도원,심은경, 관객:1,361,434명(2017.06.01.현재)

차기 대권을 목표로 하는 "변종구"(최민식역) 서울특별시장은 선거사상 최초로 3선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그는 3선의 중진의원으로서 새자유당 "당대표"(김홍파역)와 대립각을 세우며 정치권 1인자로 부상하려 하고 있다. 그에겐 재선의원이자 선거대책본부장인 핵심 브레인 "심혁수"(곽도원역)의원이 있다. 1029만명 서울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변종구를 비롯하여 유력 야당후보이며 홍일점인 다함께당 "양진주"(라미란역)의원과 무소속 "허만길"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선거용 토크쇼에 출연한 변종구 시장은 당돌한 광고기획자 "박경"(심은경역)으로부터 비판적인 질문을 받고 매우 당황하지만 은근히 그녀의 매력에 이끌린다. 클라이먼트로부터 번번히 거절당하던 박경은 변종구 선거캠프에 입성하며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다. 변종구시장을 5년간 추적중인 고참 정치기자 YTN "정제이"(문소리역)는 박경의 대학선배로서 정치 초년병인 박경으로부터 다양한 정치뉴스를 제공 받는다. 정치인과 정치부 기자가 상호간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서로 다투아 가는 것은 그들이 거처한 곳이 진흙탕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라는 통념이 있다.

서울을 사랑하지만 정치권력을 더 사랑하는 변종구는 달변가인 동시에 리더십과 쇼맨십을 겸비한 카멜레온이다. 그에겐 정치적 동지인 심혁수외에 운전기사이며 8년간의 동역자(진선규역)가 있다. 변종구는 지지율 변화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아내가 구입한 그림 한 점으로 인해 지지율이 하락하게 되고 이 일로 분노한 변종구 시장은 자신의 아내에게 극심한 언행을 저지른다. 안과 밖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변종구 시장은 자신의 가정을 전혀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권력중심의 정치가일 뿐 좋은 남편도 아니었고 좋은 아빠도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날 변종구 시장은 자신의 터전인 고향 마을의 한 음식점에서 오랜 지인과 함께 음주를 나누고 운전대를 잡게 된다. 때마침 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이 있었지만 변종구 시장의 전화 한통으로 음주단속은 긴급철수를 하게 된다. 그러나 과음을 한 탓이었을까? 변종구 시장은 운전 도중에 사단 병사 한명을 치고 달아나는 뺑소니 운전자가 된다. 관사로 돌아온 변종구 시장은 자신의 심복에게 전화를 하여 내용을 은밀히 추적하고 사건을 무마하지만 뛰는 놈위에 나는 놈이 또 있다. 휴대폰 추적장치와 도청장치를 삽입해 놓은 심혁수 본부장은 변종구 시장의 통화내용을 도청하고 그 내용을 USB에 담아 보관하며 때를 기다린다.

모든 진실이 덮였다고 생각한 변종구 시장은 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을 은밀하게 처리하며 선거전에 돌입하려 한다. 그러나 서울 도심 한복판에 갑자기 나타난 썩크홀 하나가 변종구 시장의 고공행진을 막아서고 있다. 유력여성 야당후보인 양진주 의원이 공격찬스를 맞이하여 대공세를 펼치는 가운데 변종구 시장은 사건현장에 천막을 치고 노숙하며 정치적 쇼맨십을 힘껏 발휘하며 유권자의 마음을 돌려 놓는다. 이렇게 모든 선거판이 변종구 시장의 뜻대로 이어갈 무렵 정제이 기자의 폭로 기사로 사단병사 사망사건이 수면위로 부상한다. 변종구 시장 딸의 차로 밝혀진 사건의 흔적은 비열한 정치세계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 주고 있다. 서울 시장 선거를 코 앞에 둔 변종구 시장은 자신의 딸을 희생양으로 삼으며 선거에서 승자가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 악한 세상에서 때론 진실이 패자가 된다. 정치인에게 있어서 정치권력은 마약보다 중독성이 강하다. 3선 서울시장을 기반으로 대권도전을 꿈꾸는 변종구 시장은 바로 눈앞에 펼쳐진 대선의 꿈을 끝내 내려 놓지 못한다.

불신과 불신의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박경의 휴대폰이 계속 문제가 되어 수리점에 갔을 때 그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휴대폰이 도청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변종구 시장에게 밝힌 박경은 심혁수 본부장을 의심하게 되고 변종구 시장은 심혁수를 관사로 불러 의심을 토해 내어 버린다. 어슬픈 정치꾼들의 이해타산은 각자의 수학공식처럼 복잡한 듯 해도 일단 선거에서 이겨야 한다는 공식에는 정확히 일치한다. 변종구 시장을 만나고 귀가한 심혁수 본부장은 변종구 시장의 심복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구두장식장이 무너지게 되고 좌충우돌하는 사이 심혁수 본부장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변종구 시장은 심혁수 본부장의 자살로 유인하고 모든 사건은 영원히 묻혀 가는 듯 했다.

서울시장 선거일, 앞치락 뒤치락하며 일전일퇴를 나누던 변종구와 양진주의 싸움은 결국 변종구의 승리로 끝난다. 모든 권력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을 때 박경은 진실이 담겨진 USB를 들고 나타나 변종구 시장에게 자수를 권한다. 그러나 변종구 시장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박경은 변종구 시장과 결별을 선언하고 돌아서 나간다. 시장실 밖에서는 지난 5년세월 변종구 시장을 추적하던 정제이 기자가 기다리고 있고 그녀는 지금 여의도로 입성할 준비를 하며 변종구의 수하로 들어가고 있다. 양진주 의원의 중추신경으로 정의로운 정치를 꿈꾸던 "임민선"(류혜영역)보좌관이 선거 막판에 이합집산의 정치판을 떠나고, 선거에서 승리하며 변종구 시장과 함께 다른 꿈을 꾸려고 했던 박경 보좌관 역시 지독한 냄새로 진동하는 똥밭에서 나가고 있다. 변종구 시장의 심복으로 모든 것을 처리한 또 다른 젊은 청년은 여전히 그의 상위에서 떨어지는 음식에 구토증세를 느끼지만 뱉아내지는 못한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진실이 회복된 것도 아무것도 없다.

영화는 끝이 나 버렸다. 진실을 가진 박경의 그림자는 어두워져만 간다. 희망의 청년들은 꿈을 잃어버린 채 추락하고 있다. 정치 영화는 희망을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은 영화를 통하여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희망은 정치가 주는 것이 아니다. 기대와 꿈은 정치인의 공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의 꿈과 희망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도래하는 것이다. 그 어떤 세상이 도래한다고 해도 그 세상은 절망적인 눈물을 초래한다. 그저 가진 자들의 축제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꿈을 기대해서는 안된다. 모든 기대함과 바라봄과 꿈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이 줄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 영화는 더욱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증거가 된다. 이것이 정치세계의 팩트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17. “임금님의 사건수첩”The King's Case Note

한국영화, 장르:코미디,모험,액션, 개봉:2017.04.26

감독,각색:문현성, 원작:허윤미, 각본:강현성, 제작:영화사람

주연:이선균,안재홍, 관객:1,633,738명(2017.06.01.현재)

1. “예종대왕”

세종32년, 1450년, “세조”와 “정희왕후 윤씨”의 2남1여 중 차남으로 출생하였다. 이름은 “황”(晁), 자는 “명조”(明照)이며 세조가 즉위하자 “해명대군”(海陽大君)에 봉해졌다. 형인 “의경세자”(후에 덕종으로 추존)가 세자로 책봉된지 2년, 1457년(세조3년)에 사망하는 바람에 예종이 세자의 자리를 이어받아 왕위에 즉위했다.

“조선왕조실록”에 예종은 성품이 “영명과단”(英明果斷)하고 “공검연묵”(恭儉淵默)하며, 서책에 뜻을 두어 시학자(侍學者)로 하여금 날마다 세 번씩 진강(進講)하게 하고, 몹시 춥거나 더울 때도 그만두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총명하고 업무에 과단성이 있으며 공손하고 겸손하여 속이 깊고 침묵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덕업(德業)이 일찍 이루어지고 여망(輿望)이 날마다 높아지자 세조는 “세자가 육례(六藝, 禮·樂·射·御·書·數)에 이미 통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1460년(세조6년), 예종은 세자 시절에 “한명회”의 장녀와 혼인을 하였지만 세자빈에 책봉된 이듬해 “인성대군”(仁城大君)을 낳은후 건강악화로 사망하였고, 후일 “장순왕후”(章順王后)로 추존되었다. 예종은 둘째 부인으로 우의정 “한백륜”(韓伯倫)의 딸과 혼인하였다. 1462년(세조8년), 예종 즉위 후 한씨는 “안순왕후”(安順王后)에 봉해졌고 “제안대군”(齊安大君)과 “현숙공주”(賢肅公主)를 낳았다. 예종은 세조의 병환이 깊어졌을 때 수라상과 약을 직접 관할하며 극진히 간호하는 지극정성으로 자신의 건강이 해로울 정도였다. 병세가 너무나 깊어져 죽음을 하루 앞둔 세조는 1468년(세조4년) 9월7일 예종에게 왕위를 이양했다. 세조로부터 직접 면복을 이어받은 예종은 19세의 나이로 수강궁에서 즉위식을 거행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예종의 정치적 영향력은 모후인 “정희왕후”의 수렴청정으로 이어졌다. 아울러 당대 최고의 권력가인 한명회를 비롯하여 신숙주, 구치관 등 원로들의 회집인 “원상”(院相)들의 정치적 영향력으로 왕권은 약화된 지경에 있었다. 이러한 훈신세력의 영향력은 사관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끼쳤다. 춘추관 사관 출신의 “민수”(閔粹)는 거대한 사옥을 건립하였지만 한명회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기록한 사초가 신경쓰여 수정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 이 일로 예종은 민수를

비롯하여 강치성(康致誠), 원숙강(元叔康), 이인석(李仁錫)을 처벌하였지만 사관들이 왕보다 훈신세력을 더 두려워 한다는 측면에서 불만이 고조되었다.

훈신세력과 함께 양대 정치세력을 갖춘 종친세력의 입지도 위험수준에 이르렀다. 부친인 세조는 “이시애의 난”을 통해 훈신세력을 견제할 대항마로 “구성군”과 “남이” 등 난을 일거에 제압한 종친세력을 앞세웠다. 구성군은 세종의 4남 “임영대군”(臨瀛大君)의 아들로 세종의 손자이다. 그는 “적개공신”(敵愾功臣) 1등으로 봉해지며 병조판서와 영의정에 오르는 권력의 수직상승을 이루며 세조의 총애를 받았다. “남이”는 태종의 4녀인 “정선공주”(貞善公主)와 “의산군”(宜山君) “남휘”(南暉)의 손자이며 또한 훈신세력 “권람”(權攄)의 사위이기도 하였다. 그 또한 27세의 나이에 병조판서에 올라 주위의 경계대상이 되었다.

예종은 세조에게 “성상께서 구성을 지나치게 사랑하시니 신은 이를 그르게 여깁니다”라고 고언을 할 정도로 종친세력의 부상을 두려워 했다. 그러던 어느날 “유자광”(柳子光)이 남이의 역모를 고발했고 분노한 예종은 남이를 체포해 문초를 했다. 남이는 “유자광의 집에 가서 이야기 도중 책상에서 “강목”을 가져다가 혜성이 나타난 한 구절만 보았을 뿐이고 다른 의논한 것은 없습니다”라며 항변했지만 곳곳에서 남이에게 불리한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결국 남이는 가혹한 고문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공모자로 지목된 “강순”(康純) 등과 함께 처형되었다.

예종은 즉위후 분경 금지, 검판서 폐지, 대납 금지, 면책특권 제한 등 훈신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한 일련의 정치적 결단을 실행했지만 역부족이었다. 훈신 세력을 견제하던 종친 세력이 “남이의 옥”을 계기로 권력에 타격을 입자 훈신 세력은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시작했다. 예종은 훈신세력들의 권한을 제한하는 정책을 중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한 양대권력의 정치적 대결은 불가피했다. 이러한 상황속에 일어난 예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훈신 세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1469년(예종1년) 11월28일, 원상들은 예종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였다. 사망 1일전 정희대비에게 평상시와 같은 문안을 드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보았던 예종의 죽음에는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희대비와 원상들은 예종 사망후 바로 의경세자이며 예종의 형이었던 덕종의 차남인 “자산군”(者山君)을 왕으로 지목하고 즉위식까지 마쳤으니, 그가 바로 조선의 9대 왕인 “성종”이다. 그러나 왕위계승자로 볼 때 자산군은 후위에 있었다. 첫째, 예종과 안순왕후의 원자 “제안대군”이 아직 어린 나이이지만 엄연히 존재하였다. 둘째, 그가 너무 어려서 곤란하다면 의경세자의 장남인 “월산군”(月山君)이 있었지만 정치세력가들은 그들 대신 당대 최고의 권력자 한명회의 사위인 자산군을 왕위에 옹립한 것이다. 이 일로 조선팔도에는 독살설 등 흉흉한 소문이 나돌았지만 즉위 1년2개월만인 20세의 나이로 예종은 생을 마감해야 했다.

2. 영화 “임금님의 사건수첩”

스토리 전체가 픽션(허구)이다. 훈신세력과 종친세력 등 조선궁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암투극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예종”(이선균역)은 예리한 추리력과 총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궁내사정에 관한 비선조직을 갖고 싶어 하는 예종은 비상한 재주를 가진 신입사관 “이서”(안재홍역)를 특채한다. 이서는 뛰어난 학식과 가문 그리고 탁월하지 않은 외모를 가진 보통의 조선미남이다. 의욕보다 과욕이 앞서는 이서는 언제나 실수 투성이다. “직제학”(주진모역)으로서 이서를 특채한 그는 예종의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며 경호실장 “흑운”(정해인역)과 함께 예종의 왕권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조선궁내 사정을 정탐하던 왕의 밀사 두명이 의문의 죽음을 당하고 한양 바닥에는 괴이한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허수아비가 마을 중심에 나타나 민심을 흐트러 놓고, 왕립 호수에는 귀신 물고기가 나타나 사람의 목숨을 노린다. 얼굴에 화상을 입고 숨을 거둔 밀사를 해부하는 과학수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예종은 논리적 추론을 바탕으로 사건의 중심부를 향하고 있다. 정치권력의 암투극에 대한 전조등처럼 보여주는 예종의 비밀공간은 검안실이자 화학실험실, 비상정치회의의 장소로 그 적합성을 보여준다.

“5보” 또는 “3보”라는 별칭을 부여받은 이서와 함께 저작거리 잠행을 나간 예종은 “선화”(경수진역)라는 무녀를 만나게 된다. 그녀는 과학적 탐구력과 예리한 수단으로 꽃병위의 동전을 흔들거리며 수많은 저작거리 뽐뽐한 소문의 진원지가 된다. 그 또한 권력가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카멜레온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언제나 우위를 선점하는 것은 예종의 몫이다. 예종의 씹크탱크를 자임하는 이선의 역할은 그냥 톨마니다. 예종을 따라다니는 충성파일뿐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 귀가길 예종앞에 나타난 괴한을 처리한건 이선이 아니라 비밀 경호실장 흑운의 몫이다. 비상한 칼솜씨를 보여주며 날렵한 기술은 당대 최고의 무사임을 증명한다.

왕권과 대결하는 “영의정”(김홍파역)과 “좌의정”(김응수역), 그리고 “우의정”(조영진역)과 왕의 사형인 “남건희”(김희원역)의 치밀함은 왕의 수와 겨룰만한 경쟁구도로 자리하고 있다. 이들의 중심에는 어린 “자성군”(엄지성역)과 그의 어머니 “수빈”(장영남역)이 존재하고 있다. 권력은 적당한 크기로 나눌 수 있는 케익 조각이 아니다 언제나 상대방의 권력이 더 커보이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다. 두뇌게임의 승자는 누구일까? 남건희를 예의 주시하며 그의 동태를 살피던 예종은 그를 병조판서에 입각시키며 근접한 거리에서 그를 추적하고 있다.

남건희는 자성군을 납치하고 그를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기 위해 감금하고 있다. 자성군은 남건희의 요구대로 쉽게 응할 상대가 아니었다. 이 모든 정황을 파악하고 있는 예종은 느스레를 떨며 아무일도 없는 듯 사태를 진정시킨다. 양측의 두뇌 싸움은 보다 치열해 지고 마지막 승자는 누가 될지 예측이 불가능해 졌다.

귀신물고기를 잡으려면 그 물고기가 나타나는 현장으로 가야한다. 예종은 대신들과 함께 낚시를 떠난다. 가락국 어부를 은밀히 대기시킨 예종은 귀신물고기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다. 드디어 귀신물고기의 정체가 드러나고 가락국 저격수와 예종의 화살이 정면으로 귀신물고기의 숨통을 조여 놓았지만 성과는 없다. 분명 시체가 떠올라야 할 호수위에 떠오른 건 귀신물고기의 시체가 아니라 물폭탄이었다. 거센 폭풍우가 휘몰아치며 가락국 선단과 왕의 선단을 뒤집어 놓았다. 예종이 물러설 형국이 아니었다. 호수 근처에서 출처불명의 가택을 발견하고 비밀의 열쇠를 추적해 간다. 그곳에서 예종은 뜻하지 않은 성과를 거둔다. 귀신물고기의 정체를 발견한 것이다. 그러나 다시 뛰는 놈위에 나는 놈이 있다. 이를 눈치 챈 남건희가 폭발물을 이용하여 가택을 제거해 버린 것이다.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왕은 죽었고 권력가들은 조선을 통째로 삼키며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축제는 조금 성급한 측면이 있었다. 남건희가 예종과 이선이 비밀현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폭탄에 산산조각이 났을거라는 예단이 빨랐던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달랐다. 예종과 이선이 비밀장소를 발견했고 폭파직전에 자신들이 만든 귀신물고기를 타고 탈출에 성공한 것이었다. 물론 복잡한 사정이 있었고 이런저런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그야말로 코미디다.

축제의 현장은 어떻게 되었을까? 죽었으리라 생각한 이선이 나타나 “주상전하 납시오”라고 외치는 장면에서 누구보다 당황한 것은 권력가와 남건희다. 뒤이어 나타난 주인공은 예종이다. 권력가들은 이 사태로 균열을 보이기 시작한다. 같은 아군끼리 칼을 겨누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새로운 독살음모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자성군의 어머니 수빈의 권력야욕을 이용해 예종 독살음모가 진행된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정점이다.

역사는 이 사건이 성공으로 끝난다. 단지 이 사건의 내막은 영화와 다르고 밝혀진 바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영화다. 영화의 주인공은 이선보다 예종이 한수 위다. 예종이 영화에서 지금 죽기에는 포스가 구겨진다. 식사할 기분이 나지 않은 예종이 궁녀들이 가져온 차로 목을 축이고 있다. 그 차에는 독이 들어가 있었고 예종은 깨어나지 못한다.

지금까지 그저 먹으며 예종을 지켜왔던 이선이 지금부터 예종을 지킨다. 궁내를 장악하고 있는 남건희를 피해 왕을 안전지대로 피신시키는데는 이선의 재치가 재료가 된다. 이선은 예종의 마술도구로 궁을 무사히 빠져 나간 후 왕을 업고 어디론가 향한다. 그러나 뒤쫓는자의 발걸음은 언제나 총알이다. 남건희는 당대 최고의 저격수들을 이끌고 예종을 추적하고 있다. 유일한 경호실장 흑운이 이들을 막아서지만 결국 실패하고 아마추어 칼잡이 이선이 막아보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바로 그때 예종이 잠에서 깨어난다. 예종은 조선 최고의 왕인 동시에 최고의 무사로도 명성을 날렸다. 남건희는 언제나 2인자다. 2인자는 1인자를 넘볼수 없다. 게임은 끝났다. 예종의 KO승으로 심판은 끝났다.

궁으로 돌아온 왕은 더 이상의 피를 원하지 않는 자비를 베푼다. 어쩌면 누군가를 제압할 능력이 없었을수도 있다. 영화는 끝까지 왕의 포스를 구겨놓지 않는다. 힘을 가진자로서의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종식하려 한다. 역모에 가담되었던 대부분의 신변은 안전보장되었고 수빈은 용서뿐만 아니라 자성군의 왕위계승까지 담보되는 행운을 거머 쥔다.

이선은 어떻게 되었는가? 여전히 말단이다. 후임이 없다. 명석한듯해도 2% 부족이다. 영화는 끝이 났다. 확실한 코미디도 아니고 뼈어난 추리극도 아니다. 뭐랄까 코미디로도 부족하고 추리극으로도 부족하다. 단지 흥행은 브레이크가 없다. 오직 이선균의 몫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화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자비”다. 원수에 대한 사랑이다. 자신을 죽이기 위한 암투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권력을 장악하지도 못했지만 피를 원하지 않는 예종의 마음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와 자비를 배운다. 이것을 현실에서 적용해 가며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끊임없는 자성과 노력에서 스스로를 진정으로 돌아 볼 때 용서의 시작은 첫걸음을 디디게 될 것이다.

18. "보안관" The Sheriff In Town

한국영화, 장르:범죄,코미디, 개봉:2017.05.03

감독,각본:김형주, 제작:사나이픽쳐스,영화사 월광

주연:이성민,조진웅,김성균, 관객:2,582,920명(2017.06.01.현재)

대전경찰서 강력계 형사반장 "최대호"(이성민역)는 언제나 과욕이 앞선다. 마약사업자 일당 소탕작전에 투입된 최대호 반장은 동료형사와 함께 공동작전 개시에 앞서 현장을 덮쳤다. 과잉진압과 무리수를 둔 현장에는 예기치 않은 사무라이 무사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동료형사가 사무라이의 칼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약밀매업자는 보는 앞에서 유유히 사라지고 화장실에 남은 것은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로 추정되는 마약 배달원이 밧줄에 묶인채 있었다.

경찰서에 체포된 마약 배달원 "구종진"(조진웅역)은 이혼경력이 있는 가장으로 여러 명의 자녀와 노모와 함께 겨우 살아가는 도시빈민으로 이 일에 가담된 희생자로 보였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최대호 반장은 그에게 순대국밥을 사주고 징역 15년형에 처할 구종진에게 징역 2년으로 단축될수 있도록 힘까지 써 주었다. 구종진이 구치소에 이송될 무렵 노모에게 보낼 편지 한통을 전달해 달라고 최대호 반장에게 간절히 요청하며 그는 호송차에 오른다. 그가 노모에게 쓴 편지를 읽은 최대호 반장은 애잔한 감정을 느끼며 자신이 가진 10만원을 넣어 우편함에 넣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동료경찰 한 명이 죽는 사태가 발생하는데다가 일망소탕작전 실패 책임을 물어 최대호 반장은 해임되는 운명에 처해졌다.

대전에서 모든 것을 정리한 최대호 반장은 부산 기장군 대변항으로 이사를 하고 식당을 개업하였다. 대변항에서 최대호 반장은 이 지역의 "보안관"으로 통한다. 멸치와 미역으로 먹고사는 순수한 바다사람들의 안전과 보호를 자처하며 오지랖 넓은 반경을 보여주는 전직 경찰 최대호는 이제 형사반장이 아니라 기장군 보안관인 것이다. 처남 "덕만"(김성균역)과 함께 온 동네 모든 일에 앞장서는 최대호와는 달리 자신이 개업한 식당의 온갖 일은 아내 "미선"(김혜은역)의 몫이었다.

최대호 반장을 중심으로 그의 곁에는 처남이자 조력자인 "덕만"이 있다. 또한 기장 토박이이며 만형인 동시에 횃집을 운영중인 "용환"(김종수역), 순박한 덩치를 가지고 정수기 사업을 하고 있는 "강곤"(임현성역), 그리고 에어컨 대리점을 하며 4차원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춘모"(배정남역) 등이 있다. 기장에는 토박이들의 마음을 흔들며 미모를 자랑하는 "희순"(손여은역)이 있다. 그녀는 덕만과 열애중이지만 별다른 진전없이 시간만 가고 있다.

어느날 서울에서 내려온 삼호식품 사장 구종진이 기장군에 초대형 비치타운 건립을 위해 나타났다. 그는 삼호식품을 운영하며 부동산 사업을 일구어 재벌의 반열에 다가가고 있다. 지역 토박이들은 이러한 서울 사람의 행보에 의구심을 드러내며 최반장이 막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최반장은 비치타운 건립반대를 주도하며 전면에 등장하였다. 때마침 비치타운 조성사업의 구종진 사장이 군청 공무원인 "박계장"(김광규역)과 나타나고 최반장과 반대파들은 그들을 막아서며 일전을 준비하고 있다. 그때 구종진 사장이 최반장을 알아보고 대전경찰서 순대국밥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 일로 급속히 가까워진 구종진 사장과 최반장의 틈바구니에는 "마약"이 있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또다시 냉각기를 맞이하게 된다.

카멜레온의 얼굴을 가진 구종진 사장은 최반장의 추적과 모함에도 불구하고 최반장을 향한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며 철저히 자신의 속내를 감춘다. 지혜롭지 못한 보통사람 보통경찰 출신 최반장은 언제나 과욕만 앞서서 일을 그르치는 결과들을 초래한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최반장과 구사장간에 비치타운 대표자 선거가 있게 되고 끝내 비치타운 대표는 구사장으로 돌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다혈질 성격에 앞뒤 가리지 않는 정신은 구사장앞에서 늘 뒤쳐진다. 급기야 최반장은 구사장 당선기념 식사자리에서 추태를 보여주는 등 남자답지 못한 장면들을 끊임없이 연출하며 그동안 보안관으로서 쌓아왔던 모든 신임을 상실하고 있다. 더 나아가 기장경찰서 "강반장"(김병옥)과 함께 드림팀을 이루며 지역의 안전을 지켜왔던 그의 신망도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최반장은 이제 보안관으로서의 자질검정도 받아야 할 정도로 신뢰도가 급락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반장의 구사장에 대한 마약 추적은 중단되지 않는다. 한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진돗개와 같은 집요함을 가진 전직 수사반장 최보안관의 추리력과 직관력은 남달리 뛰어난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기장시장과 대변항을 중심으로 민관군을 결집시키며 화합과 안전을 함께 지켜왔던 최보안관은 어느날 갑자기 나타난 구사장의 출현으로 모든 신뢰는 무너지기 시작하고 표심의 향방도 돌아서는 처지가 되었다. 구사장 일행이 찾았던 무인도 낚시터에서 마약 증거 자료를 발견해 경찰들과 함께 삼호식품 공장을 덮쳤지만 마약과 관련된 그 어떤 것도 찾을수 없었다. 오히려 숙성과정에 있는 청국장의 손해를 끼쳐 수천만원의 재산손실을 초래하게 하였다. 끝내 분을 못참던 최반장은 구사장을 운동장으로 불러 일격을 가하고 그 장면이 고스란히 폰에 담겨져 입지가 더욱 좁아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나 실상은 그 운동장에서 구사장은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며 최반장을 KO시키고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날린다.

어이없이 당한 최반장과 그 가족은 주민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고 이사를 간다 대전경찰서에서 최반장에게 한통의 전화가 걸려온다. 확인도장 하나 찍으러 갔던 대전

경찰서에서 최반장은 당시 마약사건의 주동자 “일식”(정만식역)을 만나게 되고 그와 일대일 면담기회를 갖게 된다. 그 자리에서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된다. 일식은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 “뽀빠이”가 주범이라는 사실과 그 뽀빠이가 바로 구사장이라는 것이다. 또한 구사장이 최반장에게 전해달라고 보낸 편지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일식에게 보내는 편지였고 최반장이 보낸 십만원도 일식이 받게 된 것이다.

모든 진실을 알게된 최반장은 아내의 만류를 뿌리치고 덕만과 함께 다시 구사장을 찾는다. 바로 그시간 구사장은 동네 주민들에게 관광여행을 보내고 때를 틈타 남은 주민들을 이용해 마약배달을 시키고 있었다. 일본에서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대변항을 찾았고 모든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덕만이 휴게소에서 관광버스를 가로채 운전을 하여 기장으로 되돌아 갔다. 마약 박스를 배에 옮기던 선철은 박스를 땅에 떨어뜨리는 바람에 박스안에 들어 있던 마약이 발견되고 구사장은 “곽전무”(김재영역)를 통해 선철과 주민들을 폭행하고 감금해 버린다. 관광을 떠났던 버스가 대변항에 도착하고 구사장의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순간 지역주민들은 그동안의 사정에 당황을 금하지 못한다.

구사장은 승용차를 몰고 도주를 하고 바다에서 추적하던 최반장 또한 배를 몰아 구사장을 쫓고 있다. 도로공사로 인해 구사장의 승용차가 멈추고 최반장과 구사장은 다시한번 충돌하게 된다. 구사장에게 TKO패를 당했던 최반장의 2차전은 일전일퇴를 거듭하며 총력전을 펼친다. 결국 최반장의 KO승이다. 이 사건을 해결한 최반장은 기장경찰서로부터 표창을 받고 경찰관으로 복직되는 행운까지 거머쥐게 된다. 경찰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시점에서 해결한 마약사건을 계기로 최반장은 해직이 아니라 해직을 위장한 위장사업을 하였고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구사장을 수사해 왔다는 어이없는 설정을 연출한 것이다. 현실에 없는 스토리와 현실에 없는 보안관, 우리 사회 한켠에서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최보안관은 어쩌면 오지랖 넓은 보통 시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영화는 끝이 났다. 우리 사회 건강성은 보통 사람에 의해 움직이고 발생한다는 희망을 적은 것일까? 존재하지 않은 보안관이라는 설정이 주듯 그것은 단지 희망이고 꿈이다. 그리스도인은 영화에서 무엇을 바라 볼 수 있을까? 진실이 가려진 세상 속에서 깊은 통찰력과 영감을 가지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요구된다. 전직 경찰로서 직업적 습관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실을 발견해 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것도 모든 사람들의 표심이 구사장으로 향하고 있을 때 오직 최반장 만큼은 진실을 향하고 있었다. 이러한 진실을 바라보는 눈빛이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가치일 것이다.

19. “에이리언:커버넌트”Alien: Covenant

미국영화, 장르:SF,스릴러,공포, 개봉:2017.05.09

감독:리들리 스콧(Ridley Scott), 제작:이십세기폭스사

각본:마이클 그린(Michael Green), 존 로건(John Logan), 잭 파글렌(Jack Paglen)

주연:마이클 패스벤더(Michael Fassbender),캐서린 워터스톤(Katherine Waterston),

관객:1,302,577명(2017.06.01.현재)

“에이리언:커버넌트”는 에이리언 시리즈 영화로 인류의 기원을 찾아 떠나는 “프로메테우스”(2012년)의 속편이다. 신인류를 창조한 엔지니어들과 접촉한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역사상 최대규모의 식민지를 개척하기 위해 커버넌트호를 띄워 보낸다. 미지의 행성으로부터 도달한 신호를 감지하고 목적지를 선회하여 움직이는 커버넌트는 조금전 선장을 잃은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 새로운 선장으로 등장한 “피터 웨일랜드”(가이 피어스역)는 부선장인 “다니엘스”(캐서린 워터스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없었던 미 개척지로 향한다.

지구와 비슷한 환경일 것이라는 기대는 찰나에 불과했다. 대기권을 통과하자마자 그들에게 닥친 상황은 전혀 얘기치 않은 공포였다. “데이빗”(마이클 패스벤더) 또는 “월터”로 불리워 지는 새로운 신인류는 자신을 창조한 아버지와 공화정을 분쇄시켜 버린채 이곳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며 새로운 창조물을 시도하고 있다. 이곳에 불시착한 그들 앞에는 본래 존재하였던 생명체가 있었다. 그들 모두는 누군가로부터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었다. 생화학적 수단에 의해 원폭피해자보다 훨씬더 처참한 광경으로 화석화 되어 방치된 것이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커버넌트 일행은 데이빗을 따라 안전지대로 이동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1차 감염자가 나타나고 이상한 괴물체의 습격에 승무원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사태의 심각성은 시간이 갈수록 극대화하며 그들이 타고온 비행선마저 불타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들은 미지의 행성에서 낙오자가 되어가고 있다. 커버넌트호와 교신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은 스스로 생명을 지켜야 하는 순간에 직면해 있다. 데이빗은 인간의 육체를 토대로 하여 성장하는 새로운 에이리언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다. 바로 “어머니”다. 그에겐 아버지가 있었다. 그는 인간에 의해 창조된 AI 사이보그였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를 살해하며 스스로가 창조주가 되려 하였다. 데이빗과 월터 사이에는 인간이 존재하고 있다. 데이빗은 스스로가 창조주가 되려 하고, 월터는 인간의 피조물로서 인간을 보호하려는 의무가 승계되어 있어 상호 충돌은 불가피하다.

에이리언은 창조자에 대한 도전을 시도하는 인간욕망을 그려낸 것이기도 하다. 인간이 창조주에 대한 복종을 거부하고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구현해 나가려 할 때 인간의 창조물도 인간에 대하여 거스려 나갈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해 준다. 에이리언의 사고와 행동도 이와 같다. 적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것이 무엇이든 스스로에게 자극이 오면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에이리언의 탄생은 인간의 몸에서 탄생한다. 미세한 먼지형태로 구성된 분자가 인간의 몸을 통해 새로운 존재로 부상하고 인간의 몸을 하나의 알처럼 여기며 그 껍질을 뚫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한 인간의 희생은 자극적이고 충격적이다. 그 충격이 에이리언에서는 여과없이 나타난다. 데이빗은 인간의 생명이 이로 인해 희생당하는 것에 대한 아무런 죄책이나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창조물에 대한 진일보한 성과를 기대할 뿐이다. 이것을 제압하려는 인간의 수단은 하나씩 제거되고 대니엘스의 추적과 전쟁은 지쳐만 간다.

커버넌트호가 미지의 행성에 도착했을 때 대니엘스는 역전극을 보여준다. 필사의 전사처럼 날아 오르는 대니엘스앞에 영생의 빛처럼 보이던 에이리언도 맥없이 무너져 내린다. 마지막 생존자는 불과 세 사람, 그러나 그마저도 모두 날아가 버리며 허망해져 간다. 데이빗을 월터라고 생각했던 대니엘스의 실수였던 것이다. 평안을 가져다 줄 안식처는 장례를 치르는 무덤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 악이 제거되고 선이 승리하는 영화를 기대하였다면 그 꿈은 산산조각나 버릴 것이다. 인간의 나약함과 한계성은 언제나 중요한 시기에서 무너져 내린다. 인간이 지배하며 운영의 키를 잡았던 커버넌트호는 이제 데이빗이 장악하고 있다.

영화는 끝이 났다. 커버넌트호에는 이송중인 생존자 2000명과 함께 신창조물이며 피조물인 에이리언의 생명이 잉태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미지의 세상에서 공존하지 않을 것이다. 인간은 새로운 창조물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상은 데이빗의 세상이다. 그가 미지의 행성에서 오래동안 기다려왔던 기대가 커버넌트호에 고스란히 담겨진 채로 우주를 향하고 있다.

인간의 욕망이 가져온 결과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더 심각한 세상이 될 수도 있다. 오존층의 파괴와 지구 온난화,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는 세계의 생태계는 이제 그 생사의 존립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스도인은 이해할수 없는 하나의 영화에서 무엇을 배울수 있을까? 이것은 재미인 동시에 위험이며 경고이다. 어쩌면 재앙의 예고편일 수도 있다. 욕망의 끝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 상실하지 않을까 두려움에 직면한다.

20.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한국영화, 장르:다큐멘터리, 개봉:2017.04.26

감독:홍주연, 각본:한지원, 제작:CGNTV

주연:윤안나,안은새, 관객:115,276명(2017.06.30.현재)

1. “서서평”(徐舒平,1880~1934년)

“아픔과 고통을 가진 한 인간(서서평)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아픔을 승화시키는 과정을 생생하게 전하고자 했다”(CGNTV제작진)

“조선의 여성들은 남편의 노예입니다. 이 세상에서 조선의 여성보다 인내심 많고 할 일 많은 여성들은 없습니다”(서서평)

지금으로부터 100년전, 조선의 땅은 일본 제국주의가 식민통치를 하고 있었던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러한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조선땅에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파란눈의 여자가 있었으니 그녀의 이름은 “한나 쉐핑”이었다. 1912년 3월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부에서 조선에 파견된 쉐핑은 광주 선교부 제중원에서 그 첫 사역을 시작한다. 일제식민지 시대 조선인은 사람의 수에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인권이 열악하였다. 여자는 물론 한센병을 앓고 있거나 질병에 고통받는 환자들이라면 그 상황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였다. 이러한 세상의 중심에 자처하여 조선에 온 쉐핑의 삶도 고단하리 만큼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그리스도가 있었다. 서서평(徐舒平,1880~1934년)은 독일 태생의 선교사로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Elisabeth Johanna Shepping 또는 Johanna Elisabeth Schepping)이다. 즉, 서서평의 이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쁨을 얻고 이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신앙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1880년 9월26일 독일 헤센주의 수도 비스바덴(Wiesbaden) 프랑켄 거리(Frankenstrase) 정원막사(Gartenhause)에서 출생한 서서평은 어머니 “안나 쉐핑”(Anna Schepping)께서 미국 뉴욕으로 이민간 후로 조부모에게 맡겨지게 된다. 그러나 9세 되던해에 할머니인 “엘리자베스 화버”(Elisabeth Faber)를 여의고 방황하던 중 주소지 한 장을 들고 돌연 미국으로 떠난다. 어머니를 찾아 떠난 서서평은 “카톨릭 미션스쿨”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이어 “성 마가병원 부설 간호전문학교”를 졸업한다. 그후 “뉴욕시립병원”에서 실습을 하던 중 동료 간호사의 전도로 뉴욕장로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된다. 간호전문학교 재학시절 서서평은 유대인 요양소와 이탈리아 이민자수용소등에서 봉사활동을 하였고 졸업후에는 “브루클리 주이시병원”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다. 어머니 외에 아무도 모르는 미국땅에서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서서평

은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다. 세 살때와 10대에 이어 어머니에게 버림을 받은 서서평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이 친구로 주신 "바람과 햇살과 숲"과 함께 성장해 왔다고 고백하고 있다.

1904년 "뉴욕성서교사훈련학교"(Bible Teacher Training School)의 여행사를 후원하는 "선교회"(Traveler's Aid Missionary)에서 봉사하며, 1911년에 학교를 졸업하였다. 그 시기에 동료 선교사들로부터 조선에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한채 방치되어 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들은 서서평은 한국선교를 결심하였다. 이듬해인 1912년 2월20일, 32세의 젊은 여청년 서서평은 "미국 남장로교 해외선교부"에 지원하여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파견되었다. "S.S.Korea호"를 타고 20일만에 조선에 도착한 서서평은 "광주선교부 제중원"(우월순 원장)의 간호사로서 병원과 함께 주일학교 전도사로서 섬기기 시작하였다. 서서평은 한국어를 배우고 옥양목 저고리와 검정색 통치마를 입었다. 검정색 남자 고무신을 신고 다니며 조선의 음식인 된장국을 무척이나 좋아했다. 서서평은 온전한 조신인으로 새롭게 태어나고자 평생을 노력하고 헌신하였다. 그녀는 독신을 고집했지만 "박해라, 문안식, 문천식"을 입양하여 그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서서평은 한국인으로서 미국귀향을 포기하였다. 그로부터 1934년 향년 54세로 소천하기 까지 서서평은 무려 22년 일제강점기 동안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광주빈민촌을 중심으로 제주도와 추라도등에서 간호선교사로 활동하였다. 미혼모와 고아와 한센인과 노숙인과 가난하고 병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서평은 친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나환자의 어머니"로 불렸다. 급여 대부분을 빈민구제와 여성들을 위해 사용하며 입양아로 키운 고아만 14명이었고, 함께 한 집에서 살게 된 과부들도 38명에 이르렀다.

광주 양림동에는 여성의 자립시설인 양잠업을 세우고 이를 위해 미국선교본부에 기금을 요청하였다. 제주여성자립시설 설립을 위해 고사리 채취를 하였고 임종을 맞이했을때에는 의학용으로 시신을 기증하며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 "이일학교"(전주한일장신대학교의 전신)를 설립하여 학업을 할수 없는 학생들을 지도하였고, 이 학교 265명의 학생들이 서서평의 장례에 운구행렬을 이루며 광주 최초의 시민사회장으로 치루어 졌다. 그녀의 장례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소복을 입고 줄을 이었고 광주시민들이 울부짖으며 그녀의 죽음을 안타까워 했다. 미국 장로교에서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 7인"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조선에 파견한 서서평을 결정하였다. 서서평은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인 "조선간호부회"를 설립하였고 "여전도회연합회"를 창설하였다. 또한 그녀가 설립한 "이일학교"는 조선 최초의 여성신학교로서 "한일장신대학교"의 모태가 되었다. 더 나아가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호남지역에 4,000그루의 뽕나무를 심어 양잠사업을 구축하였다.

21. “겟 아웃”Get Out

미국영화, 장르:미스터리,공포,스릴러,드라마, 개봉:2017.05.17

감독,각본:조던 필레(Jordan Peele), 제작:UPI

주연:다니엘 칼루야(Daniel Kaluuya), 앨리슨 윌리엄스(Allison Williams), 브래드리 휘트포드(Bradley Whitford), 캐서린 키너(Catherine Keener),

관객:2,138,125명(2017.07.27.현재)

이것은 흑백인종의 갈등이야기가 아니다. 사이코패스 가족의 전형적인 일탈행위다. 건강한 흑인청년이며 사진작가인 “크리스 워싱턴”(다니엘 칼루야역)은 백인 여자친구인 “로즈 아미타지”(앨리슨 윌리엄스역)의 집에 초청되어 가족모임에 동석하게 된다. 로즈의 아버지 “딘 아미타지”(브래드리 휘트포드역)는 의학박사이며 의사이다 어머니 “미시 아미타지”(캐서린 키너역)는 최면술사이다. “제레미 아미타지”(케일럽 랜드리 존스역)는 로즈의 남동생으로 다혈질이다. 그리고 이들의 가족과 같은 존재로서 흑인 두명이 있다. 가정부 “조지나”(베티 가브리엘역)와 집사인 “윌터”(마크 쿠스 헨더슨역)가 그들이다.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교통사고로 잃은 크리스는 교통경찰관인 “로드 윌리엄스”(릴렐 호워리역)의 절친이다. 그 또한 흑인경찰이다. 크리스는 여친인 로즈가 부모님에게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신경이 쓰인다. “굳이 미리 말할 필요가 없잖아”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거짓말이다. 남친을 데리고 간 산장은 크리스의 경매장이었던 것이다.

로즈는 크리스와 함께 산장으로 가던 도중 도로에서 사슴 한 마리와 충돌하는 사건을 만나게 된다. 어릴적 어머니의 교통사고의 기억과 교차하면서 크리스는 심리적으로 갈등을 빚는다. 경찰에 신고를 한 크리스는 백인경찰과의 작은 흑백갈등을 빚지만 로즈의 반격에 가까운 한마디로 일단락 된다. 그러나 사태의 진실은 따로 있다. 경찰이 크리스의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 크리스의 기록이 경찰에 의해 남을 것을 두려워 한 로즈가 흑백갈등을 조장하며 막아선 치밀한 구조였다.

로즈의 어머니 미시는 독특한 최면술사이다. 커피잔을 흔들며 내는 소리에 반응하며 최면에 걸리는 치밀함이 드러난다. 자신의 과거에 대하여 콤플렉스를 가진 크리스는 최면을 거부하지만 밤 늦은 시간에 산책을 나갔다가 들어오는 길에 미시와 마주치면서 체면에 걸리게 된다. 무엇인가에 걸린듯한 가정부 조지나와 허겁지겁 달려가는 집사 윌터의 이상한 행동에 크리스는 혼란에 빠져있다. 조지나와 윌터는 로즈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로 뇌수술을 통해 진화된 장면들을 연출한다. 조지나는 머리를 다듬으며 뇌수술부위를 감추고 새로운 몸에 적응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겪고 있다. 월터의 달리기는 올림픽시절 달리기에 나섰던 장면들을 되새기는 계기를 주며 그 또한 새로운 몸에 대한 적응기를 보내고 있다.

아버지가 주최한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그것은 파티가 아니라 하나의 신상품으로 등장한 크리스를 직접 보러 온 것이었다. 크리스가 무엇인가를 직감하면서 로즈에게 자신의 생각을 밝히게 되고 그곳을 빠져 나가기 위해 애를 쓰는 동안 로즈의 아버지 딘은 파티 참석자들로 부터 경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이 낙찰을 받고 크리스에 대한 작업을 서두르게 된다.

로즈의 방 작은 문 하나는 열려진 상태로 있었다. 무엇인가 의구심을 갖게된 크리스가 그곳에서 로즈의 과거 사진을 목격했을 때 크리스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크리스는 로즈에게 이곳을 당장 떠나자고 요청하고 로즈는 크리스의 요청에 응하는 척 하지만 열쇠가 없다는 능청으로 시간을 끌어간다. 결국 사태는 걸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크리스는 다시한번 최면에 걸려 기절하게 된다.

1단계 최면, 2단계는 현재의 상황과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3단계는 수술과 이식의 단계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를 간혀진 크리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크리스는 의자에 묶인채 전혀 움직일 수 없다. 최면의 근거가 커피잔이라는 사실도 직감했고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있음을 느꼈을 때 그는 이미 감금상태로 있었던 것이다.

부유층 백인집단 가운데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건강한 흑인의 몸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을 연장해 가는 독특한 개념의 장수방식이다. 이것은 "침잠의 방"이라는 최면으로 시작하여 페이스, 뇌수술과 뇌 이식까지 정확하게 완성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 이러한 현상들은 초기에 부작용이 있는 형태로 영화는 진행된다. 일례로 사진을 찍는 크리스의 카메라 후레쉬에 크게 반응하는 흑인은 부작용을 겪으며 스스로도 힘겨워 하고 있다.

크리스는 거대한 음모의 숲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두를 죽여야만 했다. 로드 윌리엄스는 동료 경찰들에게 이와 같은 납치, 실종에 관한 의구심을 피려했지만 수포로 돌아가고 로즈와의 통화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하자 그곳으로 찾아간다. 총을 들고 나선 로즈에게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로드는 싸이렌을 울리며 크리스를 구한다.

영상과 음향이 압도적인 갯 아웃은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일탈 가운데서도 최상급이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지만 뚜렷한 증거나 내용은 찾기 어

렵다 한번 관람으로 이 영화를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다. 뒤섞여 있는 시나리오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도록 두지 않기 때문이다. 영화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장수의 욕망일까? 건강한 육체와 지성과 부의 결합일까? 결국 욕심과 욕망의 재앙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크리스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교통사고는 끊임없는 아킬레스건이다. 크리스는 마지막 숨을 내쉬는 사슴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발견했다. 정작 로드킬을 했던 로즈는 사슴을 볼 생각도 없었고 생명에 대한 애착심도 없었다. 그 사슴이 로즈 가족의 거실에도 장식되어 있다. 이번에는 그 사슴으로 로즈의 아버지 دن을 죽이는 도구가 된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갓 아웃은 무엇일까? 어렵다. 어떤 생각과 행위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우리에게겐 괴물과 같은 반응이 때로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그 어떤 영원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무엇이 되려 할 때이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자신을 파괴할 수도 있다 내려놓음은 물질만이 아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까지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지금의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다.

22. “대립군”WARRIORS OF THE DAWN

한국영화, 장르:시대극, 개봉:2017.05.31

감독:정윤철, 각본:신도영, 각색:정윤철,윤진호,강경필,손광수

제작:리얼라이즈 픽처스,베르디미디어,폭스인터내셔널프로덕션코리아

주연:이정재,여진구,김무열, 관객:837,475명(2017.07.19.현재)

“대립군”(代立軍)이란 “생계유지를 위해 돈을 받고 다른사람의 군역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로서 주로 양반계층과 중산층계층의 부유층 가문의 아들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었다.(조선왕조실록) 이러한 폐단이 날로 심각해져 좌의정 “송순”(宋諄)에 의해 사헌부를 중심으로 부정척결을 지시했으나 지방의 관료사회의 관행처럼 이어져온 대립군은 계속 되었다.

1. “광해군”(光海君)

1575년(선조8년), 선조대왕과 후궁 “공빈 김”씨는 선조대왕의 총애를 받고 “임해군”과 “광해군”을 낳았으나 일찍 세상을 떠나버렸다. 어머니의 얼굴조차 희미한 임해군과 광해군은 왕비인 “의인왕후”의 손에서 성장하였다. 광해군의 본명은 “이훈”(李璵)이다. 당시 조선 조정에서는 세자옹립을 서둘렀지만 선조는 세자책봉을 후순위로 밀어 놓았다. 더욱이 선조의 총애를 받았던 인빈 김씨의 “신성군”을 제치고 “광해군”을 옹립하려는 서인세력이 있어서 선조는 불쾌감을 드러내며 그들의 주장인 “정철”을 실각시켰다.

1592년, 임진왜란은 선조의 이같은 생각에 차질을 빚게 했다. 왜의 침공으로 조선반도는 순식간에 왜에 의해 장악되어 갔고 선조대왕은 수도와 도성을 버리고 강화도로 피난을 가야하는 수모를 겪게 된 것이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속에서 민심수습의 대안으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분조를 결정하였다. 본래 큰 아들인 임해군이 세자를 이어 받는 것이 마땅하였지만 그는 성격이 포악한데다가 세자로서의 자질이 모든 면에서 부족한 탓에 광해에게 밀려난 것었다.

세자에 오른 광해군은 1592년(선조25년) 6월부터 1593년 10월까지 “최흥원”(崔興源), “이덕형”(李德馨), “이항복”(李恒福) 등과 함께 분조를 이끌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광해군은 분조 해체후에 군무사(軍務司)의 업무를 주관하며 국란극복을 전두지휘하였다. 그러나 명나라가 서자인 광해군의 왕위계승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로 인한 당쟁갈등은 더욱 심화되어 갔다. 선조대왕도 명나라의 책봉문제에 시달리자 1606년(선조39년), “인목왕후”로부터 출생한 “영창대군”을 세자로 재옹립하려는 움직임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1608년(선조41년), 선조대왕이 질병으로 죽음을 앞두

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2. 영화 “대립군”

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선조대왕은 왕궁을 버리고 의주로 후퇴한다. 혼란스러운 민심을 수습하고자하는 정치권의 계략으로 어린 “광해”(여진구역)를 세자로 책봉하고 분조를 맡긴다. 광해의 호위무사인 “양사”(배수빈역)는 대립군 대장 “토우”(이정재역)의 수하들과 함께 강계로 떠난다. 그곳에서 신철과 함께 의병을 일으켜 나라를 구하라는 선조대왕의 어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는 도중 정체불명의 자객들의 습격을 받고 광해가 위험에 직면하지만 토우의 놀라운 칼솜씨로 자객들을 단숨에 제거한다. 겁에 질린 광해는 유약한 조선의 현실을 보여주는 듯 하다. 광해 곁에는 그를 보살펴 주는 유일한 상궁 “덕이”(이숨역)가 있지만 매순간 위험은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다.

광해를 쫓는 왜장“타로베”(박해준역)는 하루길 간격으로 추적해 들어오고 있다. 광해를 실은 가마가 경사높은 산악지대를 향할 때 이들의 걸음은 더디기만 하다. 급기야 토우가 가마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려 버리는 일이 발생한다. 이 일로 양사와 토우가 서로 대립하지만 광해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하고 광해도 걸어서 강계로 향한다. 며칠씩 굶게 된 일행이 산속에서 피난민을 만나게 되고 이들이 가진 음식을 빼앗으려 한다. 이 때 또다시 광해가 나서서 백성들의 마지막 남은 양식을 빼앗아 목숨을 구걸하는 행위가 옳은 지도자의 행위냐고 반문하며 모두를 잠재운다. 광해의 한마디에 백성들은 감동하게 되고, 자기들의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으며 소통의 계기를 맞이한다. 광해가 “곡수”(김무열역)에게 창을 부탁하고 스스로는 무를 추며 백성들의 고단한 마음을 달래고 있다. 백성들을 버리고 의주로 도망을 가버린 선조와 백성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광해의 대립이 영화속에 드러나며 오늘날의 현실과 대비된다.

우여곡절 끝에 강계에 도착하지만 마을은 이미 쑥대밭이 되고 백성들은 은둔지역에 숨어 때를 기다릴 뿐이다. 문제는 선조가 백성들이 타고 가야할 배를 불태워 버림으로서 자신의 안위만을 돌보았다는 점이 백성들로 하여금 더 큰 분노를 일으키게 하였다. 이 일로 토우와 대립군마저 광해를 떠나게 된다. 그러나 길을 가던 도중 왜군을 만나게 되고 토우는 광해를 살리기 위해 다시 강계로 들어간다. 때마침 백성들이 광해를 찾아와 지혜를 구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광해가 당황한 기색으로 서 있다. 토우가 근처 비어있는 하나의 성을 발견하고 광해와 백성들을 그 성으로 인도한다. 토우의 일행들인 “조승”(박원상역)과 “곰보”(오광록역)와 “왕춘”(한재영역)이 광해와 다시 합류하지만 곡수는 왜의 편에 붙어 배신의 길에 선다. 곡수역시 영원한 배신자는 되고 싶지 않았을까? 광해와 백성들이 하나가 된 것을 바라보

았을 때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대장부 다움을 보여준다.

치열한 전투를 시작하기 전, 성에 스님들로 구성된 의병이 다시 합류함으로 한판승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아 갔다. 무너진 성을 쉽게 함락시킬 것 같았던 왜장 타로베의 계획은 차질을 빚고 광해를 중심으로 하는 백성들은 하나가 된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백성들의 삶은 지치고, 싸워야 할 군인도, 무기도, 먹을 양식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 때 성 밖에서 곡수가 나타나 광해를 요구한다. 왕은 도망을 갔으며, 백성들은 죽고 나라마저 없어진 마당에 광해만 왜에 넘겨준다면 백성들의 생명은 보전 될 것이라며 광해를 자극한다. 바로 그때 “골루타”(박지환)가 성내 지하에서 올라온다. 지금 성밖에는 의병군 1백여명이 대기중이고 성밖과 성안을 연결하는 비밀통로가 있다는 것이다.

토우는 광해와 함께 성문을 열고 타로베의 왜군과 정면충돌을 예고한다. 비록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있었지만 왜군의 피해도 만만치 않았다. 무사히 전선을 빠져 나간 광해와 그 일행이 강둑에 다다랐을 때 왜군이 빠른 속도로 추적해 들어오고 있었다. 광해와 백성들은 배를 타고 무사히 전선을 빠져 나갔지만 토우를 비롯한 대립군은 모두 전사한다.

“신철”(남경읍역)장군을 만난 광해는 이제 조선의 새로운 왕으로 성장한 위엄을 보여주고 있다. 광해는 백성들과 함께 하며 위기의 국면을 정면 돌파하고 임진왜란의 승리의 기틀을 세워간다. 영화는 끝이 났다. 임진왜란이라는 긴박한 상황속에서 빠른 전개와 스토리가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다소 낭만적인 요소들이 많았다. 너무 많은 대화와 상황들이 영화를 진부하게 만들고 스피드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립군은 현재의 정치상황과 맞물리며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위기의 나라에서 지도자가 가야 할 길을 조명해 봄으로서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소 공감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화에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왕세자로서 권위와 구별된 삶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광해는 백성들속으로 들어갔다. 물론 국면자체가 그런 상황으로 물고 갈수도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읽고자 애썼던 광해의 모습에서 낮아진 왕의 진심을 바라볼 수 있다. 그리스도의 삶과 마음도 그러하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셨지만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바쳐 주셨다.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명예와 권위를 쫓아가는 세상사람들과 달리 더 낮아지는 삶과 그 행보를 나타내어야 할 것이다.

23. “악녀”The Villainess

한국영화, 장르:액션, 개봉:2017.06.08

감독:정병길, 제작:(주)앞에있다

주연:김옥빈,신하균,성준,김서형,조은지 관객:1,208,034명(2017.07.19.현재)

어린 시절부터 킬러로 교육받은 초강력 전사 “숙희”(김옥빈역)는 한명과 대결하는 법이 없다. 언제 어떤 돌발상황에서든 두려움이 없다. 숙희의 앞에는 조직깡단 두 명 이상의 상대자가 존재하고, 때로는 수십명의 조폭들이 줄을 이어 기다리고 있다. 다치거나 맞는 경우는 있어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절대 킬러, 숙희는 “화이”(2013년,김윤석,여진구)의 속편같은 영화다. 화이가 유괴범죄조직에 의해 길러진 반면 숙희는 연변범죄조직과 국가비밀정보기관에 의해 새롭게 태어난 여성킬러라는 점이 구별된다.

“아버지”(박철민역)의 죽음을 눈앞에서 목도한 “숙희”(민예지역)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단 한번의 흔들림조차 없이 그 장면을 기억해 낸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간 자에 대한 응징과 복수는 간단치 않았다. 과녁이 빗나간 자국위에는 또다른 희생자들이 줄지어 서 있고 그들의 몸에는 피가 낭자하며 그 냄새가 진동을 한다. 복수를 위해 길러지고 조직을 위해 살인을 하는 숙희는 연변범죄조직의 수장인 “중상”(신하균역)과 결혼을 앞두고 있다. 조직은 냉철하고 냉혈하다. 감정도 사랑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죽이는 자와 죽는자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러한 악의 축 위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숙희는 지금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결혼식을 치른후 숙희와 신혼여행에 오른 중상은 어디론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간다. 그날 밤 중상의 수하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고 숙희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중상의 시신을 보고 오열한다.

복수의 칼날은 어김없이 과녁을 쫓아간다. 그 어떤 영화에서도 볼수 없는 액션은 숙희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희는 조폭세계의 심장부를 뒤흔들며 한명의 도주로도 없이 괴멸시켜 버린다. 조폭이 운영하는 빌딩에는 피범벅이 되고, 시신 수십여구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리고 숙희는 경찰에 의해 체포된다.

숙희가 깨어났을 때 그곳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조직의 병실이였다. 그곳에서 “권숙”(김서형역)을 만나게 되고 연변조직이 아닌 국가조직의 킬러로 새롭게 태어난다. 철저한 교육과 양식을 가진 제2의 킬러로 탄생한 숙희에게는 중상으로부터 임신하게 된 어린 딸 “은혜”(김연우역)가 있다. 어린 딸과 함께 거처를 옮긴 숙희는 그곳에서 첫 번째 임무를 수행한다. 조직의 수장을 해치우는데는 성공했지만 그

수장의 어린딸이 아버지의 죽음을 목도하는 것에 트라우마를 가진 숙희가 주저하는 사이 직원들이 숙희를 뒤쫓게 된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를 하는 숙희를 쫓는 직원들도 오토바이를 타고 빠른 속도로 추격해 들어왔다. 오토바이 운전을 하며 칼싸움을 벌이는 숙희와 직원들의 긴박한 장면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간담을 서늘하게 한다. 뛰는 놈 위에 나는 그녀 숙희는 승리의 잔을 마시고 첫 번째 과업을 무사히 수행한다. 숙희는 이사 첫날 만나서 알게된 이웃집 남자 "현수"(성준역)와 사랑에 빠진다. 현수 또한 숙희와 같은 킬러였지만 숙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현수와 숙희는 결혼을 하게 되고 결혼식장에서 어느 누군가를 죽여라는 지시를 받고 총을 겨누게 되는데 총구에 새겨진 얼굴은 이미 죽어서 이 세상에 존재할수 없는 "중상"의 얼굴이었다. 당황한 숙희는 이번 작전을 실패로 끝내 버렸다. 뒷수습을 맡게된 "김선"(조은지역)은 숙희에 의해 도리어 중상의 인질이 되고 만다.

중상의 정체를 알지 못하는 숙희는 방황하게 되고 국가비밀조직의 일원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을 반복하게 된다. 결국 중상에 의해 현수와 딸마저 잃게 되고 그때까지도 숙희는 진실을 알지 못한다. 권숙을 찾아간 숙희는 그녀에게 총을 겨누지만 권숙은 CC-TV를 보여주며 중상의 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모든 진실을 알게된 숙희가 중상의 수하들과 한판 승부를 끝내고 중상을 찾았을 때 중상은 한때나마 숙희를 좋아했었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의문이 남는다. 결국 중상은 죽고 숙희는 살아남지만 그녀의 눈에 맺힌 증오는 여전히 전사의 불길처럼 타오른다.

영화는 끝이났다. 신나는 액션이 있지만 성인게임을처럼 폭력적이고 잔인하다. 끝없는 피비린내에 오바이트를 해야할 지경에 이른다. 보통의 여자를 누가 "악녀"로 길러내는가? 그 또한 보통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보통의 사람이 보통의 사람을 악녀로 생산해 내는 것이다. 수많은 킬러들이 교육대상에 올라 더 잔인한 킬러로 세상에 복귀하고 있다. 그저 소모품이다. 국가의 비밀정보기관이라 할지라도 현실성은 너무나 빈약하다. 그저 액션물로 보기에선 너무나 잔인하고 폭력물로 보자니 숙희가 마음에 걸린다. 강철같은 능력과 불사조같은 치밀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저 살인의 눈빛만 가득할 뿐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아야만 하는가? 원하지 않는 인생의 기로에 들어선 숙희와 숙희를 그렇게 길러낸 아버지의 진짜 살인자, 중상,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자라고 있는가? 세상 죄악을 쫓아가는 불신자로 길러지고 있는가? 아니면 회개를 촉구하는 믿음의 후손들로 길러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신앙상태를 긴급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되돌아 보고 반성과 회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것이 우리가 또다른 숙희로 자라가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24. “하루”A Day

한국영화, 장르:스릴러, 개봉:2017.06.15

감독,각본:조선희, 각색:이상학, 제작:라인필름

주연:김명민,변요한,유재명, 관객:1,129,558명(2017.07.25.현재)

세계적인 인권의사 “준영”(김명민역)에겐 유일한 무남독녀 “은정”(조은형역)이 있다. 그와 함께 119 구급대원인 “민철”(변요한역)에겐 임신한 아내이자 동거인인 “미경”(신혜선역)이 있다. 그리고 의문의 또 한사람이자 택시 기사인 “강식”(유재명역)에게도 사랑하는 아들 “하루”(김예준역)가 있었지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다. 이 세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관계와 갈등은 3년전으로 되돌아 가며 복잡하게 얽혀 있다.

3년전, 준영의 사랑하는 딸 은정이 병원에 입원하여 장기기증자를 기다리고 있다. 장기기증자가 없다면 은정의 생명은 위태로워 질 수밖에 없고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 119구급대원 민철은 어두운 밤길에 운전을 서두르고 있다. 미경과의 통화에서 문제가 생긴 민철은 다급한 마음을 감추지 못한채 한눈을 팔다가 마주오는 차와 정면 충돌하며 멈추게 된다. 민철의 차량과 충돌한 차는 그 자리에서 전복되며 차 안에 타고 있던 일가족이 중경상을 입었다. 그 차에는 강식의 아내와 아들이 타고 있었다. 사고를 일으킨 민철이 시간을 지체하는 과정에서 강식의 아내는 죽고 하나뿐인 아들 하루마저 사경을 헤매는 뇌사자가 되어 버렸다. 때마침 강식과 하루가 준영의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강식의 병환은 진전이 있었으나 하루의 병환은 갈수록 진퇴양난이다. 이러한 미묘한 갈등관계속에 하루의 장기가 은정이의 장기와 일치하며 하루의 장기를 적출하는 의료행위를 강행한다. 이렇게 하루마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후 강식은 퇴원을 하여 택시기사로 일한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고 일상으로 되돌아 간 듯 보였다.

그러나 “하루”의 영혼이 부른 것인가? 다람쥐 쳇바퀴도는 “하루”가 계속된 것이다. 그것도 단 세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유턴 120분이었다. 세계적인 의사 준영은 해외지원을 마치고 “용선”(임지규역)과 함께 귀국을 하고 있다. 비행기 이코노믹석 안에서 한 여승무원이 준영을 바라보며 그가 실린 잡지에 싸인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 옆에 앉아있던 용선은 셀카를 찍어주고 홍보활동에 여념이 없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무렵 은정이는 생일을 맞이하며 무수한 특을 날렸지만 준영은 하나도 열람하지 못했다. 화가난 은정은 친구인 “동수”(장대웅역)와 “희주”(김채연역)와 함께 하교길을 걷고 있다. 동수와 희주의 엄마 아빠는 좋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름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었다. 거기에 비해 은정이의 아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닥터였지만 정작 자녀인 은정에게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 나쁜 아빠였

다. 준영과 용선이 출국장을 빠져나오는 순간 한 "석훈"(박민수역)이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려 쓰러진다. 의사인 준영이 그 장면에 놀라서 달려가 등을 두드리며 목에 걸린 사탕을 토해 내게 한다. 용선은 그사이 기자들을 부르고 출국장에서는 그를 기다리는 기자들로 이미 포화상태다. 인터뷰 도중 어느 한 기자가 3년전 해외로 갑자기 나간 이유를 묻고 준영은 대답을 머뭇거리며 회견장을 나간다. 인터뷰를 마치고 용선과 헤어진 준영은 특뎀에 화가난 은정과와 통화를 시도하지만 잘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약속장소로 달려가는 도중 톨게이트에서 여직원이 준영에게 잔돈을 건네다가 실수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다시 빠르게 운전을 해가는 준영은 교차로 앞에서 택시 교통사고를 발견한다. 시간에 늦어진 준영이었지만 사고현장에서 환자를 두고 그냥 지나칠수 없었다. 택시기사의 상태를 점검하고 그를 차에서 내려 여러가지를 점검했다. 때마침 119 구급대가 오고 환자는 이송되어 갔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체되었을까? 준영은 딸에게 전화를 했다. 가까이서 들려오는 다른 남자의 음성엔 놀란 준영은 자신의 딸 폰인데 왜 당신이 받느냐고 물으며 돌아서보니 그곳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한 소녀가 있었고 그 소녀는 은정이었다.

그리고 되돌아온 두 번째 하루의 시작은 역시 비행기안 이코노미석, 여승무원이 준영이 표지모델로 있는 잡지를 들고와 싸인을 부탁하고, 출국장을 나올 때 아이가 사탕이 목에 걸려 쓰러져 있고, 그리고 연이은 기자 회견장과 톨게이트에서의 여직원 실수, 교통사고와 은정의 죽음까지 120분의 리메모리가 시작되었다.

세 번째 돌아온 오늘(TODAY) 120분전, 비행기안 이코노미석에서부터 사고 현장까지 거리는 50KM 정도!! 모든 시스템과 현장은 모두 그대로고 준영만 반복에서 수정가능한 존재로 있다. 그러나 120분안에 교통사고 현장에 도달하지 못했고 은정의 죽음을 막아내지 못한다.

네 번째 돌아온 오늘 역시 막아내지 못했지만 다섯 번째 돌아온 오늘에는 준영 말고 또다른 한사람이 오늘을 반복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한다. 의학박사로서 준영은 이러한 미스테리한 반복이 의아하지만 분명 이것은 은정을 살려내라는 묵시적인 미션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션수행에는 번번히 실패한다. 단지 또 하나의 단서가 주어졌다. 교통사고를 낸 택시의 뒷자석에는 민철의 아내인 미경 역시 죽어 있다는 것이다. 준영이 은정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사투를 벌이는 시간, 민철 역시 미경을 구하기 위해 사생결단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섯 번째 돌아온 오늘, 어떻게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바뀌지 않는 하루, 그속에 준영과 민철외에 또다른 한사람의 존재를 발견한다. 그것은 택시기사다. 그리고 걸려온 전화 한 통화, 택시기사 강식이었다. 사건의 출발점은 다시 3년전으로 되돌아 간다. 교통사고의 공포에서 탈출하고 싶었던 민철과 은정이를 살리고 싶었던 준영의

아킬레스가 남아있는 3년전, 그 시간의 피해자는 바로 강식이었다. 강식의 이상한 복수는 하루의 쳃바퀴다. 이것은 강식이 만든것도 아니고 준영과 민철이 만든 것도 아니다. 단지 강식이 겪어야 했을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과 죽은 하루의 영혼이 만들어 낸 복수심의 출현이었다.

택시기사 강식을 찾기 위해 민철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며 파출소를 찾아가서 택시기사를 뺑소니운전자로 신고해 버린다. 그리고 준영은 센트럴파크로 만남의 장소를 변경하고 나름대로의 피신처를 만든다. 그러나 택시기사는 티비를 보고 바뀐 장소를 발견하고 미경은 민철의 전화를 받지 않고, 준영의 전화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타버린다. 결국 아무것도 변하는 것은 없다. 또다시 윤택하는 하루, 끝은 없고 모두 지쳐만 간다.

3년전의 사고를 알게된 준영과 민철은 후회의 시간을 보내지만 이미 그 시간은 지나가 버렸다. 하루가 반복되는 시간속에서 민철은 지쳐가고 준영과 민철의 관계도 미묘한 갈등이 일어난다. 준영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다. 또다시 반복되는 하루속에 강식의 마음도 조금씩 열려 간다. 그러나 준영과 달리 민철은 사랑하는 아내 미경이 임신을 한 사실을 알게되고 강식을 죽여야만 하루가 끝이 난다면 그를 죽이려고 기를 쓴다.

강식은 은정이를 만나게 된다. 은정은 3년전 수술후에 강식을 찾아가 미안함을 전하며 하루의 마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3년후 자신안에는 은정이고 하루의 습관도 있는 존재라고 고백하며 강식의 마음을 흔든다. 또다시 하루가 시작되고 민철은 칼을 든채 강식을 죽이려 하지만 결투와 사투를 벌이며 사건 현장에까지 도달한다. 민철은 강식을 여전히 죽이려 하고, 준영은 강식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강식의 마음은 이제 복수심을 접었다. 은정이를 살리기 위해 불타는 승용차를 가로 막으며 긴 하루의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다.

영화의 끝은 미묘한 여정을 남긴다. 스피드있게 진행되던 초반과 달리 후반부는 지리한 장마처럼 이어져 갔다. 처음엔 은정이를 살리기 위해 시간을 보내고 뒤에는 강식을 살리기 위해 시간을 보낸다. 결국 진정한 반성만이 증오심에 용서의 불을 밝힌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는 영화다. 진정한 회개만이 영생의 삶을 찾는다.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회개해야 가던 길을 갈 수 있다. 하루라는 영화는 끊임없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현실은 기회를 주지 않는다. 준영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할 길의 선명한 그림자를 발견한다. 우리가 지난날 반성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찾아 용서를 빌어야 할 시간이 오늘 하루다.

25. "다크 하우스" Abattoir

미국영화, 장르:공포,스릴러, 개봉:2017.06.22

감독:대런 린 보우즈만(Darren Lynn Bousman),

각본:크리스토퍼 몬페트(Christopher Monfette),

주연:제시카 론디스(Jessica Lowndes), 조 앤더슨(Joe Anderson),

린 샤예(Lin Shaye), 데이튼 칼리(Dayton Callie)

관객:36,342명(2017.07.10.현재)

증거와 사건의 원인을 알수 없는 충격적인 연쇄 살인사건에 관심을 가지며 이것을 칼럼 형식으로 게재하는 부동산팀 취재기자 "줄리아"(제시카 론디스역), 줄리아의 전남편이자 현직 경찰로서 줄리아의 사건추적을 위험하게 여기면서도 그 사건 현장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래디"(조 앤더슨역), 줄리아의 어머니로서 줄리아와 그래디에게 주거지를 제공하지만 이미 사이비종교와 같은 집단취면에 빠져 줄리아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엘리"(린 샤예역), "다크하우스"의 주인으로서 연쇄 살인사건의 현장을 가져와 거대한 유령의 성을 건설한 사이코패스 "제베디아"(데이튼 칼리역).

다크하우스는 이 네 사람의 이야기다. 전 미국을 공포에 몰아 넣었던 연쇄 살인사건에는 언제나 사이코패스들이 있다. 그러나 언제나 증거 부족과 범의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어느날 줄리아는 잠못 이루는 조카 "찰리"(에이든 플라워즈역)를 위로하며 친언니 부부의 집을 방문한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언니의 가족은 누군가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되고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된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틀뒤 누군가가 사건현장을 송두리째 가져가 버린 것이다. 이 일로 충격에 빠진 줄리아는 이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기 위해 추적을 시작한다.

이러한 연쇄 살인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나홀로 추적을 하는 줄리아의 행보에는 제베디아가 건설한 거대한 다크하우스가 있다. 제베디아는 연쇄 살인사건 현장을 수집하는 특별한 수집가다. 그는 줄리아의 글을 읽고 그 글 속에 등장한 사건현장을 통째로 뜯어가서 재구성하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씩 하나씩 모으기 시작한 사건 현장은 더디어 거대한 제국이 되었지만 끊임없는 살인사건으로 여전히 미완성이다.

다른 외지인들의 방문을 거부하는 지역 보안관은 줄리아와 그래디의 출입과정에서 되돌아 가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다. 무엇인가에 홀린 듯한 마을 사람들은 이미 제베디아의 취면에 걸려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 평정심을 잃은 마을 사람들은 엘리의 집을 찾아가 위기를 부른다.

다크 하우스, 제베디아가 건설한 성에는 이미 죽은 자들의 분노가 살아있다. 지옥을 방불케 하는 다크하우스에는 사건 현장과 현장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의 흔적들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 충격적인 현장을 목도하는 줄리아와 그래디는 이성을 잃고, 제베디아는 다크 하우스건설의 목적과 지향점을 이야기 한다. 여동생의 사건현장을 목격한 줄리아가 출입문 앞에서 당황해 있을 때 그래디가 줄리아를 부르며 다가서자 겁에 질린 줄리아가 그래디인줄 모르고 칼을 휘둘러 그래디는 즉사해 버린다.

그래디를 죽인 줄리아가 공포에 휩싸이며 제베디아에게 총을 겨누고 있을 때 그의 어머니 엘리가 줄리아에게 총을 쏘아 죽이는 충격적인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다. 사건의 진실을 찾아 떠났던 줄리아와 그래디는 죽었고 다크 하우스는 또다른 누군가의 살인을 기다리고 있다.

영화는 끝이 났다. 공포영화도 아니고, 19금도 아닌 듯 하다. 어느 것 하나 칭찬할 만한 내용이 없다. 세계적인 요란함은 그저 빈 깡통이었을까? 굳이 의미를 찾는다면 “연쇄살인사건 현장 수집가”와 그가 만든 다크 하우스다. 그러나 그 어떤 공포도 작용하지 않는다. 이미 죽은자의 현장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연쇄 살인사건은 극악한 사회로의 귀착이 있다. 사회가 점점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게 되는 쇼크사회로 진입하는 것이다. 언젠가 이러한 충격이 일반화되며 우리 사회 자체가 경악할 수도 있다. 그것을 우리는 다크 하우스라고 부른다. 우리는 어떤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을까?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몫이 분명하다. 사람들은 이제 “각성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돌아봄” 만큼 중요한 과정은 없다. 돌아봄과 치유를 통해 사회는 악함을 악함이라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브레이크다. 그리스도인이 브레이크가 되지 못할 때 그것은 반대로 악세레다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6. "박열"Anarchist from Colony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7.06.28

감독:이준익, 제작:박열문화산업전문유한회사

주연:이제훈,최희서,김인우, 관객:2,357,224명(2017.08.08.현재)

1. 박열(朴烈)

박열은 1902년3월12일, 경상북도 문경군 마성면 오천리에서 "박지수"와 "정선동"의 3남1여중 막내로 출생하였으며, 본명은 "박준식"(朴準植)이다. 그는 전통적인 양반가문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나 경술국치 후 궁핍한 생활을 면하지 못하였다. 1908년 서당에서 한문을 배우고, 1911년 함창공립보통학교(4년제)를 졸업한후 경성고등보통학교(현,경기도등학교) 사범학과에 진학하였다. 1919년 삼일운동을 계기로 박열은 일본이 세운 경성보통학교를 자퇴하고 고향 문경으로 돌아와 태극기와 격문을 배포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1919년10월, 일제의 탄압이 가중될 무렵, 박열은 일본 동경 한복판에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신념으로 일본행 배를 탔다. 동경에 도착한 박열은 신문배달, 공장직공, 우편배달부, 인력거 등 노동현장을 누비며 고학을 하였고 "세이소쿠영어학원"에서 영어를 배우며 서방 열강들의 책을 탐독했다. 그 과정에서반제국주의와 "아나키즘"(무정부주의,anarchism)에 몰입하며 일본의 사회주의자 "오스기 사카에", "사카이 토시히코", "아와사 사쿠타로"와 접촉하며 사상교육을 전수 받았다. 또한 "김찬", "조봉암" 등 동경유학생들과 "의혈단"을 조직하고 친일파들을 타도대상으로 삼았다.

요코하마 출신의 "가네코 후미코"는 유아기때 부모에게 버려지고 조선으로 이주해 충청북도 청주군 부용면 부강리 할머니댁과 고모집에서 7년동안 학대를 받으며 살아야 했다. 이것을 계기로 후미코는 일본제국주의와 일본인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갖게 되었다. 1919년4월, 일본 동경으로 귀국한 후미코는 여학교 졸업검정시험에 합격한 후 여자의전에 진학하려 하였지만 뒤늦게 나타난 아버지가 자신을 외삼촌에 매매하려는 시도에 충격을 받고 가출해 신문판매대 점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1920년11월, "김약수", "백무", "최갑춘", "황석우", "임택룡" 등 조선인 고학생, 노동자 200명으로 결성된 "조선고학생동우회"를 설립한 박열은 12월9일, "일본사회주의동맹"에 참여하였다. 1921년11월29일, "원종린, 김약수, 황석우, 백무, 손봉원, 정태성" 등 조선인 공산주의자와 아나키스트를 중심으로 하는 "흑도회"를 결성하여 반제국주의 투쟁을 본격화 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이와사키 오뎅집"점원으로 일하던 후미코는 사회주의자 "히라사", "다케노스케", 아나키스트 "다카오 헤이베에" 등 노동사 멤버들과 교류하며, 조선인 아나키스트 "원종린", 공산주의자 "정우영, 김약수, 정태성" 등을 접촉했다. 1922년2월 "청년조선"이란 잡지에서 박열이 지은 "개새끼"라는 시를 읽고 감동에 물든다.

"나는 개새끼로소이다./하늘을 보고 짓는/달을 보고 짓는/보잘 것 없는 나는
/개새끼로소이다./높은 양반의 가랑이에서/뜨거운 것이 쏟아져/내가 목욕을 할 때/
나도 그의 다리에다/뜨거운 줄기를 뿜어대는/나는 개새끼로소이다."

박열의 시에 감동한 후미코는 정우영의 하숙집에서 박열과 대면한다. 당시 일본사회운동가들의 변절에 분노한 박열은 "강자와 약자의 투쟁, 약육강식의 관계가 우주대원칙이다. 모든 사물에 복수함으로서 만물을 멸하는 것이 위대한 자연에 대한 합리적 행위"라는 논리를 전개해 나갔다. 후미코는 기성의 가치관에 저항하는 박열에게 신앙심과 같은 사랑을 느끼고 있었다. 1922년3월, 후미코는 박열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4월 하순경, 동경 에바라군 세타가야의 데이지리 "아이카와 신사쿠"의 2층방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1922년7월10일, 박열은 후미코와 함께 흑도회 기관지 "흑도"를 창간하고 항일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나 파괴적 의열투쟁을 지지하는 박열과 대중적 전위정당을 추구하는 김약수가 충돌하며 각자 다른 길로 향하였다. 이로 인하여 박열은 "뽀뽀스러운 조선인"을 창간하고 4호까지 발행했지만 "요시찰 조선인 갑호 해당자"로서 일본경찰의 미행과 감시를 받아야만 했다.

1923년4월, 박열은 민중과 호응하는 사회운동을 기치로 "김철, 육홍균, 홍진유, 정태성, 서동성, 나가타 게이자부로, 오가와 다케시, 최규중, 이필현, 서상경, 하일" 등 조선인 15명, 일본인 6명 등 총 21명을 회원으로 하는 "불령사"(不逞社)를 조직했다. 불령사는 각자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권력에 저항하는 파괴작업을 각자 알아서 결행하는 방식이었다. 요미우리신문은 니가타현 나카오우누미군 아키시로촌에 건설중인 시나에쓰전력발전소 건립에 동원된 조선인 600명이, 새벽 4시부터 밤 9시까지 중노동에 동원되면서, 이를 견디다 못해 도주한 조선인들을 잔혹 살해한 후 나카쓰강변에 방치한 것을 보도하였다.

이에 격분한 박열은 현지노동자로 잠입하여 밀착 취재한후 그 해 9월, 미토시로쵸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수천명의 청중들에게 이러한 만행을 고발하였다. 또한 경성으로 귀국해 경운동의 천도교 교당에서 이 사건의 전말을 공개했다. 더 나아가 박열은 의열단원 김한과 함께 폭탄테러 계획을 착수했으나 중국군 장쭤린의 수하들에게 체포되어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그후 수차례에 걸쳐 황족, 외국대사등의 테러

계획을 착수했으나 폭탄구입자금 등 여러 가지 내부적 이견으로 인하여 어느 것 하나 성사된 것이 없었다.

1923년9월1일 오전11시58분, 간토지방에 대지진이 발생하였다. 동경과 요코하마에서는 조선인과 공산주의자들이 건물에 방화하고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되었다. 구조활동에 참여한 일본경찰과 자경단들은 조선인에 대한 잔혹한 살상을 자행하였다. 이일로 동경 1,798명 등 전국에서 6,618명의 조선인이 학살되었다. 조선인 대학살이 일본내 외신기자의 타전을 타고 전세계에 알려지자 일본정부는 국제사회로부터 맹비난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불령사 멤버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1923년9월3일, 일본군 제1사단 병참 제1대대 하사관 “스즈키 가메오”는 도미카야 지역 이시카와 목장숲에서 박열과 후미코 등 조선인 3명을 긴급 체포하고 “사타가야 경찰서”에 유치하였다. 가택수색에서 각종불온서적과 선전용 뼈라를 압수하고, 10월 중순까지 “김중환, 정태성, 장상중, 최규중, 홍진유, 니야마 하쓰요” 등 불령사 전원이 체포되었다. 취조과정에서 박열의 폭탄입수계획을 자백받은 검사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원인을 조작하는데 이용하였다. 10월20일 박열과 불령사 회원 16명이 치안경찰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자 오사카 아사히신문은 “대지진을 틈타 대관 암살을 기도한 불령사 비밀결사대 검거”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 세계에 타전했다.

공판 초기, 불령사 회원들을 구명하기 위해 폭탄테러 계획을 단독범행이라고 자백한 박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중환의 폭탄입수계획 가담과 후미코가 박열과 모의했다는 주장으로 단독범행 계획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결국 1925년, 박열과 후미코는 천황, 태황태후, 황태후, 황후, 황태자, 황태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대역죄로 기소되었다. 본래 대심원의 심리가 1심으로 종결되는 중죄로 인하여 박열과 후미코는 “최고특별재판”에 회부되었다. 박열은 “일본의 권력자 계급에 주노라!”, “나의 선언”, “음모론”, “일하지 않고 먹어치우는 자들” 등 4대 선언문을 발표하고, “후세 다쓰지” 인권변호사를 통해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박열의 이같은 당당한 요구는 이 사건이 전세계적인 집중을 받으면서 외신기자들이 동경으로 입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첫째 조건과 둘째 조건을 수용하는데 성공하고 공판당일 조선의 혼례복장으로 법정에 들어서 한국어로 답변을 이어갔다.

“첫째, 나는 피고 아닌 조선민족의 대표로서 일본천황을 대표한 재판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법정에 설 것이다. 재판관이 천황을 대신해 법관 법의를 입고 나온 것이라면 나도 조선민족을 대표하는 입장이니 왕관과 왕의를 착용케 해줄 것. 둘째, 재판관이 심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선 민족을 대표한 내가 먼저 법정에 서게 된 취지

를 선언하게 해줄 것. 셋째, 법정용어는 조선말만 쓰겠다. 넷째, 피고의 좌석을 재판관과 동등하게 높일 것.”

1926년2월27일, 박열과 함께 재판정에 출두하였던 후미코가 기록한 “26일 밤”이라는 제목의 한 구절이다. 일본인 아내로부터 온전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을 받았던 박열은 독립운동사에서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운 애정의 흔적을 갖고 있다.

“나는 박열을 알고 있다. 박열을 사랑하고 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과실과 모든 결점을 넘어 나는 그를 사랑한다. 때문에 그가 나에게 저지른 모든 과오를 무조건 받아들인다. 박열의 동료들에게 말한다. 이 사건이 우습게 보인다면 뭐든 우리 두 사람을 비웃어도 좋다. 그렇지만 이것은 두 사람의 일이다. 재판관에게도 말한다. 부디 우리를 함께 단두대에 세워 달라. 박열과 함께 죽는다면 나는 만족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박열에게 말한다. 설령 재판관들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는다 해도 나는 당신을 결코 혼자 죽게 하지는 않겠다.”

1926년3월25일, 대법원심리 “마키노 재판장”은 박열과 후미코에게 형법 제73조 대역죄와 폭발물단속벌칙 제3조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박열은 “재판장, 수고했다, 내 육체가 자네들 마음대로 죽이지만 나의 정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후미코는 “만세!!만세!!”라고 부르짖었다.

사형 판결후 검찰총장 “고야마 마쓰키치”는 사법대신 “에기 다스쿠”에게 권력자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테러를 하려 했고, 사실상 그 계획 자체도 허구에 가깝다는 이유로 사면을 요구했다. 후미코는 공범으로서, 박열은 주범이지만 일본황실의 자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1926년4월5일, 이치가야 형무소장 “아키야마”가 박열에게 감형장을 주었을 때 박열은 그것을 받았지만 후미코는 휴지조각처럼 찢어 버렸다. 다음날인 4월6일, 박열은 지바 형무소로, 후미코는 우쓰노미야 형무소 도치기지소로 이감되었다.

그후, 박열은 단식으로 자살을 기도했으나 형무소에서 주는 강제급식으로 인하여 실패하였다. 후미코 역시 끊임없는 자살을 시도해 7월23일, 노끈으로 목을 매달아 자살함으로서 그들의 정당성을 증명하려 하였다. 후미코의 시신은 11월5일, 박열의 고향인 경상북도 문경군 마성면 오천리 팔령산 기슭에 모셨다.

몇 개월후, 박열과 후미코가 찍은 옥중사진이 공개됨으로서 일본 정계는 파문을 일으키고 “와카스키” 내각의 총사퇴를 요구하였다. 사건담당 “다테마쓰” 예심판사는 강제 퇴임을 당하고 국회는 3일간 휴정에 들어갔다. 그후 일본제국주의는 박열을 미혹하며 전향을 제안하였으나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1945년10월27일, 박열은 투옥 22년2개월만에 호카이도 아키타 형무소에서 석방되었다. 박열의 석방은 대대적인 석방환영대회로 개최되었고, 이 대회에서 아키타 형무소장 추지시타 이사부호가 조선인들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아들을 박열의 양자로 바쳐 "박정진"으로 개명까지 하는 등 깜짝 놀랄일이 일어났다. 한때 무정부주의자였던 박열은 우익으로 전환하여 반공주의 노선을 천명하고 나섰다. 이강훈, 원심창 등과 함께 1946년1월20일, "신조선건설동맹"을 결성하고 위원장에 취임하였다. 10월3일, 재일조선건국촉진동맹 등 우파단체와 통합하여 "재일본조선거류민단"을 설립하고 단장에 취임하였다.

1949년5월, 한국으로 귀국한 박열은 한국전쟁때 납북된 후로 행적이 끊어졌다. "조소앙, 안재홍, 엄항섭, 김약수" 등과 함께 1956년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남북한 정권에게 자주적 평화통일원칙을 촉구하였다. 1974년1월17일, 평양방송은 박열이 애국열사릉에 묻혔다고 전했다.

2. 영화 "박열"

누군가 "박열"(이제훈역)이 쓴 "개새끼"라는 시를 읽고 있다. 시를 읽는 동안 누군가는 인력거일을 하고 있고, 인력거에 탄 승객은 일본 사람이다.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몇푼의 동전을 던져주며 집안으로 들어가려 한다. 동전의 개수가 모자란 인력거 일군은 바지를 붙들고 모자란 금액을 채워 달라고 보채지만 승객은 발길질만 해 댈뿐 돈을 주지는 않는다.

"나는 개새끼로소이다..하늘을 보고 짓는..달을 보고 짓는..보잘 것 없는 나는..개새끼로소이다...높은 양반의 가랑이에서..뜨거운 것이 쏟아져..내가 목욕을 할 때...나도 그의 다리에다...뜨거운 줄기를 뿜어대는...나는 개새끼로소이다."

인력거일을 끝내고 귀가길에 들어선 박열이 동지를 만나려 할 때, 때마침 그 앞에 나타난 한 여인이 있었다. 당돌하기 그지없고 박열에게 첫눈에 반해버린 그녀는 "가네코 후미코"(최희서역)다. 조금전 그녀가 박열이 쓴 개새끼를 읽고 있었다. 후미코는 초면의 박열에게 여자가 있냐고 물었다. 혼자 지낸다고 말하는 박열에게 후미코는 거침없이 동거를 제안하고 내심 끌리는 마음을 가진 박열이 이것을 승낙한다.

박열은 삼일운동을 직접 목격하고 참여하면서 일본제국주의의 만행에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시위운동에 적극적으로 주도하다가 일본 동경 한복판에서 이 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을 굳힌다. 박열의 나이 스무살, 일본 동경

에서 식민지 조선인의 삶은 간단하지 않았다. 신문배달과 각종 노동일을 하였지만 수입은 겨우 풀칠만 할 정도였다.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던 1920년대, 박열은 유럽의 아나키즘(무정부주의)에 매료되어 있었다. 민족주의적 투쟁일변도였던 당시 박열은 인류평등과 권력중심의 폭력적 부당성을 정면 비판하며 천황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의외로 빈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념적 성향이 게릴라적이라도 그 숫자가 가지는 힘과 능력의 한계는 무엇을 해낼만한 자극이 아니었다. 그래도 그들은 시내 오뎅집에 앉아 이념을 토론하고 시대를 비판하며 극우적이거나 제국적 사고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박열에게 있어서 후미코는 새로운 동지이자 사랑하는 아내다. 후미코는 진심으로 박열을 존경하고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러던 1923년 어느날, 일본 관동지역에 대지진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시설의 피해가 있었다. 제국주의 국민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천황의 심기 또한 불편해했다. 그래서 일본 내각은 조선인이 건물에 방화를 하고 우물에 독약을 탔다는 괴소문을 퍼뜨리고 조선인에 대한 대학살을 감행하였다. 일본 경찰과 함께 소위 자경단을 움직였던 일본 내무대신은 6천여명의 조선인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해 그 시신을 유기까지 해 버렸다. 그러나 이 일이 확산일로로 치달으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 사건의 배후와 원인관계자로서 당시 일본에서 활약하던 “불령사”를 주목한 것이다.

아무것도 모른채 이 사건에 휘말린 박열과 후미코와 불령사는 오히려 바깥보다 감옥안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며 체포되기에 이른다. 감옥생활은 의외로 평안해 보인다. 조선인 학살에서 피맛을 본 자경단이 구치소까지 찾아와 학살을 감행하려 했지만 경찰들에 의해 제지를 당한다. 후미코와 박열은 이렇게 창살 하나를 두고 사랑과 연민에 젖어들며 두사람의 사랑은 깊어만 간다. 두사람을 연결하는 그 고리가 이데올로기라는 점에서 아이러니 하기도 하지만, 일본인으로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친척들에게 학대당한 후미코와 조선인으로서 나라 잃고 일제에 학대를 당한 마음이 통했을 것이다.

“다테마스”(김준한역)검사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불령사 사건에 투입되었다. 관동대지진 괴소문의 진원지로 박열을 지목한 것이다. 괴소문의 진원지로 모든 것을 둔갑시키려 할 때 다테마스는 의외의 성과를 거두어 들인다. 그것은 박열이 폭탄을 구입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박열은 간단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자 홀로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려고 하였다. 그러나 후미코가 이 일을 알고 있었다고 자백함으로써 박열과 후미코는 천황시해범으로 대역죄인의 신분

으로 전환된다.

일개 불령사라는 조직의 우두머리였던 박열은 일본제국주의의 치밀한 계략속에 일약 조선의 영웅으로 둔갑되어 갔다. 조선일보 "권세인"(권율역) 기자는 박열을 조선의 영웅으로 대서 특필한 기사를 가지고 일본 동경에 나타났다. 이 사건은 의외의 변수를 일으키면서 국제사회에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외신기자들이 이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 동경으로 입성하고 있었다.

"후세 다츠시"(야마노우치 타스쿠역)변호사를 지명한 박열은 당시 동경법정에 네가지 요구사항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점점더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첫째, 나는 조선민족의 대표로서 일본천황을 대표한 재판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법정에 선다. 재판관이 천황을 대신해 법관 법의를 입고 나오니, 나도 조선민족을 대표하는 왕의를 착용케 해줄 것. 둘째, 재판관이 심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선 민족을 대표한 내가 먼저 법정에 서게 된 취지를 선언하게 해줄 것. 셋째, 법정용어는 조선말만 쓰겠다. 넷째, 피고의 좌석을 재판관과 동등하게 높일 것."

일제 식민지 백성으로서 당돌찬 조선인 박열의 의지는 매우 강했고 결국 동경법정은 첫째와 둘째를 허용하면서 재판은 시작되었다. 재판장에 신랑의복과 신부의복을 입고 나타난 박열과 후미코에 방청석은 매우 당황했고 조선인 방청객은 환호를 보냈다. 그러나 재판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여진 시이소와 같다. 결국 박열과 후미코는 대역죄인으로서 결코 피해갈수 없는 사형선고를 받는다. 그러나 그 어떤 자리에서든지 박열과 후미코는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박열과 후미코는 한 장의 사진을 남기려 한다. 다테마스 검사는 박열의 요구를 들어 주었다. 그래서 박열과 후미코는 검사실 한켠에서 결혼사진과 같은 한 장의 사진을 남긴다. 박열의 왼손이 후미코의 가슴에 닿아 있는 한 장의 빗바랜 사진은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가 된다. 박열과 함께 재판정에 출두하였던 후미코는 "26일 밤"이라는 제목의 글을 낭독하였다.

"나는 박열을 알고 있다. 박열을 사랑하고 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과실과 모든 결점을 넘어 나는 그를 사랑한다. 때문에 그가 나에게 저지른 모든 과오를 무조건 받아들이다. 박열의 동료들에게 말한다. 이 사건이 우습게 보인다면 뭐든 우리 두 사람을 비웃어도 좋다. 그렇지만 이것은 두 사람의 일이다. 재판관에게도 말한다. 부디 우리를 함께 단두대에 세워 달라. 박열과 함께 죽는다면 나는 만족스러울 것이다. 그리고 박열에게 말한다. 설령 재판관들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는다 해도 나는 당신을 결코 혼자 죽게 하지는 않겠다."

대법원 “마키노 재판장”은 박열과 후미코에게 대역죄와 폭발물단속벌칙을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박열은 “재판장, 수고했다, 내 육체가 자네들 마음대로 죽이지만 나의 정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후미코는 “만세!!만세!!”라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반전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 천황의 자비로 무기징역으로의 감형장을 받게 된 것이다. 박열은 간수의 입장을 고려하여 감형장을 받아 들었지만 후미코는 그마저도 갈기갈기 찢어 버리며 분노를 표출했다. 조선인으로서 절개를 지키며, 일본인이지만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려 하였던 박열과 후미코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갔다. 두사람은 감옥에서 단식투쟁을 하며 죽음을 향하여 한걸음씩 나아갔다. 그러나 모든 약속을 지킨 것은 후미코였다. 후미코는 결국 자살을 결행했고 그의 시신은 박열의 고향땅으로 돌아갔다.

박열은 어떻게 되었을까? 박열은 끝내 죽지 않았다. 그는 22년의 감옥생활을 끝내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속에 출소를 하여 귀국길에 올랐다.

영화는 끝이 났다. 민족적 인물이지만 역사의 한켠에서 빗바랜 사진처럼 숨겨져 있었던 한 인물을 그려 내었다는 측면에서 박수 받을만 하다. 그러나 사실, 내용이 없다. 법정 영화이지만 박진감이나 긴장감도 없다. 일본 제국주의를 조롱하는 듯 하지만 조선인으로서 감옥생활은 오히려 평안함을 느낀다. 박열의 온갖 요구조건에 안절부절하는 일본 정부의 모습에는 무엇인가 짝이 맞지 않다. 박열과 후미코의 감옥생활은 마치 천국을 보는 듯 하다. 잔잔한 영화는 일부 관객을 잠들게 까지 한다. 그만큼 무엇인가 뚜렷한 내용이 없고, 일본 스스로가 벌인 자작극에 조선인 한 사람이 뜬금없는 영웅이 된 듯한 인상만 남게 된다.

그래도 우리는 이 영화에서 무엇인가 알아가고자 한다. 이 영화는 우리에게 “신념”을 말하고 있다. 박열과 후미코는 자신이 가진 신념에 투철하였다. 특별히 후미코의 사랑과 신념은 감히 종교적이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신념이 있다. 신앙과 신념은 하나로 연결된 고리와 같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신앙적 신념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종교가 아닌 이념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박열과 후미코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적 신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27. “리얼”REAL

한국영화, 장르:액션, 개봉:2017.06.28

감독:이사랑, 제작:코브픽처스

주연:김수현,성동일,이성민, 관객:470,107명(2017.07.27.현재)

아시아 최대의 카지노 “시에스타”의 오픈을 앞두고 보스 “장태영”(김수현역)은 “최진기”(이성민역)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상담을 받고 있다. 지킬드와 하이드같은 두명의 존재자가 하나의 몸에 깊은 동거를 하고 있다. 재활치료간호사 “송유화”(최진리역)가 의무차트를 가져와 보고를 하고 최진기의사는 송유화와 장태영과의 은밀한 관계를 짐작하고 있음을 밝힌다. 최진기는 장태영에게 최면을 걸어 그의 내면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가장 난폭한 장태영과 온순하지만 장태영의 또다른 그림자와 같은 장태영은 하나의 몸을 가지고 전쟁중에 있다.

시에스타 카지노를 노리는 또 한사람, “조원근”(성동일역)이다. 그는 암흑가 대부분서 피냄새를 즐겨찾는 지독한 사냥꾼이다.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가던 장태영의 눈앞에 조원근이 나타나 카지노의 소유권을 주장한다. 뜻하지 않은 조폭의 개입으로 장태영은 자금문제 해결을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카지노는 밤에도 불을 밝히며 원색적인 칼라를 드러낸다. 섹스와 마약과 부패한 자금이 뒤엉켜진 카지노엔 언제나처럼 환락의 라스베가스를 연상케 한다. 나신들의 춤사위 뒷면에는 여전히 카지노를 차지하려는 조직들의 음모와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리얼은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서슴치 않은 조폭형 야심이 장태영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러한 본래의 장태영을 흠모하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에 물들은 또 하나의 장태영이 “탄생”(BIRTH)해 가는 과정이 리얼하게 그려진다. 불의의 사고로 응급실에 들어와 식물인간이 되어 버린 한 사람에게 장태영이 찾아가 그의 존재 속에 동거하는 자신의 또다른 존재를 삽입하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그 식물인간이 영원히 식물인간이 되거나 죽어 버리기를 염원하며 유유히 돌아선다. 그러나 모든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식물인간으로서 영원히 함구되어야할 새로운 장태영이 그속에서 죽음을 뚫고 생존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알을 깨뜨리지 못한 상태로 밀봉되어 있다. 철갑으로 가려진듯한 얼굴에는 아직 미완성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지만 그는 이제 새로운 진화과정을 통해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장태영은 지금 간호사 송유화와 뜨거운 사랑을 나누고 있다. 그 장면을 유심히 들여다 보는 장태영2는 송유화의 또다른 분신으로 선택한 “한예원”(한지은역)과 애정행각을 벌이며 대리만족을 즐기고 있다.

장태영2는 누구인가? 의문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어 버린 장태영2와 재활치료사 송유화는 어떤 관계속에 존재하는 인물인가? 한가지 추측은 가능하다. 송유화에겐 전 남편이 존재한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후 장태영의 재활치료 과정에서 중독된 사랑에 빠진다. 약물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낳은 자극적인 사랑에 몰입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본래 의문의 남자 장태영2의 아내였을 것이다. 그로 인하여 장태영2는 송유화를 앓아간 장태영의 본류를 쫓아 그 유전자까지 독차지 하며 스스로 2라는 숫자를 떼어 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제 두 사람의 관계는 "대결"(VS)이 불가피하다.

시에스타 카지노에는 "최낙현"(김홍파역)의원의 개입이 있다. 그는 부패한 국회의원으로서 환락가를 출입하는 현실파다. "사도진변호사"는 VIP고객만을 취급하는 부패한 법률가다. 돈이면 닥치는대로 일을 처리한다. 이렇듯 현금뭉치가 쌓여가는 카지노 주변에는 정치가와 경제인, 그리고 법조계를 망라하는 모든 권력자들이 존재한다. 중반 이후부터 등장하는 또하나의 인물 "김교수"(정인겸역)다. 그러나 그는 빛을 보지 못한다. 복선조차 되지 않은채 자멸해 버리는 거부답지 않은 거부다. 그래서 그는 존재감마저 없다.

장태영과 장태영2의 만남은 우연한 투자자의 관계로 출발한다. 그의 가면이 벗겨져 속살처럼 드러났을 때 장태영은 깜짝 놀라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일단 손을 잡아야 했다. 먼저 처리해야 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카지노 시에스타를 놓고 장태영과 장태영2, 그리고 조원근과 김교수 등 수많은 권력자들이 꿈틀거리고 있다. 이들 가운데 그 누구도 양보의사가 없다.

조원근이 자기 수하들과 함께 나타나 두명의 장태영 가운데 하나를 우선 처리한다. 그러나 장태영과 함께 있던 한예원은 즉사했으나 장태영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그리고 이어지는 주저없는 복수극은 완벽한 치밀함이다. 조원근의 본거지인 차이나타운에서 벌이는 혈투는 그야말로 아수라를 연상케 한다.

카지노의 새로운 고액고객이며 의학박사인 최진기 정신과 의사는 자신이 개발한 수상한 의약품으로 인하여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스스로도 그 약품에 중독된 것이다. 어쩌면 장태영2 또한 최진기 박사가 낳은 부작용의 부산물이거나 또다른 내면의 존재가 밖으로 표출된 신인류일수도 있다.

급기야 무용수처럼 보여지는 라스트 엔딩 무술은 설명할 길이 없다. 결국 두명의 장태영은 어느것 하나 선명하게 해결된 것 없이 별개의 존재로 살아간다. 두명의 지분인 듯 하나, 한명의 지분이 되고, 두 개의 존재가 서로 다투는 듯 하나 같은 편이 되고, 상호 불신하는 듯 하나 여전히 공존하는 듯한 모습에서 어쩌면 장태영2는

하나의 가상일뿐 존재하지 않고 실제 하나의 장태영이 두 명의 역할을 해낸 것일수도 있다.

끊임없이 전개되는 총질에 이 영화가 서부영화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너무 많은 CG와 칼라로 인해 눈의 피로가 오고 때로 듣기싫은 음악에도 불구하고 잠이 올때도 있다. 007시리즈를 연상케 하는 장면과 다양한 CG와 흔들리는 기괴음은 무엇인가 뒤틀린 기어처럼 맞물려 가지 않는다.

영화 리얼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김수현의 세몰이 일 뿐이라고 혹평을 한다. 영화는 끝이 났다. "리얼"(REAL)은 무엇에 대한 리얼인가? 정보화 사회, 다양성이 결합된 현대사회에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남에게 보여지는 나와 내가 아는 나 자신 가운데 어느 자아가 진짜의 나일까? 스스로가 오리지날이라는 것을 의심하는 나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오리지날임을 증명하려는 나를 통해 진정한 의미의 나를 발견하는 것을 리얼은 원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고민해 보아야 할까? 세상속에서 살아가는 나와 교회속에서 살아가는 내가 존재한다. 기독교인은 카멜레온과 같다. 세상속에서는 세상사람처럼 잘 어울리고, 교회속에서는 기독교인처럼 또 잘 어울린다. 분명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틀속에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 것이 기독교인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의 존재가 필요하다. 오직 하나님 한분만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필요한 것이다. 세상에 속하고 하늘나라에도 속하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두 개의 존재가 있어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려 한다면 나는 매일 죽노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죽이는 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언젠가 이 괴물같은 존재가 우리 자신을 삼켜 버릴 것이다.

28. “스파이더맨:홈커밍”Spider-Man: Homecoming

미국영화, 장르:액션,모험,SF, 개봉:2017.07.05

감독,각본:존 왓츠(Jon Watts),

각본:조나단M.골드스타인(Jonathan M. Goldstein),스탠 리(Stan Lee)

크리스 맥켄나(Chris McKenna), 외

주연:톰 홀랜드(Tom Holland),로버트 다우니 주니어(Robert Downey Jr.)

관객:7,258,185명(2017.08.31.현재)

“스파이더맨:홈커밍”은 우리시대 최고의 슈퍼 히어로인 스파이더맨이 돌아온 출발점을 이야기 하고 있다. “스파이더맨”은 2002년(샘 레이미 감독)을 그 기원으로 한다. 평범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피터 파커”(토비 맥과이어역)는 우연한 기회에 조작된 유전자의 슈퍼 거미에게 물리게 된다. 그 후 피터에게는 손에서 거미줄이 나오고 벽을 오를수 있는 거미와 동일한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도래하는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초감각적 기능과 파워로서 세상의 심판자들보다 언제나 한발 앞서간다. 그리고 2년후인 2004년, 자취를 감추었던 스파이더맨이 돌아온다. 스파이더맨2는 이제 대학생이다. 사랑하는 “메리 제인”(커스틴 던스트)에게조차 자신의 신분을 밝힐수 없는 현실에서 많은 고통이 있다. 그로부터 다시 3년후인 2007년, 스파이더맨3이 돌아 왔다. 전 세계인의 진정한 영웅으로 성장한 스파이더맨은 외계 생물 유기체인 “심비오프”(Symbiote)에 감염되어 “블랙 슈트 스파이더맨”으로 업그레드된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파워맨이 되었지만 자신의 힘에 도취된 부정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2016년, “캡틴 아메리카:시빌 워”에서 “아이언 맨”(토니스타크,로버트 아우니주니어역)에서 나타난 스파이더맨은 아이언 맨의 일원으로 재입성에 성공한다. 그리고 2017년,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가 지명한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피터 파커”(스파이더맨,톰 홀랜드역)에게 새로운 슈트가 제공된다. 그러나 위험한 일을 시도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조언을 듣게 된다. 그러나 정의감 100%인 피터 파커는 스스로의 원칙과 규정으로 시대의 정의를 세우려 한다. 세상을 위협하는 강력한 “벌처”(아드리안 톰즈,마이클 키튼역)와 대결하려는 그의 무모한 용기는 아이언맨을 수시로 등장하게 한다. 진정한 어벤저스로 성장해 가는 2017년, 스파이더맨은 10대소년의 순수성에서 슈퍼히어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메이 숙모”(마리사 토메이역)의 집에서 살아가는 피터 파커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보통의 학생이다. 그에겐 사랑하는 “미첼”(젠다야 콜맨역)이 있지만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네드”(제이콥 베덜런역)는 피터 파커의 친구로서 어느날 자신이 스파이더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나 사랑에는 언제나 높은 경계선이 있다. 미첼의 아버지 “아드리안 톰즈”(마이클 키튼역)가 벌처 인 것이다. 벌처는 아이언맨과 원한관

계에 있다. 보다 강력한 무기체계로서 세상을 위협에 빠뜨리려 하는 것이다. 독수리와 같은 벌처의 날개 수트는 그 길이만 11미터에 이른다. 날카로운 칼날로 이어진 날개와 로켓까지 갖춘 벌처는 이제 강력한 슈퍼 악당의 면모를 보여준다.

워싱턴 기념타워속 엘리베이터에 갇힌 친구들과 승객들을 구하는 스파이더맨은 진정한 용기의 신념이 그려낸 휴머니즘을 생각하게 한다. 두동강난 여객선을 재용접하는 아이언맨의 등장은 탁월한 능력에 비해 다소 코믹한 느낌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능력이고 힘이다. 그 능력과 힘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는 것으로 진정한 슈퍼 히어로를 결정하는 것이다.

진정한 어벤저스의 길은 아이언맨과 스파이더맨의 몫이다. 한번도 악이 승리한 사례가 없듯이 이번에도 진정한 승자는 스파이더맨이었다. 아이언맨의 지원속에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지만 악의 승승장구를 방지할 수는 없었다. 진정한 힘은 수트가 없어도 가능하다. 스파이더맨은 새로운 정의의 힘으로 벌처를 통과하게 무찌르고 진정한 의미의 성장을 이어간다. 아이언맨은 정식으로 스파이더맨을 영입하려 한다. 아직은 학생신분인 피터 파커는 정중한 거절로 길을 나서지만 그의 집에는 새로운 수트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

액션, SF에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그리고 "배트맨"(1990년~)이 등장한다. "어벤저스"(1963~)시리즈의 산물과 같은 슈퍼 히어로는 언제나 정의로서 세상을 심판한다. 영화의 엔딩은 언제나 정의가 승자가 된다. 세상의 악은 인간의 힘으로 늘 부족함과 한계를 가져왔다. 권력자들의 비리와 어두운 거래는 늘 그렇듯이 강자의 밥그릇을 지켜준다. 그러나 스파이더맨, 아이언맨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이 영웅을 세상으로 인도하는 고리가 된 것이다.

영화는 끝이 났다. 신나게 질주하는 드라이브에 무더운 여름은 잠시 물러 가는 듯하다. 영화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수 있는가? 왜 정의는 언제나 가상의 존재의 몫이 되어야 할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과 자유가 있다. 그 분으로부터 도래한 세상이다. 우리는 이 본질을 깨닫는 것으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한, 그 어떤 세상도 공평과 정의를 구현해 낼수는 없을 것이다. 그때마다 새로운 슈퍼 히어로를 세상으로 불러 내와야 할 것이지만 그가 할수 있는것도 영화 흥행외에 뚜렷한 해결책은 없을 것이다.

29. “덩케르크”Dunkirk

미국,영국,프랑스영화, 장르:액션,드라마,전쟁, 개봉:2017.07.20

감독,각본:크리스토퍼 놀란(Christopher Nolan),

제작:워너 브러더스

주연:핀 화이트헤드(Fionn Whitehead),마크 라이런스(Mark Rylance),

톰 하디(Tom Hardy),아뉴린 바나드(Aneurin Barnard),

톰 글린 카니(Tom Glynn Carney),잭 로던(Jack Lowden) 외

관객:2,774,306명(2017.08.31.현재)

1. “덩케르크”Dunkerque

벨기에 국경선 320km를 향하는 프랑스 북부 노르파드칼레지방 “노르”(Nord)는 영국 도버 해협과 32km를 이웃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생활하고 있는 노르는 농업과 공업의 중심지이다. 바다를 간척하여 연안평야를 조성하면서 새로운 땅 “덩케르크”가 조성되었다. 6개 지역으로 나뉘어진 노르는 유럽대륙의 교차로로서 영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프랑스어로 “덩케르크”(Dunkerque)는 “모래언덕의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해군기지가 위치한 덩케르크는 유럽의 마지막 교두보로서 연합군이 반드시 사수해야 할 땅이었지만 37만 군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다이나모 작전”을 감행하였다. 1939년 9월, 독일은 폴란드를 시작으로 노르웨이와 덴마크, 그리고 1940년 5월, 네덜란드와 벨기에를 단기간내에 복속한 후 전 유럽을 상대로 정복전쟁을 선포하였다. 유럽대륙의 최강자로서 80만명의 정예군을 보유한 프랑스는 이제 유럽의 맹주가 아니었다.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는 프랑스의 도시들은 독일군의 군화발에 하염없이 짓밟혀 가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덩케르크”, 프랑스가 전열을 상실하고 두 개의 지역으로 분리되며 독일의 깃발에 정복당할 무렵, 덩케르크에는 37만명의 영국 원정군과 프랑스, 벨기에와 네덜란드 군인들이 벼랑 끝에 머물러 있었다. 그 가운데 21만명은 영국군이었다. 당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던 영국 총리 “네빌 체임벌린”이 5월10일 전격 사임을 결정한다. 후임으로 선출된 “윈스턴 처칠”에겐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덩케르크 철수작전은 “다이나모 작전”이라는 명명으로 5월26일부터 6월4일까지 10일간 이루어졌다. 모든 군사장비와 중장비들은 버린다. 단지 사람만을 구하는 철수작전 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군사적으로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독일 잠수함과 전투기들이 연일 폭탄과 총알세례를 쏟아 붓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일을 위해 영국 해군본부는 병력철수에 도움이 되는 모든 선박들을 동원하였다. 독일의 덩케

르크 점령 시한이 다가 오자 영국해군과 연합군은 조급해 졌고, 더 많은 전투기와 배들을 동원하였다. U-보트와 전투기와 폭격기등 독일의 무자비한 진격속에서 37만명 가운데 19만8천명의 영국군과 14만명의 프랑스와 벨기에 군 등 총 33만8천명을 구조하는데 성공하였다.

비록 군수물자와 장비들은 모두 빼앗겼지만 당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인적자원을 유지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을 종전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이었다. 덩케르크 작전은 흔히 "홍남철수작전"과 비교된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한반도는 러시아를 등에 업은 북조선의 수하로 복속되고 있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UN연합군의 개입과 인천상륙작전으로 전세는 역전되었고, 압록강변까지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했던 30만 중공군의 빠른 개입으로 함경북도 홍남항구엔 군인 10만명과 민간인 10만명이 피난할 시간도 없이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그러나 홍남철수 작전은 병력과 민간인은 물론 무기까지 완전히 회수한 작전으로 역사에 길이남을 승전이었다. 이에 비해 덩케르크 작전은 모든 전략무기와 중장비를 포기하고, 오직 병력만을 위한 철수 작전이었다. 그러나 이 작전의 성공으로 독일은 그들이 이미 빠져 나간 덩케르크에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포탄을 퍼부어 도시기능 그 자체를 마비 시켜 버렸다.

2. 영화 "덩케르크"Dunkirk

독일군은 불로뉴와 칼레를 점령하고 유럽의 교두보인 덩케르크 점령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덩케르크 해군기지엔 영국원정대 20만명을 비롯하여 프랑스군과 벨기에, 네덜란드 등 37만명의 군인들이 도버 해협을 건너기 위해 무작정 기다리고 있다. 모든 전열을 상실한 연합군에게 마지막 남은 희망은 자신들을 영국으로 데려다 줄 구축함이었지만 오는 대로 독일군의 잠수함에 걸리거나 폭격기에 침몰되는 반복을 경험하고 있다. 덩케르크 철수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볼튼 사령관"(케네스 브래너 역)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 "위넛트 대령"(제임스 다시역) 역시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모든 것은 역부족이다.

윈스턴 처칠 수상은 민간인 수송작전을 지시하며 영국민들의 애국심을 요청했다. 전투기 조종사 아들을 전쟁에서 잃은 "도슨"(마크 라이런스역) 선장은 둘째 아들 "피터"(툼 글린 카니역)와 아들의 친구인 "조지"(베리 케오간역)와 함께 자신의 배를 직접 운행하며 덩케르크 현장으로 출발한다. 다른 민간인 배들도 자청 타청으로 이 일에 동참하였고, 수많은 인명이 이들에 의해 구조되었다.

"토미"(핀 화이트헤드역)는 프랑스 군인으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는 영국군 철수 대열에서 언제나 아웃사이드이지만 철수작전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구한

위대한 인물로 평가된다. “콜린스”(잭 로던역)는 전투기 조종사로서 누구보다 열심히 철수작전을 지원하였다. 그는 자신의 생사여부를 알수 없는 상태에서 군인들의 철수작전을 충실히 지원함으로써 수많은 생명을 지키는 파수군이 되었다. “깁슨”(아뉴린 바나드역)은 토미와 함께한 동역자와 같은 사람이다. 누구하나 신뢰할수 없고 오직 생존을 위한 트라우마를 갖고있는 전투적 이기주의 속에서 토미와의 작은 우정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

도슨에 의해 구출된 “군인”(킬리언 머피역)은 철수작전에서 희생된 또 하나의 정신적 피해자상을 보여 준다. 그는 선실에 대한 공포가 있다. 철수작전에서 무사히 구출함에 승선한 군인들이 내실에서 파티를 벌이는 순간 U-보트에서 날아온 어뢰가 구출함을 순식간에 침몰시킨다. 선상에 있던 군인들은 바다에 뛰어 내려 목숨을 구하지만, 내실에 갇혀 있던 군인들은 그대로 수장되어 버리는 형국이다. 이것을 반복한 군인들은 그 트라우마에 갇혀 선실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 한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군인은 영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만 도슨은 지금 그럴 처지가 아니다. 덩케르크 깊숙이 철수작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 와중에서 피터는 자신의 친구인 조지를 잃어 버린다. 피터의 위대함은 조지를 잃은 슬픔에 대한 분노 대신 평정심이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군인이 조지의 병환을 물었을 때 그는 괜찮다고 답을 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죽어 있었다. 피터의 조지에 대한 위로는 덩케르크 철수에 선전한 조지의 언론 기사였다. 어쩌면 이름없이 사라져 버릴 친구의 이름을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여정 가운데 올려 놓은 것이다.

휴머니즘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덩케르크는 무기와 장비들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처칠의 용기있는 결단이 있었다. 37만명의 군인들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그는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그들의 생환을 기원하였다. 작전에 성공한 군인들이 영국 도버해협의 한 기차역에서 바라본 영국 국민들의 표정은 전쟁과 거리가 있어 보였다. 그 만큼 전쟁과 평화는 매우 대비되는 것이다. 전쟁은 평화를 위해 전력투구한다. 그러나 독일은 무엇을 위해서 전쟁을 감행한 것일까? 4000~5000천만명의 희생자를 낸 최악의 전쟁은 전쟁이 가져다 주는 그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되었다. 그 후에도 세계전쟁은 아니지만 국지전은 쉬틈없이 일어나고 있다. 누군가는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 또 누군가는 누구를 살리고 지켜내기 위해 전쟁을 한다. 어떤 방식의 전쟁이든 모든 것에는 치유되기 어려운 상처가 남는다. 덩케르크에서 살아남은 많은 사람들은 그후에 많은 트라우마를 겪으며 살아야 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철수작전의 성공보다 깊은 과제는 트라우마로 부터의 철수작전일 것이다.

영화는 끝이 났다. 처음부터 시작된 굉음은 심장을 뛰게 하며 멈칫거릴줄 모른다. 하늘과 바다에서 사람을 살리려는 편과 죽이려는 편의 전쟁은 늘 위태로워 보인다.

승선해도 죽고 그냥 있어도 죽는다. 그래도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기주의라는 극단적 행위도 일어난다. 보트를 보고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쳐 온 사람을 밀어내는 비정함은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비정한 것인가를 보여준다.

그러나 친구를 위해 평정심을 지키고, 마음을 누르는 위대한 피터의 힘은 신앙을 보는 듯 하다. 영국정신의 기초가 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미국 청교도 신앙을 세운다. 영국정신은 기독교 정신이다. 오늘날 전세계 경찰국가를 자임하는 미국의 정신도 기독교 정신이다. 성경에 기초한 그들의 신앙적 성숙함은 이 영화 속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는 한편의 다큐멘터리와 같은 이 영화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배를 띄우면 침몰하고, 또 다시 띄우면 침몰하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리더자의 신념을 발견한다. 아버지 도슨과 아들 피터는 우리의 심령을 깨운다. 사람을 살리는 역할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람을 살리라는 명령이 전달되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러한 선명한 신념체계가 없다. 그저 적당한 수준에서 겨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해서는 덩케르크에서 그 누구도 구조해 낼 수 없다. 대충하는 신앙생활 속에서는 단 한사람의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할수 없고, 스스로의 신앙도 위험해 직면해 있음을 발견한다. 이제 우리는 덩케르크에서 만난 사람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구조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어느 바다에 방치되고 있는지 찾아 보아야 할 것이다.

30. “군함도”The Battleship Island

한국영화, 장르:액션,드라마 개봉:2017.07.26

감독,각본:류승완, 제작:외유내강

주연:황정민,소지섭,송중기,이정현, 관객:6,574,768명(2017.08.31.현재)

1. 하시마섬(군함도,軍艦島)

일본 나가사키(長崎)현 노모반도 서방향 나가시키향 18km 지점에 위치한 하시마섬은 남북으로 320m, 동서로 120m 길이의 섬으로 1897년부터 6차례의 매립과 확장으로 현재에는 남북으로 480m, 동서로 160m, 외곽으로 1200m, 6.3ha에 이른다. 먼 지역에서 바라보면 바다위에 움푹이는 군함과 유사하다 하여 “군함도”라고도 불리는 하시마섬은 석탄 채취로 개발되어 석탄산업과 노동자의 주거지만 건설되어 있었다. 하시마 석탄개발은 1920년대 연간 20만톤의 석탄을 생산하였고, 1941년에는 41만1100톤을 생산하는 등 최고조에 달하였지만 연료가 석유에너지로 전환되면서 1974년1월15일 하시마 석탄은 완전히 중단되었다.

하시마 탄광은 지하 1km보다 더 깊은 해저탄광으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800명에 이른다. 이들은 빈곤과 위험속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채탄작업에 동원되었다. 질병, 익사, 탄광사고 등으로 공식 확인된 사망자만 122명에 이르고 이곳에 끌려간 위안부들도 생존여부가 불투명하다. 2015년7월 세계 유산위원회는 이곳 하시마탄광 등 23개 근대 산업시설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를 결정했지만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피해국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지하 1km이하의 위험지대, 바닷물이 수시로 들어오고 물에 수장되는 일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반복되지만 조선인에게는 그 어떤 선택도 없다. 많은 일본인들은 이곳을 군함도라고 부르지만 조선인들은 혹독한 근무환경과 노동조건으로 인하여 “감옥섬”이라고 부른다. 1917년, 일본 미쓰비시는 탄광노동자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조선반도에서 인력을 보충하였다. 이듬해인 1918년, 하시마 탄광에는 941명이 갯도 내부 위험지역에서 일해야 했고 이들 가운데 70명이 조선인이었다. 1935년3월26일, 탄광 해저내 가스폭발로 인하여 20여명의 광부가 목숨을 잃었고, 공식 사망자 17명 가운데 9명이 조선인이었다. 1937년, 중일전쟁이후 하시마탄광 조선인 노동자 수는 800명에 이르렀다. 비인간적, 비인격적 처우와 환경속에서 외부와 완전 고립되었고, 빈곤과 영양실조로 인하여 122명이 사망했다. 1945년8월15일 해방이후 귀국길에 오른 군함도의 생존자들은 갯도내 환경은 매우 비좁고 설수 없으며, 45도의 높은 온도에 숨이 막힐 정도였다고 증언한다. 어떤 생존자는 작업중 머리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고, 12시간 장시간 노동에도 휴식은 물론 심한

구타로 인하여 도주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고 말한다.

2. 영화 “군함도”

경성 최고의 한량이자 악단장인 “이강옥”(황정민역)은 자신의 딸인 “이소희”(김수안역)와 함께 반도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강옥은 총독부 소속 간부 부인과 내통한 것으로 총독부 경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 “스기야마”(정만식역) 경위는 이강옥으로부터 뇌물을 받으며 부를 축적하지만 군함도로 보내는 악랄한 배신행위를 한다.

나가사키로 향하는 부산행 여객선 화물칸에는 수많은 조선인 징용자들이 뒤섞여 있다. 동경유학생 “오장우”(장성범역)를 비롯하여 경성 최고의 조폭 “최철성”(소지섭역), 출처 불명의 조선여성 “오말년”(이정현역), 그리고 이강옥과 소희와 악단단원들이 어디로 가는 지 알수 없는 배에 몸을 싣고 있다. 나가사키에 내린 조선인들은 다시 화물선에 강제 승선되며 군함도로 이송되지만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한다. 조선인 가운데 젊은 여성들은 다른 배로 인도되어 가는데 분명 위안부의 삶이 시작되는 전초전이었다.

이강옥은 사태 파악의 전문가다. 오직 살아남아야만 했다. 이강옥은 이소희의 안전한 귀국을 위하여 자신의 악단단원과 함께 일본노래를 연주한다. 임기응변에 능통한 이강옥은 자신의 딸 소희와 함께 단막공연을 내세워 시마자키 소장의 눈에 들어온다. 황제폐하 만세!! 황제 폐하 만세!! 이것이 이강옥이 살아남고 이소희가 살아남는 삶의 방식인 것이다.

“시마자키 다이스케”소장(김인우역)은 미쓰비시 석탄의 하시마 소장으로 조선인 강제징용의 선두에 서 있다. 일본 제국주의의 기업은 총을 들고 인력을 관리한다. 전시체제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 사살이 가능하다. 이것이 사람들을 짐승처럼 다루는 비결이다. 언제 어디서나 일본의 앞잡이 노릇은 조선인의 몫이다. “송종구”(김민재역)가 조선의 오야봉으로 조선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며 조선인을 짐승 다루듯 하는 것이다.

“윤학철”(이경영역)은 임시정부의 중요한 요인으로 흔적없이 사라졌다가 이곳 군함도에서 조선인의 지도자로 존재하고 있다. 시마자키 소장도 함부로 다룰수 없는 위대한 영도자로 조선인 강제 징용자들에게겐 우상과 같은 존재이다. 그의 비서와도 같은 “고충호”(신승환역)는 윤학철의 분신과도 같다. 언제나 주변에서 그를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OSS요원으로서 윤학철을 구명해 내기위해 군함도로 은밀하게 파병된 “박무영”(송중기역)은 탄광내 위험지역에서 윤학철과 조우한다. 윤학철

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힌 박무영은 이곳에 오게된 경위를 밝히고 일본인들과 친분을 쌓은 이강옥과 접촉하여 함께 탈출을 모의한다. 탈출해야할 인원은 두 명에서 이강철 부녀지간 등 네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성공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유일한 계책이었다.

조선의 지도자를 구명하기 위해 은밀하게 들어간 박무영은 윤학철을 구명하기 위한 정보전에서 수상한 기록물 하나를 발견한다. 윤학철과 시마자키와의 거래장부다. 조선인의 영웅으로 알고 있었던 박무영이 들여다 본 장부에는 배신자의 말로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한발 앞서간 박무영은 어느날 윤학철에게 구명선이 온다면서 배 한척으로 유인한다. 가는 길에 마주친 일본군인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강옥에게 발각되고 이강옥은 자신의 딸과 함께 박무영을 추적한다. 이것을 눈치채지 못한 박무영은 윤학철을 안전구역으로 데려오고 거래장부에 기록된 내용에 관한 진의를 파악하려 한다. 그러나 모든 것을 부인하는 윤학철과 박무영의 다툼이 시작되고 그 순간 윤학철을 찾던 고충호가 이들의 행방을 뒤쫓는 과정에서 두사람을 발견한다. 윤학철과 박무영의 사이에서 진실을 모르는 고충호는 박무영의 편에 서고, 이강옥은 이들의 틈바구니에서 우왕좌왕하지만 판단력은 누구보다 뛰어나다.

조선인의 급여와 퇴직금을 탈취하는 소장과 윤학철의 비린내나는 술수와 음모는 조금씩 민낯을 드러내지만 조선인 인부들에겐 충격적일 수 밖에 없었다. 윤학철은 자신의 비리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자신의 총복인 고충호를 사살하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려고 한다.

전쟁이 끝나가고 미군의 폭탄투하로 군함도에는 화재가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조선인이 갯도에 갇히는 운명에 처하지만 박무영과 조선인들의 지혜와 지략으로 위기에서 탈출한다. 시마자키 소장이 날아온 폭탄에 희생양이 되자 “야마다”(김중희역) 부소장이 임시소장을 맡으며 모든 조선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다. 여기에 윤학철이 한몫을 하며 조선인 대학살에 동조하는 뜻을 전달한다. 조선인을 규합하며 달콤한 말로 미혹하는 윤학철의 판도라에 제동을 건 박무영은 진실을 밝히며 조선인에게 속지 말 것을 요구한다. 밀고 밀리는 접전 끝에 박무영은 모든 조선인들과 함께 군함도 탈출계획을 잡고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들의 목숨이 수장되거나 총살되었지만 누군가는 생존자가 되어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 주어야만 했다. 최칠성은 한때 송종구를 밀어내고 조선의 오야봉이 되었지만 다시 자리를 빼앗긴다. 우여곡절 사연이 많은 오말년의 연인이 되어 그와 함께 군함도를 떠나려 하지만 결국 두사람 다 뜻을 이루지 못한채 죽음을 맞이한다. 소희의 생명을 구하고 자신과 함께 귀국길에 오르기를 간절히 염원하였던 이강옥 역시 적의 총탄에 쓰러져 끝내 생명을 보전하지 못하였다.

영화는 끝났다. 군함도는 위안부로부터 시작하며 일본에게 경종을 울리려 하였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처절하다. 한평 남짓 비좁은 군함도에는 사람이 설 자리가 한곳도 없다. 그들이 남긴 땅에는 조선인도 일본인도 없지만 역사의 왜곡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모든 것을 태워 흔적조차 남기려 하지 않았던 일본 제국주의의 말로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이 영화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애국심인가 생존인가? 생존을 위해 애국심을 버렸다고 돌을 던질수 있을까? 인생은 늘 그렇다. 언제나 보통사람이 당하고 산다. 착한 사람이 돌을 맞고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잃고 목숨마저 위태로워 졌을 때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그냥 지나쳐 버렸다. 전혀 뜬금없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위기에서 구출해 낸 것이다. 우리는 가장 힘들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한다. 약육강식의 유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힘으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꿈을 잃지 않도록 손을 내미는 것이다. 역사의 진실이 그대로 묻혀 버리지 않도록 진실의 흔적들을 남겨 두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삶은 언젠가 진실을 드러낸다. 군함도에서 일어났고 모든 것을 지우려 했지만 역사는 참혹한 현실을 재현하고 있다. 이것이 진실의 승리다. 이것이 생존자의 힘이다.

31. "택시운전사"A Taxi Driver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7.08.02
감독:장훈, 각본:엄유나, 제작:더램프(주)
주연:송강호, 토마스 크레취만, 유해진, 류준열,
관객:12,180,384명(2017.09.27.현재)

1. "5.18 광주민주화운동"(五一八光州民主化運動)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민중항쟁"과 "광주시민항쟁"으로 알려진 시민 민주화 운동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으로 인하여 민주화의 요구는 언제나 무시되었다. 군사독재가 낳은 산물은 결국 10월의 어두운 그림자로 향하였다. 1979년 10월4일, 신민당 "김영삼" 총재가 국회의원직 제명을 당하자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부마항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의 중심에 10.26이 일어났다. 박정희 대통령의 심복,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를 살해한 것이다. 10.26사태 수습과정에서 보안사령관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회" 조직이 급부상하였다. 그해 12월12일, 전두환 소장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세력이 발빠르게 정국을 장악하는 쿠데타가 일어났다.

1980년 2월29일, 김대중 선생이 복권되었으나 신군부는 최규하 과도정부를 유명무실화 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권력야욕을 드러 내었다. 4월19일, 강원도 사북 사태의 생존권 문제를 계기로 5월1일, 대학교 학원사태가 발생하고, 5월13일에는 전국 37개 대학에서 계엄철폐 데모로 확산되었다. 5월15일 서울권 대학생 시위는 서울시가지로 마비시키며 신군부 세력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5월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령 전국확대를 발표함으로써 "김대중", "김종필" 등 정치 지도자들을 권력형 부정축재 및 소요조종 혐의자로 체포하였다.

5월13일, 서울시위에 자극을 받은 광주지역 대학생들은 14~16일, 격렬한 가두시위를 감행하며 야간에도 횃불시위를 이어 나갔다. 5월18일, 광주지역 복적생과 총학생회 임원들이 검속되고 1시에는 공수부대가 투입되며 대학내 계엄군이 상주하기 시작했다. 무리한 진압의 전초전이었다. 쿠데타 권력에 저항하는 국민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선포된 계엄령은 오히려 국민을 자극하는 수단이 되었다. 특히 광주지역에서의 공수부대 중심의 무력진압은 성난 민심을 더욱 자극하였다. 광주민주화운동은 학생시위로 촉발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시민봉기로 확장되어 가며 무력항쟁으로 승화되기에 이르렀다. 경찰력으로 방어하던 시위대를 군인들이 맞게 됨으로서 광주의 저항은 걸잡을 수 없는 사태로 번져가게 된 것이다.

5월18일,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강제휴교령에 반대하며 공수부대요원들과 대치하였다. 시위대가 줄어들지 않고 점차 증가하자 당황한 공수부대 진압요원들이 무차별 진압작전을 펼치는 가운데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성난 군인들은 금남로 시내 중심가에서 학생으로 추정되는 모든 청년과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하고 짓밟는 잔혹한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은 분노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대학생 시위대들을 꾸짖었지만 시민들 또한 점차 저항의 대열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운동은 민주화를 향한 국민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뿐 다른 어떤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총기류 발사를 통하여 시민들을 위협함으로써 무장봉기로 자극시킨 사태였다. 계엄군은 시위대를 포위하고 구타하고, 이에 대항하는 시위대가 파출소와 방송국을 침입하여 총기류를 탈취하고 공수부대를 공격하거나 고립된 경찰차량을 포위하는 등 군부세력과 광주시민 간에는 적대적 감정이 극에 달하였다.

5월18일 오후4시50분, 광주시민들에게 포위된 계엄군의 장갑차는 최초로 총기류를 발포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후 시위대는 산발적인 시위를 계속하며 20일 오후 6시에는 택시와 버스운전기사들이 광주역과 무등경기장에 집결하여 계엄군을 퇴치하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계엄군을 외곽으로 후퇴시킨 시위대가 전라남도 도청 경비군경들과 대치한 상태로 밤을 지새고 광주MBC와 노동청과 세무서 등이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전소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남도청과 광주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시민저항군의 손에 장악되기에 이르렀으며, 시민들에게 쫓긴 공수부대는 20일밤 11시경 집단발포를 시작하였다. 이 발포로 시민 2명이 사망하였고,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더 악화되었다. 이날을 계기로 도시빈민계층과 노동자들이 시위대에 편승하였고, 계엄군에게 실탄이 지급되었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던 20일을 계기로 시민들은 무장의 필요성을 느끼고 21일 오전, 아세아자동차공장에서 장갑차와 군용차량을 탈취하는데 성공하였다. 오후 1시경, 시민들은 전남 화순,해남,나주지역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무장을 시작하였고, 계엄군과 시민군의 대립은 이제 무력항쟁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일어난 계엄군과 시민군의 총격전에서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21일 밤 계엄군은 광주에서 외곽지역으로 퇴각하였고, 22~27일까지 광주를 장악한 시민군은 자치활동을 하며 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힘을 다하였다. 22일 "수습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무기회수 문제로 학생과 시민들은 의견이 분분하였고, 갑자기 조직된 조직의 리더십도 강온대립의 칼날위에 우왕좌왕 하였다. 일부 시민들은 무기를 반납하고 가정으로 복귀하였으나 강경파 학생들은 수습대책위원회를 정면 비난하고 25일밤, "민주시민투쟁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였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시민단체는 자치와 민주공동체 구현에 관한 새로운 시도를 계획 하였으나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다. 이렇게 시민단체들이 토론을 계속하는 동안 외곽지역으로 후퇴하였던 계엄군은 외곽도로를 완전 차단하고 탱크로 무장한 2만5천여명 계엄군과 함께 무력 진압에 착수하였다. 27일

새벽5시, 도청은 계엄군에 의해 완전 봉쇄되고 시민군 전원이 연행되었다. 아침이 되자 계엄군은 가택수색을 감행하였고, 광주민주화 운동관련자 전원을 상무대로 연행 하는 등 대규모 소탕작전을 감행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김대중과 재야 인사들을 내란혐의로 전원 구속하였다. 1995년 7월18일, 서울지방검찰청은 군인 23명, 경찰 4명, 민간인 166명 등 193명이 사망하고 852명이 부상자로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지만 믿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1980년 5월31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8월16일 최규하 대통령이 강제 하야함으로써 8월27일, 전두환이 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1993년 문민정부 출범후 11월24일, 김영삼 대통령은 “역사 바로세우기” 일환으로 “5.18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12월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반란수괴혐의로 구속되고, 그후 노태우 전 대통령도 감옥 신세가 되었다. 1997년 4월17일, 법원은 12.12사건은 군사반란으로 규정하고, 5.18은 내란목적의 살인행위로 규정하였다.

5.18 광주민주화 운동은 6.25 전쟁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비극이었다. 광주 민주화운동을 계기로 사회운동은 1970년대 반독재 민주화 운동에서 1980년대 민중운동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광주민주화 운동은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인이 국민을 상대로 하는 군사반란 획책이라는 점에서 다시는 군부가 정권을 잡을 수 없도록 하는 문민정부의 탄생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2. 영화 “택시운전사”

언론 민주화를 위해 평생을 바쳐온 청암 송건호를 기념하는 국제언론상 제2회 송건호언론상 시상식이 2003년 서울에서 있었다. 이날 수상자로는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전 세계로 타전한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토마스 크레취만역)였다. 그는 5.18 당시 일본주재기자로서 5.18을 취재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입국하였지만 군부정권의 언론탄압으로 그 뜻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피터는 한국의 재야언론인 “이기자”(정진영역)를 통하여 서울 택시를 타고 광주로 향한다.

개인택시기사로서 늘 고단한 삶이 계속되는 “김만섭”(송강호역)은 월세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딸 “은정”(유은미역)이 주인집 아들 “상구”(권순준역)에게 당하는 서러움을 달래주지 못한다. 그는 착한 보통 서민이다. 임산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도 돈을 받지 못하고, 고3학생을 태워주고 택시비를 다 받지 못해도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이다. 도심중앙에서 데모를 하는 학생들로 인하여 그는 공치는 날이 많다. 시위대를 바라보며 부모덕에 공부하는 애들이 고생을 해 봐야 한다고 고개를 흔들며 꾸지람을 하지만 학생들의 시위는 격화될뿐 줄어들지 않는다.

오늘도 월세 10만원이 밀려 “주인집 여자”(전혜진역)에게 독촉을 받지만 해결할 기미가 없다. “주인집 남편”(고창석역)과 절친 관계인 김만섭은 그에게 밀린 월세비를 빌려 달라고 요구하는데 때마침 서울에서 광주까지 가는 손님을 받은 택시기사가 10만원을 받기로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그 손님을 대신 태워 광주로 향한다.

김만섭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다.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보내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린 그는 하나밖에 없는 딸의 신발이 헐어도 사 줄 수 없는 그런 소시민이다. 그가 소유한 차는 벌써 폐차를 해야 할 만큼 낡을때로 낡아 있다. 그래도 그에게 옥이야 금이야 보물 1호다. 서울 도심에서 만난 손님은 뜻밖에도 외국인이었다. 자신을 피터라고 소개한 외국인은 미국인도 아닌 독일인이었다. 한때 사우디 근로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김만섭은 콩글리쉬로서 대충 대화를 이끌어 가며 광주로 향한다.

고속도로로 내 달리는 김만섭은 지금 1980년 5월18일 광주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는 철저한 보수주의자다. 지식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다. 사상이나 이념에는 관심조차 없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쁜 소시민일 뿐이다. 그런 그가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독일 기사를 태우고 광주로 향하고 있다. 고속도로를 내 달리는 김만섭의 택시는 고물이다. 덜커덩 금방이라도 멈출 것 같은 택시는 어느덧 광주 인근에 도착했다. 이제 손님을 광주에 내리고 돈을 받으면 모든 것은 해피엔딩이다. 밤에 주인에게 월세를 주고 딸을 힘들게 하는 상구를 혼내줄 마음에 기분마저 상쾌하다.

그런데 상황은 엉뚱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광주 톨게이트 입구에서 도로를 막고 있는 철조망들에 김만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군인들이 경계근무를 서며 돌아가라고 명령한다. 외국인 손님은 광주로 가야만 하고 군인들은 광주 출입금지령을 내리고 김만섭은 고민에 빠졌지만 10만원을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되돌아 갈 결심을 접고 외곽지역을 돌아간다. 밤에 혼자 집에 있을 은정이를 생각하며 김만섭은 착잡하기만 하다. 시골 한적한 길로 들어선 김만섭은 광주로 들어가는 샛길을 물어보며 안간힘을 써 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결국 접경지역의 군인들과 마주한 김만섭과 피터는 군인들과 실랑이를 하는 가운데 비즈니스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기업과의 거래를 핑계로 극적으로 광주 진입에 성공한다.

시내 곳곳에는 참담할 정도의 광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거리 곳곳에는 시위대가 돌아 다니고 군인들이 장악한 도시에서는 총소리가 하늘에 울려 퍼진다. 곳곳에 최류탄이 터지고 시위대는 흩어지고 모이기를 반복하며 저항을 하고 있다. 그저 손님

을 태워주고 밀린 집세를 내고 싶었던 보통사람 김만섭이 바라본 광주의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다. 그제서야 자신이 태우고 여기까지 데려온 사람이 독일기자라는 것을 알게된 김만섭은 두려움에 떨지만 더 이상 도망갈때도 없다. 설상가상 자신의 차까지 고장이 나서 그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된 것이다. 광주의 상황은 전화도 불통이다. 시외로 나가는 모든 정보가 차단된 것이다.

“구재식”(류준열역)은 운동권 학생이 아닌 평범한 대학생이다. 그런 학생이 지금 시위대와 함께 광주를 지키고 있다. 광주의 택시기사들도 시위대를 지원하고 있다. “황태술”(유해진역)은 택시회사 고참으로 택시기사들의 리더격이다. 우연하게 만난 구재식은 김만섭의 택시에 동승해 피터의 취재를 지원하고 있다. 광주 도심에서 피터는 광주일보 “최기자”(박혁권역)를 만나게 된다. 최기자는 광주의 소식을 외부로 전할 방법을 모색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광주의 현실을 기사로 내 보내려 작심하지만 계엄사령부에 걸려 심문과 구타를 당한다.

한편 계엄사령부는 김만섭과 피터를 추적하고 있다. 독일 기자가 선교사로 위장하여 서울에 들어와 서울택시를 타고 광주로 갔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사복조장”(최귀화역)은 피터를 추적하며 그가 찍은 사진과 영상을 압수하려 하지만 좀처럼 행방을 알수 없다. 시위가 펼쳐지는 도심에서 군인들이 강제진압하며 총을 쏘는 장면을 바라본 피터는 충격적인 영상을 카메라에 그대로 담아 내고 있다. 시위대 주변에서 피터와 김만섭을 찾던 사복조장과 그 일행이 피터를 발견하고 추적한다. 도주로 확보에 실패한 김만섭과 피터는 구재식의 재치로 구사일생하지만 그는 끝내 시신으로 되돌아 온다. 그 과정에서 김만섭도 위기에 봉착하며 사복조장에게 폭력을 당하며 빨갱이로 몰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맞이한다. 이번에는 피터가 자신을 구해주며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끼여 들게된 김만섭은 딸이 밤새 혼자서 지낸 것을 염려하여 통화를 한다. 딸과의 약속을 어긴 김만섭의 마음은 착잡하고, 그는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서울로 돌아갈 결심을 한다. 시장통 한켠에서 예쁜 신발을 발견한 김만섭은 은정이를 생각하며 신발 하나를 구입했다. 그렇게 서울로 향하던 김만섭이 점심을 먹기위해 들어간 식당에서 광주의 정보가 잘못 기재된 신문을 바라보며 더 큰 충격과 고민에 빠져든다. 결국 김만섭은 서울로 향하던 택시를 돌려 피터에게로 돌아갔다. 그곳에서 구재식의 시신을 목도한 김만섭은 극심한 쇼크에 빠지고 피터를 끝까지 출국시켜야 겠다는 결심을 굳힌다. 모든 취재가 끝난 김만섭과 피터가 광주를 빠져 나가려 할때에 도심외곽은 철저히 봉쇄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무렵 “비포장검문소 중사”(엄태구역)는 서울택시 번호판을 보고도 묵인하며 탈출을 도왔다. 그러나 사복조장과 그 일행이 그들을 다시 추적하기 시작하고 이들의 탈출을 돕기 위해 광주택시들이 시외곽으로 몰려왔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피

터의 탈출에는 이념의 비극이 숨어있다. 결국 자신의 소임을 다한 김만섭의 행동에 감동한 피터는 자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단지 “김사복”이라는 가명을 적어 주었다. 일본 귀국에 성공한 피터는 광주의 상황을 전세계에 타전했다. 6.25이후 최대의 비극은 이렇게 국내가 아닌 해외에 민낯을 드러내며 군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피터가 송건호 시상식 수상자로 한국에 왔을 때 그를 찾으려고 백방을 찾아 다녔지만 끝내 찾을 수 없었다. “김사복”. 김만섭은 여전히 택시 운전사다. 작은 선행을 베풀며 예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갔다. 피터가 한국에 왔을때에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알수 없다. 그러나 김사복이 아니었다면 피터는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일이지만 이것은 국민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역사속에 묻혀 버릴 수도 있었던 광주의 비극은 이렇게 또다시 역사밖으로 여행을 떠난다.

영화는 끝이 났다. “조용필”의 “단발머리”로 시작된 택시운전사는 피터의 생전 인터뷰로서 막을 내린다.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구성된 픽션이다. 우리는 영화를 통하여 충격을 받는다. 광주밖의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경험하지 않았고 목도하지 않았다. 그러나 적으로부터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군인들에 의해 자국의 국민이 총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군인을 탓하거나 폄하할 목적이 아니다. 단지 과거에 존재했던 분명한 사실에 대한 접근이고 태도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화를 통해 무엇을 배우고 싶을까? 한사람의 보통사람, 정치에 관심도 없고, 이념도 전혀 알지 못한다. 그저 하루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왜 이러한 사건에 들어가고 왜 이 사람이 군인으로부터 쫓겨야 하고 구타를 당해야 했을까? 그것은 그가 가진 보통의 신념이다. 택시비를 받고 손님을 목적지까지 무사히 태워주는 것은 김만섭의 의무와 역할이다. 피터는 기자로서 외부로부터 고립된 광주의 현실을 그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다. 김만섭과 피터가 가진 기본개념에 대한 공통분모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이 의무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소임인 것이다. 김만섭이 손님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인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소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피터가 외부로부터 고립되어 모든 것이 차단된 광주의 민낯을 세계에 타전하듯이, 그리스도인도 모든 진리로부터 차단된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이다.

32. “예수는 역사다”The Case for Christ

미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7.07.13

감독:존건(Jon Gunn), 각본:브라이언 버드(Brian Bird),

주연:마이클 보겔(Mike Vogel)

관객:164,759명(2017.08.31.현재)

“시카고 트리뷴”지의 최연소 신입기자 “리 스트로벨”(마이클 보겔역)은 능력있는 엘리트 저널리스트다. 그는 미주리 주립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고 예일대학교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받았다. 리 스트로벨은 14년간 시카고 트리뷴의 법률담당 기자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레슬리 스트로벨”(에리카 크리스틴슨역)과 딸 “엘리슨 스트로벨”(헤일리 로즌와서역)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 어느날 리 스트로벨은 여느때와 같이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기 위해 고급레스토랑을 찾았다. 아내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을 무렵 딸 엘리슨은 식당가에 있는 사탕뽑기를 하고 있었다. 엘리슨이 사탕을 입안으로 가져갔을 때 갑자기 사탕이 목에 걸리는 위험에 직면하였다. 당황한 리 스트로벨과 아내 레슬리는 딸을 살리기 위해 안절부절하며 애를 써 보았지만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었다. 때마침 그 식당에는 “알피 데이비스”(L.스콧 켈드웰역)라는 병원 간호사가 손님으로 와 있었다. 그녀는 발빠른 응급처치로 엘리슨을 위급한 상황에서 구하게 된다. 그녀는 원래 다른 식당으로 가게 되어 있었으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식당에 오게 되었고 위기에 직면한 엘리슨을 구하게 된 것이다. 예수를 믿는 알피 데이비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인한 은혜라고 고백한다.

리 스트로벨의 가족은 무신론자다. 그러나 딸의 사고를 계기로 리의 아내 레슬리는 알피 데이비스를 통해 예수를 믿게 된다. 레슬리가 예수를 믿게 되자 리 스트로벨은 아내를 이해 할 수 없다고 다그치며 교회를 나가지 말 것을 종용한다. 레슬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화목했던 가정은 잦은 말다툼이 일어나고 리 스트로벨은 예수에 대한 허구를 증명하기 위해 미 전역을 찾아 다닐 결심을 굳힌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이며, 확인 가능한 사실만을 통해서 진실로 나아갈수 있다고 확신하였던 리는 존재여부가 불투명한 신에게 가족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사로 잡혀 있었다. 리 스트로벨이 아내의 마음을 되돌려 놓기 위해 수많은 과학자와 역사학자 등 전문가들의 논리와 증거를 쫓아 헤매던 중 자신이 기록한 기사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쓴 “히스”사건을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는다. 리 스트로벨은 이 사건으로 자신이 신념으로 여겼던 사실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된다.

리 스트로벨은 리버티 신학대학교 “게리 해버매스”(캐빈 시즈모어역)교수를 만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부활의 목격자들을 의심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최고의 권위있는 학자로 알려진 게리 해버매스는 예수의 부활에 관한 역사적 사실적 기록이 존재한다고 증명한다. 그는 당시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일방적인 추종자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초기 기독교인들을 박해하였던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실은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라고 해버매스 교수는 반문한다.

리 스토레벨이 두 번째 만난 사람은 고고학계의 권위자 "마르케즈" 신부다. 그는 본래 명성있는 고고학자였으나 자신의 학문연구의 결과로 성직자의 길을 택한 사람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부활의 목격자들의 증언을 거부하고 필사본을 의구심의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마르케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필사본을 증명한다. 그는 사본의 양이 많고 오래 된 것일수록 신빙성이 있다고 말한다. 마케도니아에서 발견한 호머의 일리아드의 그리스 사본을 보여 주며 그것을 증명한다. 원작은 BC. 800년경에 기록되었고, 사본은 AD. 3세기에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성경의 그리스신약은 5,843개로 그리스의 일리아드보다 4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마르케즈는 최초의 요한복음을 소장하며 이것이 AD.2세기경 고대 이집트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증명한다.

리 스트로벨이 세 번째 만난 사람은 세계적 성서학자 "빌 크레그"(러스 블랙웰역)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은 예수는 부활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빌 크레그 박사는 예수가 무덤에 매장되었다는 것이 사실적 최초의 기록이라고 증명한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인들은 처형된 시체를 개들에게 던져주는 잔인성이 있었지만 일부는 매장을 허용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한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여자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증인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것을 근거로 주일 새벽에 여자들이 무덤에 간 사실과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졌다는 증언은 인정할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의 무덤이 빈무덤이라는 것이 거짓이라면 여자들이 증인이었다는 사실은 기록하지 않거나 남자를 증인으로 세웠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은 사실대로 여자가 증인으로 되어 있다.

리 스트로벨이 네 번째 만난 사람은 미국 국립 신장폐혈액연구소 전문의사 "알렉산더 메드럴"(톰 노위키역)이다. 어떤 사람들은 증인들이 처형당한 예수님을 목격한 것은 예수가 죽지 않았다는 반증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예수의 기절설을 주장하며 무신론자들과 뜻을 같이 한다. 그러나 공학박사이며 의학교수인 메드럴은 예수가 옆구리에 찔리기 전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예수는 처형되기전 태형을 당하였다. 당시 로마의 태형은 쇠구슬과 뺏조각이 부착된 채찍으로 강한 힘이 들어간 채찍질과 동시에 폭력행위를 동반한다. 태형으로 인하여 예수의 몸은 이미 함몰되어 근육과 힘줄이 돌출되며 극심한 출혈이 동반되었다고 증언한다. 군인들이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심낭삼출이 나온 것은 이미 질식사 외에 다른 어떤 결론도 나올수 없다고 증언한다.

리 스트로벨은 마침내 아내와 함께 일리노이 주 사우스배링턴에 위치한 "월로우크릭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회심을 경험한다. 그후 리 스트로벨은 월로우크릭 교회와 "새들백 교회"에서 교육목사로 섬기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예수는 역사다"는 불신자의 마음으로 바라본 한 저널리스트의 고백이다. 예수에 대한 끊임없는 의구심과 반증은 이것을 증명하는 권위있는 학자들로부터 직접 듣고 평가하게 된다. 예수와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와의 동일성 또한 수많은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를 통해서 확인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부활이다. 그 어떤 누구도 부활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증인들로서 리 스트로벨은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아내가 예수를 믿는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기자의 눈으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부정하려고 결심한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전미지역을 찾아 다니며 그 허구성을 증명하려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리 스트로벨의 마음에는 믿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도마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더듬어 갔다. 그리고 그 실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실제적 증인이 되었다.

"예수는 역사다.", 이 영화는 불신자들을 위한 영화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통해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확인을 통해서 증명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우리 모든 사람앞에 진리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이제 리 스트로벨의 기자적 관점에서 바라본 사실 확인을 통하여 우리와 이러한 증거앞에 놓여 있게된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 지금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지금 당신의 가장 가까운 교회앞에서 문을 두드리는 용기가 필요할 때이다.

33. “청년경찰”Midnight Runners

한국영화, 장르:액션 개봉:2017.08.09

감독,각본:김주환, 제작:무비락,도서관옆스튜디오,베리굿스튜디오,

주연:박서준,강하늘, 관객:5,091,537명(2017.08.31.현재)

2주 14일동안 개최되는 “청람교육”은 경찰대학교 신입생을 위한 기초군사훈련이다. 청람교육은 함께하는 생활과 규범의 중요성, 그리고 목적지향의 학생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지덕체의 완성기간이다. 경찰대학에 합격한 “기준”(박서준역)과 “희열”(강하늘역)은 입학식을 보러온 부모와 어색한 이별을 고한다. “주희”(박하선역)는 경찰대학교 청람교육의 교관이다. 부모와의 작별을 선포하고 청람교육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주희의 목소리와 눈빛에는 강렬한 인상이 남는다.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경찰대에 입학한 기준은 소세지를 좋아한다. 반대로 카이스트 영재인 희열은 특별한 경험을 위해 경찰대에 입학했고 까다로운 식성으로 소세지를 먹지 않는다.

“경찰은 시민이 위험에 처했을때 가장 먼저 응답하는 사람이야 근데 니들은 동기가 다친걸 보고도 그냥가? 너네는 시간안에 들어왔어도 실패다.”

경찰대학교 “양교수”(성동일역)는 경찰계의 전설로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준다. 무술을 가르치는 “하교수”(이준혁역)는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호신술을 가르쳐 주며 체력단련을 지도하고 있다. 청람교육의 현장은 군대 유격훈련과 맞먹는 실전훈련이 계속된다. 마지막 산행훈련에서 기준과 희열은 산악지대를 뛰어서 오르고 있다. 그때 앞서가던 희열이 발목부상을 입고 넘어지게 된다. 다른 동료학생들이 하나씩 지나쳐 갈 때 기준은 희열을 업고 산을 내려온다. 한시간내에 돌아와야 할 거리를 매우 지체된 가운데 희열을 업고 내려오는 기준을 발견한 주희는 불합격이 아닌 합격처리를 내린다. 희열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던 동료학생들을 꾸짖으며 그들에게 한 바퀴 더 돌아올 것을 명령한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준과 희열은 한팀이 되고 두사람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 진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두사람은 3학년생이 되었다. 어느날 외박을 나간 기준과 희열은 클럽으로 향한다. 클럽에서 여자들과 함께 데이트를 즐기려 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인근 시장통 술집에 앉아 뉘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시간은 가고 술집을 나온 기준과 희열의 눈앞에 미모의 아가씨가 지나가고 두사람은 물끄러미 바라보며 뒤돌아볼 것을 기대한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봉고차 하나가 아가씨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내린 사내 하나가 그녀의 뒷머리를 내리친뒤 그녀를 태워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목격자가 된 기준과 희열이 그들을 뒤쫓아 보지만 사람의 똬길음은 역부족이었다. 급하게 강남경찰서를 찾은 기준과 희열이 “김팀장”(김강현역)을 만났지만

앞서 있는 사건현장으로 출동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모든 정황은 매우 위급하다. “크리티컬 아워”에 걸린 것이다. 사건발생 7시간이내에 해결하지 못했을 때 피해자의 생명은 위급하다는 수사의 기본이 되는 세가지 원칙, “현장, 물품, 피해”를 중심으로 두사람은 학생신분을 넘어 현장을 다시 찾는다. 기준과 희열에게는 “열정과 집념과 진심”이 있다. 거기서 발견한 하나의 단서는 떡볶이다. 20대 여성으로 추정되는 이름을 알수 없는 아가씨가 누군가에 의해 납치되었고, 이미 시간은 두시간 가량 흘러갔다. 그녀가 남긴 흔적은 아직 식지 않은 4인분의 떡볶이다. 분명 누군가에게 주려고 한 것이다.

이름, 나이, 주소, 어느것 하나 남겨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떡볶이를 구매한 식당을 찾아야 했다. 이렇게 또다시 한시간이 지체되었다. 그러나 단서는 있다. 떡볶이를 구매한 집에서 키가 크고 날씬한 20대로 추정되어 보이는 아가씨의 직장을 알아낸 것이다. 그녀의 직장은 “귀파방”이다. 귀파방은 신종 불법 유사 성행위 업소로 귀를 파주는 것처럼 하지만 실상은 성행위 업소다. 희열이 귀파방에 들어가 납치된 아가씨에 대한 정보를 캐는 동안 기준은 건너편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소세지를 먹으며 망을 보고 있다. 때마침 지구대 경찰차가 귀파방 단속을 나왔고 기준은 희열을 위해 경찰을 “잡새”라고 놀리며 줄행랑을 친다. 기준을 쫓고 쫓는 사투를 벌이는 동안 희열은 귀파방에 손님으로 가장해 정보를 탐색하고 있다. 귀파방 “미지”(배효진역)로부터 그녀의 이름이 “윤정”(이호정역)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고 귀파방을 빠져 나와 기준과 함께 그녀의 집을 찾는다. 그녀의 집에는 또다른 두명의 여자가 갇혀 있었고, 이들을 감시하던 조선족이 기준과 희열을 보고 도주하지만 끝내 잡히고 만다. 그를 통해서 기준과 희열은 여자들이 갇혀 있는 곳까지 접근하지만 조선족 두목 “영춘”(고준역)에게 린치를 당하며 겨우 목숨을 건진다. 인근 지구대로 피신을 한 기준과 희열이 지금 여자들이 감금되어 있다고 알렸지만 절차를 강조하는 경찰에 의해 테이저건을 맞는 아이러니를 겪게 된다. 전화를 받고 달려온 양교수는 기준과 희열의 상태를 보고 아연실색하고 두사람을 따라 현장을 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기준과 희열은 경찰이 아니라 학생이다. 학생은 민간인이다. 그들이 돌아간 학교에서 그들은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는다. 몸과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시간, 기준과 희열은 새로운 각오를 다지며 현장을 찾아 나선다. 이제 그들은 중무장체제를 갖추었다. 그들의 손에는 경찰봉과 테이저건과 각종 방어물이 장착되어 있다. 그들이 다시 접근한 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단서 하나를 잡았다. H산부인과와의 은밀한 관계다. 시내 한복판에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H산부인과는 불임부부들의 로망과 같은 병원이다. 그러나 그 병원의 어두운 그림자에는 언제나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중국 조선족과 연계된 범죄는 어린 여학생들의 납치와 깊은 관련이 있었다.

조선족 두목 영춘은 납치 여성들을 폭력으로 제압하고 그들에게 난자 생산주사를 놓아서 많은 난자를 채취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난자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장기적출에 들어가는 등 그들의 포악성과 잔인성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다. 이러한 밀거래 움직임을 포착한 기준과 희열이 병원에 잠입하여 조선족 폭력조직을 일망타진하고 수술실로 접근하였다. 수술실 앞에는 천하무적과 같은 영춘이 막아서고 있다. 2대 1의 혈투전에서 결국 승리자는 기준과 희열이다. 수술실에는 “산부인과 원장”(남문철역)이 난자 적출을 위해 마취를 놓은 상태로 있고 대기실에는 수많은 여학생들이 수술을 대기하고 있다. 모든 것이 일망타진되는 순간이다.

경찰대학교 학생에 의해 일망타진된 조선족 여성 납치극과 불법 난자생산은 이렇게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지만 이 사건으로 기준과 희열은 학교로부터 퇴학조치의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 경찰대 “학장”(정원중역) 주재로 열린 징계위원회는 1년 유급과 500시간 봉사를 결정하고 사태를 종결하였다. 경찰대학교는 엘리트 경찰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경찰청의 꽃이다. 비록 학생신분이지만 사회생활 현장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사고를 목인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받게되는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실천하였다. 그들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학생신분이라는 것을 망각하지 않았다. 학생신분으로서 할수 있는 최상의 행동을 선택하며 그들은 후회없는 길을 걸어갔다.

영화는 끝이 났다. 기준과 희열은 보통의 학생이다. 조금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면 생각하고 결정되면 바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절차와 승인과 과정을 지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우리에게 전달하려 한다. 청년 경찰은 패기와 용기와 정의에 충만한 우리시대의 로망 캐릭터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화에서 무엇을 생각할까? 비록 학생신분이지만 눈앞에서 일어나는 불법현장을 그냥 지나치거나 외면하지 않고 생명의 위협속에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정신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다. 그로 인해서 1년유급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법앞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결과와 달리 경찰의 위상을 세우는 역할을 하였다. 한사람의 시민으로서도 올바른 리더자의 길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스도인도 이와같은 행적이 있었다. 어떤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 었다.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길을 지나가게 되었지만 한결 같이 외면하였다. 이 사람을 구한 것은 결국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그들은 유대인과 관계가 나뉘지만 관계보다 먼저 사람이었던 것이다. 경찰대 학생들도 119에 신고하고 모든 것을 경찰들에게 맡길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제사장과 레위인보다는 나은 행동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의를 선택하였다. 강도

만난 사람을 살려준 사마리아 사람도 그 사람을 구했을 때, 그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지체하게 하고 불필요한 비용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고 결정했다. 오늘 우리앞에도 이러한 상황들은 자주 발생한다. 그럴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외면부터 한다.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인은 쉬운 길보다 사마리아 사람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따라 가야할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일반 학생들도 정의를 위해 생명을 거는데 우리에게는 정의와 공평이 더욱더 당연한 일일 것이다.

34. “장산범”The Mimic

한국영화, 장르:스릴러, 개봉:2017.08.17

감독,각본:허정, 제작:스튜디오드림캡쳐

주연:엄정아,박혁권, 관객:1,306,004명(2017.09.27.현재)

1. 도시전설 “장산범”

장산범은 소백산맥을 중심으로 부산 해운대구 장산에 나타나는 고양이과의 큰 괴생명체를 의미한다. 장산범이라는 이름의 유래와 내용 또한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기장군 철마면의 민담에는 “범불”이라는 것이 있으나 범불은 억울하게 요절한 사람이 떠돌아다니는 불덩어리로 그 존재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존재이다.

장산범은 은빛색의 털로 온몸을 휘감고 있으며 특징은 사람 목소리와 같은 기묘한 음성으로 어린아이를 유혹해 잡아먹는다는 설이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외형이 인간과 전혀 다른데 인간과 같은 느낌을 갖는다는 것이다. 즉, 두발로 기립한 동물이 마치 땅을 기어다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다니되 초스피드하게 움직이며 사람의 말을 하지만 짐승의 냄새가 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표범일 가능성에 대하여 시사한다. 한국 표범은 이미 멸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유사한 발자국과 털과 같은 일부 증거가 발견되어 극소수가 살아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장산 지역은 군사시설로 자연 보존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양호하다. 이러한 지리적 측면에서 어떤 민담에 영적인 부분이 가미된 하나의 허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산범의 기록은 부산시에서 발간한 민담자료집에도 나와 있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민속학계에서는 과거사에 존재하지 않는 “도시전설”이라고 말한다. 즉 사실처럼 떠돌아 다니는 얘기지만 아무것도 증명되지 않은 “현대적 민담”이라는 것이다.

장산은 금정산과 현재 부산의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부산의 대표적인 명산이다. 터널이 개통되어 많은 차량들이 운행하고, 광안대교와 해운대가 인근에 있다. 산이 많은 부산지역 가운데 장산에 그러한 동물이 살았거나 살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지리산과 가야산 일대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수많은 민담들은 소백산맥의 맥을 잇는 부산에 까지 때로 연결되어 흘러가는 과정에서 과장되고 각종 이야기들이 첨가되는 경향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오래된 민담의 일부이든지 아니면 현대적 도시전설이든지 여름철 영화로 등장하며 우리 사회의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도시전설에 관한 새로운 조명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2. 영화 “장산범”

불륜에 연루된 “정수”(이주원역)와 여자가 장산숲속으로 향하고 있다. 불안해 보이는 두사람이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애완견 한 마리와 충돌하는 일이 발생한다. 정수는 애완견을 트렁크에 싣게 되는데 트렁크에는 이미 한 여자가 납치된 채 겁에 질려 있었다. 장산에 도착한 정수가 트렁크에 갇혀있던 여자를 살해하고 죽은개와 함께 폐동굴에 던져 버린다. 차에서 기다리던 여자가 정수의 곁으로 달려오는데 이미 상황은 종료된 뒤였다. 겁에 질린 두사람이 내려오는데 폐동굴 안에서 죽은 여자 목소리가 들려온다. “여보!여보!”

“치매 노모”(순자,허진역)를 모시고 있는 “민호”(박혁권역)와 “희연”(염정아역)은 “준희”(방유설역)와 함께 한적한 장산으로 이사를 오게 된다. 민호와 희연이 “준서”(정지훈역)를 잃어버린지도 이미 몇 년이 지나갔지만 희연은 준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유일한 단서인 시어머니의 기억이 되돌아 오기만을 기다리는 희연은 그저 지쳐만 갈 뿐이다.

어느날 애완견을 잃어버린 남매가 희연의 집을 찾았다. 남매가 숲속에서 개의 목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달려가는데 음산한 기운이 감돈다. 여자아이가 폐동굴에 있는 작은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 보는데 전화벨이 울리고 순식간에 여자아이가 빨려 들어간다. 남동생이 기겁을 하며 구멍속을 들여다 보는데 여자아이가 기적적으로 빠져 나온다. 정수와 희연이 그곳으로 찾아가서 폐동굴을 살피는 과정에서 이미 죽은 여자의 시신을 발견하고 충격을 받는다.

경찰들이 수사를 하고 정수와 희연이 상황을 설명하는 가운데 이름모를 낯선 “여자아이”(신린아역)를 발견한다. 밤이 되고 그 여자아이가 희연의 집을 찾고 희연은 어린 아이를 돌려 보낼수 없어 자기집에서 돌보게 된다. 한편 치매를 앓고 있던 노모가 준희와 함께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것은 이미 죽은 자의 목소리였다. 온몸에 구타를 당한 흔적이 선명한 여자아이를 목욕시키던 희연은 상처를 바라보며 충격에 빠진다. 아무런 기록조차 없는 이 아이는 누구일까?

여자아이의 이름은 “준희”(준희2)라고 한다. 희연의 딸과 같은 이름을 사용하는 준희2가 희연에게 엄마라고 부른다. 목소리는 준희와 똑같다. 그러나 음산한 기운이 감도는 준희2의 눈동자는 매섭기만 하다. 정수와 희연과 준희가 창밖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을 때 준희2가 그 장면을 바라보며 그대로 따라 한다. 누가 진짜 준희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음성이다. 그날 밤, 준희2는 치매노모의 방으로 다가간다. “순자야! 순자야!” 치매 노모의 이름을 어떻게 알았을까? 준희2의 정체는 무엇일까? 그냥 미아로 남은 한 소녀에 불과한 것일까?

준희2의 방과 치매 노모의 방 거울에는 녹색테이프로 모든 것이 가려진 채로 있다. 누가 무슨 이유로 테이프로 막은 것인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어느날 벗겨낸 거울의 한 조각에서 손바닥 흔적이 살아 나온다. 희연의 주변을 배회하는 또 다른 한사람은 “김무녀”(길해연역)이다. 그녀는 장산에 떠도는 괴소문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 무당들이 많았던 장산에는 장산범이라는 신의 능력자가 있다. 그로부터 신끼를 받기 위해 많은 무당들이 뛰어 들었고, 그 가운데 “중년사내”(이준혁역)가 장산범으로부터 강한 능력을 받는다. 짐승의 죽은 피를 빨아 먹는 그의 눈빛은 이미 사람이 아닌 듯 하다. 더 강한 능력에 집착한 그는 어느날 자신의 딸을 제물로 바치며 더 강한 능력자가 되지만 그 또한 인간이 아닌 흉악한 장산범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1980년에 실종된 소녀가 20여년이 흐른 지금, 준희라는 이름으로 희연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김무녀는 지금 집에 혼자있는 준희가 매우 위험하다고 희연에게 빨리 가서 피해라고 말한다. 같은 시간 준희가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는데 화장실 한켠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지만 무엇인가 어색하고 소름이 돋는다. 잠시후 화장실 거울에서 괴물이 밖으로 솟아 나오고 준희는 재빠르게 아래마당 창고로 도망쳐 간다. 그때 준희2가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준희앞에 나타나 안심을 시키지만 준희는 두려움에 떨며 어쩔줄을 모르고 있다. 김무녀의 말을 듣고 환급히 달려온 엄마가 준희를 부르며 찾아 헤메다 옷장안에서 준희와 준희2를 발견한다.

충격적인 상황은 끝이 없다. 치매에 걸린 노모와 남편이 장산범에게 잡혀가고 희연은 준희2와 함께 노모와 남편을 찾으러 장산범굴로 찾아 간다. 집에 혼자 있어야 하는 준희에게 희연은 그 어떤 음성과 소리에도 믿지마라고 몇 번이고 당부하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준희2는 함께가는 대신에 희연에게 자기를 지켜 줄 것을 부탁한다. 장산범굴안에서는 어떤 소리도 내지말고 어떤 소리에도 반응하지 말 것을 확인받는다. 그러나 발을 헛디딘 희연이 소리를 내고 모든 것은 아수라장이 되며 혼돈의 시간으로 빠져 들어간다. 그러는 사이 남편인 민호가 거울속에서 탈출하고 희연과 함께 탈출하려고 나선다. 그때 준희2가 희연에게 저를 지켜 줄것이라고 약속한 것을 상기 시켰지만 희연은 주저하다가 그냥 가 버린다. 그러나 희연에게 들려오는 준서의 목소리에 냉정을 잃은 그녀는 왔던 굴속으로 되돌아가 버린다. 민호는 무사히 밖으로 나오고 그때야 도착한 김형사(이율역)는 한발 늦은 듯 하다. 희연은 준희2와 함께 동굴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 버리고 영화는 막을 내린다.

“곡성”(2016년,나홍진감독)이 “의심”으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라면 장산범은 “믿음”으

로 인해 일어나는 문제다. 곡성이 사람의 말에 의해 의심의 꼬리를 문다면 장산범은 소리에 의해 믿음의 꼬리를 물고 이어간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불씨와 같은 아킬레스를 유혹하는 장산범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속에서도 끊임없이 나타난다. 상처를 보듬고 안아주며 치유하기는 커녕, 상처를 굶어서 더 큰 상처로 남게 하는 것이 세상속 인간관계다.

그리스도인은 장산범에서 무엇을 배울수 있을까? 개개인마다 알지 못하는 아픔들이 숨어 있다. 때로는 밝히고 싶지 않은 흔적들도 있다. 그러나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은밀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문제는 그 사람의 입술이다. 그 비밀의 문을 여기저기서 아무런 생각없이 열어 놓는다는 것이다. 그로 인해 생긴 상처는 또 다시 마음의 문을 닫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위로의 사람이며 기도의 사람이다. 말을 할때는 오직 복음을 전할 때 뿐이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함부로 말을 할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산범의 입술이 될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35. "브이아이피"VIP

한국영화, 장르:범죄,스릴러, 개봉:2017.08.23

감독,각본:박훈정, 제작:영화사 금월,페퍼민트앤컴퍼니

주연:장동건,김명민,박희순,이종석, 관객:1,373,302명(2017.09.27.현재)

국가정보원, CIA미중앙정보국, 대한민국검찰청과 경찰청이 총동원되는 "VIP"에 북한 판 사이코패스가 등장한다. 신의주에서 외제차를 몰아 붙이며 세명의 남자가 마약이라도 먹은 듯한 얼굴로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다. 때마침 앞에는 10대로 보이는 어린 "소녀"(정우림역)가 지나가고 이들은 엽기적인 범죄를 행한다. 어떤 이유로 일가족을 잔인하게 죽이고 한 여자를 발가벗겨 놓고 위험한 장난을 하는지 전혀 알수 없다. 강도 강간 그리고 잔인한 살인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엽기적인 행각에도 불구하고 북조선 보안사까지 손을 쓸수 없다면 이들은 분명 VIP중에 VIP가 분명하다. 살인사건 현장에 보안사 "리대범"(박희순역)이 나타나지만 상부의 지시로 사건은 그대로 묻혀 버린다. 뿐만 아니라 뒤를 쫓는 이유로 리대범은 좌천과 죽음의 위기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지만 국적 불명의 존재가 된다. 그러나 그의 복수극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서울 한복판에서 엽기적인 강간살인 사건이 연일 뉴스에 오른다. 언론의 도마위에 오른 경찰청 "간부"(최정우역)는 이 사건의 해결자로 "채이도"(김명민역)형사를 차출한다. 그는 경찰내 잦은 폭력으로 징계위험에 직면해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 여자의 시신에서 발견된 DNA는 엽기사건의 중심부를 향하여 정조준한다. 해외 정보원으로 떠돌던 국정원 해외파 "박재혁"(장동건역)은 "부장"(박성웅역)과 함께 국내정착을 기원했으나 라인을 잘못타서 위치가 아슬아슬하다. 때마침 터진 엽기살인사건으로 분위기는 최악이다. 박재혁은 곤란한 위치에 놓여있고 "태요원"(태인호역)은 이들의 신변확보를 위해 속도를 내지만 채이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이사건의 범인은 "김광일"(이종석역)이다. 그는 함경도에서 가족을 가장 잔인하게 살해하고 여성을 강간살인한 주범이다. 그러나 그는 단지 북한 장성택라인의 실세, 평안도 당서기 김모술의 아들이라는 단 한가지 이유로 모든 면죄부를 갖고 있다. 그는 잘생긴 외모에 탁월한 영어실력까지 갖춘 유학파이다. 그에겐 종들과 같은 친구들이 있다. 그들 또한 엽기적이다. 다른 사람을 파리처럼 죽이고 킬킬대는 모습에서 인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악마일뿐이다. 김광일과 그의 지존파들이 남긴 엽기적인 족적은 중국과 홍콩과 러시아와 한국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 그는 국정원과 미중앙정보부의 기획입국자의 자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인간 이하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호자의 위치에 선다. 사실 김광일은 부친의

실각과 숙청으로 탈북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겐 북한 최상류층의 정보가 담겨져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다르다.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고 범법자를 처벌해야만 한다. 이것이 국정원 박재혁과 경찰청 채이도와 CIA "폴"(피터 스토메어역)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채이도 형사는 검찰청 "검사"(조우진역)와 한팀을 이루며 이 사건의 쐐기를 박으려 한다. 궁지에 몰린 박재혁은 채이도 팀을 감시하고 경찰보다 한발 앞서 가려고 정보력을 발휘하지만 무리수외엔 답이 없다.

채이도 형사가 김광일을 잡고 혐의를 완성해 갈 무렵 박재혁은 경찰청 간부와 빅딜을 한다. 김광일의 추종파 한명을 주범으로 내세워 그를 체포하고 이 사건을 종결하며 김광일은 국정원에게 넘긴다는 것이다. 이를 알리없는 채이도가 간부를 압박하지만 오히려 채이도는 직위해제된 채 귀가길에 들어선다. 채이도의 집에는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 북조선 떠돌이 리대범이다. 그는 남한으로 밀입국해 김광일의 수하중 한명을 처리하고 한명은 중경상을 입힌채로 되돌려 보냈다. 그는 김광일의 정보력 때문에 남한정부는 그를 처리할수 없고 오직 자신만이 북으로 데려가 처리할수 있다고 말한다.

채이도 형사가 다시 승기를 잡는다. 이 시기에 김광일은 국정원 여직원을 위기에 몰아넣고 수갑을 찬채로 보호되고 있었다. CIA정보요원들과 국정원의 정보망속에 김광일은 자신의 범죄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당당함을 보여준다. 이에 박재혁도 분노하지만 동료요원들이 극구 말린다. 같은 시간 채이도 형사는 김광일의 엽기살해 사건의 동영상을 확보하고 현장을 급습한다.

김광일을 긴급 체포한 채이도 형사 팀이 경찰청에 도착했을 때 전경들이 그들을 막아서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으로 채이도 형사는 김광일이 탄 SUV승용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한다. 검찰청도 이미 손을 쓸수 없는 상태다. 한강대교가 보이는 교각위에 차를 세운 채이도 형사가 시세를 한탄하고 있을 무렵 박재혁이 그의 앞에 나타났다. 잠시후 CIA요원들도 그의 앞에 서고 김광일은 다시 미국측에 인도된다.

그렇게 CIA에게 김광일이 인도될 무렵 CIA요원의 권총을 빼앗은 김광일이 채이도 형사에게 다가가 총알 세례를 퍼붓는다. 갑자기 일어난 총격에 박재혁이 당황하고 CIA도 김광일을 차에 태우고 공항으로 출발한다. 순간 박재혁이 김광일을 추격하고 어디선가 나타난 리대범의 승용차가 CIA의 차량과 충돌한다. 리대범이 김광일을 끌고 항만으로 향한다. 밀항선을 타고 북조선으로 향하는 리대범은 김광일을 북에서 처단하며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한다. 그러나 북조선의 상황이 다시 김광일의

부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되었고 그에겐 또다시 VIP의 기회가 주어졌다. 한 마디로 VIP는 어디를 가든지 VIP다.

박재혁은 또 다시 로컬이다. 중국에 나타난 CIA의 풀과 박재혁이 다시 만났다. 아파트내에 있는 김광일을 넘겨 달라는 것이다. 박재혁은 아파트 단지안으로 걸어 올라갔다. 김광일의 수하들을 처단하고 마지막 남은 김광일에게 총알세례를 퍼부었다. 김광일의 엽기적 행각은 결국 죽어서야 끝이 났다. 그가 가진 정보의 가치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 채이도 형사는 죽었을까? 그는 식물인간 상태로 병실에 누워있다. 회생가망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러나 그에게 죽음이라는 처벌은 너무나 가혹했을까? 그냥 그 상태로 시간은 정지되어 있다.

영화는 끝이 났다. 사이코패스 VIP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러시아, 중국, 북한, 남한, 그가 머물러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엽기적 변태 살인행각은 사라지지 않는다. 결국 스스로가 죽어서야 끝이 났다. VIP라는 용어를 쓰기에도 부적합한 존재다. 스스로도 어떤 위치에 오른 것이 아니라 부친의 권력에 이름 하나 올려 놓은 것 뿐이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쩌면 VIP일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VIP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마땅할까?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VIP다운 삶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VIP라면 복음의 일꾼으로서도 손색없는 VIP가 되어야 할 것이다. 거만하고 교만한 권력자가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지며 주안에서 헌신을 다하는 하나님의 VIP가 되어야 할 것이다.

36. “살인자의 기억법”MEMOIR OF A MURDERER

한국영화, 장르:범죄,스릴러 개봉:2017.09.06

감독:원신연, 원작:김영하, 각본:황조윤, 제작:쇼박스,W픽처스

주연:설경구,김남길,설현,오달수, 관객:2,656,452명(2017.10.11.현재)

1995년 계간 “리뷰”에 “거울에 대한 명상”으로 데뷔한 김영하의 장편소설 “살인자의 기억법”은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 이어 나온 연쇄살인범에 관한 이야기다. 지난 30년간 살인을 반복해 오다가 25년전에 은퇴한 연쇄살인범 김병수는 알츠하이머라는 치매에 걸린 상태로 사라져만 가는 기억과의 전쟁을 벌인다.

“병수아버지”(정인겸역)는 폭력증후군의 전형적인 사례자다. 가정폭력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저 습관적인 폭력이 아내와 자녀들에게 가해지는 것이다. “병수어머니”(최유송역)와 어린 “누나”(김혜윤역)가 오랜만에 귀가한 아버지로부터 비참한 폭력에 시달린채로 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한채 잠을 자고 있고 그 뒤편으로 어머니와 누나가 겁에 질린채로 앉아 있다. 학교에서 돌아온 “병수”(신기준역)가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자신의 흰 운동화에 집착한다. 잠에서 깬 병수 아버지는 무슨 이유에서일까? 무작정 병수를 두들겨 패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안방으로 병수를 끌고 들어간다. 그러나 밖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와는 달리 병수는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김병수”(설경구역)는 은행원인 “은희”(설현역)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70세를 넘은 김병수는 알츠하이머 판정을 받고 근심에 쌓여 있다. 점점 잃어가는 기억에 대하여 병수는 은희에 대한 염려가 앞선다. 그러던 어느날 차를 몰고가다가 접촉사고를 일으키게 되는데 그는 인근 지역의 경찰인 “민태주”(김남길역)였다. 그의 트렁크에는 사람의 시체로 추정되는 사체 한 구가 가방에 들어가 있고 밖에는 핏자국이 선명하다. 무엇인가 강한 인상을 받은 김병수는 수의사의 직감으로 혈흔을 채취한다. 의심을 받는듯한 민태주가 노루피라고 설명하면서 접촉사고를 보험처리 하지 않고 각자가 알아서 수리하자고 제안한다.

살인자의 눈은 살인자의 눈을 기억하는 법, 알츠하이머로 인하여 지난 과거의 흔적마저 잃어 가는 김병수는 민태주의 눈에서 살기를 느낀다. 김병수는 아버지에 대한 살인을 시작으로 세상을 살인이라는 도구로 심판해 왔다. 그리고 17년전을 마지막으로 살인을 중단했다. 김병수의 대나무 발은 그가 파묻은 시체들로 가득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 의문의 실종사건은 이렇게 영원히 묻혀가는 듯 하지만 민태주의 등장으로 재현되기에 이른다.

민태주를 쫓는 김병수의 허를 찌른 건 역시 민태주다. 그는 김병수의 무남독녀인

은희와 연인관계로 발전한다. 알츠하이머로 인하여 김병수의 기억은 더욱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아버지의 기억상실을 우려한 은희가 아버지가 해야 할 일과 한 일들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는 녹취기를 준다. 녹취기를 통하여 김병수는 자신이 걸어온 길과 걸어가야 할 길을 찾기 시작한다.

연쇄 살인범인 김병수와 호형호제하며 한 동네에 살아가고 있는 “안병만”파출소장(오달수역)과의 관계는 아이러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린 아버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은희는 지역 아카데미에 가서 활동하는 것을 권유한다. “시선생”(이병준역)은 구시대적 언어와 술수로 여심을 흔들지만 김병수는 오히려 역겨워 한다.

김병수의 아내는 바람이 났다. 외간 남자와의 밀회에서 은희를 출산했다. 분노한 김병수는 아내와 내연남을 살해하고 대나무밭에 암매장했다. 누나는 “마리아”(길해연역) 수녀로 살아가고 있다. 그녀의 삶과 김병수의 삶은 늘 고단하다. 그들에게 치유되지 못한 상처가 남아있고 오랜 세월동안 그 상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민태주는 반대로 어머니가 가해자다. 어머니가 다리미로 내려치는 가운데 민태주의 한쪽 머리 일부가 함몰되어 버렸다. 민태주에게는 여자가 적이다. 어머니로 인한 그의 상처는 잊혀지지 어려운 아킬레스다. 그는 지금 경찰로 일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또한 연쇄살인범이다. 자극적인 살인은 또 다른 살인을 부르며 지금 은희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기억을 잃어가는 김병수와 잃어버린 기억을 조작하는 민태주의 두뇌게임에서 승자는 누가 될까? 은희를 안전한 곳으로 보내려고 했던 김병수는 민태주에게 은희를 맡기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도 알지 못한다. 민태주는 은희를 볼모로 잡고 김병수의 목숨을 노린다. 김병수는 안병만소장으로부터 살인자의 의심을 받고 도망가는 신세가 된다. 안병만 소장과 민태주가 대나무 밭에서 수많은 사체를 발견하고 아연실색한다. 그러나 모든 것은 공소시효가 끝난후다. 은희를 구해야 하는 김병수는 안병만소장을 설득하고 김병수는 은희를 볼모로 잡고 있는 민태주의 거처로 향한다. 김병수의 기억은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간다.

민태주와 김병수의 만남은 언제나 처절하다. 싸움은 끝이없고 기억은 희미해져 가며 딸을 위기에 빠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끝내 아버지는 딸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회생불능의 말기 치매환자의 자리에 들어간다. 그를 처벌한 법도 의미를 잃어가고 연쇄살인범의 살인도 완전히 멈추어 간다. 세상은 늘 오리무중이다. 어떤 사람이 어느 상황에서 살인을 하는가 하는 것은 의미를 상실한다. 살인자는 그저 살인이 수단이 되고 습관처럼 일어난다.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은 살인자를 미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는 듯 하다. 게임과 같은 비현실은 우리를 다소 경악케 하지만 이 또한 현실의 한 단면일 것이다. 폭력이 부른 가정에서 탄생되는 추악한 현실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지만 그 어떤 희망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가? 지옥도를 보는 듯한 두 명의 살인자에게서 정의란 없다. 인내심도 없고 죄책도 없다. 그저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이 중요할 뿐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살인은 죄가 적지 않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당화 되지 않는다.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몫이다. 사람이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어떤 행위에도 참여하는 것은 죄다. 피해자의 위치가 된다해도 선택은 복수가 아니라 기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37. “아이 캔 스피크”*I Can Speak*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7.09.21

감독:김현석, 원안:강지연, 각본:유승희, 제작:영화사 시선

주연:나문희,이제훈, 관객:3,273,559명(2017.11.30.현재)

1. 미국 연방의회 일본군 위안부 사죄(HR121)결의안

1910년의 한일합방, 그리고 1931년의 만주사변과 1937년의 중국전쟁을 계기로 일본제국주의의 세계적 야욕은 브레이크가 없었다. 예상을 빚나간 제국주의 전쟁은 생각보다 훨씬더 늦어지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건강성을 잃은 일본군의 현지여성들에 대한 강간, 폭력사태는 끊임없이 이어져 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군은 비밀리에 “군위안소”를 설립하였다. 일본정부는 일본인 여성들에게 천황의 군대 확장을 위한 출산을 장려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국가인 조선과 대만지역에서는 전혀 다른 양상을 드러내었다. 일본기업과 군대는 범죄적 사기와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식민지 여성을 군위안소로 보내었다. 군위안소에서 일어났던 각종 증언들은 인권적 차원을 넘어 상상하기 어려운 지옥생활이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당시 조선의 여성들은 다른 남자에게 당한 성적 수치와 폭력에 대하여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전쟁종료와 함께 잊혀져 갔다.

그로부터 45년이 흐른 1990년대 한국의 여성운동은 민주인권운동과 함께 급격히 성장하였다. 이와 함께 여성의 성유린에 대한 실태조사가 밝혀지면서 일본제국주의의 만행도 수면위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일제시대 여성 위안부에 관한 문제는 대만과 필리핀 등 아시아를 넘어 네덜란드와 유럽에 까지 이어져 갔으며, 결국 UN차원의 조사가 요구되었다.

진실에 대한 사실규명과 사죄와 배상,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UN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사실, 그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하며 위안부의 심장에 다시한번 총을 겨누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제국적 사고에 개탄을 금치 못하였던 미국과 한국과 중국의 교포사회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1990년대 중반 미국의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1997년, 미국 일리노이주의 민주당 의원인 “다니엘 윌리엄 리핀스키”(Daniel William Lipinski)가 주도하는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미국연방의회에 제출되었다. 같은 일리노이주의 “레인 알렌 에반스”(Lane Allen Evans)의원은 3년후인 2000년을 시작으로 2001년, 2003년, 2005년, 2006년 5회 연속으로 연방의회 하원의원에 상정시켰다. 2006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드디어 가결(House

Resolution 759)되었으나 어떤 이유에서 였는지 하원 본의회에 상정되지 못한채 폐기되고 말았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미국 사회에서 잠들지 않았다. 인권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이 문제는 항상 주요 이슈가 되었으며, 결국 2007년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일본계 미국인 "마이클 혼다"(Michael Honda)의원은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Committee on Foreign Affairs)의 "아시아태평양환경소위원회"(Subcommittee on Asia, the Pacific, and the Global Environment)에 결의안을 제출하였으며, 2월15일에는 의회에서 관련자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바로 이곳에서 일본군 위안부 직접적 피해자인 "이용수"할머니와 "김군자"할머니의 용기있는 증언이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네덜란드 출신의 피해자 "젠 러프 오헤른"할머니의 증언도 함께 이루어졌다. 마이클 혼다 의원은 이미 1999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일본군위안부 결의안"을 상정하여 채택한 바 있다.(Assembly Joint Resolution 27 on War Crim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그후 2007년 6월26일, 마이클 혼다의원이 제출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은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찬성39표, 반대2표로 공식 채택되었으며 7월30일, 미국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 이것은 1995년에 설립한 "아시아여성기금" (Asian Women's Fund)과 함께 일본의 제국적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후 일본정부의 태도가 변한 것은 별로 없었다. 사과와 망언을 반복하는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의 소극적 태도는 일본이 진정한 의미의 강대국이 될수 없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 하원의 결의는 전세계 모든 국가에 일본의 만행이 진실이었음을 확인하는 명확한 증거가 되었으며, 유대인 학살의 주역으로서 끊임없는 자성의 태도를 보여주는 독일과 대비되는 중요한 관점이 되고 있다.

2. 영화 "아이 캔 스피크"

명진구 봉원동 봉원시장에서 OK수선실을 경영하는 76세의 "나옥분"(나문희역)은 20년간 8천건의 민원을 제기한 "도깨비할매"다. 미국 LA에 사는 남동생 "정남"(데니스 연역)을 찾기 위해 영어회화에 전념하는 그녀의 영어학원 닉네임은 "제니퍼"다. 그녀의 출근길은 봉원시장이 아니다. 매일 아침 명진구청으로 출근해 민원으로 출근도장을 찍고 가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다.

명진구청 민원봉사과로 발령을 받은 34세의 "박민재"(이제훈역)는 7급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이며, 영어회화 토익950점의 9급 공무원이다. 원칙주의로 일관하는 그에겐 유일한 혈육인 고3의 남동생 "박영재"(성유빈역)가 있다. 그는 지금 7급공무원을 대비하며 영어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탁월한 회화실력을 갖추고 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도장을 찍는 봉원시장의 대부이자 명진구청의 블랙리스트, 나옥분은 수많은 민원서류를 들고 민원봉사과를 찾는다. 새롭게 첫대면한 박민재와 나옥분의 긴장감도는 승부는 일단 나옥분의 판정패다. 8급 공무원으로 4차원적 사고를 지닌 동료 "아영"(정연주역)은 나옥분의 존재감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며 긴장을 유도하지만 박민재는 "원칙주의"로 맞서며 전열을 가다듬는다.

봉원시장은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매각되는 과정속에서 사업자와 충돌을 빚고 있다. 봉원시장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혜정"(이상희역)은 나옥분과 늘 잦은 충돌을 빚는다. 돌출간판 하나를 놓고 이런저런 분쟁을 하는 그녀의 삶은 악바리다. 그만큼 삶의 고단함이 묻어난다. 혜정의 가게에 철거용역팀 "뽀뽀이"(김일웅역)와 일행이 나타나 1개월내 가게를 비워줄 것을 경고한다. 시장 사람들이 혜정의 가게 주위를 돌며 구경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녀를 도와주려는 용기는 품어내지 않는다. 바로 그때 나타난 나옥분이 뽀뽀이의 정체를 캐내려 하지만 그는 바쁜 걸음으로 자리를 떠나 버린다. 혜정은 10대 남학생에게 술을 팔다가 단속에 걸리게 되자 이것이 나옥분의 고발이라고 오해하지만 실제로는 뽀뽀이의 함정이었음을 알고 후회를 한다.

한편, 나옥분의 출근길은 여전히 명진구청이다. 원칙을 지켜라는 박민재의 요구에 변호표 수납장을 뽑아든 나옥분은 민원실에 전세를 내며 혼자서 독차지한다. 어제의 판정패를 뒤집기하며 한판승을 거둔 나옥분은 박민재의 단일 창구가 되어 그녀의 민원을 처리한다. 어느날 "명진구청장"(이대연역)이 박민재를 찾는다. 민원실의 터주대감 "양팀장"(박철민역)과 함께 구청장실을 찾았을 때 그곳에는 봉원시장 "개발대표"(이동희역)사장도 동석하고 있었다. 구청장으로서 봉원시장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던 두사람은 이 문제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싶은 욕망에 차 있다. 박민재는 구청에서 개발사에 행정소송을 내고 개발사는 항소를 하여 승소함으로써 구청과 개발사 양측을 만족시키는 투 트랙 작전을 제안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나옥분은 박민재의 행정소송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그동안의 정보를 담은 보자기를 들고 와서 힘을 실어주지만 그녀가 전달한 모든 정보는 문서파쇄실로 들어가 버린다.

영어회화 공부에 열혈수험생인 나옥분은 오늘 밤에도 영어학원을 찾는다.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수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학원측으로부터 외면을 당한 나옥분이 계단을 내려올 무렵, 명진구청 공무원 박민재와 조우하며 그에게 영어 과외교사가 되어줄 것을 요청한다. 도깨비 할매로 그동안 각종민원을 제기해 왔던 그녀에게 누가 손을 내밀어 영어를 가르쳐 줄까? 박민재는 한마디로 거절하지만 집밥을 그리워 했던 남동생 영재가 저녁을 먹는 장면을 목격하고 영어교사를 자청한다.

그렇게 인연이 된 박민재와 나옥분은 사제 지간인 동시에 개인적으로는 엄마와 같은 정에 이끌린다.

어릴 때 헤어져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남동생 "정남"이를 찾으려고 영어를 배운다는 나옥분의 말에 영어를 가르치던 어느날, 나옥분은 평생의 비밀인 위안부 인생 이야기를 박민재에게 털어 놓는다. 그녀의 유일한 친구인 "문정심"(손숙역) 또한 위안부의 인생역경을 경험했다. 그녀는 일본군 위안부의 실상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영어를 배웠다. 그녀가 고발한 위안부 실상을 통역사가 엉터리로 전하는 사실에 통탄하며 스스로 고발하려고 노력한 결과다. 그러나 그녀는 지금 오랜 치매로 인하여 자신의 인생 전체를 잃어가고 있다.

문정심에 비해 나옥분은 위안부 인생을 철저하게 숨겨 왔다. 어머니의 소원이며 유언이기도 하였던 자신의 운명 때문이다. 그렇게 정부의 위안부 조사때도 나옥분은 응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의 위안부 인생은 언제나 베일에 가려진채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런 그녀의 삶을 박민재에게 알려 줌으로서 그녀는 지금 위안부의 실상을 전세계에 알려주려는 용기를 내고 있다. 나옥분이 영어를 배우려는 진짜 이유도 바로 이러한 실상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나옥분이 오늘도 어김없이 명진구청에 출근하였을 때, 그녀는 양팀장으로부터 봉원시장 재개발에 관한 소식을 접한다. 행정소송은 하나의 절차일뿐 개발사업은 속전속결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분노한 나옥분이 박민재를 찾아가 자기가 준 정보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지만 문서는 이미 파쇄된 후이다. 이렇게 박민재와 나옥분의 인연은 끝나는 것처럼 보여 졌다.

봉원시장 나옥분의 둘도 없는 여동생은 진주슈퍼 "진주댁"(염혜란역)이다. 그녀는 먹을것만 있으면 나옥분을 찾아 나눔을 가지는 정다운 관계다. 도깨비 할매라고 다들 손가락질 하지만 그녀 만큼은 오직 나옥분을 지지한다. 봉원시장을 사랑하는 그녀의 진심을 알기 때문이다.

평생을 위안부 실상을 밝히려고 헌신해 왔던 문정심은 이제 더 이상 어떤 활동도 할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나옥분은 이제 자신이 용기를 내고 나서야 할때라고 결심하고 이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HR121"(일본군 위안부사죄결의안)에 참여하기 위해 미국행을 결심한 것이다. 9시 메인 뉴스에 그동안 감추어 졌던 그녀의 소식이 전국으로 퍼져 나갔다. 이 소식은 명진구청과 봉원시장 전역에 전해졌고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다. 봉원시장 진주댁은 나옥분의 이같은 비밀에 섭섭함을 토로한다. 그동안 둘도 없는 하나의 관계로 여겨졌던 진주댁과 나옥분은 그렇게 눈물로 함께 하나된다.

한때 도깨비할매로서 민원왕의 자리를 차지하며 외로운 삶을 살아왔던 은둔의 나옥분은 이제 일제시대 가장 처절한 피해자의 신분으로 되돌아와 전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용기와 결단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도착한 미국의 여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그녀가 숨겨온 그녀의 발자취 때문이다. 그녀는 한국정부에 위안부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이것을 이유로 일본측 대표는 그녀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나옥분의 유일한 지원군인 박민재는 그녀의 위안부 인생을 증명하는 전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해 구청장과 시장과 장관의 서명을 받아내며 국가적 관심사를 보여주지만 일본측 대표는 졸속처리과정을 문제삼으며 끝까지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에 박민재는 그녀의 위안부 인생을 증명하는 빗바랜 사진 한장을 들고 워싱턴 의회로 날아간다.

네덜란드 출신의 위안부 희생자 “젠 러프 오헤른”할머니의 증언을 듣는 나옥분은 “금주”(김소진역)의 통역에 긴장을 멈추지 않는다. 그녀가 분노를 억제하며 강단에서 내려오자 의회 “의장”(로라 포역)은 나옥분에게 연설을 할 것을 요청한다. 의회장에선 그녀의 증언에 관한 신빙성을 불신하며 위안부 증인으로서의 효력에 여전히 문제를 제기하자 나옥분은 “아이 캔 스피크”(I Can Speak)라고 말하며 강단에 올라섰다. 그러나 그녀는 두려움과 긴장으로 인하여 심한 두통과 함께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다. 바로 그때 워싱턴의회에 도착한 박민재가 의회 밖 입구에서 소리 지르며 빗바랜 사진 한 장을 의회의장에게 건넨다. 박민재의 목소리에 용기를 낸 나옥분은 현란한 영어회화로 의회장을 압도하며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 넣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내며 그녀를 의심하였던 일부 의원들은 입구에서 그녀에게 일일이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일본대표측의 태도는 여전히 불손했으며 진정한 사과 한마디는 들을 수 없었다.

박민재는 7급공무원 서류전형과 시험을 통과하며 면접을 기다리고 있다. 나옥분은 자신의 일터인 봉원시장으로 돌아와 예전의 잔소리꾼으로 회복하고 있다. 나옥분은 이제 혼자가 아니다. 도깨비도 아니고 왕따도 아니다. 그저 함께 잘 살아보자고 말하는 우리 모두의 “엄마”다. 봉원시장 재개발 사업은 취소되고 봉원시장은 현대화 작업을 하며 활력넘치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영화는 끝이났다. 이 영화는 “이용수, 김군자”할머니의 실제 증언을 모토로 제작되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핵심은 피해자는 숨어서 살아야 하고, 가해자인 일본은 당당하게 살고있는 부당한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다.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는 개인과 기업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은 세계경제대

국으로서 그에 걸맞는 품격을 가져야 한다. 씻을수 없는 상처를 몸과 마음에 지니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에 넘치는 우리의 엄마가 바로 위안부 할머니들이다. 국가가 지켜주지 못한 연약한 소녀들은 스스로가 권리회복을 위해 영어를 배우고 자신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여전히 국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그때의 피해자들 또한 진정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한채 대부분 유명을 달리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영화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잘못과 과오와 반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 즉시 "I am sorry"를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용기란 피해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도 함께 가지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의 삶이 우리앞에 놓여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면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다시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38. “남한산성”The Fortress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7.10.03

감독:황동혁, 각본,원작:김훈, 제작:싸이런픽처스

주연:이병헌,김윤석,박해일,고수,박희순, 관객:3,848,014명(2017.11.29.현재)

1. “병자호란”(丙子胡亂)

“병자호란”(1636년)은 1627년에 발생한 “정묘호란”(丁卯胡亂)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치욕적인 역사다. 조선 인조(16대왕,1623~1649년)반정 이후 집권한 서인정권은 이른바 “친명배금정책”을 앞세웠다. 후금 누르하치의 후왕인 태종은 1627년1월, 3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공했다. 1월25일, 황주에 이른 후금에 후퇴를 거듭한 인조와 신하들은 강화로 급히 피난하고 소현세자는 전주까지 피난을 가야만 했다. 단번에 정복할 것 같았던 조선은 정봉수, 이립과 같은 의병으로 인하여 지체되고 “명”과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후금의 입장에서조차 유리한 측면이 없었다. 이에 3월3일, 후금과 조선은 “형제지국”(兄弟之國)을 규정하고 명과의 관계도 현재를 유지한다는 화의가 결정되었다.

1636년,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변경하고 군신의 의를 요구하는 무리수를 두었다. 조선의 자존심은 그것을 수용할수 없었다. 12월 병자호란이 발생한 계기가 된 것이다. 당시 조선은 매년 많은 액수의 세폐(歲幣)와 수시의 요구에 국가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서인정권의 숭명배금(崇明排金)사상 또한 후금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1632년, 만주와 내몽골을 정벌한 후금은 북경을 공략하면서 조선을 더욱더 압박해 들어갔다. 후금의 태종은 “형제지맹”의 금조관계를 “군신지의”(君臣之義)의 주종관계로 변경하고 세폐를 확대하여 금 1백냥, 은 1천냥, 각종직물 1만2천필, 말 3천필과 정병 3만명까지 요구하는 등 압박수단을 높여 갔다. 그후 곧바로 후금은 명나라 공격에 필요한 군량을 조달하라는 요구까지 하자 조선 조정은 화친관계를 중단하고 군비를 갖추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1636년, “용골대”(龍骨大)와 “마부대”(馬夫大) 등 후금의 사신이 인조비 한씨(韓氏)의 조문(弔問)을 왔을 때 후금 태종의 존호(尊號)를 알리면서 군신의 의(義)를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조선의 조정과 신하들은 후금의 사신을 죽이려는 계획과 동시에 척화를 주장하였다. 인조는 후금의 조서를 거절하고 사신들을 감시했다. 후금의 사신이 도주하자, 조선은 의병모집과 함께 의주와 서도(西道)에 병기를 확대하고 절화방비(絶和防備)의 유서(諭書)를 평안감사에게 내렸는데 이때 도주하던 후금의 사신이 유서를 확보하고 조선의 전쟁결의를 알게 된다.

1636년4월, 후금은 국호를 "청"(淸)으로 변경하고 연호를 송덕(崇德)으로 개원하며 태종은 "관온인성황제"(寬溫仁聖皇帝)라는 존호로 하였다. 즉위식에 참가한 조선 사신, "나덕헌"(羅德憲)과 "이곽"(李廓)은 신하국으로서 갖추어야 할 배신(陪臣)의 예를 거부했다. 이에 청태종은 조선 사신들을 통해 왕에게 보내는 국서를 보냈는데, 자신을 "대청황제"(大清皇帝)라고 하고 조선을 "이국"(爾國)이라 하며 조선의 왕자를 보내 사죄하지 않으면 대군(大軍)으로 침략하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청태종의 국서에 분노한 조정의 "척화론자"(斥和論者)들은 나덕헌을 유배하고 "주화론자"(主和論者)인 "최명길"(崔鳴吉)과 "이민구"(李敏求) 등을 탄핵하였다. 그해 11월, 청태종은 조선조정의 분란을 이용하여 왕자와 주요척화론자들을 압송하라는 협박을 종용하고, 12월2일, 조선침략을 강행하였다.

청태종은 명나라가 바다를 이용해 조선을 지원하는 배후지원망 차단을 목적으로 별군을 조직, 랴오허 방면에 배치하였다. 만주족과 몽골족과 한인으로 구성된 2만명의 대군이 9일, 압록강을 도하였다. 맹약위반의 명분으로 조선침략을 획책한 청태종은 조명연합전선을 조기에 분쇄하고 중국지배강화의 수단이 목적이었다. 당시 조선에는 의주부윤 "임경업"(林慶業)장군이 백마산성(白馬山城)을 호위하며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청나라 장수, "마부태"(馬夫太)는 이 길을 우회하여 한양으로 직행, 선양(瀋陽)출발 십여일 만에 개성을 점령하고 서울 근교에 진입했다.

12월3일, 혼란한 정세속에 조선조정은 도원수 "김자점"(金自點)의 계문에 의해 청군이 안주에 도착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 12월14일, 승지 "한흥일"(韓興一)은 묘사(廟社)의 신주를 가지고 강화로 향하고, 판윤 "김경징"(金慶徵)을 안찰사, 부제학 "이민구"를 부사(副使)로 임명하여 세자빈 강씨, 원손(元孫), 봉림대군(효종), 인평대군을 호위하며 강화로 향하게 하였다. 강화유수 "장신"(張紳)이 주사대장(舟師大將)을 겸하여 강화방위사령관으로 임명되고 "심기원"(沈器遠)을 유도대장(留都大將)으로 임명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다. 그날 밤 인조 또한 세자와 함께 강화로 가려고 남대문까지 나왔으나 이미 청군이 양철평(良鐵,마포대안)까지 왔다는 보고를 듣고 야심을 틔우 남한산성에 이르렀다. 인조는 훈련대장 "신경진"(申景禎), 어영대장 "이서"(李曙), 수어사 "이시백"(李時白), 어영부사 "원두표"(元斗杓) 등에게 남한산성내 1만3천여 명으로 성을 사수토록 하고, 8도에 교서를 내려 도원수, 부원수 및 각 도의 감사, 병사로 하여금 근왕병을 모집하게 하는 한편 명나라에 원병을 청하기에 이르렀다.

남한산성내 군량은 2만3,800여 석으로 군병과 백관을 합하여 1만4천여 명의 성내 인원이 50일을 버틸수 있는 양식이었다. 청군의 선봉은 12월16일, 남한산성에 이르렀고, 뒤를 이어 더 많은 군사들이 집결하며 남한산성을 포위했다. 남한산성내의

상황은 남은 식량과 원군이 도달하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청군의 포위 속에서 성내는 겨울의 혹한과 싸워야 했으며, 점차 식량마저 떨어져 성내의 분위기는 최악에 이르렀다. 그저 각지에서 오고 있는 원병이 남한산성의 포위망을 차단해 주기만을 기대하고 있었다.

12월18일, 어영부사 원두표군이 성외곽에서 당시 순찰중이던 청군 6명을 죽이고, 20일에는 훈련대장 신경진이 출전해 30여명을 사살하였으며, 21일에도 어영대장 이기축이 서성으로 출병하여 10명을 죽이는 등 작은 승전소식이 있었으나 전후 상황이 호전되지는 않았다.

성외부, 조선팔도의 상황도 순탄치 않았다. 도원수와 부원수, 감사와 병사(兵使)의 군사들은 청과 접전하는 가운데 도주하거나 흩어져 버리는 등 패전의 소식이 거듭될 뿐이었다. 그 가운데 전라병사 "김준룡"의 군사가 용인 광교산에서 적장을 죽이는 승리가 있었지만 바로 역습을 당하여 후퇴하고 말았다. 민간 의병은 거의 무력하거나 진군 도중이었다. 조선이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명나라의 원병은 국내의 어려운 사정으로 소수의 원병을 차출했으나 먼 바다의 풍랑으로 인해 회군하고 말았다. 10여만명의 청군에 포위당한 채 고립된 남한산성내 기류는 자포자기 상태로 돌아갔다. 급기야 조선 조정에서는 차차 강화론이 일어났으며, 주전파도 뚜렷한 난국타개책을 펼치지 못했다.

1637년1월1일, 남한산성 인근 탄천(炭川)에는 12만명(일부에서는 20만으로 추정)의 청나라 대군이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다음날인 2일에 인조는 청군에 문서를 보냈지만 청군의 반응은 냉담하였다. 1월20일, 청나라는 인조가 성밖으로 나와 항복하되 그 이전에 주모자 3명을 체포하여 보내라는 국서를 인조앞으로 보냈다.

1월22일, 세자빈궁과 대군을 호위하던 안찰사 김경징과 유수, 장신의 수비대가 무너지고 강화가 함락되었다. 세자빈궁과 대군 등 200명의 포로가 청군에 이끌려 남한산성으로 호송되는 등 전세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조선의 자존심은 남한산성으로 집중되고 있다. 당대 최고의 명장 임경업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풍전등화와 같은 신세가 된 것이다.

1월30일, 인조는 남한산성을 나와 삼전도(三田渡)에서 청태종에게 항복하는 의식을 거행하였다. 청나라와 조선은 아래와 같은 굴욕적인 화의로 상호합의하였으며 이것으로 조선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다. ①"군신지의"(君臣之義), ② 명나라 연호사용금지, ③ 명나라 국교단절, ④ 명나라에서 받은 고명책인(誥命冊印)을 청나라에게 바칠 것, ⑤ 인조의 장자와 다른 아들 및 고관대신들의 자제를 청나라에서 교육(인질)받게 할 것, ⑥ 청나라의 정삭(正朔)을 받을 것, ⑦ 만수, 천추, 동지, 원단과 그밖

의 경조사에 조헌의 예를 행하며 사신을 보내어 봉포하되 이들 의절은 명나라에 하던 것과 동일하게 할 것, ⑧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벌할 때 원군을 보내고, 청군이 회전하며 가도를 정벌할 때 조선은 원병과 병선을 보낼 것, ⑨ 조선인 포로가 만주에서 도망하면 다시 잡아가며 속환(贖還)할 수 있다는 것, ⑩ 통혼(通婚)으로 화호(和好)를 할 것, ⑪ 조선은 성을 보수하거나 신축하지 말 것, ⑫ 조선내 올랑합인(兀良哈人)을 쇄환(쇄회)할 것, ⑬ 조선의 일본과의 무역을 종전대로 하고 일본의 사신을 인도하여 청나라에 내조하게 할 것, ⑭ 1639년(기묘년)부터 매년1회 청나라에서 정하는 일정한 양의 세폐를 바칠 것.

화약이 끝난후 청태종은 청으로 돌아갔다. 소현세자와 빈궁, 봉림대군과 부인, 척화론자인 오달제(吳達濟), 윤집(尹集), 홍익한(洪翼漢) 등의 대신들은 인질이 되어 선양으로 갔다. 청군이 회군하며 가도의 동강진을 공격하고, 조선은 평안병사 유림과 의주부윤 임경업이 합류하여 명나라 동강진 군대는 점령을 당하였다.

병자호란후 조선은 명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청과의 사대관계과 형성되며 조공을 바쳐야만 생존이 가능하였다. 중국에 가는 사신은 황제와 황후에게 별도의 공물을 바쳐야 했고, 공식적인 세폐 또한 조선의 경제를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사신과 동행하는 동안 일정한 교역이 공인되었지만 오히려 조선의 경제적 후퇴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특별히 전쟁포로를 속환하는 속환가의 단가가 너무나 비싸서 이 문제는 끊임없는 충돌의 문제가 되었다. 이로 인해 표면적으로는 청과의 사대관계가 유지되었으나, 조정내에서는 숭명배청사상이 더욱 확고해져 가는 기초가 되었다.

이로 인하여 1639년, 청나라 출병요구에는 불응하였고, 명나라와의 전쟁때에는 임경업장군이 전선120척과 병사 6천명을 군량미 1만석과 함께 출병시켰으나, 도중에 고의로 30여척을 파괴하고 명나라에게 청나라의 정보를 사전에 알려 줌으로서 양측의 전쟁을 가능할수 없게 하였다. 1643년, 이러한 조명통교가 드러나 임경업과 최명길 이 체포되었으나 1645년에는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최명길, 김상헌이 귀국하는 등 일련의 변화가 있었다. 그후 종전직후 무리하게 책정된 조공품목들이 일부 조정되었고, 1649년, 효종대왕은 배청사상을 근간으로 하는 북벌론을 수면위로 올려 놓았다.

남한산성은 서울 동남방향 24km지점 경기도 광주시 21만평 규모로 위치해 있다. 해발500m에 12.4km로 조성된 남한산성은 1621년, 후금의 침입에 대비하여 석성으로 개축되어 1626년에 완공되었다. 병자호란을 겪은 후 남한산성의 중요성은 더욱 확고해져 현재의 높이와 규모로 조성되었다. 1971년 경기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조선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다.

2. 영화 “남한산성”

영화 남한산성은 1636년 12월부터 1637년 1월에 일어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인조대왕은 서인들이 광해군을 권좌에서 끌어내린후 옹립하여 조선의 16대왕으로 1623년에 즉위, 1649년에 임종(인조27년)하였다. 서인권력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박해일역)는 중화사상을 중시하는 서인의 영향으로 친명배금정책을 지향하였다.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전쟁과 패배로 기록된 병자호란, 그 가운데 1636년12월14일에서 1637년1월30일까지 47일간의 여정을 그린 남한산성에서의 조선정치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현실과 정확히 일치하면서 관객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중국 명나라의 쇠퇴는 여진족 후금이라는 작은 나라를 강성대국으로 만드는데 일조하였다. 청나라로 개명한 청태종은 만주 끝 조선반도가 명 점령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생각에 잠을 청하지 못한다. 결국 대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 전쟁을 개시한다. 전쟁 개시 1주만에 한양도성 코앞에 도달한 청군은 기세등등한 위치에서 조선의 백성과 대신들을 조롱하고 있다.

인조의 눈 앞에는 두 명의 조선책사가 있었다. 후일을 도모하며 지금은 후금과 화친하기를 원하는 주화파 이조판서 “최명길”(이병헌역)과 끝까지 싸워 조선의 대의를 지키자는 척화파 예조판서 “김상헌”(김윤석역)이 바로 그들이다. 때는 12월,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의 중심에 서 있다. 추위와 굶주림이 예상되는 절대적인 열세 가운데 21만여평의 남한산성은 조선반도 유일한 독립국이었다.

송파강을 모두 열려버린 1636년 겨울의 남한산성길에 예조판서 김상헌이 “늙은사공”(문창길역)과 함께 걷고 있다. 그가 유일한 송파강의 안내자였기 때문이다. 그는 조선의 보통 백성이었고 그에겐 어린 손녀가 하나 있다. 그러나 그는 인조를 안내할 때 한끼의 식사도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에 망연자실해 있다. 그래서 후금의 군사가 지날 때 한끼의 끼니라도 준다면 그를 또 안내해 줄것이라고 김상헌에게 고백한다. 이 일로 그는 김상헌의 칼에 죽음을 맞이한다. 조선의 백성은 전쟁과 명과 청에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저 주린 배를 채워줄 사람이 필요한 것 뿐이었다. 그것이 죄라면 죄라 할 것이다.

임금의 임시궁전이 들어온 남한산성엔 주인이 바뀌었다. 본래 살던 사람에겐 더 세찬 바람과 혹독한 굶주림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사태가 이토록 심각한 상황속에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은 당파싸움 뿐이었다. 남한산성의

문턱에서 길을 멈춘 여진족 후금의 “용골대”(허성태역)는 인조의 항복을 기다리고 있다. 조선의 노비로서 후금으로 망명한 “정명수”(조우진역)는 용골대의 통역사를 자처하며 조선의 사신 최명길과 담판을 벌이지만 뽀족한 수가 없다. 그저 인조의 항복만이 유일한 해결책일 뿐이었다.

우유부단한 성격의 인조는 주화파와 척화파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중심을 잡지 못한다. 최명길의 타협책을 들으면 그것이 옳은 듯 하고, 김상헌의 강경책을 들으면 그 또한 옳은 듯 하니 죽어나는 것은 오직 백성들 뿐이었다. 영의정 “김류”(송영창역)의 카멜레온 같은 비겁함은 국정의 끝판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시백”(박희순역)장군의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전세는 이미 기울때로 기울어져 마지막 운명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다. 자중지란을 일으키며 내부의 혼란은 날이 갈수록 거둡히고 있다. 남한산성내 소문난 대장장이 “서날쇠”(고수역)는 처자식을 잃고 의형제인 “칠복”(이다윗역)과 함께 전쟁의 소용돌이로 내몰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추위에 동사하는 일이 발생하자 서날쇠는 예조판서 김상헌을 찾아가 가마니를 이용해 군인들의 동사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하고 김상헌이 그의 지혜를 받아 들이며 눈여겨 바라본다.

이시백 장군이 성밖으로 출정해 작은 승전을 거두고 돌아오자 성내 군인들의 사기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듯 하지만 말이 죽고, 사람이 죽고, 식량이 고갈되어 가면서 성내 민심은 임금과 조정대신으로부터 이반되기 시작했다. 말이 먹이가 없어 죽자, 군인들이 쓰고 있던 가마니와 초가지붕을 뜯어 말에게 주고, 백성들이 얼어죽고, 말도 죽자, 그 말을 다시 구워 사람에게 먹이는 악순환이 거둡히며 민심과 군심은 완전히 돌아서 있었다.

후금의 총공격에 맞설 비장의 카드는 남한산성 밖에 있다고 믿는 김상헌은 밀정으로 서날쇠를 보낸다. 그러나 성밖 도원수와 조선의 장수들 가운데 인조의 충신은 없었다. 그저 자신만의 안위를 생각할 뿐이었다. 후금의 세상속에서 서날쇠는 생명을 건졌지만 성내에 머물고 있었던 칠복이는 끝내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에는 김상헌이 남긴 “나루”(조아인역)가 있었다. 나루는 늙은 사공에게 남겨진 유일한 혈육이었지만 김상헌이 후한을 생각해 사공을 죽여 버린 것이다.

김상헌과 최명길의 대립은 끝이 없다. 인조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 영상 김류가 전선의 선봉에 서서 전쟁을 감행 하였지만 한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한채 전멸을 당하고, 후금의 “칸”(김법래역)이 남한산성의 눈 앞에서 인조의 항복을 기다리고 있다. 조선과 인조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칸은 인조에게 서신을 띄웠다. 이제 칸의 노여움에 인조가 답신을 보낼 차례다.

“저들이 말하는 대의와 명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옵니까? 죽음은 건딜 수 없고 치욕은 건딜수 있는 것이 옵니다. 만백성과 더불어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삶이 있는 후에야 비로소 대의와 명분도 있는 것이 아니옵니까?”

“칸은 스스로를 황제라 칭하고 전하를 칸의 신하라 부를 것이옵니다. 정녕 전하께서는 칸의 신하가 되시겠습니까?”

칸의 분노가 남한산성으로 울려 퍼졌다. 다급한 인조는 무너져 내리는 남한산성을 바라보며 최명길에게 답신을 쓰게 하고 인조의 직인을 찍은 서신은 최명길의 말발굽속에서 환급을 다투는 생명선이 되었다. 결국 인조는 칸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했고 치욕의 역사는 인조와 최명길과 조선의 조정을 비난하고 있다.

영화는 끝이 났다. 병자호란은 조선의 역사를 넘어 5천년 역사속에 가장 치욕적인 시대의 첫 번째 장면이다. 그러나 일제시대의 한일합방에 비교될 만한 치욕은 아니었다. 두가지 치욕적인 사건의 중심에는 우유부단한 지도자와 당파분쟁에 골몰하는 부패한 권력자들의 욕망이 있었다. 백성들만이 희생자가 되었고 전쟁 후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최명길과 김상헌, 누가 옳고 지혜로운 참모가 되는가? 나라를 위한 애국심은 두 신하 모두 한결같다. 한사람은 화친과 치욕을 교훈으로 나라를 세우려 하고, 또 한사람은 죽음으로서 나라를 구하려는 민족적 자긍심을 앞세우고 있다. 결국 인조는 최명길의 손을 들었고, 김상헌은 자결로서 자신의 자긍심을 지키려 하였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무엇인가? 신앙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인가? 아니면 후일을 도모하며 치욕의 눈물을 흘릴 것인가? 일제 신사참배를 통해 나타난 두가지 장면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신앙의 길을 만나게 된다. 이것은 최명길의 길을 가지 않고 김상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신앙의 길은 정치와 다르고 현실과 맥락을 동일하게 검토하는 것이 아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순간의 치욕을 감수하며 살아남는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길은 세상의 이치와 전혀 다른 길이다. 순교해서 다 죽으면 누가 신앙을 이어갈 것인가 말하지만 그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하나님에겐 길이 있고 복음은 결국 살아 남는다. 초대교회때도 그렇고 홀로코스트에도 그렇고 누군가는 이어가고 생명의 빛은 어둠을 뚫고 나타난다. 어떠한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결코 굴하지 않는 신앙이 바른 이치와 정통성과 진리의 길이 되는 것이다.

39. “범죄도시”

한국영화, 장르:범죄,액션 개봉:2017.10.03

감독,각본:강윤성, 제작:홍필름,비에이엔터테인먼트

주연:마동석,윤계상, 관객:6,873,296명(2017.11.30.현재)

1. “흑사파 사건”

연변 흑사파 사건, 일명 가리봉동 흑사파 사건은 2007년,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일대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이권사업을 주도하였던 연변 출신의 폭력조직 사건이었다. 2005년7월, 두목 양모씨(38세)는 중국 연변출신 폭력배들을 결집해 연변 흑사파라는 범죄단체를 결성하고 12월25일 새벽2시, 가리봉동 포장마차에서 A씨를 중태에 이르게 하는 등 2007년2월까지 9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긴급 체포되었다. 이들은 가리봉동 차이나타운 유흥업소를 장악하며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폭력행위로서 공포를 조장해 왔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 조직은 국내폭력조직과 달리 다리에 칼이나 도끼를 차고 다니면서 사소한 시비에도 칼과 도끼를 사용하는 위력을 과시하며 차이나타운을 석권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신고하더라도 가해자 신분세탁을 통해 재입국을 시도하고 반드시 보복을 가하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차이나타운 상인들은 칼과 도끼를 대비해 방탄복을 입고 다닐 정도로 불안에 떨고 있었다. 왕건이파 부두목(39세)은 2005년 중국으로 추방된후 “안석춘”이라는 이름에서 “안용발”로 신분 세탁을 통해 재입국한 사례가 있다. 경찰은 방문취업비자(H2) 제도의 시행으로 수많은 해외동포가 입국할 가능성이 높고 그 가운데 중국 폭력조직이 차이나타운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더 많은 파벌전쟁이 예고 될것으로 주시하고 있다.

2. 영화 “범죄도시”

차이나타운의 패권다툼과 구역정리는 “춘식이파” “황사장”(조재윤역)과 “독사파” “독사”(허성태역)와 “이수파” “장이수”(박지환역)가 양대산맥을 이루며 장악하고 있다. 이들을 관할하고 있는 금천경찰서 강력반 “전반장”(최귀화역)과 “마석도”(마동석역)는 하루도 편하게 넘어가는 날이 없다. 독사와 이수 사이를 오가며 강력계 관행을 담보로 강력계 후배 형사들을 챙기는 마석도는 어느날 새로운 한 인물의 등장에 초긴장을 한다. 중국 연변족 폭력조직의 행동대장으로 지명수배를 받던 “장첸”(윤계상역)은 부산으로 밀입국 하여 부산경남일대를 평정하며 사채업으로 성공한다. 이러한 기세를 이어 2004년 서울 차이나타운에 입성, 가장 비겁하고 악랄한 수법으로 단숨에 정벌을 시도한다.

독사파 독사가 첫 번째 희생양으로 잔인하게 수탈을 당한다. 그의 시신은 알아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난도질 당하였으며 누군가를 향한 저주의 칼날처럼 보여졌다. 차이나타운의 공포, 그 자체다. 장첸에겐 행동대장 "위성락"(진선균역)과 "양태"(김성규역)가 양 날개를 이루며 조직을 움직이고 있다. 천하무적, 무법천지를 종횡무진으로 달려가며 능욕을 일삼는 이들과 맞서는 상대는 준법수호 의지가 애매모호한 강력계 형사 드림팀이다. 장첸과 맞설 유일한 맞수 마석도를 중심으로 "박병식"(홍기준역)형사와 "오동균"(허동원역)형사가 있다. 여기에 전반장과 강력계 신입 "강홍석"(하준역)이 버티고 있다.

춘식이파 소유의 룸살롱을 찾은 장첸은 룸에서 난잡한 섹스를 하다가 지배인과 마찰을 빚고, 장첸의 오른팔인 위성락이 "룸살롱 마담"(배진아역)까지 겁탈하려 하자 지배인은 이들과 싸우다 도끼에 난도질을 당하며 병원신세를 진다. 이에 박춘식은 장첸과 한판 승부를 띄우지만 상대는 오리무중이다. 도끼와 칼로서 차이나타운을 평정하는 장첸과 맞서다 이수파도 무너지고 차이나타운의 질서는 혼돈속으로 빠져들어간다. 그러던 어느날 장첸 일당과 마석도 형사팀이 음식점에서 만나게 되지만 장첸 일당이 도주하는 바람에 놓쳐 버린다.

열다섯살의 중국소년 "왕오"(엄지성역)가 일하는 식당에서 마석도는 차이나타운상가의 주인들을 소집해 조직폭력배들의 불법적인 행위를 폰카메라에 담아 줄 것을 요청하고 이들의 범죄적 소행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시작한다. 마침내 마석도 형사팀이 장첸의 오른팔인 위성락을 체포하는데 성공한다. 그러나 위성락은 장첸의 오른팔 답게 쉽게 입을 열지 않는다. 그러던 중 마석도가 파 놓은 함정에 걸려던 위성락이 장첸의 본거지를 알아내는 단서가 되고 마석도 팀도 재빠르게 이들을 일망소탕하려 하지만 장첸의 불신감은 이들을 언제나 한발 앞서간다.

마석도가 뒤를 쫓고 결국 공항입구에서 장첸과 충돌하며 일대일 진검승부는 화장실에서 쏟아 붓는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장첸의 무법천지는 막을 내리고 있다. 차이나타운에도 봄은 오는가?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화교거리의 밤은 언제나 불안하다. 곳곳에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경찰은 밤낮없는 세상속에서 분주함이 멎을 날이 없다.

영화는 끝이 났다. 잔인성과 폭력성, 우우부단한 독사파 행동대장 "도승우"(임형준역)는 자신의 아내 "안혜경"(유지연역)이 장첸에게 강간을 당하는 수모에도 대항하지 못하는 비겁함을 드러낸다. 인생은 늘 그렇다. 강자가 약자를 소유하려 하고 약자는 강자의 지배를 받으며 종속된다. 이러한 세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법적 테두리안에서도 마찬가지다. 폭력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마석도 형사는 힘으로 대응하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서 갚아준다. 사람들은 영화를 통해 통쾌하고 후련

한 마음을 가진다.

그리스도인은 영화를 통해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예수님이 오셔서 범죄집단을 일거에 쓸어버려야 할까? 모세의 기적과 같은 힘으로 그들을 완전히 제압해야 하는 것일까? 세상은 언제나 어둡다. 빛이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한 현상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도록 빛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 어둠속에서 광채와 같은 빛을 비추게 된다면 악은 발디딜 공간이 없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서 회개와 자성과 성령의 빛이 필요하다. 그것이 세상을 제압하는 것보다 훨씬더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다.

40. "미옥" A Special Lady

한국영화, 장르:범죄,액션 개봉:2017.11.09

감독,각본:이안규, 제작:영화사 소중한

주연:김혜수,이선균, 관객:238,657명(2017.11.30.현재)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조직폭력 조직을 재편한 "김회장"(최무성역)과 "나현정"(김혜수역)은 "임상훈" 실장(이선균역)과 함께 "JC그룹"이라는 유력 재벌기업을 설립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언더보스 나현정은 기업가들을 고급유흥가로 유인하고 이들이 벌이는 성관계 장면을 리얼하게 담아내는 기획작업을 성공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공작에도 넘어가지 않은 몇몇 사장들의 뒷처리는 임실장의 몫이다.

JC그룹을 추적하는 또 하나의 인물은 현직검사다. "최대식"(이희준역) 검사는 조폭출신의 김회장이 각종이권에 개입하는 과정에 조폭들을 불법적으로 동원한 사실들을 파악하고 내사중에 있다. 뛰는 놈위에 나는 놈 있다는 말처럼 이렇게 자신들을 궁지에 몰아넣는 최대식 검사를 잡기 위해 "웨이"(오하늬역)라는 베테랑 기녀를 이용한다. 그물망에 그대로 걸려던 최대식 검사는 나현정으로부터 내사중인 수사를 종결해야 하는 압박을 받게 된다.

공명과 두목 "공명"(권율역)이 나타나 서울 입성을 기대하며 김회장에게 손을 내민다. 그러나 김회장은 총과 약은 앓된다면서 단호히 거절한다. 여기에 또 한사람의 이름이 거론되는데 그는 김회장과 나현정 사이에서 출생한 "김주환"(김민석역)이다. 김회장과 나현정은 이제 예전의 조폭생활을 마감하고 기업가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업지분을 아들 주환에게 넘겨주는 작업을 진행중에 있었다.

조직의 2인자로서 상훈파를 이끌고 있는 임실장은 나현정을 짝사랑하고 있다. 그러나 나현정의 마음은 이미 다른곳에 가 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임실장의 빈곳을 틈타 들어가 이들을 이간질 시키는데 성공시킨 인물은 최대식 검사다. 20년전 나현정이 감옥에 들어갈 때 그녀는 이미 김회장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청송교도소에서 남아를 출산한 나현정은 주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아들에게 밝히지 못한채 살아왔다. 나현정으로부터 들어야 할 그녀의 과거를 최검사로부터 듣게 된 임실장의 마음은 이미 좌축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미국에서 사고뭉치로 알려진 아들 주환이 귀국을 했다. 그의 마음은 뻘뻘어질대로 뻘뻘어져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20년전 공명파로부터 큰 아들을 잃은 김회장과 나현정에게 있어서 주환은 모든 것이다. 그때 나현정은 "미옥"이라는 이름으로 치세를 떨치던 조폭이었다. 그녀는 당시 공명의 아들 한쪽 눈을 실명시키는 잔인함을 보여주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다. 그때로부터 공명파는 인천을 벗어나지 못했고 양측은 오랜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좋아하는 사람을 가지려고 하면 안된다. 좋아하는 사람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켜 주어야 해”

임실장의 배신으로 김회장은 임실장이 겨눈 총에 죽음을 맞이하지만 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며 끝까지 나현정을 지키려고 한다. 최검사와 손을 잡은 임실장은 공명파와도 손을 잡고 새로운 사업을 꿈꾼다. 최검사는 나현정이 가진 자신의 성관계 파일을 찾으며 임실장을 압박하지만 임실장은 파일을 끝내 손에 넣지 못한다.

공명파가 나현정을 볼모로 잡고 그녀의 얼굴을 난도질하려 하지만 임실장의 발빠른 대응으로 공명파 일당은 모두 몰살 당한다. 주환에게 거짓정보를 흘린 최검사에 의해 나현정이 주환이 앞에 나타난다. 그러나 그것은 최검사의 함정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환과 나현정이 위기에 봉착하지만 때마침 나타난 임실장에 의해 주환은 도주하고 나현정은 위기에서 벗어난다. 임실장에 의해 나현정에게 맡겨진 최검사도 목숨이 끊어지고, 임실장에 대한 복수극은 임실장의 자살로 끝난다. 나현정이 끝내 지키고 싶어 했던 아들 주환은 임실장에 의해 구명된다. 임실장의 나현정에 대한 사랑이 갖는 마지막 선물이기도 한 것이다.

물고 물리는 싸움은 임실장이 운영하는 개농장과 흡사한 장면들이 있다. 조폭의 아들이라는 불명예를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김회장과 나현정,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고 관리해야 하는 임실장의 한계점,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기사회생해야 했던 공명파, 조폭기업사건 일망타진으로 스타검사의 반열에 오르고 싶었던 최대식 검사의 추락, 진짜 엄마의 존재를 모른채 20년을 살아온 나현정의 독자 김주환, “미옥”이라는 이름처럼 아름답고 잔인한 복수극의 종말은 결국 붉은피의 낭자다.

영화는 끝이 났다. 한국 최고의 명배우 김혜수의 액션극 “미옥”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었을까? 복수와 복수로 연결되는 인간관계의 되물림은 그 다음 세대에 게도 분명 전이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고자 한다. 누군가는 용서라는 카드를 내밀어야만 한다. 총과 칼로서 정의를 대신할 수는 없다. 한 개인이 심판자가 되어서도 안된다. 정의와 공평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인간은 죄인으로서 서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위치에 있지 않다.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공존해야 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영화 미옥에서는 욕심만 가득했을 뿐이다. 결국 욕심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 것이라는 성경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41. "7호실"Room No.7

한국영화, 장르:블랙코메디 개봉:2017.11.15

감독,각본:이용승, 제작:명필름

주연:신하균,디오, 관객:347,790명(2017.12.18.현재)

서울 압구정동 뒤편 상가 밀집지역에서 DVD방을 운영하는 "두식"(신하균역)은 이미 월세가 수개월째 밀려 있다. 하루에 두세명의 고객이 찾는 DVD방은 이미 부도직전의 시간을 보내며 세를 내 놓았지만 1억원의 고가 권리금 때문에 찾는 주인이 없다. 부동산 "중개인"(김종수역)과 건물 "관리인"(박수영역)사이에서 신속한 매매를 원하지만 DVD방은 구매력이 떨어지는 철지난 수박덩어리에 불과하다. 설상가상 건물주가 DVD방의 월세를 올리겠다고 말하자 두식은 휘발유통을 들고가 아수라장을 만들며 월세를 주저 앉힌다.

사채시장에서 1천만원이 넘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 고율의 연체료에 시달리는 DVD방 아르바이트 "태정"(디오역)은 DVD방 사장으로부터 수개월의 급여가 체불되어 있다. 휴대폰 요금 미납으로 인해 사장에게 30만원이라도 갚아 주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뉘드리만 듣게 된다. 그는 사채업자로부터 압박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아무런 대응이 없다. 결국 자신이 가진 노트북을 전당포 "직원"(정희태역)에게 맡기고 20여만원을 받아 나선다.

DVD방 사장 두식은 부동산중개인을 독촉해 "교감선생님"(김종구역)을 새주인으로 끌어 들이지만 우유부단한 성격의 교감은 DVD방 한쪽 구석진 방에서 일어나는 일 탈행위를 보며 도망치듯 달아난다. 그러던 어느날 보다 빨리 점포를 팔기 위해 새로운 조선족 아르바이트 "한옥"(김동영역)을 채용한다. DVD방이 위치한 건물은 이미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곳곳에 비가 새고 건물천정이 들여다 보일 정도의 심각한 훼손이 있지만 건물주는 세만 받아 먹을 뿐 아무런 대처가 없다. 코리안 드림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한옥은 홍보명함을 뿌리며 손님의 숫자를 더 높이고, 회식자리 옆자리 손님과의 다툼에서 두식을 도와주며 사장의 신뢰를 받는다.

다시 한번의 매각의 기회가 찾아온 두식은 천정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DVD방 청소를 한옥에게 맡긴다. 한옥이 물걸래로 청소를 하려는 순간 감전사고를 일으키며 그대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두식이 112에 전화를 하려는 순간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DVD방 매수자가 나타났다는 전화를 받고 한옥의 시체를 7호실에 은폐한다. 때마침 사채업자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리는 태정 또한 자신의 빚을 해결해 주는 댓가로 마약을 7호실에 숨겨놓는 비극을 맞이한다. 두식은 한옥의 시체를 숨겨놓고 태정은 마약을 숨겨놓는 7호실의 운명은 매우 복잡한 관계로 맞물려 있다. 7호

실에 대한 불안감에 사로잡힌 두식이 열쇠를 달아 잠금장치를 해놓고 태정은 두식의 행동에 미심적어 하지만 어쩔수 없어 한다. 두식의 불안감은 갈수록 고조되어 7호실 출입구에 책장을 놓고 DVD를 쌓아 놓는다.

어느날 "우형사"(전석호역)가 DVD방을 찾아와 무엇인가 조사를 하려 하고 시체를 숨겨 두었던 두식은 놀란 가슴을 달래며 돈으로 매수해 가까스로 돌려 보낸다. 시체를 DVD방에 둘수 없었던 두식은 여행용 가방에 넣어 쓰레기차에 실어 보내려 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누나"(황정민역)의 치킨가게에 숨겨 놓는다. 그러나 치킨가게의 창고수리로 인하여 다시 7호실로 시체를 가져와 은닉하는 과정에서 마약을 발견하고 압구정동역 보관함에 은닉해 놓는다.

결국 태정 또한 한옥의 시체를 알게 되고 두식 또한 태정의 마약을 알게 되었음을 말해준다. DVD방 매각이 급한 두식과 마약을 넘겨야 하는 태정은 서로의 비밀을 담보로 시체 처리를 서두른다. 그 과정에서 우형사와 경찰들이 경찰견을 데리고 DVD방에 나타나고 두식은 필사적으로 막아서지만 드디어 7호실방은 열린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시체를 잃어버린 두식은 태정을 찾아 시체를 내 놓으라고 요구하고 태정은 마약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는 일탈행위가 일어난다.

태정은 한옥의 시체를 두식에게 넘기고 두식은 마약을 태정에게 넘겨준다. 교감선생님이 DVD방을 인수하고 두식은 남은 돈으로 낙향을 서두른다. 그의 차에는 여전히 한옥의 시체가 실려져 있다. 태정은 한적한 곳 갈대숲가에서 마약을 강물에 던져 버리고 자신의 길을 걸어간다.

DVD방을 인수한 교감선생님이 개업을 하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났다. 인생의 여정 가운데 실패는 또 다른 실패와 과오를 남긴다. 두식은 DVD방 매매를 앞두고 일어난 우발적인 사망사건을 지혜롭게 정리하지 못함으로써 평생의 살인자로 남게 되었다. 태정 또한 사채업자의 돈을 빌린 죄로 마약에 까지 손을 대어야 하는 패악에 서게 되었다. 그리스도인은 영화에서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할까? 누구나 실수하고 실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바라 보아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순간의 모면보다 정직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과오라면 더욱 그렇다. 두사람은 아무에게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이 정상화 된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중요하다. 그것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이다.

42. “꾼”The Swindlers

한국영화, 장르:범죄 개봉:2017.11.22

감독,각본:장창원, 제작:영화사 두둥

주연:현빈,유지태,배성우,박성웅,나나,안세하,관객:4,003,285명(2017.12.18.현재)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영화”, “꾼”은 희대의 사기꾼 “장두칠”(허성태역)의 완벽한 밀항과 완벽한 사망처리를 놓고 벌이는 정치적, 사회적 진실게임을 그리고 있다. 문제는 진실의 열쇠를 여는 카테고리로 “사기꾼”들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정밀 복제전문가 “황유석”(정진영역)은 지난날의 과거를 잊고 새출발하려 하지만 “검찰총장”(김태훈역)의 마지막 부탁으로 장두칠의 위조여권을 만들어 준다. 그러나 비밀유지가 두려운 권력은 그를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다. 문제는 그에게 남은 하나의 아들 “황지성”(현빈역)이다. 황지성도 사기꾼이다. 그는 장물아비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며 살아가는 도시의 문제아다.

“이강석”(최덕문역)센터장이 운영하는 금융피라미드 사무실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장두칠이 4조원대 사기를 벌이고 잠적해 버린 탓에 그 피해자들의 수가 전국적으로 수만명에 이르고 있다. “고석동”(배성우역)과 “춘자”(나나역)와 “김과장”(안세하역), 모두가 금융피라미드의 피해자로서 장두칠을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그들은 모두 반전의 드라마를 준비하며 “박희수”(유지태역)검사의 외곽그룹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림자들이다.

“성의원”(최일화역)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유력한 후보이다. 그에겐 대권자금에 필요하고 장두칠의 거액 로비자금이 정치권에 뒤엉켜 들어가 있다. 검찰총장과 경찰서장과 국회의원 등 정관계에 걸쳐 거미줄처럼 장두칠의 로비자금은 진흙탕 그 자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로서 박희수는 장두칠을 수사한 전력을 갖고 있지만 그 또한 장두칠의 관리대상으로 그의 밀항을 주선한다.

박희수 검사는 외곽정보그룹을 동원하며 정치권의 중심부로 향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 과정에서 황유석의 아들 황지성을 만나게 되고 그와 함께 이미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장두칠을 찾기 위해 한 팀이 된다. 지능형 현대감각의 사기꾼 황지성은 연기파 베테랑 사기꾼 고석동과 전략적 미인계 사기꾼 춘자, 그리고 정보형 탐색전문 사기꾼 김과장과 함께 장두칠을 추적한다. 그러나 각자의 목적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점을 가지게 된 급조된 드림팀은 잦은 마찰을 가져온다. 장두칠의 한국내 연락책인 이강석과 접촉에 성공한 황지성과 고석동은 그를 이용하여 장두칠의 새로운 연락책인 “곽성건”(박성웅역)과 접촉하게 되고, 장두칠은 미끼용 회사의 고수익율에 300억 베팅을 하게 된다. 그러나 베팅가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나머지 2천7백억이 남아 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정치인과 박희수검사 모두가 큰 돈의 매력에 이끌린다.

언제나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드림팀 내부환경은 급변하는 오늘을 대변한다. 장두철을 잡으려는 듯한 잡지 않으려는 황지성의 전략적 두뇌 플레이와 권력과 돈에 급급한 박희수의 오염된 플레이는 언제나 충돌 일보 직전이다. 반전의 반전은 박희수의 외곽팀 내부에 있다. 타국 어디에선가 죽었다는 장두철은 정녕 죽은 것인가? 아니면 어딘가에 살아서 여전히 수많은 돈을 뿌리며 정치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가? 그것은 아무도 알수 없다. 그러나 장두철로부터 검은 돈을 받은 유력대권후보와 정치권들의 민낯은 티비뉴스에 그대로 드러난다.

박희수 검사의 말로도 마찬가지다. 2천7백억의 돈은 잣더미가 되고 그 또한 철장신세를 면하기 어려울 듯 하다. 그리고 황지성과 고석동과 춘자와 김과장과 곽승건의 새로운 미래는 또다른 정점에 들어선다. 인생은 언제나 반전의 맛이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반전의 반전은 영화에서나 만날법 하다.

영화는 끝이났다. 반전의 반전을 이어가는 끈의 영화는 드라마 "귓속말"을 연상케 하되 다소 절제된 분위기다. 현빈과 유지태와 젠틀맨 박성웅의 등장으로 영화는 흥행을 예고한다. 그러나 사기꾼으로 사기꾼을 잡는 행위와 정치적 부패와 검찰의 일탈은 우리 사회를 불신의 굴레속으로 몰아 가는듯 하여 안타까울 뿐이다. 그리스도인은 영화에서 무엇을 경험할까? 인생은 언제나 진실이 패배하는 듯 하다. 착함이 모자라는 듯 하고 선함이 실패자로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선택은 진실과 선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사기꾼의 말로는 언제나 좋지 않다. 죽을 때까지 잘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과 관계되거나 가해자와 비슷한 입장에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오히려 이들을 말려야 하고 선한 길로 인도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이 땅의 본분이 될것이다.

43. “기억의 밤”Forgotten

한국영화, 장르:범죄,미스터리,스릴러 개봉:2017.11.29
감독,각본:장항준, 제작:비에이엔터테인먼트,미디어메이커
주연:강하늘,김무열, 관객:1,380,373명(2017.12.19.현재)

누가 보아도 행복한 가족, 엄마와 아빠와 두 형제가 승용차에 몸을 싣고 이사를 간다. 때는 1997년의 어느날이다. 이 날 누구에게 무슨일이 일어났을까? 사건의 중심으로 향하는 복잡한 스펙트럼이 시작된다. 낮에는 햇볕이 비추는 이삿날, 밤에는 소낙비가 내리며 대지를 적시어 주었다. 2층집 호화저택은 한눈에 보아도 상류층 가족임을 알수 있다. 명문대 출신의 형 “유석”(김무열역)은 다재다능한 탈렌트이지만 불의의 사고로 오른쪽 다리에 장애를 입고 있다.그에 비하여 동생 “진석”(강하늘역)은 신경쇠약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전형적인 미달자 3수생이다. 급하게 이사를 하게 된 전 주인이 2층 방 칸에 미쳐 가져가지 못한 짐이 있어서 한달간 임차를 하기로 했다. 그날 저녁 가족이 식탁에 앉아 식사를 나누는 시간, 어디선가 “쿵”하는 소리가 들리지만 진석외에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

이사 첫날, 피곤에 지친 진석을 위해 형 유석이 동생과 함께 뒷산 공원으로 향했다. 비내리는 도시의 야경은 로맨틱한 정서를 보여주며 단란한 가정의 한켠을 보여주는 듯 하다. 그때 형에게 아버지(문성근역)의 전화가 걸려오고, 형이 동생을 두고 잠시 집으로 내려간다. 형이 내려 간 후 진석은 인근 공원을 거닐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유석이 집으로 내려가던 길, 누군가로부터 납치를 당하는 다급한 상황이 일어났다. 이 장면을 뒷산 공원에서 우연하게 목격한 진석이 뛰어 내려 왔지만 차량번호만 확인했을뿐 그를 놓치고 말았다.

두명의 경찰(이성우,연제형역)이 잠복 수사를 하고 형은 납치된지 열흘이 넘어가고 있다. 아버지와 어머니(나영희역)는 유석보다 진석을 더 염려하는 눈빛이다. 19일이 지난후 형 유석이 진석의 눈앞에 나타난다. 집으로 귀가를 한 것이다. 그러나 돌아온 형은 지난 19일의 행적 가운데 어느것 하나라도 기억하지 못하는 단기 기억상실 증에 걸려 있었다. 형은 19일의 기억외에 다른 모든 것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형을 바라보는 진석의 마음은 예전과 같지 않다.

진석은 이상한 악몽에 시달리는 시간을 갖고 있다. 2층 맞은편 잠겨져 있는 방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지만 두려움과 공포도 함께 밀려왔다. 형이 집으로 돌아온후 그날 밤 형이 야심한 시간에 외출을 한다. 그러나 다음날이 되었을 때 형은 외출을 나간적이 없다고 말한다. 모든 것이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는 진석은 무엇인가의 구심을 갖기 시작한다. 다음날 밤, 잠이든 진석의 곁에 형 유석이 옆에서서 샤프심

을 한없이 눌러댄다. 결국 샤프심이 노트위에 떨어지고 형과 함께 사용하는 2층 방은 미스테리어의 공간으로 변해간다. 그날 밤에도 형이 외출을 하고 진석은 형을 쫓아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 오른쪽 다리를 저는 형은 여유롭게 걸어간다. 분명 형이 아니다. 그곳에는 두명의 형사들과 형이 무엇인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리고 진석은 그들에게 발각되어 추적을 당하고 형에게 의해 기절을 경험한다.

진석이 눈을 떴을 때는 늦은 아침시간이었고 그는 책상위에 엎드려 잠을 청하고 있었다. 악몽에서 깨어난 듯한 진석이 기억하는 밤은 너무나 생생하다 못해 사실로 받아들인다. 누구보다도 다정다감했던 유석과 진석의 관계에 틈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의심”의 단서가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한다. 일단 지금의 형은 진짜 형이 아니다. 진석은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지만 곧 어머니도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러면 아버지도 진짜 아버지가 아닌 것이 되는 이상한 상황 앞에 진석이 놓여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가족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가족이 친가족이 아닌 것이 된다. 가족을 피해 경찰서로 도피한 진석은 새로운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1997년, 스물한살로 알고 있었던 자신이 2017년 마흔 한 살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일이 가능한 것인가?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은 20년의 벽을 허물고 늙어버린 자화상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진석은 이사첫날 저사람이 형이냐는 이사짐 센터 직원의 한마디가 생각이 난다. 스스로도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했던 진석은 20년의 세월동안 무슨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인지 알고 싶어 했다.

1997년, 진석은 가족과 함께 이사를 가는 날이었다. 그러나 우연하게 일어난 사고로 부모는 즉사하고 형은 6개월째 사경을 헤메고 있다. 우연이 겹쳐지면 그것은 운명이었을까? 채팅방에 나타난 살인의 댓가가 수술비와 맞아 떨어진다. 살인을 실행하기 위해 찾아간 2층 저택의 가족을 바라보며 뒤돌아서는 순간 모든 일은 순식간에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어린 남자 아이를 제외한 여자 두사람의 생명을 앗아간다. 악은 악으로 재현되는 듯 살인의뢰자마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한 형마저 세상을 떠나버린다. 그리고 20년의 세월동안 이 사건은 미궁속으로 빠져 들어간다.

어린 남자아이가 자라나 성인이 되었고, 이 사건의 정확한 진실앞에 서고 싶었다. 최면술사의 아버지, 연기력이 뛰어난 일반여성이 조합된 1997년의 재현가족은 이렇게 진석의 그날을 만나려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진석은 바로 그날과 직면하였다. 기억의 밤은 살인으로 가족을 잃어버린 유석과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어버린 진석의 밤이었다. 인생의 허무함이란 잔인함으로 다가올때가 있다. 우발적인 사고였지만 그 결과는 치명적이다.

영화는 끝이 났다. 기억의 밤은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죄의 잔상이다. 유석과 진석은 형제이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다. 공포와 스릴러, 그리고 미스터리가 연결된 기억의 밤은 109분 내내 집중을 하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거짓과 진실의 그림자속에 가려진 죄의 기억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이미 묻어버린 죄의 흔적이 있다. 회개란 은폐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타내어 고백하는 것이다. 고백하지 않고 숨기려 할 때 또다른 시련과 고통과 죄의 반복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기억의 밤이 있다면 이제 용기를 가지고 바로 그 앞에 당당히 맞서야 할 것이다.

44. “강철비”STEEL RAIN

한국영화, 장르:액션 개봉:2017.12.14

감독,각본:양우석, 제작:와이웍스엔터테인먼트

주연:정우성,곽도원, 관객:4,450,776명(2018.01.24.현재)

“강철비”는 다연장로켓발사기와 같이 집속탄이 폭발하면서 날아가는 수만발의 강철 탄환을 말하는 것이다. 영화 강철비는 2011년 김정일의 사망으로 인한 혼란정국을 가상적으로 그린 웹툰 “스틸레인”이 그 배경이다. 한반도에서 예측 가능한 핵전쟁과 북한내부의 쿠데타와 연결한 구성으로 강철비는 초토화되는 참상의 비극을 보여주는 일보직전의 상황을 말하고 있다. 북한의 권력핵심 가운데 한 명인 “리태한” 경찰총국장(김갑수역)의 쿠데타로 시작된 북한내부의 급변사태는 개성공단 행사에 참석한 북한 1호(최성환역)의 중태로 이어지며 전직 경찰총국요원 “엄철우”(정우성역)가 개입한다. 엄철우는 리태한 경찰총국장이 재영입한 비밀요원으로 북한 내부 권력실세 “박광동”(이재용역)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는 첩보를 듣고 조기에 개입하려 하지만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북한1호와 함께 남쪽으로 탈출한다. 북한 내부의 쿠데타로 인하여 중국측 정부요인들이 남쪽으로 차를 몰아가는 통에 그 틈에 끼여 든 것이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인 “곽철우”(곽도원역)는 외과의사인 “최수현”(김지호역)과 이혼 후 정기적으로 아들과 딸을 만나지만 여전히 국정으로 바쁜 일정을 보내고 이를 목격한 최수현이 그를 남겨 둔채 아이들과 식당가를 떠나 버린다. 한편 때를 같이하여 남한으로 내려온 엄철우는 동행자인 두명의 개성공단 여직원들과 함께 “권숙정”(박은혜역)이 운영하는 산부인과에 들어간다. 총탄이 머리에 박힌 북한1호에 대한 임시처방은 했지만 산부인과 장비와 의술로는 역부족이다. 결국 친구이며 외과의사인 최수현의 병원으로 직행하지만 이 과정에서 북한 정보국 요원들의 총격을 받아 북한여성 1명이 결국 사망한다.

권숙정의 112신고로 우연하게 사건을 접한 곽철우 수석은 전부인 최수현의 병원에서 엄철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특수부대의 등장으로 엄철우는 체포되고 북한1호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린다. 엄철우는 온몸에 퍼진 암세포로 말미암아 만약 주사가 아니면 하루도 연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내부의 쿠데타로 현직 “이의성”대통령(김의성역)과 차기 대통령 “김경영”(이경영역)간에는 미세한 이념적 차이를 보여준다. 대북 강경파인 미국무장관 “미이클롭스”(론 도나치역)는 현정부 잔여기간 내 북한을 진압하고 조기에 전쟁을 마감하려 한다. 이에 대하여 현직 대통령은 동의하고 차기 대통령은 미온적인 태도를 밝힌다. 한편, 미 CIA한국지부장 “조앤마틴”(크리스틴 델턴역)과 주한중국대사 “당홍차이”(나광훈역)가 한국전쟁의 위기상황에서

각각 일본과 중국으로 귀국하는 등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들의 출국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내부는 리태한 국장의 쿠데타 성공으로 조기에 북한정권이 그의 손아귀에 들어간다. 박광동의 쿠데타로 알고 있는 엄철우는 리태한과의 통화를 거듭하며 북한 1호의 치료와 복송을 주도하려 한다. 북한1호의 생사여부와 북한이송을 위한 북남 접촉이 시도되었다. "박병진"비서실장(정원중역)은 국정원을 제치고 청와대가 나서서 북측대표 박광동과 접촉하려 하지만 어이없게도 북한 정보당국자들로부터 기습을 받아 전원 사망하고 만다. 이 장면을 목격한 곽철우 수석과 엄철우는 리태한 국장을 의심하지만 뚜렷한 단서가 없다.

리태한의 심복 "최명록"(조우진역)요원은 북한1호 사살을 위해 대학병원에 침입하지만 실패하고 엄철우와의 일전 끝에 몰살 당한다. 북한 핵무기를 접수한 리태한은 동해상으로 핵무기 한 대를 쏘아 보내며 선전포고를 하는 등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다. 그러나 모든 전모를 알게된 엄철우는 자신을 매개로 위치추적기를 달고 평양으로 입성한다. 결국 정조준된 핵무기 기지는 완전 폭파되고 쿠데타는 실패로 끝난다. 한국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김경영 정부의 책사격인 "정세영"(장현성역)교수가 곽철우와 함께 북한을 방문해 새로운 평화노선을 구축한다.

영화는 끝이 났다. 한국의 위기 상황에서 상영된 영화 강철비는 상영 5일만에 관객 180만명을 돌파했다. 남북이 치열하게 대치중인 상황에서 강철비는 우리의 현실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진정한 애국심과 리더십은 무엇일까? 정치적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비서실장의 구태적인 행태와 대비되는 외교안보수석의 리더십은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된다. 비서실장의 은밀한 계획은 전멸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지만, 외교안보수석과 엄철우의 계획은 북한 쿠데타의 종식과 평화노선을 가져온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영화를 통하여 무엇을 고민해 볼수 있을까? 남북의 위기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필요하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도 그 계획에는 또 다른 리스크가 존재한다. 사람은 3초후의 미래도 예측하지 못한다. 귀가길 통화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기도 하고, 사건사고를 당하거나 원하지 않는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예측불허의 미래다. 국가의 문제는 더욱 그렇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꿈이 국가속에 담겨져 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상의 키워드다. 그리고 지혜와 용기다. 교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 한다. 회개와 각성은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기회를 제공한다. 지혜와 용기는 국가를 경영하는 도구가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과 가정을 넘어 도시와 나라에도 영향을 미친다. 국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전쟁은 이 땅에서 항구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45. “신과함께-죄와벌”Along With the Gods: The Two Worlds

한국영화, 장르:드라마,환타지 개봉:2017.12.20

감독,각본:김용화, 원작:주호민, 제작:리얼라이즈픽쳐스,덱스터스튜디오

주연:하정우,차태현,주지훈,김향기,김동욱, 관객:14,215,486명(2018.02.05.현재)

웹툰작가 “주호민”의 “신과함께”를 영화화 한 “신과함께-죄와벌”은 한국의 전래설화와 종교적 색채를 가미한 저승세계를 그려낸 최초의 시도다. 네이버 웹툰1위와 45만권의 단행본 판매라는 진기록을 갱신한 신과함께를 영상미학으로 그려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하정우, 차태현, 주지훈, 김향기, 김동욱을 비롯하여 이정재, 김해숙, 이경영, 김하늘, 유준상, 마동석, 오달수, 임원희, 이준혁, 장광 등 대한민국 초호화배우들을 총동원하며 2017년12월을 장악하고 있다.

망자의 환생을 책임지는 삼차사의 리더이며 저승세계 변호사인 “강림”(하정우역), 망자와 차사들을 호위하며 저승세계 7개의 관문을 인도하는 일직차사 “해원맥”(주지훈역), 강림의 보조변호사이며 월직차사인 “이덕춘”(김향기역), 천륜지옥의 재판관이며 동시에 저승세계를 다스리는 대왕 “염라”(이정재역), 그리고 19년만에 나타난 귀인이며 소방관인 “김자홍”(차태현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전혀 다른 세계, 저승을 만난다.

누군가에 의하면 “저승법”은 모든 인간은 사후 49일동안 “살인, 나태, 거짓, 불의, 배신, 폭력, 천륜”에 관한 7회의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 저승법 1조1항에는 예외가 있다. “저승은 이승에서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만이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 가운데 지극히 일부만이 용서를 받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사람을 “귀인”이라고 부른다. “귀인”은 “명부에 없는 억울한 죽음을 당해 천수를 누리지 못했거나 자신보다 항상 남을 돕고 배려하며 정의로운 삶을 살았던 망자”를 의미한다.

“저승”이란 현세계인 “이승”과 달리 사람이 죽은 후 그 혼령이 가서 산다고 알려진 세상으로 지금까지 그곳을 이승에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고 확인되지 않았지만 분명 존재하는 세계로 알려져 있다. “망자”란 망인으로도 불리우며 이승에서 생명이 완전 소멸된 사람을 의미한다. 망자는 망자 스스로 저승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반드시 그를 데려오는 저승세계의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차사”다. “차사”란 “저승세계의 왕이 중요한 임무를 위하여 파견하던 임시벼슬로 관아의 하인”격이다.

시각장애인 어머니와 남동생을 두고 가출한지 15년째, 홀로 사는 “김자홍”은 소방관이다. 그는 뜻하지 않은 화재사고 현장에서 여자 아이들을 구하지만 동료 소방관은

끝내 구하지 못한채 목숨을 잃는다. 그가 죽은후에 그의 앞에 나타난 저승차사 해원맥과 이덕춘이 그를 저승으로 인도한다. 저승으로 가는 출입구 "초군문"에서 기다리는 또 한사람, 그는 모든 차사들의 리더인 동시에 저승의 변호사로 알려진 "강림"이다. 김자홍은 앞으로 7개의 지옥관문을 넘어서야 한다. 그는 48번째의 망자다. 차사들은 염라대왕에게 천년의 세월동안 49명의 망자를 환생시키는 댓가로 자신들이 인간으로 환생한다는 보상규정을 희망으로 삼고 있는 존재로서 김자홍의 발견은 참으로 중요한 변호였다. "환생"이란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난 천년세월 동안 47명만이 환생하였다는 측면에서 지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살인지옥"은 살인을 했거나 살인의 원인제공에 가담하는 언행을 한 사람에 대한 심판지옥으로 화염과 연기로 채워진 "화탕영도"를 지나야 도달한다. 죄인은 용암이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화탕형을 받게 되며 이곳의 지도자는 "변성대왕"(정해균역)이다. 김자홍은 화재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을 구명하는 과정에서 동료 소방관(유준상역)을 구하지 못했다. 판관들(오달수,임원희역)은 이것을 간접살인으로 보고 유죄를 구형하였으나 변성대왕은 고귀한 희생으로 보고 무죄선고를 내린다.

"나태지옥"은 무위도식하며 태만과 불성실로 인생을 허비해 버린 사람을 심판하는 지옥으로 사람얼굴의 날카로운 이를 가진 인면어가 날뛰는 "삼도천"을 지나야 도달한다. 죄인들은 끊임없이 회전하는 붕을 피해 평생토록 달려야 하는 형벌을 받게 되며 이곳의 지도자는 "초강대왕"(김해숙역)이다. 김자홍은 15년전 헤어진 시각장애인 어머니(예수정역)와 남동생인 "수홍"(김동욱역)의 생활비를 위해 식당보조와 대리운전 등 밤낮없이 일을 하고 있다. 나태함이란 그 어느 곳에서도 찾을수 없다. 당연히 무죄다.

"거짓지옥"은 생전에 하였던 거짓말과 거짓행위에 대하여 심판하는 지옥으로 칼날로 이루어진 "검수림"을 지나야 도달한다. 검수림의 나무들이 망자의 육체를 난도질하는 형벌을 가하는데 이곳의 지도자는 "태산대왕"(김수안역)이다. 김자홍은 화재피해자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거짓의 편지를 보냈다. 아이들은 거짓인줄 알면서도 기대함을 버리지 않기 위해 그 편지를 기다리고 있다. 판관들은 상처치유를 위한 거짓은 양면의 칼날과 같다고 유죄를 구형하지만 태산대왕은 무죄선고를 내린다.

"불의지옥"은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지옥으로 빙하와 설원으로 이루어진 "한빙협곡"을 지나야 도달할 수 있다. 죄인은 얼음덩어리속 얼음블록에 갇혀 평생 지내야 하며 이곳의 지도자는 "오관대왕"(이경영역)이다. 평생 불의함없이 정의를 위해 일해온 소방관 김자홍의 무죄가 당연히 되었지만 뜻밖의 눈보라로 위기에 봉착한다. 귀

인 완결을 위해 이승으로 내려간 강림이 이승세계의 사건에 개입함으로 벌어진 일련의 사고 때문이었다.

“배신지옥”은 자신을 신뢰한 다른 사람의 신뢰를 저버린 자를 심판하는 지옥으로 투명유리바닥으로 이루어진 “백염광야”를 지나야 도달할 수 있다. 죄인은 거울에 갇히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곳의 지도자는 “송제대왕”(김하늘역)이다. 김자홍은 다른 사람을 배신하거나 신뢰를 잃어 버리지 않았다. 당연히 무죄다.

“폭력지옥”은 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심판하는 지옥으로 죄질에 따라 그 깊이가 결정되는 “진공심혈”을 지나야 도달할 수 있다. 죄인은 진공상태의 싱크홀을 떠다니며 날아 다니는 바위 덩어리에 맞는 치명적인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곳의 지도자는 “진광대왕”(장광역)이다. 김자홍은 가난과 빈곤의 늪에 빠진 가정환경이 두려웠다. 어머니의 병환은 깊어가고 집에는 먹을 것 하나 없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먼저 어머니를 죽이려다 이를 말리는 동생에게 한시간이 넘는 폭력을 가한다. 이것으로 죄책감에 빠진 김자홍은 가출하여 그후 15년동안 단 한번의 연락도 없이 귀가를 하지 못했다. 이 사건으로 김자홍은 폭력지옥의 싱크홀로 빠져 들어갔지만 합산청구를 요청한 덕춘의 청원으로 천륜지옥으로 향한다.

“천륜지옥”은 부모자식간에 일어난 죄를 심판하는 지옥으로 끊임없는 모래가 쌓여진 “천고사막”을 지나야 도달한다. 죄인은 천고사막에 생매장되는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곳의 지도자는 모든 지옥의 왕인 “염라대왕”(이정재역)이다. 김자홍은 분명 가출하여 15년간 집으로 귀향하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이 어머니를 죽이려 할 때 어머니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자신의 죽음으로 두 아들을 살리고 싶었다. 그리고 지난 모든 것을 용서하였다. 동생은 형을 용서하고 형은 가족에게 진 빚을 돈으로 갚으려 했지만 결국 용서의 댓가는 돈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이었다. 살인으로부터 나태와 거짓과 불의와 배신과 폭력과 천륜에 이르기 까지 모든 과정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자홍은 “환생”결정이 내려진다.

수홍은 착한 동생이다. 군생활중에서 알게된 왕따 고문관 “원일병”(디오역)을 도와주고 군생활의 후원자가 되었다. 그의 착한 심성으로 “박중위”(이준혁역)는 표창장을 받으며 진급대상자가 되지만 우발적인 사고로 제대를 앞둔 김수홍 병장이 원일병이 쏜 총을 맞고 중태에 빠지게 된다.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김수홍은 박중위와 가해자인 원일병을 최대한 배려하였지만 박중위와 원일병은 아직 생사가 불투명한 김병장을 생매장 시켜 사건을 은폐한다. 죄책감에 시달린 원일병이 자살을 결심하지만 수홍의 진심어린 용서와 강림의 도움으로 구사일생한다. 그러나 김수홍 병장의 선행으로 진급에 까지 이르는 박중위의 태도는 사뭇 대조적이다. 시각장애인 어머니가 진실규명을 위해 군부대에서 시위를 하자 폭력적 행위로 밀어내는 등 사악

한 행동을 서슴치 않았다. 원통한 한을 품은채 원귀가 된 수홍은 폭력적 행위로 사악한 무리를 단죄하려 하지만 강림과 대치하며 심성을 바로 잡으려 한다. 이제 수홍은 49번째 귀인으로 재탄생한다.

마지막 엔딩은 "저승차사"(김민종역)와 "성주신"(마동석역)이 대미를 장식하며 영화는 끝이 났다. 사람이 태어나 자신의 일생을 진단하며 7가지의 심판대위에 오른다. 저승은 냉정하지만 때로 감성과 감동이 자리하며 인간미를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은 영화를 보며 무엇을 생각해 볼수 있을까? 전혀 다른 감각으로 등장한 신과 함께 라는 영화가 무서운 질주로 관객들을 극장가로 인도하는 힘에 충격을 받을만 하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저승은 영화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 이승과 저승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현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예를 들면 소돔고모라성에서 롯의 집을 에워싼 성 사람들의 일탈에 대해서 천사들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사건을 일으킨다. 이러한 사례는 지극히 예외적이다. 인간이 지옥에 간다면 그것은 이미 그것 자체만으로 심판이 끝난 것이다. 그곳에서 예외가 인정되어 다시 나올수 없고 천국으로 가는 것도 불가하다. 천국에 들어간 자가 지옥에 가는 것도 불가하고 처음부터 그 행로는 미리 정해져 있다. 한번 정해진 것은 그 기한이 없다. 영속적으로 그곳에서 살게 되되 그것이 고통일지라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인은 현세의 삶과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것을 바탕으로 가야할 나라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신과 함께라는 영화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경험을 가져다 준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방식이 전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화를 통하여 회개와 각성의 질문을 받는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회개와 각성과 자성의 시간이라는 것을 신과 함께가 전해 주려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시간이다.

46. "1987": When the Day Comes

한국영화, 장르:드라마 개봉:2017.12.27
감독:장준환, 각본:김경찬, 제작:우정필름
주연:김윤석,하정우,유해진,김태리,박희순,이희준,
관객:7,183,959명(2018.02.05.현재)

1.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박종철"(1964.04.01.~1987.01.14.)은 민주운동가로 부산에서 출생하여 해광고등학교 졸업 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학생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86년 노동자학생연대 투쟁에 참여하던중 청계피복노조합법화 요구 시위로 구속되어 집행유예2년 선고를 받고 3개월만에 출소된바 있다. 1987년1월13일 자정, 박종철의 하숙집에서 치안본부 대공분실 수사관 6명에게 긴급 체포되었다. 대한문화연구회 선배이며 민주위 지도위원인 "박종운"을 체포하기 위해 연락책인 박종철을 연행한 것이었다. 취조실로 끌려간 박종철은 잔혹한 폭행과 전기고문과 물고문 등에 시달렸지만 끝내 박종운의 소재를 말하지 않았다. 결국 1987년1월14일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남영동 분실 509호 조사실에서 사망하고 말았다. 11시45분 중앙대학교 용산병원으로 긴급 호송되었지만 이미 사망한 후 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중앙일보 신성호 기자에 의해서 최초로 나왔다. 그러나 강민창 치안본부장은 냉수를 몇컵 마신후 심문을 시작하였는데 친구의 소재를 물으며 책상을 "탁"하고 쳤더니 갑자기 "억"하는 소리를 지르면서 쓰러져 중앙대 부속병원으로 옮겼으나 12시경 사망하였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중앙대 내과전문의 오연상 부검의는 대공분실 509호 사건현장에서 고문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1월14일밤 경찰은 은폐목적으로 시체를 화장할 계획을 갖고 있었으나 최환부장검사가 사체 보존명령을 내리고 사건 지휘또한 안상수 검사가 하였다.

1월15일 오후6시,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부검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 황적준박사와 한양대학교 박동호교수가 참여 하였고, 부검결과 온몸에 피멍과 엄지와 검지간 출혈흔적과 사타구니,폐 등이 훼손되고 복부팽창과 폐에서 수포음이 들렸다. 부검결과를 놓고 경찰의 회유와 협박을 받았던 황적준 박사의 언론공개로 당시 치안본부장이 구속되었다.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은폐를 위해 경찰은 가족허락없이 벽제 화장터에서 시신을 화장해 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당시 전민련 이부영 상임의장과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사제단의 노력으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조작을 폭로하였으며, 이 사건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이 오간 정황까지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성공회 서

울주교좌대성당에서 6월항쟁이 시작되었으며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

2. 영화 1987년

1987년 1월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취조를 받던 22세의 대학생 "박종철"군(여진구역)이 사망하였다.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의사가 긴급하게 대공분실에 도착하였지만 학생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대공분실 "박처장"(김윤석역)은 "치안본부장"(우현역)을 통하여 서울지검 "최검사"(하정우역)에게 사체 화장 허가서를 요구하였다. 최검사는 상부의 강압에 의해 허가서에 도장은 찍어 주었지만 부검명령서를 발부하여 부검만큼은 반드시 하도록 단서를 달았다.

한양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부검에는 한양대 의대교수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의와 함께 참여하였고 유족대표로는 박종철의 "삼촌"(조우진역)이 증인으로 참여하였다. 부검결과 고문치사가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치안본부 대공분실은 서둘러서 시신을 화장해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 치안본부를 찾은 중앙일보 기자가 우연하게 대공분실에서 대학생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긴급타전함으로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안기부장"(문성근역)은 박처장과 만남에서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이 조용하게 수습될 것을 요청했지만 사건이 공개됨에 따라 중앙일간지들의 경쟁을 보도지침만으로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중앙일보에 이어 동아일보 "윤기자"(이희준역)의 집요한 사건추적에서 최검사가 남겨둔 자료를 기반으로 고문치사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공안통 박처장의 기세에 눌려진 최검사는 검사직을 사임하고 변호사로 나선다.

사건이 확대되자 대공분실 "조반장"(박희순역)과 형사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가해자로 책임지고 감옥에 들어갔다. 교도소 교도관으로 근무중인 "한병용"(유해진역)은 동아일보 해직기자로 수감중인 "이부영"(김의성역)과 외부인사로서 도피중에 있는 "재야인사"(설경구역)의 연결고리로 비둘기 역할을 하고 있다. 한병용 또한 수사관들의 추적망에 걸려 있어서 조카인 "연희"(김태리역)가 대리전달자로 나섰다. 연희는 87학번 신입생으로 "이한열"(강동원역)과 만나면서 정보의 중요한 비둘기 역할을 하였다.

조반장을 끝으로 박종철고문 치사사건이 종료될 것으로 보았던 박처장은 중앙일간지 "사회부장"(오달수역)의 신념과 기자들의 추적을 통한 언론공개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김승훈 신부"(정인기역)의 폭로로 그 전모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이어 이한열 학생이 최루탄에 맞아 다시 사망하는 사

건이 발생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은 핫불을 넘어 전국적인 소요로 치달았다. 결국 박 처장과 남영동 대공분실 형사들이 줄줄이 체포되면서 공안통치의 공포에도 해가 지고 있었다.

감추고 은폐하려 하였던 공안정치의 막장인 고문통치가 종식되면서 영화는 끝이 났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없이 고문당하고 죽거나 장애인이 되었는지 알 수 없다. 영화는 마치 한편의 다큐멘터리처럼 진행되었다. 수많은 호화배우들이 캐스팅되어 역사의 한페이지를 만들어 갔다. 국민들의 생활 건너편 어두운 곳에서 일어난 일들이 세상밖으로 전달되기 위해 누군가는 엄청난 고통속에서 외롭게 죽어야만 했다. 진실이 밖으로 나왔을 때 이제 그러한 일들은 멈추어야 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모든 고문과 폭압은 완전히 궤멸된 것인지 여전히 알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영화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는가? 저항할 힘도 없이 폭력에 방치된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앞에서도 무기력함을 드러내었던 비겁한 제자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야 할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의 가장 바른 실현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위대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와 공평이고 자신감이다.